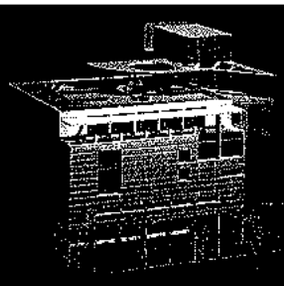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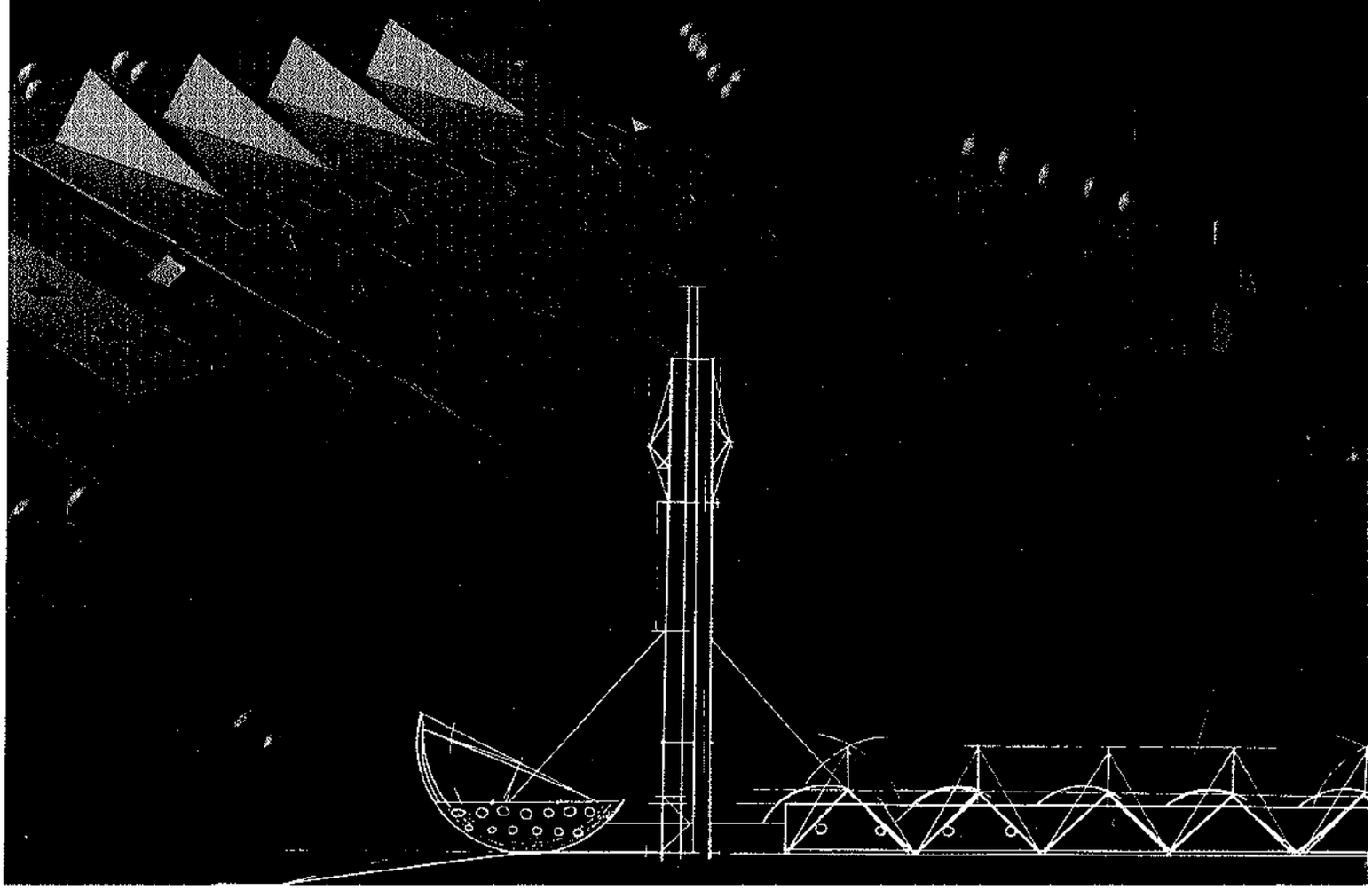
1997 05 vol. 337

칼럼_____ 구심점이 필요한 건축계

기획특집__ 국내건축사의 해외진출 방안

작품리뷰__ 원실업천안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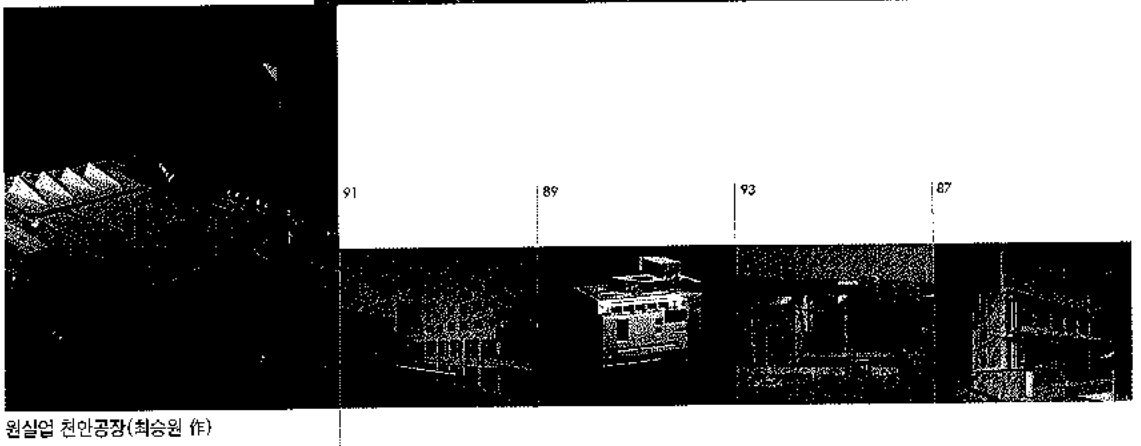
기획연재__ 한국의 건축가 ⑨-김중업(3)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1997년 5월호. 통권337호.

건축사

차례 1997 05 337호



원실업 천안공장(최승원 作)

칼럼	구심점이 필요한 건축계	이상해	28
시론	공공청사 설계·시공 일괄입찰 확대, 과연 타당한가	김문채	30
기획특집 3	국내건축사의 해외진출 방안		33
작품리뷰 / 원실업 천안공장			
	작품－원실업 천안공장	최승원	66
	대담－직관적 감성과 테크놀러지의 모순엇법적 수사	우경국	73
	비평－비상을 꿈꾸는 "이카루스"	정진국	81
회원작품	신사동 주택	함인선	86
	평촌종합상가	김영택+최수익	88
	영동전문대 학생회관	이성걸	90
	삼성의료원 어린이집	한상묵+이해원	92
	잠실시그마타워 빌딩	강기세	94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9 - 김중업(3)	조인철	96
건축기행	중국 고건축(古建築) 기행(완)	김도경	104
기고	합성수지 가요 전선관 사용의 구조 안전성 검토	이창남	110
건축마당	협회소식		111
	건축계소식		113
	현상설계		118
	계획작품		124
	해외잡지동향		128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34
	신입회원		136
	게시판		138

발행인 : 김영수
편집기획 : 편찬위원회
편찬위원 : 방철린(위원장), 승효상(부위원장)
동정근, 심영섭, 양남철
편집 · 취재 : 양원석, 정효상, 조한국, 윤태일
발행처 :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 1965년10월23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 137-070
전화 :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 (02)586-8823
U. D. C : 69/72(054-2) : 0612(519)
인쇄인 : 이동수/정문사 (02)266-4555

Publisher : Kim Young-Soo
Editor : Editorial Committee
Editorial Member : Bang Chul-Lin, Seung Hchioh-Sang, Dong Jung-Geun, Shim Young-Sub, Yang Nam-Chul
Assistant Editor : Business Expansion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4
Fax : (02)586-8823
U. D. 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 월간 "건축사"는 한국건설들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은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Contents Vol. 337 May 1997

Column

Architecture Needs a Strong Centripetal Force — Lee Sang-Hae — 26

Focus

Is Turn-key Appropriate for the Construction of Government Institutions? — Kim Moon-Chae — 30

Special Issue 3

Prospects for Korean Architects to Advance in International Markets — 33

Review / Ele-Port Hill

Works — Ele-Port Hill — Chio Seung-Won — 66

Interview — The Dialectical Rhetoric between Intuitive Emotions and Technology — Woo Kyung-Kook — 73

Critique — "Icarus"-Expressionistic Architecture Parlante — Jung Jin-Gook — 81

Works

Shinsa-dong Residence — Ham In-Sun — 86

Pyeongchon Complex Bldg. — Kim Young-Taik & Choi Soo-Ik — 88

Yeongdong College Students Hall — Lee Sung-Geol — 90

Kindergarten of Samsung Hospital — Han Sang-Mook & Lee Hae-won — 92

Jamsil Sigma Tower Building — Kang Ki-Se — 94

Serial

Korean Architect 9 - Kim Chung-Up (3) — Zho In-Choul — 96

Architecture Travel

Travels of Chiness Traditional Architecture(E) — Kim Do-Kyoung — 104

Feature

The Research on the Structural Stability of Hi-Flex Installations — Lee Chang-Nam — 110

News & Information

KIRA News — 111

News Wide — 113

Competition — 118

Process Works — 124

Journal Trend — 128

Statistics — 134

Entrant — 136

Conversation — 138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6~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4-6840 · 강북구건축사회/9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04-7168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52-2275 · 노원구건축사회/933-8076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552-8468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53-2892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35-0305 · 중구건축사회/231-5749 · 중랑구건축사회/437-7356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경기도건축사회/(0331)47-6129~30

파주지역건축사회/(0344)63-8902 · 평택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8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8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31)41-7987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94-4121 · 안산건축사회/(0345)9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9-263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5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 광명지역건축사회/(0333)657-6149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91)41-7371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5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33-5081 · 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54-2442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6 · 223-3088

옥천지역건축사회/(0475)33-350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43-6253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847-3082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6)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4-8500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541)32-2755

■전라북도건축사회/(0652)87-6007~8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33-2000 · 익산지역건축사회(0653)52-3796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72-3340 · 순천지역건축사회/(06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33-2000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51-1537~3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4-2541 · 문경지역건축사회/(0581)53-6677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32-3868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57-746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36)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62)44-6029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3432 · 거창지역건축사회/(0598)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5-5692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4848 · 삼천포지역건축사회/(0593)33-9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23)84-3050 · 울산지역건축사회/(0522)74-8836 · 진주지역건축사회/(0591)745-6403 · 충무지역건축사회/(0557)645-7420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62-2233

구심점이 필요한 건축계

Architecture Needs a Strong Centripetal Force

이상해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교수
by Lee Sang-Hae

「장자(莊子)」「소요유(逍遙遊)」는 "자기 분수에 응하여 아무런 속박없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주 본체와 합류하고, 몸은 세속에 있어도 마음은 늘 자연과 함께 놀고있다는 신묘한 경지"를 말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 어느 정도 깊이가 없이는 물위에 배를 띄울 수 없다. 마당의 조그마한 웅덩이에 물 한 잔을 부어놓으면 겨자씨는 뜬다. 그러나 잔을 띄우려면 가라앉으니 그는 물과 잔의 균형이 잡히지 않은 까닭이다….
>
> 가까운 시골에 사는 사람이 세 끼니 먹을 음식을 가지고 가면 돌아올 때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배가 부를 것이다. 그러나 백리를 가는 이는 하룻밤 묵고 올 마련으로 쌀가루를 넉넉히 가지고 가야 한다. 또 천리를 가려는 이는 석달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
>
> 작은 지혜는 큰 지혜를 모르고, 작은 해(年)는 큰 해의 길이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줄을 아는가? 아침에 돋아 오른 버섯은 낮과 밤의 교체를 모르고, 매미는 봄과 가을의 교체를 알지 못한다. 버섯이나 매미는 살아있는 기간이 짧다….

「소요유(逍遙遊)」의 내용은 물론 "상대(相對)구역을 떠나 절대(絶對)세계에 도달"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거기에는 구만리 창천을 꿈꾸며 유유히 날아오르는 장자(莊子)의 모습이 은유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소요유」의 내용은 사람들의 편협한 관념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사람들에게 한번 형성된 관념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사람들은 묘하게도 자기부정을 통한 자기변신을 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인지도 모른다. 자기가 보아온 세계만을 보려고 하고, 해오던 것만 고집하려고 한다. 그래서 「장자」의 「소요유」는 현대 물질문명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투영시켜 삶을 새롭게 생각케 만들고, 또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현대사회를 허전한 마음으로 되돌아보게 한다.

소문에 의하면 국내 건축설계업 분야가 외국 건축가들에게 곧 전면적으로 개방될 것이라고 한다. 다가오는 21세기를 영광스럽게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 각 분야가 꿈과 희망이 가득찬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려고 하는 시점에 들리는 반갑지 않은 소문이다. 능력에 따른 무한경쟁을 하자는 얄팍한 뜻을 표면에 들고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고달픈 세상살이, 시시비비(是是非非) 작은 문제에 연연하는 우리 건축계, 설계업계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전환의 시기일수록, 합심하여 현실을 타개해 나가야 할 어려운 때일수록, 생각나는 것은 우리 건축계의 구심점이다. 건축적 고뇌를 도닥거려주며 건축을 이끌어 가는 중심되는 힘, 생각, 능력, 집단이 필요하다. 구심점은 세상과 타협을 요구할 때, 새로운 현실이 닥칠 때, 자신을 되돌아 보게 하는 근원, 뿌리가 된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건축계가 안고 있는 난제중의 하나가 정통성의 확보이다. 기성에 대한 비판이란 사실 정통성을 지닌 구심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질 때 빛을 발휘하게 마련이다. 그것은 발전과 변화와 새로움에 대한 모색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구심점이 자리잡고 있는 기존에서 또 한 걸음 앞으로 내딛기 위한 외침

은 진보이며 그것은 새로운 구심점을 형성한다. 그런데 구심점이 없는, 기존의 무엇이 없는 상황에서, 진보의 표방이나 새로운 경향의 모색은 어쩌면 비빌 대상도 없이 울부짖는 몸짓이고,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그것은 허탈감을 자아내게 한다. 건축설계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앞두고, 이 땅에 세워지는 건축이 허기(虛飢)에 찬 서양건축가들의 건축실험장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건축계는 필요없는 것에 힘을 헛되이 써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한 상황이 많다. 지금 우리나라 건축관련 단체들은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또 미래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정보를 집적할 필요성 때문에 건축정보센터같은 것을 각기 만들고 있고, 또 그것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시켜 놓은 단체도 있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작업을 하는 건축단체들의 작업을 재조명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서로 중복되는 일들을 따로 따로 제각기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시간적, 경제적, 효율적인 측면에서 정말 낭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보화시대에 역행하는 사고방식이다. 그것은 건축단체들이 힘을 모아 공동작업을 할 때 훨씬 좋은 것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가슴아파하고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그 이유는 그러한 사안을 이끌어갈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다.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역량있는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다.

상업건축잡지가 아닌 건축단체들의 잡지만 해도 그렇다. 지금 우리 건축계 현실에서 건축단체들의 잡지는 이미 기관지적인 성격을 벗어난지 오래이다.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그 각각의 잡지들을 보면 성격이 비슷한, 중복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해서 흡족한 잡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건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로 한데 모여 의견을 모아 건축단체들이 건축정보를 공유하고 좀 더 수준높은 하나의 잡지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까? 이런 하나 하나의 사안들을 실제로 풀어 나갈 수 없다면, 건축계 일각에서 거론하기도 하는 건축단체들을 합쳐야한다는 것과 같은 큰 사안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방안도 없는 것이 아닐까?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현실의 한 부분이다. 그것은 우리 건축계에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다.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를 이야기하자는 것과 다르다.

사실, 이러한 현실과 연관하여 생각케 만드는 좀 더 심각한 일면이 우리 건축계에 상존하고 있다. 많은 건축가들은 객관적으로 고상한 예술가의 모습으로 자신이 비춰지길 원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설계 수주과정에서는 체면도 염치도 양심도 없이 돌격하여 드디어 수주에 성공하고야마는 건축가들이 많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수주하여 그 결과로 좋은 건축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건축가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예술과 밥통, 이것이 우리 건축가들이 가지고 있는 양두구육(羊頭狗肉)과 같은 양면성이다. 질 좋은, 오래도록 서 있을, 수준높은 건축을 하기가 어렵지 않은 현실이 되도록 건축가들이 노력할 때가 닥쳐왔다. 구심점을 형성할 때가 되었다.

영어에 '트레이드 오프' 라는 말이 있다. 어느 한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한가지는 양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값싼 물건을 사기를 원하면 상품의 질은 양보해야 한다. 반대로 질이 좋은 물건을 사려면 그만큼 값을 더 지불해야 한다. 내가 가진 돈을 양보해야 한다.

건축가가 사회적으로 그 직분을 인정받으려면 예술과 밥통, 그 어느 쪽을 양보해야 될까? 우리 속담에 좋은 일을 한꺼번에 겸하여 한다는 뜻을 가진 "임도 보고 뽕도 딴다."는 말도 있고, 한 가지 일에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본다는 뜻의 "꿩 먹고 알 먹는다"는 속담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긴 속담이 아닐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임도 보고 뽕도 따고, 꿩 먹고 알 먹고, 겉으로는 버젓한 예술가이고, 남이 모르는 어두운 곳에서는 추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축가의 시대는 이미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개방화의 시대일수록, 정보화의 시대일수록 그러한 양면성의 소유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정보화시대가 되면 될수록,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건축에 관한 모든 기록은 남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건축의 실명제이다. 자료가 개방되지 않던 시대에는 "꿩 잡는 것이 매"라고 할 수 있었지만, 실명제 사회에서는 남이 무어라든지 실속을 차리며 일을 이루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지금 우리 건축계는 집약된 힘을 모아 일을 해야 할 때이다. 구심점이 필요한 때이다. 구심점은 혼돈의 상황에 규율을 부여하는 힘을 가진다. 그 규율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고,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규율이다. 그것은 서구중심주의를 넘어가는 첫 발걸음이다. '명불허전(名不虛傳)' 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름은 헛되이 나는 것이 아니다. 시대가 요구하면, 그 필요에 따라 우리 건축계는 한번 형성된 편협한 관념과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해오던 것만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부정을 통한 자기변신을 할 수 있어야 발전이 있다. 구만리 창천을 주유할 구심점이 필요하다.

공공청사 설계 · 시공 일괄입찰 확대, 과연 타당한가?

Is Turn-key Appropriate for the Construction of Government Institutions?

김문채 / 대법원 건설심의관
by Kim Moon-Chae

정부에서는 소위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98년도까지 정부 발주공사의 40%를 설계 · 시공 일괄입찰(소위 턴-키 입찰)로 하기로 하고 현재 강력히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그 시행에는 많은 문제점과 모순이 내재되어 있어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원래 턴-키 계약(turn-key contract)이라는 말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써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청부계약'이라는 뜻이다. 발주자는 키를 돌리는 것만으로 족하다는 의미로, 수주한 건설업자가 대상 공사의 기획, 금융, 토지의 조달, 설계, 시공, 기계 기구의 설치 등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조달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계약으로 '설계 · 시공 일괄입찰 계약'보다 넓은 개념이다. 영국에서는 이를 package deal contract라 한다.

이 계약제도의 원래 취지는 발주자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양심적이고 믿을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대신 모든 것을 맡겨 경제적으로는 부담을 더 하더라도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골치아픈 신경을 쓰지 않을 목적으로 채택하는 계약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양심적인 건설업자의 선정과 건설업자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경쟁입찰로 하여서는 아니되는 제도이다. 부실공사를 다반사로 한다고 비난받고 있는 우리 건설업계 풍토와 국민의 세금으로 짜여지는 국가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공공건설공사가 과연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자명해진다.

또한 설계 · 시공 일괄입찰 방식은 대규모 원자력발전소나 국제공항 등과 같이,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규모가 거대하고 복잡하여 건설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획→설계→입찰→시공」이라는 종래의 방법으로 하면 설계도서의 대부분이 완성되어야 입찰에 붙일 수 있고, 그 사이에 인플레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대하여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건설의 규모와 질을 변경하지 않고 값싸게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건설기간을 되도록 단축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보다 단기간에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 및 시공기간을 오버랩시킬 필요가 생긴다. 그래서 생긴 제도가 원래의 설계 · 시공 일괄입찰 방식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와 전혀 관계없는 소규모 건물마저….

맞춤 물건을 주문할 때에는 주문서가 있어야 하고, 그 주문서에는 그 물건이 갖추어야 할 치수 · 품질 등 소위 성능(性能)이 명시되어야 제품을 인도할 때에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주문서의 내용은 양복이나 구두와 같이 재질 및 치수 등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되어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고, 일부 플랜트의 경우처럼 연간 생산량 · 단위 생산비 및 건설비만 정해 발주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건물인 경우에는 간단하게 주문서를 작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작성하는 것이 설계도서이고 이 설계도서가 바로 주문서가 되는 것이다. 이 주문서를 누가 작성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데 이를 건설업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는 제도가 설계 · 시공 일괄입찰이다.

도급(또는 청부)계약은 어떤 일을 완성할 것과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제도이다. 따라서 공사를 도급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어떤 일을 어떻게 완성해야 하는

지를 설계도서로 계약 전에 명백하게 하여 상대방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계약내용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분쟁의 소지가 줄어든다. 그런데 설계 · 시공 일괄입찰 제도는 불충분하고 애매한 내용으로 된 입찰안내서(일명 입찰지침서)로 입찰하는 제도이다.

관계 기관에서는 설계 · 시공 일괄입찰제도를 도입한 배경으로 건설업계의 책임시공 문제를 들고 있다. 어떤 일이라도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 부분적으로 부실이나 잘못이 있는 것이 세상사이다. 부실공사의 상당 부분이 설계부실에 기인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부실공사는 원천적으로 공사를 하는 건설업자에게 책임이 더 있다. 설계도서에 명백하게 되어있는 데도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음으로써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부실공사를 할 개연성이 많은 건설업자에게 설계마저 맡기는 제도가 설계 · 시공 일괄입찰이다.

설계도서가 완벽하게 작성되어 발주하는 종래의 입찰방식인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설계도서에 명백하게 되어 있는 사항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설계도서의 내용 해석을 둘러싸고 공사현장에서는 감리자(감독자)와 건설업자 사이에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데, 설계도서(주문서)를 건설업자 주도로 작성하고 건축주인 발주기관은 건설업자가 하는 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설계 · 시공 일괄입찰제도이다.

설계 · 시공 일괄입찰제도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입찰안내서(지침서)에 따라 건설업자가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4명의 실시설계 적격후보자를 선정하고, 조달청에서 이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여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이 자가 실시설계를 하여 발주기관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설계 적격으로 판정받으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건물인 경우에 기본설계에서 실의 배치 등 평면 구성이나 외관 등 주요부분이 모두 결정되는데 해당건물을 필요로 하고 사용하게 될 발주기관이 기본설계 결정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건물을 사용하게 될 발주기관마다 수행하는 업무가 다르고 독특한 기능이 있어 이에 대한 적합여부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가장 잘 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말이다. 만약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것과 다른 건물로 설계될 경우에는 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하게 될 것은 명백하다. 이처럼 건축주인 발주기관을 설계결정에 완전히 배제시킨 것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설계 · 시공 일괄입찰제도이다.

설계 · 시공 일괄입찰제도는 제도의 근본 취지나 규정상으로는 수 많은 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만약 100개 업체, 아니 20개 정도의 업체가 참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많은 업체에서 한 설계 및 도서 작성비가 얼마가 될 것이며, 심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소요되는 비용 · 인력 및 시간은 얼마이겠는가? 이것을 '국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위한 제도라고 하고 있다. 이 제도로 '국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달성하려면 건설업자가 담합하여 수개 업자만 참가할 때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관계기관에서는 설계 · 시공 일괄입찰제도가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을 촉진하여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유리하므로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건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신기술 · 신공법이 개발 보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신기술이나 신공법이란 원래 그 적용실적이 적고 실제 건물에 적용하여 장기간에 걸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장점도 있겠으나 실패할 확률도 대단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만약에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공공청사에 신기술 · 신공법을 채택하여 실패라도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이 지는가? 설계 · 시공 일괄입찰제도 확대를 주관한 기관에서 지는가? 아마도 문제가 된다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신기술 · 신공법의 보급 확대는 다른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공공청사를 신기술 · 신공법의 시험장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사실 일반 건물의 경우 신공법 · 신기술을 적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 지금까지 설계 · 시공 일괄입찰로 시행된 건물의 경우를 분석해 보면 쉽게 파악될 것이다.

공공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공정성이다. 설계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현상설계로 하는 경우에도 심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설계비는 10억원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아야 수십억원이다. 그런데도 말들이 많다. 단지 공사비만을 써 내어 그 자리에서 개봉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래의 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담합이다, 예정가격 누설이다 등 말이 많은데, 최소 수백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의 시공자를 설계심사로 결정하게 되면 심사위원의 권한은 막강하고 심사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그 공정성에 많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도가 설계 · 시공 일괄입찰이다.

관계기관에서 설계 · 시공 일괄입찰의 장점으로 꼽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기술인력이 부족한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 이다. 기술인력이 부족한 발주기관이란 도대체 어느 기관을 말하는 건지, 설사 기술인력이 부족한 기관이 있다면 그런 기관일수록 제3자에게 설계를 맡겨 발주기관의 기술능력을 보완함이 타당하지 계약 상대방인 건설업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 건설업자 마음대로 해야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전형적인 시공 도급방식에 비해 공사기간의 단축이 가능하고' 라는 것을 장점으로 나열하고 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는 공사기간의 단축은 커녕 입찰 절차의 복잡과 번잡함으로 인해 오히려 사업기간이 더 길어진다.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곤혹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업자에게 적정한 이윤이 나게 해 주어야 한다는 명분과 공복(公僕)으로서 국민이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절약해야 한다는 소명(召命) 사이에서 고민하는 일이다. 종래의 입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계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서 설사 적정 공사비 이하로 낙찰자가 결정되더라도 건설업자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공사를 완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설계 · 시공 일괄입찰은 설계를 건설업자가 하므로 건설업자가 적자를 보게끔 설계하지 않을 것임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 · 시공 일괄입찰 제도는 건설업자에게는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이나, 국가예산을 절약하는 데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이다.

설계 · 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서 작성(발주기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사(건설교통부)→심사결과 통보→집행기본계획서 조정 제출(발주기관)→공고(건설교통부)→입찰안내서 작성(발주기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사→심사결과 통보→입찰안내서 조정(발주기관)→입찰 의뢰→입찰 공고(조달청) →기본설계도서 작성 · 제출(건설업자)→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사→실시설계 적격 후보자 4인 선정→P.Q심사(조달청)→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실시설계(실시설계 적격자)→실시설계 적격심사(주로 발주기관)→설계 적격여부 통보→설계 적격시 계약체결, 설계 부적격이거나 입찰가격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하여 앞의 절차를 반복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건설업자가 선정되어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대형공사인 경우), 미관 심의, 에너지 심의, 건축 협의 등 수 많은 행정절차를 또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 또는 심의위원의 주관에 따라 이래라 저래라 정말로 장단 맞추기가 무척 힘들다. 도대체 공공기관에서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데에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무엇을 얻겠다는 건지?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 · 시간 · 비용이 그 얼마이겠는가?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국가경쟁력 운운할 수 있겠는가.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데도 이 지경이니 민간인의 경우에는 어떨지 짐작이 간다.

설계의 기본적인 내용이 담긴 것이 기본설계이고, 공사비는 상세한 실시설계가 나와야 산출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설계 · 시공 일괄입찰제도는 기본설계를 제출할 때에 공사비(입찰금액)를 써 내야 한다. 그러니 건설업자가 제대로 된 공사비를 써 내려면 필요없게 될 지도 모르는(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실시설계를 사전에 하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써낸 공사비에 맞추어 실시설계를 해야 한다. 만약 공사비를 적정 공사비보다 적게 써낸 경우라면 실시설계의 내용이 어떻게 될 지 뻔하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설계 · 시공 일괄입찰제도는 건설공사 시행절차의 기본과도 맞지 않는 제도이다.

이 글의 내용은 건축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필자의 개인적인 소신이자 견해임을 밝혀 두면서, 이 외에도 많은 것을 지적하고 싶으나 지면관계로 줄이고자 한다. 무슨 제도나 정책을 정하여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에 의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하고,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여 그 효율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정해진 정책이라도 시행과정에서 재점검하여 필요하다면 수정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도이다. 무슨 일이 생기면 대책을 세운다는 명분아래 '의무화', '적용 확대', '권장', '유도' 등의 이름으로 새로운 '조임틀' 을 많이 만들어야 유능하고, 그래야 무슨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실적보고를 많이 받아야 마음을 놓는 그런 풍토는 이제 끝내야 한다.

국내건축사의 해외진출 방안

Prospects for Korean Architects to Advance in International Markets

WTO(세계무역기구)출범 이후 국제적인 설계시장 개방 및 교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건축계도 그동안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외국건축사의 국내진출과 시장잠식을 우려한 수세적 자세에 머물러 왔으며, 이를 적극적인 자세에서 국내건축사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데에는 소홀히 해온 듯하다.

본지는 이와같은 배경에서 '국내건축사의 해외진출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획특집을 마련, 한국건축의 해외 설계시장 진출상황과 잠재력, 바람직한 접근방향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살펴봄으로써 개방화 · 국제화를 국내건축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건축사사무소의 해외진출 현황 _____ 오남국
해외건축설계의 문제점과 나의 경험 _____ 류춘수
그간의 해외 프로젝트를 반추하며 _____ 민경식
해외진출 - 우리에게도 기회는 올 것인가? _____ 김병현
현안과제와 전략 _____ 최찬환
중국의 근대화와 한국의 역할 _____ 김성우
해외진출을 위한 인터넷 활용 _____ 윤기병
무엇을 수출할 것인가 _____ 한만원
해외진출 잠재력과 가능성 _____ 허승회
건축설계업의 해외시장 진출방안 _____ 손명기

건축사사무소의 해외진출 현황

A Report on Korean Architecture Firms Working Overseas

오남국 / 해외건설협회
by Oh Nam-Kook

1. 해외건설 산업 현황

1) 해외건설 수주현황

우리의 해외건설 수주는 지난 65년 첫 진출이래 아래와 같이 81년도에 137억달러 규모의 최대수주이후, 주력 진출지역인 중동건설경기의 지속적인 쇠퇴로 88년도에 16억달러 규모에 이르기까지 축소되었으나, 중동지역 위주의 진출전략을 아세아, 태평양 및 북미 등의 기타지역으로 다변화하고, 수주방식 및 공종(工種)등을 적극적으로 다양화하여 93년도에 96건 51억달러, 94년도 146건 74억달러, 95년도 184건 85억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는 등 점차 수주규모를 확대하였다.

특히 96년도에는 아시아지역의 지속적인 경제개발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 확충 등으로 국제금융조달형태인 투자개발형 공사 및 BOT(Build Operate & Transfer) 형식의 공사가 확대되어 65개사가 38개국에서 186건 108억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여, '81년도이후 침체되었던 해외건설에 제2전성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97년도에는 3월현재 43건 33억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금년도말에 이르러서는 130억달러 상당 규모의 신규공사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지난 '65년도이후 '97.3월현재 우리의 해외건설은 88개사가 세계주요 46개국가에 진출하여, 총 3,677건 1,343억달러 상당규모의 공사를 수주하였다.

〈해외건설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지 역	81년도	88년도	96년도	97. 3월
계	13,681	1,602	10,779	3,270
중 동	12,674(93%)	1,251(78%)	948(9%)	186(6%)
아세아	838(6%)	240(15%)	7,575(70%)	2,864(88%)
기 타	169(1%)	111(7%)	2,256(21%)	220(6%)

주 : 기타는 태평양,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등
자료 : 해외건설계약현황, '97. 3. 31

2) 해외건설업 등록현황

과거 해외건설업의 면허발급정책은 국내건설업과는 달리, 해외건설시장의 수주현황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건설업체간의 과당경쟁이나, 기업 경영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규면허의 허가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운영하였다. 해외건설이 처음으로 시작된 지난 65년도이래 89년도부터 해외건설공사의 수주가 점차 회복되고, UR 및 GATT체제의 협상추진에 따른 국내 · 외 건설시장의 개방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93년 8월 15일부터 해외건설업 면허제도를 전면적으로 대폭 개선하여, 능력있는 국내업체가 해외건설시장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간 장기간에 걸쳐 억제되어 왔던 면허제도에서 보다 개방화된 등록제도로 과감히 정책을 전환하였다.

해외건설업 등록업체수는 다음 표와 같이 해외건설촉진법이 제정된 75년 12월 31일이후 79년도에 최대 133개사에 이르렀던 면허업체가 89년도에는 최저 67개사로 축소되었으나, 이후 등록제도의 도입으로 92년도 203개사에서 97년 3월현재 총 357개사로 대폭 확대되었다. 향후 신규 등록업체의 수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제환경이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건설업 등록현황〉

(단위 : 백만불)

년 도	등록업체수	종합 · 일반 (토목 · 건축)	특수 · 조경 전기 · 통신	전문건설 환경오염	엔지니어링 수주및개발
79년도	133개사	80개사	50개사	-	38개사
89년도	67개사	33개사	12개사	-	22개사
92년도	203개사	112개사	39개사	-	52개사
'97. 3월	357개사	180개사	55개사	59개사	63개사

주 : 전문건설, 환경오염방지시설은 '93.8.5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시 추가신설
자료 : 해외건설만갑백서 95년도판, 해외건설계약현황 '96.12.31, '97.3.31 정리

3) 해외사업 등록절차

(1) 해외사업 신규등록

등록 해당업종은 해외건설촉진법 제5조에 의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는 해외건설엔지니어링업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능력은 건축사 또는 해외건설업과 관련되는 분야의 기사 1급 이상 5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관련분야 기사2급 이상으로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제외된다. 자본금은 3억원으로서,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등록신청은 해외건설업 등록신청서에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 민원실(전화 504-9114)에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등록증은 신청서 접수후 60일이내에 교부가 가능한데, 신청수수료는 영업의 종류별로 각기 규정되어 엔지니어링업은 현재 3만원이 적용되고 있다. 신청서 양식은 해외건설협회 업무진흥실(전화 274-1614)에서 배포하고 있으며, 등록신청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및 건설교통부 해외건설과(전화 504-9053)에 문의하면 된다. 모든 구비서류는 신청일전 10일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으로서,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해야 한다.

① 해외건설업 등록신청서 (별지 1호서식)

② 목차

③ 대표자 및 임원명단 (별지 2호서식)

④ 등기소발행 법인등기부 등본

⑤ 기술능력보유조서 : 별지 3호서식에 의거 기술자 보유현황 및 명단을 작성하고, 명단에 기재된 기술자의 자격수첩사본(갱신등록란을 반드시 함께 복사)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을 기술자명단 순서대로 철해야 한다.

⑥ 업종별 신청자격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신청업종에 해당하는 국내면허증(허가, 등록) 및 수첩사본을 제출하되, 처벌사항, 변경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하며, 면허증 및 수첩원본을 신청서 접수시 지참하여 사본과 대조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외국인 등록표등본 :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표등본을 말하며, 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⑧ 기업진단보고서 : 건설교통부령 건설업체 진단규칙에서 정하는 기업진단보고서로서, 진단기준일은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한한다.

(2) 해외건설협회 회원가입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해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을 한 날로부터 해외건설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 회원이 된 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해외건설협회(소관부서: 업무진흥실)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는 영업의 종류별로 규정된 금액(건설엔지니어링업의 경우 현재 800만원 적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건축사사무소의 해외진출현황

1)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현황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은 다음 표와 같이 등록업체 54개사중 건축사사무소는 33%수준인 18개사, 엔지니어링사는 67%수준인 36개사가 등록되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현황〉

구 분	업체수	업 체 명
계	54개사	
건축사 사무소	18개사	공간, 남광엔., 부림, 삼우, 서울건축, 선진엔., 엠엔드이, 우보엔., 우일, 유신건축, 일신설계, 정림, 정일엔., 건원, 범건축, 창조, 명승건축, 동우건축
엔지니어링사	36개사	건화엔., 경일기술공사, 금호엔., 대보엔., 대영엔., 대우엔., 도화종합기술공사, 동명기술공단, 동아지질, 동아컨설턴트, 동일기술공사, 삼안건설기술공사, 삼우기술단, 서영기술단, 유신코퍼레이션., 유일종합기술단, 제일엔., 진로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한국해외기술공사, 한일종합산업, 해강, 대림엔., 동부엔., 동아엔., 동양시엔트, 삼성엔., 삼환엔., 쌍용엔., 제일제당건설,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기술, 한국통신기술, 한보엔., 한솔제지, 현대엔.

자료 : 해외건설협회 내부자료 정리

2) 건축사사무소의 수주현황

전체 해외건설 수주금액 대비 엔지니어링분야의 수주비중은 지난 65년도부터 96년도말까지 누계 수주금액 1,310억달러 대비 4.9억달러 규모로 0.4%수준에 지나지 않고, 93년도에는 0.4억달러 0.7%, 94년도 0.2억달러 0.3%, 95년도 1.8억달러 2%, 96년도에는 1.1억달러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체 엔지니어링 분야의 수주금액을 엔지니어링사 및 건축사사무소로 구분하였을 때, 건축사사무소의 엔지니어링분야 수주비중은 지난 65년도부터 96년도까지 누계 수주금액 4.9억불 대비 0.1억달러 규모로 2.3% 수준이며, 93년도에는 0.04억달러로 13%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96년도에는 0.002억불로 0.2%수준으로 급격히 위축되었다.

〈엔지니어링분야의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분 야	계	'66-'92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전체수주금액	131,010	99,166	5,117	7,441	8,508	10,779
엔지니어링분야	485	101	36	24	180	109
(엔지니어링사)	474	94	32	24	180	109
(건축사사무소)	11	6.8	4.2	-	-	0.2

자료 : 해외건설 내부자료 정리

건설엔지니어링업의 건축사사무소 등록사 18개사중 66년도이후 97년 3월현재 수주 실적사는 다음 표와 같이 9개사로 50%수준에 지나지 않고, 실적업체 9개사중 3개사(이건축,예건축,이공)는 95년도 해외건설업면허를 포기하였다.

실적 사무소중 90년도이후 신규수주가 중단된 사무소는 4개사(공간사, 정일엔., 선진엔., 이건축)에 이르고 있고, 90년도이후 지속적인 수주활동을 진행중인 사무소는 신규 등록사인 3개사(예건축, 이공, 우일)를 포함해서 2개사(유신건축, 삼우)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축사사무소의 최근 연도별 수주금액은 91년도 571천불에서 92년도 861천불, 93년도 4,155천불로 급격히 증가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94년도 및 95년도에는 수주가 전무하였고, 96년도에는 210천불의 수주를 이루었으나, 금년들어 3월현재 당해년도의 수주가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건축사사무소의 수주현황〉

(단위 : 천불)

업체명	계	'66~'90	'91	'92	'93	'96	비고
9개사	11,142	5,345	571	861	4,155	210	
이공	3,998	-	-	-	3,998	-	면허반납
공간	3,725	-	-	-	-	-	
유신건축	1,055	700	355	-	-	-	
삼우	861	-	(40)	861			
정일엔.	431	431	-	-	-	-	
선진엔.	369	369	-	-	-	-	
우일	367	-	-	-	157	210	
이건축	(363)	(363)	-	-	-	-	면허반납
예건축	336	120	216	-	-	-	〃

주 : ( )안은 국내 허도급분으로 집계 제외
자료 : 해외건설시공상황보고 '96. 12월분 정리

건축사사무소의 90년대이후 신규 수주사업 내용중 단일사업 규모로는 (주)이공이 중국의 해남민원공사로부터 국제설계경기에서 당선되어 93년도에 수주한 「868 타워 신축설계」가 3,998천불로 최대 규모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주)공간사가 이란의 국영회사로부터 국제설계경기에서 당선되어 75년도에 수주한 3,000천불규모의 「'엑바탄'75 테헤란」('75. 4~'80. 7)을 능가한 실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진출지역은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동남아지역 및 미국과 사이판 등이며, 일본에서도 2개사(예건축,우일)가 2건의 사업을 수주하였다.

발주처는 사업성격상 국가 및 공공기관보다는 주로 민간기업 위주의 발주사업을 5개사에서 수주하였는데, 우리 타산업기업의 해외사업투자에 따른 동반진출을 시도한 사무소도 1개사(삼우)에 이르고 있다.

3. 효율적인 해외진출 방안

1) 해외사업의 진출요인 및 요건

WTO 체제하에서 건설관련기업들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 · 외의 건설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기업경영의 균형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건축업계에도 건설시장 개방에 따라 세계적인 규모의 유수한 외국 건축사무소 및 엔지니어링기업들의 국내진출로 한층 경쟁이 치열해지고, 노동집약적인 조직구조를 갖고있는 건축사사무소들은 향후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건축사사무소도 국내시장의 범주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을 무대로 적극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해외시장에서는 선진기업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므로 우리 건축사사무소의 여건에서는 해외진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건축사사무소의 해외진출은 그동안 해외에서 이루어낸 참여실적 및 진출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국제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진출방안도 과거 개별사무소에 의한 단독 수주위주의 진출을 지양하고, 국제 분업형태의 상호 역할분담에 따른 협력 수주 방식의 진출패턴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건축사사무소의 90년대이후 신규수주사업〉

(단위 : 천불)

사무소	발주처	사업명	계약금액	사업기간
예건축	태국 RK Nichiogo	파이강호텔신축 기본설계	120	'90. 11~'91. 1
〃	일본 RK Nichiogo	이오모리 리조트호텔신축 기본설계	96	'90. 12~'91. 2
이공	중국 해남민원공사	868타워 신축설계	3,998	'93. 11~'94. 9
유신건축	사이판 K&A Co.	로타플류메리아 컨트리클럽 설계용역	355	'90. 12~'91. 5
삼우	미국 삼성전자현지법인	삼성그룹 미주사옥실내	(40)	'91. 5~'91. 10
〃	인도네시아 삼성전자현지법인	영상 및 음향공장 신축공사 기술용역	861	'92. 2~'92. 7
우일	일본 오바야시구미사	오바야시구미 본점내 R Project(업무시설)	367	'93. 9~'97. 6

주 : ( )안은 국내 허도급분으로 집계 제외
자료 : 해외건설시공상황보고 '96 12월분 정리

판단된다.

(1) 기업마인드와 인력의 국제화

국제화 전략이란 해외에 진출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국제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다양한 경영자원의 국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해외사업 추진은 발주정보 입수단계에서부터 입찰, 계약, 설계, 감리 등 각 단계별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데, 우리 건축사사무소의 경우에는 모든 인력을 일시에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나, 사업(Projcet) 전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성이 시급하다.

전문인력의 양성은 해외건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건설 실무교육 프로그램(주관부서:교육훈련실/274-0962)인 입문과정 및 수주, 개발, 계약, 금융분야의 4개 실무과정과 전문과정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2) 국제 경영정보 시스템의 구축

우리의 건축사사무소도 국제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엔지니어링기업들이 갖추고 있는 전문기술, 종합적인 프로젝트 관리능력(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의한 정보, 계약, 공정, 품질, 원가 및 위험관리 등)과 종합적인 기능 제공능력 (기획, 조사, 설계, CM, 교육훈련, 유지관리 등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경영정보 시스템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3) 금융조달기법의 국제화

해외사업 수행시 진출 초기에 많은 자금이 일시에 소요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국내의 차입이자나 담보에 비해 유리한 해외의 현지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국제금융 조달기법을 습득하고, 그 조달체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효율적인 조직체제의 구축

기업의 조직은 경영전략과 운영방식에 따라 변화되므로, 해외사업 진출시엔 조직과 구조는 인적자원과 기술, 정보, 자금 등 제반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5) 전문화 및 마켓팅 능력의 구축

해외시장에서는 선진기업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므로 특화나 전문화된 비교우위분야에 자원을 집중하여 독자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는데, 급변하는 세계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있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최근 외국 사례로는 영국 왕립건축가협회의 7개사무소로 구성된 방한단이 금년도 4월중 내한하여, 국내 건축관련 주요 8개 해외건설업체들과 제3국에서의 협력사업 모색등 적극적인 마켓팅 능력을 보여주었고, 일부 방한 건축사무소의 경우에는 기업소개서(Brochure)를 한글판으로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여 배포하였는데, 이는 우리의 경우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6) 국제협력 체제의 구축

해외진출에 있어 국내 단일 건축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능력만으로는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매우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진국 엔지니어링기업의 진출패턴에 대응 할 수 있는 형태로써 국내 · 외의 건설업체, 엔지니어링, 금융, 무역, 플랜트(Plant) 및 기자재 생산.공급업계와 상호 보완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전략적인 합작진출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사업 수행시에도 우리의 경쟁력이 상실된 고임금의 인력구조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는 국내의 본사에서 수행하고, 대부분의 상세설계와 공사진행중에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은 현지 건축사무소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이 사업비 운영 측면에서는 물론, 진출국의 자국화정책에도 순응하는 역할을 이루게 되므로, 그 사업 운영형태도 비중있게 현지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덧붙여 해외진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축사사무소는 위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진출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바람직한 해외진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2) 진출유망지역 및 유망분야

진출 유망지역 선택에 따른 지역별 해외건설시장의 주요 평가요소는 건설수요, 건설자금, 건설시장의 경쟁과 규제, 국가위험도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건설수요와 건설자금의 공급능력은 그 지역의 잠재적인 가능성과 유망성을 나타내는 기회적 요소가 될 것이며, 건설시장의 경쟁과 규제, 국가위험도 등의 사업여건은 환경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시장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러한 기회요소와 환경요소가 복합적으로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여 적응하느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해외건설협회에서 96년도에 회원사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진출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현재 우리 건설업체들이 가장 활발하게 수주활동을 벌이고 있는 동·서남아지역을 지목(34%)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중국(28%), 인도차이나지역(16%), 중동지역(12%), 미국 및 일본(5%), 유럽·동구권(4%), 기타지역(2%)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로 진출가능성이 가장 높은지역 중의 하나인 동남아권은 건설수요와 자금능력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면서도 시장경쟁과 규제, 국가위험 등 진출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이며, 서남아권 및 중국, 인도차이나권은 자금능력은 부족하고 국가위험도는 높으나 건설수요가 비교적 양호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진출 가능성이 다소 낮은지역으로 조사된 미국, 일본, 유럽·동구 등 선진권은 절대적인 건설시장 규모가 크며, 자금능력이 풍부하고, 국가위험도가 낮은 양호한 지역으로 평가되지만, 우리의 경쟁력이 현지업체와의 비교우위 확보가 여의치 못한 지역이다.

진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으로 조사된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권 등 기타지역은 건설수요와 자금의 만성적인 부족, 국가위험도 등 진출환경요소가 열악한 지역에 속한다.

진출 유망분야는 국제경쟁이 심화되는 해외시장에서는 유망지역 선택과 함께 매우 중요한 진출전략중의 하나로써, 선진기업과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 분야의 특화나 전문화에 주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 :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교육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 및 운수시설 등)

〈세계의 지역별 유망분야〉

구 분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건물	특수건물	레저시설	인프라	플랜트
동남아	1	18	12	7	19	23	17
서남아	2	5	5	5	3	21	15
중국	1	15	12	3	7	21	11
일본	3	3	6	1	3	4	-
중동	-	1	1	10	4	13	16
북미	10	5	4	1	9	-	-
서유럽	5	3	3	1	6	1	-
동유럽	1	7	3	2	2	8	2
러시아	1	10	7	5	2	8	7
아프리카	2	4	3	4	3	17	3
중남미	-	2	6	2	1	9	4
오세아니아	6	1	4	1	11	3	2

주 : ( )안은 국내 하도급분으로 집계 제외
자료 : 해외건설시공상황보고, '96. 12월분 정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95년도 7월에 해외건설 전문가를 대상으로한 세계의 지역별 유망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니 유망분야 진출전략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효율적인 진출방안

(1) 국제설계경기에의 참여진출

해외사업 추진에 있어 수주정보 입수는 일반 건설공사와는 달리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가 발주되므로 이러한 초기 발주정보의 입수가 어려운 지역적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가 확보될 수 있는 특화나 전문화된 분야에 한정된 국제설계경기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람직하다.

사례로는 95년도 (주)공간사에 이어, 93년도 (주)이공이 중국에서 수주한 「868타워 신축설계」가 있는데, 이러한 국제 설계경기에의 결과는 진출지역에서 설계자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게 되어, 유사한 분야의 사업참여 기회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므로 일차적으로 국제 설계경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외국사례로는 금년도 4월중 내한한 영국의 왕립건축가 협회의 방한단중 88년도에 설립되어 현재 21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우어브르흐 허튼 공동건축사무소(Sauerbruch Hutton Architects)」의 경우, 88년도이후 독일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3~4차례 국제설계경기에 공모하여 90년도에 처음으로 1건, 92년도이후 95년도까지 매년 1건의 설계가 지속적으로 채택되어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발주정보 입수는 해외건설협회에서 매주 발행되고 있는 「해외건설정보」지나, 인터넷으로 금년 5월말경 개통예정인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을 이용하여, 발주정보는 물론 발주처의 주요인사, 각국의 건설진출환경, 국제금융제공기관, 선진건설업체, 공사관리, 해외건설통계, 교육훈련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을 제공(주관부서:정보기획실 274-1615) 받을 수 있다.

(2) 국제협력에 의한 제휴진출

1) 국내 건설업체와의 제휴

금년들어 국내 조달청에서는 3,507만불 상당 규모의 「주 러시아 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공사」를 턴키베이스(Turn-Key Base) 형태로 발주할 예정인데, 이러한 사업에의 참여는 국내 건설업체와의 역할분담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여 상호 협력하여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로는 (주)공간사가 83년도에 수주한 「주

미 대사관」 및 '84년도에 수주한 「주브라질 대사관」, 현대엔.(주)가 '86년도에 수주한 「주 태국대사관」(유원건설 시공)등이 있으며, 우리 건설업체가 시공만 담당한 대사관으로는 「주 세네갈대사관」('85. 대한방직),「주 가봉대사관」('87. LG건설), 「주 파키스탄대사관」('91. LG건설)등이 있다.

이외 국내에서 발주되는 이러한 유사한 형태의 건설공사는 물론, 특히 국내 건설업체에서 민간기업차원의 국제금융조달 형태인 기획 · 설계 · 시공 · 분양을 포괄하는 투자개발형 및 BOT 형식의 건설사업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 부문에 국내 건설업체와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하여 협력관계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2) 국내 타산업과의 제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투자 사업확대에 따라 해외사업장 건설에 대한 참여도 가능한데, 이러한 사례는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삼성전자의 미국 및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 발주한 「미주사옥 실내 설계용역」과 「영상 및 음향 공장 신축공사」에 참여한 실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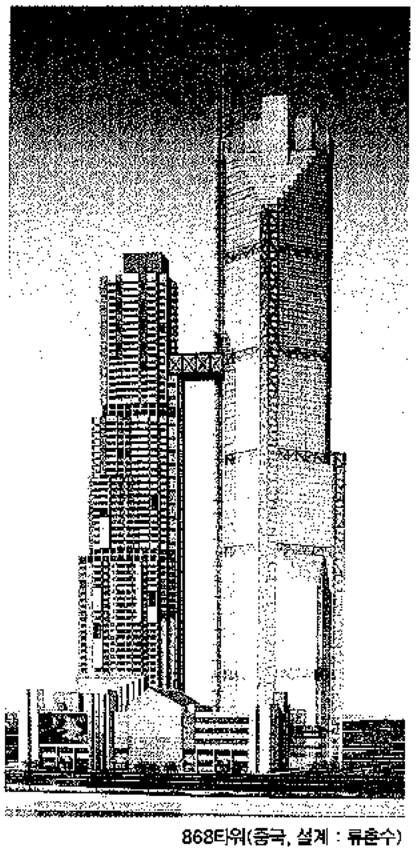
3) 선진국 엔지니어링/건설기업과의 제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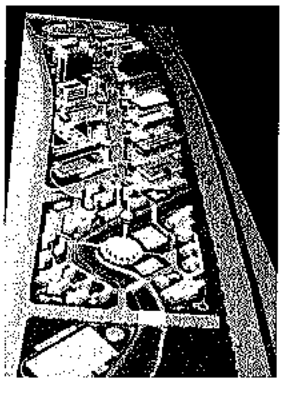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기술집약형사업인 대규모 건설공사, 민간기업차원의 투자개발형 및 BOT형식의 건설사업이나, 구상무역형태의 건설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발주되는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Software 분야는 선진국의 엔지니어링기업, 금융기관이 포함된 금융관련기업, 무역회사, 대규모 기자재생산 및 공급기업에서 주로 담당하고, 일반설치 및 시공 등의 Hardware 분야는 현지기업이 담당하여, 상호 전문영역별로 분업화된 역할분담에 의한 연합체제를 이루어, 국제협력 형태인 JV(Joint Venture)나 Consortiam 형식의 합작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국제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참여가 시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 엔지니어링/건설기업과의 협력은 단기적으로는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 엔지니어링기업 및 건설기업은 물론, 국내의 건축 기본설계에 참여하였던 건축사무소와 현재 국내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엔지니어링기업과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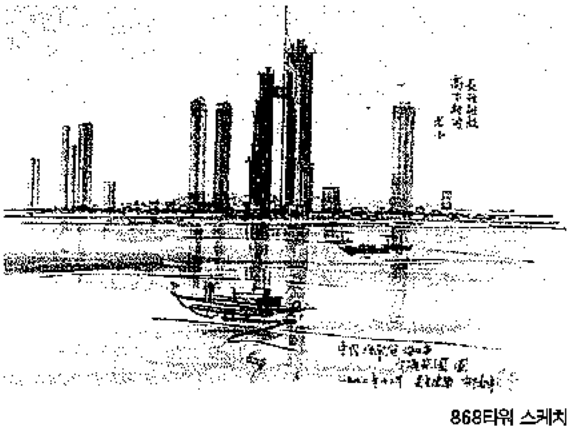
덧붙여 지금까지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써, 해외건설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참고자료

1. 건설교통부, "해외건설촉진법" '93.8.6
2.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민간백서" '84, '89, '95년도판
3. "해외건설수출현황" '96.12.31, '97.3.31판
4. "해외건설시공상황보고" '96.12.31분
5. "세계화시대의 해외건설전략 (남충희)" '95.9
6. "해외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94.12
7. "개방화시대에 따른 중소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진출방안" '96.12
8. 국토개발연구원, "해외건설산업의 현황 및 전망" (대우, 이형노) '93.5
9. "국제화시대의 해외건설 진출전략에 관한 연구" (김홍수, 이상준) '95.2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외건설시장의 국산기자재 활용방안" (배건혁, 오남국) '96.5


868타워(중국, 설계 : 류춘수)


태양성 공업지구 계획안(설계:류춘수)


868타워 스케치

해외건축설계의 문제점과 나의 경험

The Problem of Designing Overseas - A Personal Experience

류춘수 /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by Ryu Choon-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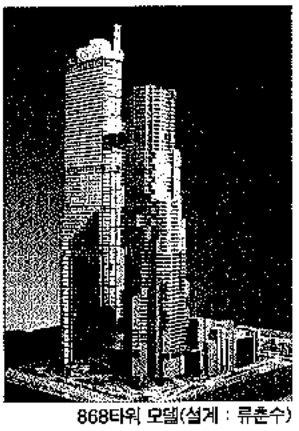
외국 건축가들이 국내에서 자유로이 설계를 할 수 있게 된 시점에서 우리 또한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당연한 일이다. 그 모색을 위한 학술적 혹은 제도적 접근은 다른 필자들의 몫이며, 내게는 해외 프로젝트의 진행 경험을 진솔하게 써 달라는 편집자의 부탁에 따라 몇몇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과 대책 방안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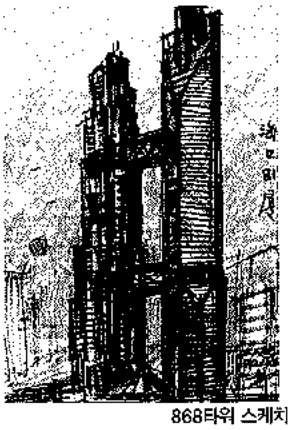
개방 압력에 밀려 외국건축가들이 국내에서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몰라도 국내건축가가 해외일을 설계하도록 뒷받침해 주는 행정이나 제도적 장치가 우리에겐 없으며 오히려 못하도록 규제하는 구시대적인 관료의식과 법이 있을 뿐이다. 20여년전 중동진출시대에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덤핑방지를 위해 마련된 소위 해외건설 관계법에 따라 설계수주도 별도 면허를 받아 무슨 협회에 등록되어야만 하도록 되어 있는 「×같은 제도」를 아직 고쳐졌다거나, 폐지할 예정이란 소문도 듣지 못했다. 국내의 대형 프로젝트도 이른바 설계와 시공의 일괄도급 제도인 턴키제도와, 설계입찰제도를 더욱 강화하는가 하면, 건설회사에서 설계를 해야만 국제경쟁력이 생긴다는 해괴한 역행의 논리가 힘을 얻는 우리나라에서 해외의 일을 설계한다는 것은 손발 묶은 채 권투시합 나가는 것처럼 승산없는 일이다. 나라가 건축가를 마치 비행이나 저지를 악덕 기술자 정도로 규제하며, 대학교육은 기사시험을 합격시키기 위한 기술학원 밖에 아무것도 아닌, 디자인 교육 부재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외에 알려지는 건축가가 배출되어 그쪽 일을 맡을 수 있단 말인가? 건축설계를 문화로 보지 못하고 건설기술로만 인식하는 무식한 관료들의 나라에선 교육과 제도는 다 비뚤어 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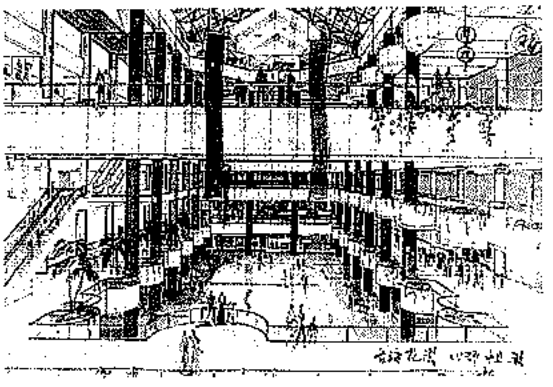
해외에 진출한다는 것은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상대가 자기 나라의 건축가보다 더 역량이 있다고 믿을 때만 일이 주어지는 것이기에, 건축가 자신은 물론 나라와 사회가 스타 건축가를 많이 만들어서 해외에 홍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스포츠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했듯이 모든 예술, 문화 분야도 비슷한 범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하나, 나라 예산을 이런 문화적인 일에 투자할 관료들의 인식변화는 아마 수십년 후에나 가능할 것인가? 해외에서 설계를 맡으면 건설수주가 용이하며 부가가치가 크다는 것을 모르고 건설회사를 통하여 설계를 시킬 궁리를 하고 있으니 역행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한, 우리의 해외진출에 본질적인 장벽은 영어에 있다고 본다. 국내건축가를 세계에 알릴만한 영문잡지도 제대로 없으며, 국제적인 수준의 설계도서를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영어권인 홍콩, 싱가폴, 말레이지아, 필리핀은 물론 태국 보다도 뒤떨어지니 최소한 다음세대에선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건축뿐 아니라 기계, 전기 등 빌딩 서비스의 일체 엔지니어링 도서를 국제적인 코드와 언어로 작성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므로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나 영어보다 결국은 건축가 자신의 디자인 역량에 있다고 본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실로 아름답고 새로운 것을, 비슷한 흉내가 아닌, 세계인이 늘 주목하는 독특한 창조성을 발휘하는 건축가에겐 결국 외국의 건축주들이 일을 갖고 올 것이다.

다음으로, 모든 건축이 그러하듯 그 놓이는 장


868타워 모델(설계 : 류춘수)


868타워 스케치


868타워 로비 스케치

소의 모든 컨텍스트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파악이 해외 프로젝트인 경우 그만큼 더 어렵다는 것이며, 일량과 경비가 배가 되는 해외 일이 작품도 좋지만 결국 경제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일차적으로 진출 가능하다고 보는 동남아나 중국의 경우 상대적인 공사비와 용역 요율이 낮은 탓으로 동급 규모의 국내 프로젝트에 비하면 일량은 두배가 되며 설계비는 1/2~1/3밖에 안될 수 있으니, 능력과 기회가 있어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안고 필자가 경험하고 시도해온 해외의 몇몇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을 솔직히 털어 놓을까 한다.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그런 일을 맡게 되었느냐와 그걸로 밥이가 되었느냐에 관심을 갖고 물을 뿐, 그 수행과정에서 건축가로서의 노력이나 뼈아픈 경험들은 묻지 않는다. 해외의 작가들의 말이나 작품에는 때로는 현지인보다 더 자세히 알면서 우리끼리는 늘 상대를 비하하고 노력들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있음을 느낀다. 이러한 풍토 또한 해외진출의 걸림돌의 한가지일 것이다.

필자가 해외에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김수근의 공간에 있었기 때문이다. 갓 서른살이던 75, 6년 공간의 첫 해외진출이며, 사실상 한국건축가의 최초의 해외 프로젝트인 테헤란의 엑바탄(EKBATAN) 하우징(주거단지)의 실시설계를 주도하고, 45° 경사 엘리베이터를 도입한 알보즈(ALBORZ) 아파트 프로젝트의 설계와 감리 책임자로서 현지에 상주한 경험은 이 글을 쓸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다. 서툴기 이를데 없지만 영어로 말하는데 두려움을 느끼던 때가 그때이며. 훗날 83, 4년 Gelger박사와 체조경기장 설계를 함께 한 것 또한 내게는 일생의 행운이었다.

86년 6월에 김수근선생은 타계하시고, 그해 가을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 구조인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Gelger박사가 90년 북경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던 중국 건축계에 나를 강력히 소개하여, 국교가 없을 때라 2년후인 88년 여름 마침내 그들의 초청을 받아 북경 아시안게임 시설물 설계의 자문과 서울 올림픽 시설을 소개할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 할 수 있었다. 올림픽이 있던 그해는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행운의 해라, 그해 11월에는 시드니에서 쿼터나리오(QUATERNARIO) 국제 건축상의 금상을 노만포스터를 제치고 김수근과 공동이름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그 인연으로 북경, 싱가폴, 타이페이 등에서 초청강연과 그곳 잡지에 특집으로 소개되어, 92년 12월 마침내 중국 海口市의 868Towers의 국제 현상설계에 지명받게 된 것이다. 공간에서 마스터 플랜을 하고 실내체육관을 계획한 말레이지아 쿠칭의 사라와크 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 계획설계를 88년 겨울에 계약했으며, 이 프로젝트의 리포트를 우연히 보게된 일본 三井건설에서 동경 세다가야 지역의 호화 맨션 아파트의 계획설계를 의뢰받은 것이 89년이었다. 그러나, 사라와크 운동장은 그 후 예산과 정책적 이유로 실시설계를 못했으며, 계약직후 공간측에선 나와 계약한 것이 부당하다며 그곳 주정부에 오히려 부당한 투서를 보냈음을 모른체 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동경의 아파트 설계는 건축주가 다시 이태리 건축가를 선정하게되어 계획안에 그쳤지만, 직원들을 3개월마다 두명씩 교대로 2년간 三井건설에 파견하여 경험을 쌓는 기회를 만들었었다. 868타워의 당선은 실로 내게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중국과 대만의 건축지는 물론 국내의 언론과 심지어는 일본의 TV에서 뉴스로 전한 사건이었으며 Architecture Record에도 계획안이 완료된 다음 소개되었지만, 이것은 영광과 좌절의 기록을 진행하고 있다. 계획안이 확정되기까지 일년가까이 계속된 건축주와의 끝없는 투쟁은 대형 프로젝트의 속성이라 차치하더라도 지진과 태풍지역이며, 지질도 좋지 못한 곳에 86층이란 초고층설계의 구조적 어려움과, 기계 · 전기, 빌딩청소, 커튼월… 어느것 하나 국내에서 경험있는 일이 아니었으며, 미국의 스킬링(skilling)이라는 구조 엔지니어 회사에선 노골적으로 한국에 설계를 맡긴 것이 잘못이라며 건축주를 설득하여 그 일을 가로채려고 집요한 시도를 하였다. 구조설계를 연구삼아 자청해온 삼성건설 구조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초고

북경 「경문 여유성」마스터 플랜 기본설계(설계 : 류춘수)

동경 世田谷 아파트 계획안(설계 : 류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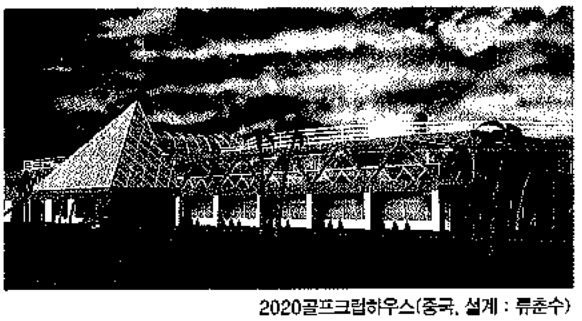
층 구조의 대가인 하바드 대학의 Lemessurier교수를 초빙, 시스템을 정리하여 마침내 100㎏이하의 철골량이 되도록 했으니 방해자가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음도 배웠다. 초고층 건축의 커튼월 설계는 국내에선 가능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외국에선 터무니 없이 비싸서 고민하던 차에 Querenario상의 창시자이며 세계적인 커튼월 회사인 이태리의 Permasteel - ISA가 미국의 대표적인 커튼월 엔지니어링 회사인 Benson을 인수하게 되어, 그상을 받은 인연으로 무료로 Benson부사장이 우리 회사에 두 주간 파견와서 1:1 도면을 다 그려주고 간 행운도 있었다. 또한 엘리베이터 시스템은 OTIS와 미쯔비시를 경쟁시켜 모든 계산서와 드로잉을 받아 낼 수 있었다. 외벽 청소 시스템 또한 독일과 미국의 Spider를 경쟁시켜 해결했으며, 공정표 작성은 Turner, 빌딩서비스(기계, 전기 등)의 계획은 OVE ARUP(홍콩)에서 했으며, 인테리어 설계계획은 L.A의 Berry Design에서 다른 프로젝트와 연계시켜 거의 교통비만 주고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본설계가 94년 여름에 완료되었지만 아직 계획설계비조차 못 받고 있으며 금년부터 海口의 경기가 좋아져서 곧 허가를 받으면 밀린 설계비를 주고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겠다더니 아직도 소식이 없다.

북경 西驛 앞의 도시재개발 계획인 Capital Gate 프로젝트에선 미국의 Calison社와 치열한 경쟁 끝에 당선하여, 작년말 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868의 경험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대신 북경과학건축설계원의 수석 「建築師」로 임명받아 개인적인 설계 지도만 하기로 계약하였다. 작품의 이름은 남기며 10년이상 목매어야 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며, 일당이지만 실질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방식을 현명하게 택한 것이다.

태국에서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아파트, 재개발 계획 등 여러 프로젝트에 손을 댔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설계비와 신뢰할 수 없는 건축주들로 결국 모두 성공하지 못했지만, 장래에는 가능성이 많은 곳이라, 늘 유대를 맺고는 있다. 동남아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라 생각한다. 주로 한국에서의 투자자를 끌어들여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하는 프로젝트이기에 국내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든가, 현지에서 건축사와 직원을 고용하여 저렴한 용역비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장기적으로는 이 두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어느 경우든 국내에서의 좋은 작품활동이나 조직의 뒷받침없이는 해외 일은 불가능한 셈이다.

중국 광동성의 太陽城 프로젝트는 홍콩업자들로부터 이용만 당했으며, 함께 일한 영국건축가조차 내게 줄돈을 안주고 있다. 세상에 남의 나라 돈을 받아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7, 8년 꾸준히 참석해온 아시아 건축가들의 모임인 ASIA DESIGN FORUM이나, 현지의 대학과 단체들의 초청 강연회 등을 통하여 나름대로 지명도를 높혀 나가며, 중국인보다 더 끈질긴 자세로 미운 건축주조차 끝까지 친구로 사귀어 나가면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좋은 작품을 지속하며 경제적 여유를 쌓으면 최소한 동남아와 중국은 우리의 진출 발판이 되리라 확신하고 있다.

현재로선 해외진출의 목표를 경제성에 두어서는 의미가 거의 없다. 외국에 우리의 디자인 역량을 알림으로써 비로서 세계에 한국 건축가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그 뜻이 있을 뿐이다. 중국의 868타워와 Capital Gate는 아직 취소된 것이 아니라, 훗날에는 반드시 성취될 일이기에 그날을 나는 기대하고 있으며, 국제현상설계 등을 통해서 혹은 지명도를 높여가던 해외진출은 당연히 필자의 큰 목표임을 밝힌다.



2020골프크럽하우스(중국, 설계 : 류춘수)

북경 퍼시픽 무역센터(설계 : 류춘수)

태양성 청룡호텔계획안(중국, 설계 : 류춘수)

그 간의 해외 프로젝트를 반추하며

A Retrospection on Recent Overseas Pro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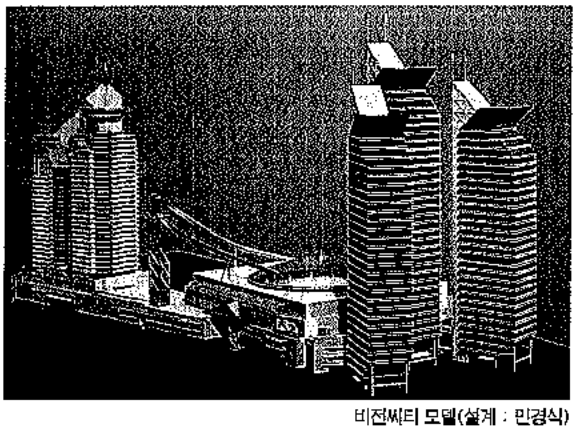
민경식 / 민경식건축
by Min Kyung-Sik

우리나라는 70년대 경제부흥과 더불어 중동에서의 건설붐과 이에 따른 각 건설회사의 해외 시공으로 많은 건설기술과 경험을 축적했으며 그로인해 국내 경제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2000년대를 향하는 오늘의 우리는 정보.통신의 급속한 변화와 그에 따른 세계적 국가간, 도시간 교류가 활발하게 시간을 다투고 있다. 이렇듯 순간을 놓칠 수 없는 급변함과 지난 수십년간 오로지 산업발전과 경제부흥을 지향하고 달려온 우리들에게 문화가 무엇인지를 새삼 되새기게 한다. '문화' 라함은 바로 그 시대의 국민상을 보여주며, 모든 것의 바탕인 것이다. 우리가 소위 생각하고자 하는 '건축' 은 기술이나 산업이기전에 '문화' 인 것이다. 그것은 한국의 '문화' 일 수 있으며, 세계속의 '문화' 이어야 하는 것이다. 국내의 많은 건축가들이 한국의 문화가 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해오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70년대 건축가 고 김수근선생은 이란의 「알보즈」주거 프로젝트 현상설계에 당선되어 영국의 건설회사가 시공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않다. '문화' 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지하지 않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문화' 는 허영이나 여유가 아니라 삶이자 생활이자 모든 기술 · 산업 · 교육 · 경제 등등의 가장 기초적인 근간이어야 되는 것이다. 바로 우리는 '한국건축의 해외진출' 이라는 명제가 문화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케하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위에 서방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고자 하고 있다. 이런 전제위에 우리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동양의 문화틀력안에서 연구되고 해석되어진 세계의 문화흐름을 간파하여 우리 스스로를 개방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1. Vision City Project.

이 Project는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프의 중심지에 가까운 대지 12,000여 평위에 세워지는 연면적 약 120,000평 규모의 오피스, 쇼핑센터 및 도시아파트의 복합건물이며,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인 D건설이 말레이지아 현지개발회사와 공동으로 지분 참여를 하고 다시 Turn-Key방식으로 수주하여 설계 · 시공을 하는 건설사업이다.

93년 봄에 쿠알라룸프를 방문했을 때, D건설의 현지지사장인 S씨를 방문하여, 건축가로서 그 동안 축적했던 경험들을 설명하고 아시아 진출의 의지를 표명함과 아울러 공동참여의 기회를 마련해 볼 것을 제안했다. 다시 93년 9월, S씨는 서울본사를 통해 Vision City 프로젝트의 Design Proposal을 낼 수 있는지의 의사타진을 받고 주어진 2주내의 시간으로 Task Force팀을 조성하여 철야작업으로 디자인을 내게된다. 초기안은 오피스2동과 호텔 및 서비스 아파트로 최첨단의 디자인을 보여주기위해 원과 삼각형의 기하학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2달여쯤뒤, D건설을 통해 다른 경쟁자보다는 모두들 디자인안을 더 인상적인 좋은 안으로 보고있으나 그 지역은 화교가 많은 지역으로 중국의 풍수에 따르면 삼각형은 '돈을 잃는' 형태라는 지적을 받게된다. 이에 역시, 절대 필요한 그 지역 문화의 연구가 짧은 시간으로 인해 미흡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했으나, 다시 94년 8월, D건설의 쿠알라룸프 지사장인 S씨는 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지방문을 요청하여, 약 4개월간의 현지 개발회사와 D건설과의 협조하에 디자인 최종안을 만들어 말레이지아 수상에게 승인을 받아냄과 동시에 사업수행에 착수하기로 하며, 한국의 건설회사와 한국



비전씨티 모델(설계 : 민경식)

비전씨티 말레이지아 수상 최종 승인안

의 건축가가 공동의 Partnership으로 성취해내자는 의기투합(Good Will Base)과, 성취할 때까지의 소요비용은 각자 부담(Success Base) 으로 하며, 성취될 시 D건설이 Turn-Key 주계약자가 되며, 설계계약은 D건설로부터 Sub-Contract되기로 합의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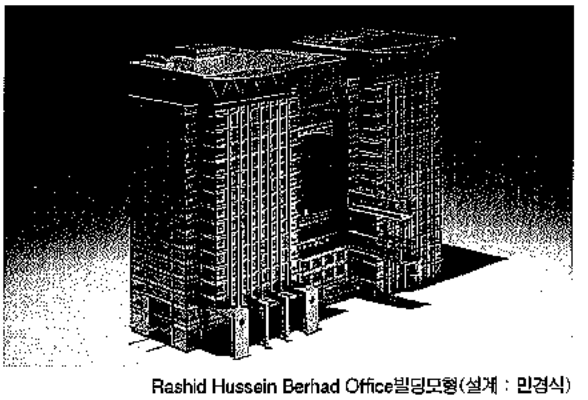
이에 현지 개발회사와의 Kick-Off회의시 개발회사측은 세계의 유수한 건축가를 제시함에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되나 D건설 사의 부단한 설득과 우리 팀의 진행되는 디자인안의 자신감과 건축가로서의 전문적 (Professional)인 현지 관련팀을 이끌어 가는 리더십의 확신으로, 우리팀의 취약 부분인 쇼핑센터만 미국의 F회사에 의뢰하되 우리 팀이 디자인 전체를 이끌어 가도록 타협한다. 약 3개월간의 현지 개발회사, D건설, 현지 Feasibility Study팀, 미국의 F회사, 그리고 디자인 전체를 끌고가는 우리 팀의 숨가쁜 작업 후, 현지 개발회사와 D건설은 쇼핑센터를 맡고 있는 미국 F회사의 급속히 진행되는 협업작업에 대한 미진함과 디자인안의 불만족으로 말레이지아 수상에 프레젠테이션 1달전, 본인에게 쇼핑센터를 포함한 전체 디자인을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말레이지아의 도시 · 건축적 유산과 문화를 생각해 볼 때, 회교 국가이며, 열대성 기후로 인해 특별한 건축적 유산이 부재하다. 또한 도시는 말레이지아 수상의 국제 도시화로의 노력과 기술 집약산업 국가로서의 도약인 'VISION 2020'으로 인해 수많은 국제수준의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그로 인해 Vision City 프로젝트의 디자인 주제 (Design Theme)를 수개월간의 연구와 고민 끝에 'Hitech-Dome & Spiress' (첨단의 돔과 첨탑들) - VISION 2020의 기술산업 국가로의 도약에 맞춰 하이테크적인 건축표현과 전통 회교사원의 건축 구성요소인 돔(쇼핑센터의 아트리움)과 주변의 첨탑들 (오피스 및 아파트 타워들) - 로 정하게 되며, 수상에게의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현지 건축가 및 그 간 알아 온 현지 동료들을 통해 수상의 도시건축적 식견과 범위, 취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여러 번의 사전 리허설을 통해 서로의 의견들을 조율하고, 관련인들에 대해 전문가로서 디자인 인에 대한 자신을 심어주고, 다시 그들로부터 격려를 받아 가며 완성된 디자인 안을 마침내 94년 12월 28일 수상에게로 가져 가게 된다. 소박한 수상 집무동의 회의실에 첨단장비들을 동원해 설치를 마친 뒤, 한 국가의 수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흥분감과 한국의 한 건축가로서의 책임감을 실감하며, 현재 개발회사의 회장은 회의 시작시 건축가로서의 본인의 신상을 수상에게 자세히 소개해 주는 예의를 보임에 한편으로는 더욱 더 책임을 느끼며, 1시간반 동안의 설명 및 수상의 도시 건축에 대한 해박하고 예리한 질의응답 후 오로지 주변에 나무를 더 심어 달라는 단 한가지 주문을 받고 디자인안이 아무 수정없이 승인된다. D건설의 C회장, S현지 지사장 및 설계 관리를 맡고 있는 K이사의 한국의 건축가에 대한 확신과 해외 진출로의 지원에 대한 끝없는 신념이 주요했으며, 또한 한국 건축가로서 끊임없는 노력과 디자인에 대한 자신감을 현지 개발회사 및 D건설에게 심어주게된 좋은 기회가 된 것이다.

수상 프레젠테이션후에 어느 사석에서 현지 개발회사 회장은 감청색 양복을 입은 나에게 "I thought you didn't have any dark suit." (나는 당신이 짙은 색의 양복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을 걸었다. - 전문인들은 주로 짙은색 양복을 공식회의시 입으나, 수상 브리핑 날 나는 일부러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베이지색 양복을 입었었다. - 회장은 그것이 조금은 못마땅했었던가 보다.

2. Rashid Hussein Berhad 사옥

95년 가을, Vision City Project의 현지 개발회사의 모회사인 Rashid Hussein Berhad 증권회사로부터 20여 층짜리 사옥을 짓고자 설계를 의뢰 받는다. Vision City Project 디자인안의 만족스러움과 건축가로서의 본인에 대한 확신을 갖고있던 회장이 사옥 설계의 의뢰를 담당하게 지시를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도 합작사업으로 화교계의 부동산 개발회사가 반의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양쪽 회사의 Owner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Rashid Hussein Berhad사의 회교계의 회장과 기존 사옥과의 연계성에 대한 특별한 관심 및 화교계 부동산 회사의 중국식 풍수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심도있는 연구와 분석을 거듭하며, 또한 부동산 개발회사의 생리인 면적 1㎡ 하나하나, 또 공사비 1원 한장 한장 검증하는 방법론에 맞춰 미리 디자인 확정 전 Cost Analysis 및 Value Engineering을 통해 설득력있는 디자인안을 제안, 확정을 하게된다. 전체 디자인 및 부분 부분의 디테일 디자인 또한 현지에서는 시도되어지거나 보여지지 않은 새로운 안을 제시함으로 해서 새 사옥의 이미지 제고를 확신시



Rashid Hussein Berhad Office빌딩모형(설계 : 민경식)

킬 수 있었다. 중국식 풍수에 따르면 중요한 방이나 자리의 배치는 절대 구조적 '보' 밑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라 함은 하중을 받쳐주는 것으로 그 부담이 아래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또한 모가 난 부분은 당사자로 향하거나 상대방을 향하지 않도록 하여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무의미 하면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현지 나름대로의 문화인 것이다.

3. Chulalongkorn University Land Redevelopment Master Plan.

상기 프로젝트는 태국 방콕의 중심부에 위치한, 근대화를 일으킨 태국 출라롱콘왕이 설립한 대학으로 지금은 태국 중심부가 돼 버린 대학주변의 미개발지 10만평위에 연구 · 상업 · 문화 시설이 들어서는 대단위 재개발 마스터플랜 프로젝트이다. 그간의 태국내에서의 여러 프로젝트의 추진경험과 그로인해 알게 된 현지 전문인들 및 현지 친구들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접하게되며 95년, 대학 당국의 사업성검토와 프로젝트의 운영을 맡길 영국계의 B회사의 선정으로 본인 및 설계팀의 작품, 경력 및 수행능력을 볼 수있는 포트폴리오 (Portfolio)를 보내고 B회사를 방문하여 이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수행해 갈수 있는 건축가로 확신을 갖도록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 95년말 대학 당국과 B회사는 전세계의 유수한 건축가 15팀- 한국의 본인및 설계팀, 미국의 S.O.M 및 K.P.F, 일본의 Nikken Sekei, 영국의 Norman Foster, 프랑스의 V.N.F (Villes Nouvelles De France)등등-의 후보를 지명하는데에 속하게 된다. 이로인해 후보지명을 받고 2달동안 모든 자격심사를 거쳐 6개의 회사로 압축됨과 동시에 1차 자격심사를 통과하게 된다. 그후 다시 2달의 기간을 갖고 개략적인 디자인컨셉을 준비하여 제출하게 되어있는 바, 프랑스의 V.N.F사로부터 전략적 제휴를 제의받게 된다. 심사숙고 끝에 제휴를 동의하게 된다. 왜냐하면 V.N.F사는 프랑스의 정부 연관업체로 파리의 신개발지인 La Defence를 직접계획, 운영을 한 경력이 있으며, 프랑스내의 신도시 개발을 계획적 측면에서 추진해 왔고, 많은 세계의 건축가들과도 협업을 해온 경험이 있다. 그리하여 서양쪽의 신도시 계획의 Know-How를 갖고있는 V.N.F와 동양의 사고와 문화를 서로 이해하며 디자인을 수행할 수 있는 Partnership이 형성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다른 경쟁사 보다도 '동양과 서양' 및 '디자인(Design)과 플랜닝 (Planning)' 결합체로 더 좋은 안과 작업 수행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왕정국가로 왕에 대한 충성과 경의를 항상 갖고 있어야 하며, 불교국가로서 불교사상의 각 분야로의 내포될 또한 지대하다. 한편으로는 오래전부터 관광국가 여서 국제적인 감각이 상당히 풍부하며, 그간 역사에서도 여러번의 내침에 따른 전쟁으로부터의 국가 존속과 아울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다른 주변국가들과는 달리 식민지배조차 받지 않았던 데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있다. V.N.F사의 신도시 개발의 Know-How와 재개발의 이론적 접근과 더불어 이 나라와 프로젝트의 정확한 성격 규명으로 불교사상에 바탕을 둔 원형의 도시형태와 왕을 중시하기 위해 출라롱콘 대학과의 중심적 연계의 접근에 바탕을 둔 디자인안은 여타의 다른 경쟁 건축가들의 안보다도 훨씬 더 짙은 인상을 대학 당국에 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각자의 안에 대한 설명과 건축가에 대한 인터뷰시 정확히 그 나라의 문화에 바탕을 둔 분석과 이해에 따른 확신을 주는 디자인 및 팀의 자신감있는 전문가로서의 설득력은 대학 당국 및 프로젝트 운용 대행사인 B회사로 하여금 본인 및 V.N.F팀이 선정되어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된다. 건축가로서 한정된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V.N.F사의 Planning Side의 협업체제로의 프로젝트 수행 결정과 그 지역의 문화.종교를 이해하고자하는 노력의 결실인 것이다. 인터뷰시 이 프로젝트의 태국 국가적 및 방콕의 도시적 도약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제안한 디자인컨셉안을 확신시킨 것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더 이 사업의 비중만큼 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해 준 것이다.

문화에 바탕을 둔 건축은 디자인의 범주에 넣는다면 상당한 부가가치를 두어야하는 노하우인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나 일본은 해외에서의 프로젝트 진행시나 투자시 꼭 자국의 건축가를 추천하는 것을 자부하고 있다. 자국문화의 우월성을 보여주고자 함이다. 그 문화의 우월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다. 정부도, 기업도, 국민도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모든 문화관련인들이….

그간의 경험으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우리 건축 문화의 해외로의 지향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겸허하고 진지하게 '밖'을 공부하고 다시 그것을 '안'으로 만드는 것이다.

본글에 소개된 프로젝트들중 「Vision City」와 「방콕 출라롱콘대학 재개발 마스터플랜」은 필자인 민경식(현 민경식건축연구소 대표)씨가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파트너쇼장으로 있을당시 수진한 프로젝트임.

방콕 출라롱콘대학주변재개발 마스터플랜(설계 : 민경식)

해외진출 - 우리에게도 기회는 올것인가?

Do We have the Opportunities for Exporting Architectural Design Services?

김병현 / 종합건축사사무소 장
by Kim Byung-Hyun

1. 가속되는 건축시장의 세계화

매스컴에 의하면 세계건축시장의 국제적 교류는 눈에 띄게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이에따라 신생경제국가들의 대규모 투자사업은 국제건축시장에 전례없는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좋은 예가 현재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국 상해의 도시건설사업으로 약 9,000개의 건물이 계획 또는 건설중에 있고 여기에 200여 외국건축사무소가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건축열기는 이미 이 대열에 참여해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멀리는 남미와 소련을 포함한 동구국가와 가깝게는 베트남과 인도에까지 확산되어 엄청난 규모의 국제건축시장을 형성하리라고 한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등장한 신생경제국의 경제력과시는 세계수준의 건축을 지향하게 되고 국제건축시장에 배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국제건축시장의 교류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이나 영국같은 선진국 간에도 외국의 독특한 디자인이나 높은 수준의 기술을 찾으려 하고 그동안 국제건축시장에서 제일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건축계는 건축설계서비스가 이제는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으로 등장하였다고 자신하고 있다.

우리의 국내건축시장도 그동안 미국과 일본에 진출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었다. 우리의 문은 이제 더욱 넓게 열려 유럽을 포함한 세계도처의 건축가들이 자주 서울을 찾게 됨에따라 우리는 앉아서 건축시장의 세계화를 보고있는 셈이 되었다. 세계경제의 추세로 볼 때 국제적 교류의 정도와 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높고 넓게됨은 확실하다. 이에따라 세계의 무역환경도 WTO 와 서비스업에 관한 GATS협약 등으로 국가간의 건축시장 개방을 촉진하고 있고 UIA도 작년가을에 열린 바르셀로나 총회에서 서둘러 건축업무의 국제적상호인준규범과 건축가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초안을 정책적으로 수용, 향후의 검토과정을 거쳐 1999년의 북경 총회에 상정시킬 것이라고 한다. 건축시장의 국가간의 제도적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이제는 시간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2. 우리에게 해외진출이 의미하는 것

한 건축가에게 자신의 건축을 해외에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은 일반적인 산업제품 수출을 통한 경제적, 사업적 성취라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 건축의 해외진출이 시작되어 자리잡기까지의 70년대부터 80년대에 필자가 체험하였던 미국건축사무소들을 돌이켜 보면 건축의 해외진출이란 결코 쉬운일은 아니었다. 특히 초기 개척시기의 해외시장에서 겪은 사회, 문화 등의 불충분한 이해에서 오는 건축설계상의 어려움과 예측못한 법적, 사업적 함정에 빠져 재정적 손실도 겪어야 하였다. 비교적 해외사업에 성공하였다는 사무소도 그 이면에는 상당한 대가를 치루고 해외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외프로젝트는 건축가에게 가슴을 설레게 하는 흥분을 가져다 준다. 우리 건축인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과제나 건축환경은 오히려 도전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 기회가 건축가에게는 새로운 자기발견이나 발전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보다 즐거이 받아들인다. 해외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여러모로 시달렸던 미국건축가가 이를 후회하거나 또다른 기회가 주어지면 포기하겠다는 사람은 아직 보지못하였다. 그 결과에 크게 관계없이 해외프로젝트는 그 나름의 건축적 매력과 소득이 있다. 건축가가 해외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데는 여러가지 다른 동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해외건축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본다.

사업가가 돈이 있는 곳을 찾아가듯 건설투자를 따라간 경우이다. 70년대의 중동지역과 80년대 이후의 한국을 포함한 중국, 동남아지역에 구미각국의 적극적인 진출을 들 수 있겠는데 이들 국가의 국내시장이 불황일 때 해외시장의 건축수요는 지나칠 수 없는 사업기회이기도 하였다. 많은 사무소에 일감을 벌어다 주기도 하였고 이 지역의 자존심사업이 건축적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미인경선대회에 나가듯 화려한 사업의 영광을 찾는 경우이다. 국제건축계의 관심을 끄는 사업이 국내외에 잘 알려진 유명건축가들의 경쟁무대가 되거나 국제경기설계로 새인물을 찾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하여 세계건축사에 남을 한 국가의 주요사업도 가끔 외국건축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등산가가 어려운 목표에 도전하듯 도전으로써

건축대상을 찾는 경우이다. 국내 건축여건으로 불가능한 실험적 건축의 시도는 물론이고 새로운 문화권과 사업환경을 상대로한 어려운 제작과정을 거치는 건축은 그 자체가 건축가에게는 하나의 큰 건축적 도전이다.

사회봉사정신으로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자국의 건축과 기술을 이를 필요로하는 나라에 베푸는것은 건축가의 도의적 의무라고 생각하여 해외사업설계와 현지건축가의 지원과 교육에 참여하는 건축가가 있다.

사무소를 운영하는중에 우연한 기회에 해외사업 참여의 기회가 오고 이 기회를 이용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해외진출을 하게된 경우이다. 의외로 이런 동기로 해외에 진출한 외국사무소가 많음을 알수 있다. 우리 국내건축가도 여러 동기로 해외진출 기회를 찾아야할 때가 되었다. 이의 추진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심화되고 있는 해외건축 의존도에 대한 대처방안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에, 아니 왠만한 규모의 사업을 독자적으로 국내사무소가 처리하겠다면 주위에서 촌놈처럼 보는 현재의 건축환경에서 주제넘게 국내건축의 해외진출을 생각할 처지인가하고 반문하게 된다. 사실이다. 우리는 아직도 국제시장에 내놓을 만한 지명도를 가진 건축가도 없고 건축제작의 능력, 기술 모두 외국과 경쟁하여 수출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건축가를 찾는 해외사업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포괄적인 우리건축의 현실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80년대 이후에 성장, 성숙해가고 있는 우리건축의 엘리트 그룹은 그렇게 우리의 장래가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사업에 국내건축가의 설계참여에서 볼수 있듯이 우리건축의 해외진출이 실제로는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 베니스비엔날레의 건축가 김석철의 한국관도 그 한 예이다. 고무적인 현상은 국내건축도 그 질과 내용에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였고 인적자원도 80년대 초기와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성숙, 풍부해지고 있다. 해외에서 장기간의 교육과 실무를 거친 우수한 많은 인력도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중에는 해외에서 국내사업설계를 주도한 경력을 가진 건축가도 많다. 그동안 해외사와 협력관계를 통하여 국내사무소도 높은 수준의 제작과정과, 다양한 해외 협력기술의 능력과 그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 우리가 부족한 전문영역은 해외에서 쉽게 들여올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해외건축사무소와 다를게 없다. 우리는 표면에 보이는 일시적인 추세만으로 우리자신을 쉽게 포기하는 죄를 범하여서는 안되겠다. 일부 사회의 건축계에 대한 불신사조와 건축계의 한구석에서 노출되고 있는 열등의식이 우리건축을 병들게 하여서는 안되겠다. 그동안의 과속도의 경제성장은 우리건축의 상대적 후진성을 초래하였고 외국건축가의 국내시장 침식은 당연한 결과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우리건축의 근대화과정에서 생기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자멸적 열등의식에서 벗어나 확실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우리건축의 성숙과 그 뿌리내리기에 모든 노력을 투입하는 일이다. 우리에게도 기회는 오게 되어있다.

3. 해외진출에의 길

1995년도에 미국의 건축가협회와 Architectural Record사가 공동으로 85개의 해외진출 미국건축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해외사업 수주방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사무소의 지명도와 전문지식을 보고 사업주가 초빙 - 46%
해외사업 건축주와 연결(이경우 미국사업주) - 18%
현지 지사의 수주노력의 결과 - 14%
현지 협동건축사무소의 소개 - 9%
설계경기 - 6%

이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해외진출에는 건축가와 그 사무소의 국제적 지명도와 전문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건축의 해외진출은 건설회사가 입찰이라는 가격경쟁과정을 거쳐 해외공사를 수주하거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시장에 외국상품과 경쟁하여 수출하는 것과는 다른 복합적 가치판단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제작이란 지적서비스이고 외국건축가에 의한 건축은 외국문화의 수입을 의미하므로 그제품의 경제성이나 질적우수성만으로는 결정하지 못한다. 현지의 어려운 문제도 어느정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면서 다른 문화권의 건축도입으로 문화적 가치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 건축가의 지명도와 전문지식이 그만큼 중요하게 작용한다.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해외시장에 알려진 지명도가 높은 건축가도, 쌓아놓은 뛰어난 전문지식도 없다. 그렇다고 이것이 단 몇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사회와 건축계의 오랜시간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가 이를 만들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잠재인력이 국내외시장에 어떤 힘으로 노출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인력이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도력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진출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우리자본의 해외진출에 국내건축이 적극 동행하는 것이다. 현재의 참여도를 높여 더욱 광범위하고 사업을 주도하는 건축가의 역할로 전환시켜야 한다. 현지 경제인, 문화인 및 건축가와의 교류도 추진하고 유지하여 우리 건축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건축가로서 각국의 지역문화, 사업, 건축환경의 이해도 높여야 한다. 이런 자세로 우리자본의 투자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건축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이를 떠난 그 지방의 일반건축시장 진출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또한, 우리 건축사사무소를 해외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조직으로 키울 수 있는 장기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우리 사무소의 경쟁력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해외업무를 수행하는데는 그 지역문화 뿐만 아니라 전문업무를 다루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지문화와 건설환경을 빠른기간에 소화하고 현지사무소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도 갖추어야 하고, 더욱이 건축제작의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 우리의 고질적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구조는 우리 건축조직도 그 예외가 아님을 이미 해외에도 잘 알려져 있다. 미국사무소는 해외 사업경험에서 해외프로젝트 수행에는 국내사업보다 상위 고급인력이 요구되고 일반적으로 과다한 인력 비용부담은 미지의 건축조건과 함께 상당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음을 배웠다. 국내사무소의 인력수준향상과 철저한 관리체계의 도입이 해외진출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해외건축정보의 국내소개와 국내건축활동의 해외홍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건축사협회나 타공익기관 산하에 개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이 정보서비스는 답답하기만한 국내건축계에 새로운 동기부여의 계기가 될 수 있을것이다. UIA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가의 자격기준 등도 우리는 주의해서 지켜보아야 겠다. 건축교육을 5년으로 규정하고 상당히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거론되고 있다. 물론 각 개별국가의 독자적 기준을 어느정도 존중한다고는 하나 이의 진행을 보아 우리 교육제도의 수정도 검토되어야 할지 모른다. 국제건축시장에서 인준받지 못하는 한국건축사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해외진출과 우리건축의 장기적 성장대책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우리가 당면한 분리할 수 없는 과제이다. 궁극적인 해외진출은 우리건축의 저력확보가 있어야 가능하고 우리건축의 성장과 자신감을 유도하는데는 해외진출이라는 자극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안과제와 전략

Our Facing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최찬환 /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Choi Chan-Hwan

1. 서 론

국제화 개방화는 모든 분야에서 겪어야 할 과정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력강화가 필수적인 기본요건이다. 우리나라는 건설업계가 해외건설에 눈을 돌리고 진출하여 국가경제성장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1970년대의 중동건설붐을 위시하여 현재도 해외시장에 꾸준히 진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출지역을 다변화하고 기술축적과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집약적인 건설업분야와 대규모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건축설계분야는 건설시공에 비해 해외진출 실적이 극히 적을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은 아직도 어렵고 힘든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는 이와같은 설계분야의 해외진출에 대한 여러 현안의 과제를 요점정리하고 나름대로의 진출전략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2. 현안의 과제

1) 해외진출에 대한 인식 부족

사람은 어려운 환경조건과 난관에 처하게 되면 생존을 위한 온갖 시련을 겪게 되고 고난과 함께 살길을 찾아 지혜를 모으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건축설계분야에서도 이 원리는 결코 예외적일 수 없다고 생각된다. 하나의 예로서 1971년부터 1993년까지 국민 1인당 연평균 GNP 성장율이 17.08%이고 건축물량 연평균 증가율이 13.47%, 건축사 연평균 증가율 7.72%, 건축사 1인당 연평균 물량증가율이 6.57% 라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건축설계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도 경제성장에 힘입은 건설물량의 지속적 증대와 국내 건축설계업무량의 증대는 건축설계업무의 국내안주와 함께 건축사의 해외진출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건설업체가 해외진출을 극대화하고 활발하게 건설수주를 하던 시기에 유독 설계시장은 빗장을 걸어잠그고 건설회사와 동반진출도 하지 못

하고 해외시장에 큰 관심도 없이 국내시장에 안주 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 의문이다. 물론 초기에는 건설시공이 단순 노동인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이 가능할 수 있었으나 건설시공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설계분야가 기술력이나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야하는 특성으로 볼 때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와는 여건이 전혀 달라졌을 뿐아니라 지금까지 겪여보지 못했던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건설시장이 개방되어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두자리 숫자의 고도 경제성장이 끝나고 5 ~6% 정도의 경제성장률로 둔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경제의 어려움과 건설물량의 상대적 위축을 가져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근년에 건축사 배출인력과 등록건축사가 급격히 늘어감에 따라 국내설계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또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전문감리회사의 업무를 분리시킴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선진외국에서 건설업의 장기간의 침체와 불황으로 해외설계회사의 국내진출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왠만한 설계경기의 공모전에서는 해외 유명 설계회사와 국내 건축사사무소의 공동 합작 (Joint Venture) 으로 출품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다 건축주가 해외 건축설계회사를 선호함으로써 설계시장의 개방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더욱이 국내건축설계가 해외건축설계에 비해 디자인, 기술력, 가격경쟁 등에서 경쟁력이 크게 뒤지고 있음이 여실하다. 마치 동네 아저씨들이 이름난 해외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을 맞아 한판 승부경기를 치러야 하는 것과 같은 처지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 준비도 대응책도 없고 오직 목숨을 걸고 거센 파도와 싸워야 하는 역경에 봉착하고 있을 뿐아니라 야생의 찬바람을 경험하지 못했던 온실안의 어린싹이 갑자기 온실지붕을 벗겨 야생의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 자료와 정보의 부족 및 기초연구와 연구개발투자의 미흡

현대사회는 정보와 자료에 의해 운명이 좌우된다. 자기를 알고 상대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정보와 자료이기 때문이며 이는 너무나 필수적이다. 특히, 전문분야에서 분화와 전문성, 협동과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설계분야는 디자인의 문화예술적 창의성과 고도의 기술력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등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를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설계는 건축사사무소의 업무로 전문화되어 있으나 개별 건축사사무소 단위로는 해외의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비록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비효율적이다. 이와같은 업무는 건축사협회가 공동사업으로 시행할 부문이다.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정확한 해외시장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우선, 해외설계시장에서 계약, 설계도면작성, 재료사용, 시방서등 기본적인 절차이행과 최소한의 기본도서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충분히 습득하고 시행할 여건과 능력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해외의 도면작성과 시방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없는 실정일뿐아니라 국제협약에서 상당한 세부도면(Graphic Detail) 이 특허가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 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관리시스템에서도 특허로 등록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초분야에서 연구개발투자를 늘리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우선 급한 것은 언어에 대한 장벽을 극복하는 일이다. 건설분야에 대한 계약, 시방서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번역이 쉬운 문제가 아닐 뿐이니라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예로서 김포국제공항, 부산고속철도역사 등 대형 국제화된 건설프로젝트에서 영문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십억원(김포국제공항: 50억원, 부산철도: 21억원)에 달한다고 하며 전체 설계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이 되니 경쟁력을 가지기가 곤란하다. 이와 같은 기본작업은 설계사무소단위로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인식확산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시방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고 실효성이 없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건축학회, 건축사협회, 건기원 등에서 시방서에 대한 연구작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연구의 체계성, 그리고 지속성이 부족할 뿐이니라 턱없이 부족한 연구예산으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연구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건축연구소와 자료정보센타의 설립과 운영이 시급하고 연구개발투자를 대폭 늘리고 우수인력의 유치와 산학연계의 협동연구의 활성화, 기초연구의 확대 등이 필요하며 해외에 대한 자료와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건축설계업무 및 공사감리를 총괄하는 건축사협회가 건축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때늦은 일 일뿐아니라 해외를 포함한 건축관련 자료와 정보를 담당할 정보센타의 설립과 운영이 시급한 일이다. 6,400여 건축사 회원을 가진 건축사협회가 1개 건설회사가 투자하는 연구개발비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냉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오늘과 같은 건축설계에 대한 사회전반적 인식부족 그리고 척박한 풍토와 환경이 홍보부족이라고 하기 보다는 보다 구조적 근본원인이 있다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3. 진출전략

1) 설계의 특성에 따른 전략

건축은 지역환경에 따른 독특한 양식을 가지는 지역성, 풍토성에 큰영향을 받게 되며 그 나라의 문화와 일상생활 그리고 의식, 관습 등 규범적 가치기준에 따라 특성을 가진

다. 따라서 상이한 외국의 풍습과 문화 생활관습에 맞추어 창작설계를 하기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설계는 Software가 중요하기 때문에 Hardware를 중심으로하는 건설시공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며, 해외설계는 문화예술의 수출이며 건설수출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한다. 설계는 비가시적(非可視的)인 초기구조와 작업이므로 건설시공과는 다르게 매우 은밀하게 진행될 뿐아니라 초기 기획단계에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정보와 기획력 그리고 건축주나 발주자와의 교류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설계사무소의 취약점이 있다면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획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약하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장 · 단기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기술력과 디자인의 강화

디자인은 지역환경과 전통문화 그리고 생활관습과 의식에 대한 총체적인 요소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건축설계를 수주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것이 관건이다. 무엇보다 진출국가의 현지사정을 잘 파악하고 세계적으로 명성있는 건축가를 양성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경기설계 등에 응모하여 실력을 인정받고 진출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국내적으로 유수한 건축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가능성있는 엘리트 건축가 집단이 세계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검토해 볼 일이다. 기술력(Technology & Engineering)은 디자인에 비해 장애요소가 비교적 적고 객관적이며 국제적으로 쉽게 인정 받을 수 있어 장벽이 낮을 수 있다. 건축설계분야에서 기술력을 높히기 위해서는 설계사무소의 전문화가 선결요건이다. 전문화가 되지 않으면 기술력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고 세계적 유수한 설계회사와의 제휴, 기술이전과 교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신기술의 도입과 개발이 필요하다. 기술력과 디자인은 건축설계의 요체이며 경쟁력의 근원이지만 솔직히 우리나라는 두가지 모두 아직은 경쟁력을 가지지 못해 해외 설계진출이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직 해외기술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새로운 신기술의 개발은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이며 우선은 기술력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선진 기술력을 습득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 하며 디자인과 기획력의 강화도 우선적으로 보강해야 할 부문이다. 새로운 기술도입도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욱 어려운 것은 디자인부문으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닐뿐 아니라 인재양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설계회사와의 협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에 진출하고자하는 해외설계회사와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먼저 개방하여 관심있고 뜻있는 외국의 유수한 설계회사와 동반협력자를 구하고 이를 통하여 디자인과 기술력을 하루 빨리 습득하여 경쟁력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냉엄한 국제경쟁에서 막연한 짝사랑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 건설시장이 개방될 때 이를 우리나라 건설 및 설계부문의 도약의 발판과 지렛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3) R & D 의 활성화

연구개발 투자는 경쟁력강화와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특히, 설계분야의 R&D는 투자비율을 대폭 높히고 지속적으로 이루워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R&D투자가 기술의 사회환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가 생존할 수 있다는 공공성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한다. R&D에 따른 세금혜택,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제의 적극적 채택과 활용이 요구되며 학회, 협회, 정부 등에서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4) 현지설계회사와의 협력설계

우리나라 건축설계사무소는 전반적으로 해외설계에 대한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경험도 많지 않다. 건축설계가 지니는 특성이 있고 인 · 허가 등 현지국가의 각종 제도와 법규제도로 인하여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해외진출 대상국가의 관련법, 제도에 관한 철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충분한 준비와 사전지식이 필요하다. 해외설계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단독진출은 사실상 어렵고 현지 설계회사와 Joint Venture 또는 Consortium 형식으로 동반참여(Partner Ship)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같은 방법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상호분담 시행하는 등 때로는 수직적 업무분담이 일어난다.

5) 해외진출건설회사와의 공동진출

해외건설업체가 지금까지 진출하여 이미 상당한 건설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나름대로의 정보, 수주경험과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해외건설업체와 Joint Venture 하는 방법과 국내에서 설계, 시공 일괄수주(Turn-Key) 방식에 따른 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와의 제휴와 결합을 해외진출에서 설계사무소와 시공회사의 협조체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해외건설업체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긴밀한 상호 정보교류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방안도 있다. 건축사사무소와 건설회사는 국내시장에서 설계와 시공에 대한 소모적 분쟁을 중단하고 해외건설시장의 동반협력자로서 상호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해외건설에서 단순수주가 아닌 개발투자형일 때 국내 설계사무소와 동반협력관계는 해외건설진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나라도 해외개발 투자형 건설이 중대하므로 해외

진출건설회사와 투자회사가 국내 설계회사에 깊은 신뢰를 가지고 인정할 수 있도록 모두 협력노력해야 한다. 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는 공생해야할 협력동반자이지 결코 상호견제와 경쟁의 상대로 인식하여서는 안된다.

6) 전문인력의 활용

설계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설계경험이 있는 해외설계전문가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진출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이는 현지 설계회사와의 협력설계 그리고 해외진출회사와의 공동진출에 앞서 갖추어야 할 선결조건일 뿐아니라 자료와 정보의 수집 등에서부터 실제 설계작업수행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하다. 우리 나라도 해외에 진출한 전문설계인력을 파악하고 이를 결집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해외설계회사와 건설회사가 국내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작업으로 해외동포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이를 통하여 선진기술의 습득은 물론 해외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7) 새로운 물결에의 대비

건설회사의 해외진출은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해외설계수주는 그 준비는커녕 마음가짐조차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UR과 WTO가 온실을 걷어내는 것과 같은 큰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면 앞으로 Green Round가 현실로 닥아오면 Performance 시방서를 써야 할 뿐아니라 고도한 기술력을 가지지 못하면 해외진출은 커녕 국내시장에서도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는 필경 TR이라고 불리우는 Technical Round를 수반하게 되고 특허와 지적재산권이 큰 문제가 될 것이며 지금도 그와같은 초기단계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모든 Program , 도면작성, 시방서 등에 이와같은 지적재산의 가치를 사들여야 한다면 디자인과 기술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경쟁력이 없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설자리를 잃게 된다. 고객의 요구는 다양화, 고급화되고 예술성, 경제성,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설계에 따른 요구환경은 고속으로 앞질러 가는데 이를 맞추어야 할 사람과 체계운영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닌 설계사무소가 처한 냉엄한 현실적 문제이며 고객에게 감동을 주어도 어려운 형편이 될테인데 만족은 커녕 설계에 대한 인식 자체도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가 궁극적 현안과제임에 틀림없다. 국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찌 해외시장 진출과 공략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모한 일일 수 있다. 자기를 알고 평정해야 (克己) 남을 지배할 수 있다(征討). 우리나라 설계사무소는 극기의 단계이며 단계별로 해외진출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8) 기타

계약과 Claim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보험제도가 도입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시방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형식적으로 사용하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불식하고 보완정비해야 한다. 시방서 작성능력이나 사용능력 부족은 해외진출에 큰 걸림돌이 될 뿐아니라 계약과 함께 분쟁이 일어났을 때 큰 피해를 입게되는 주 원인이 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나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는 우수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주력할 길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국제사회의 변화추세에 따르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변화추세를 예견하여 이에 걸맞는 교육훈련 체재를 구축해야 한다. 대비하지 않은 전쟁은 패배 할 수밖에 없으며 훈련없는 실전은 고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학교 교과과정의 전면적 개편, 기존 전문인력의 훈련과 양성, 실무사회에서의 인력의 수급은 하나의 패키지로 연계화되어야 한다. 해외에서 국내 기술력의 위상을 보면 토목 프랜트, 화학 등에서는 경쟁력이 어느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건축설계사무소의 설계, 구조, 설비분야에서는 현격한 질적수준차이가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 오랫동안 수주와 인 · 허가에 매달리며 살아가는 풍토와 의식 및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한 낙후성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설계사무소는 건설회사와 동반하여 해외진출이 활발하며 학계에서는 여러 관련 외국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조사,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를 만들어 이를 앞세우며 철저한 전문화조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뿐아니라 전분야가 협력하고 정부가 이를 정책과 제도로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등 산 · 학 · 관이 합동 노력하고 있다.

4. 결론

설계의 해외진출은 문화수출이며 종합적인 기획력, 디자인과 기술력 등이 있어야 하며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설계시장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정비와 체질개선, 그리고 해외에 대한 자료와 정보, 디자인과 기술개발, 기초연구와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전문화,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 국내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와의 동반적 협력관계의 구축, 정부의 정책과 법제도의 대폭적 정비 등 수많은 준비작업을 꾸준히 해야 한다. 언젠가 우리나라 설계사무소가 해외에 진출해야 한다면 하루빨리 준비를 서두르고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비록 설계사무소나 건설회사가 해야할 일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

중국의 근대화와 한국의 역할

The Modernization of China and the Influence of Korea

김성우 /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Sung-Woo

한국의 건축사가 해외진출을 도모하고자 할 때 어느 나라 또는 어느 지역으로의 진출을 도모해야 할까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첫째로 유럽과 미국 등 서양권으로의 진출은 어렵다. 그렇다고 보면 자연적으로 우선 서양이 아닌 제3세계권으로 좁혀진다. 제3세계권에서는 어디가 유력할까를 생각할 때 그 대답은 우선 태평양연안의 아시아국가들이 떠오른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그곳이 경제적으로 성장속도와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슬람국가들 쪽으로의 진출을 생각 못할 아무 이유가 없다. 그러나 21세기에서 경제적 성장과 이에 따른 건설시장의 수요를 생각할 때 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잠재력을 따르지 못한다. 또한 문화적 인종적 유대관계를 고려해도 그 대답은 분명하며 이미 심어져 있는 한국의 이미지와 기업들의 시장개척 노력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아시아의 동쪽 국가들 중에서 또 한번 진출대상 국가를 좁혀본다면 어디가 될까. 그것은 당연히 중국이다. 동남아시아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아무리 커도 그 모두를 합친 양이 중국을 따르지 못한다. 시장의 규모를 생각해봐도 대답은 분명해진다. 중국의 시장규모는 동남아를 모두 합친 것과도 비교가 불가능하다. 21세기는 중국이 근대화되는 시기로써 세계역사에 기록이 되어야할 것이다. 중국의 근대화는 틀림없이 세계경제의 판도를 바꿀 것이고 그 파급효과는 세계문명의 판도를 새롭게 짜게 할 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서구권의 학자들이 중국이 근대화되는 방법과 속도에 따라서 지구환경의 황폐화가 좌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21세기에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청나라 말기에 서방국가들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중국이 잠자는 사자인줄 알았다가 의외로 취약함을 간파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무력시위를 통해 관철시켰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때는 중국이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던 시기가 아니었다. 12억의 인구가 잠에서 깨어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중국은 진정 잠자는 사자였으되 금세기 말에서야 완전히 잠에서 깨었다. 아편전쟁과 같은 경우는 서방열강이 아직 잠자고 있는 사자를 물어뜯어 보았던 것에 불과하다. 21세기에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면 전 세계가 그 포효에 숨죽여야할 때가 온다. 우리가 동남아시아에의 진출을 주저하거나 조심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그곳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문제는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와도 근본적 성격을 달리한다. 인구와 잠재력을 생각할 때 중국은 국가가 아니고 대륙이다. 대륙에의 진출은 동남아와 같은 중소국가들에의 진출과는 그 작전과 준비자체를 달리해야 한다. 21세기에 중국진출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이미 서방세계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중국에 진출하고 있으며 그것은 건축과 도시의 설계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바로 지난 방학 때에 미국 보스턴에서 있었던 아시아계 학생 및 젊은 건축가들의 모임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의 토로는 한마디로 놀랐다는 것이다. 한사람의 젊은 무명건축가가 그대로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해 도시하나를 설계하고 있으며 미국의 설계회사들은 중국의 대형 프로젝트들을 놓칠세라 붙잡고 작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어느 인테리어 전문회사는 중국에 지점을 내고는 스스로 작업규모에 놀라고 말았다는 얘기를 꺼낸다. 국내시장보다 동그라미 하나내지 둘 이상 더 붙어서 계약되는 정도로 보아 수년 내에 중국지점의 규모가 한국본점을 능가할 것같다는 얘기였다.

21세기의 한국의 기회는 중국에 있다. 이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일본이 한국전쟁을 통해 돈벌어서 경제성장을 했고 한국이 월남전을 통해 초기경제를 성장시켰다는 것을 상기해야한다. 한국의 성장은 한국내의 성장에만 국한하고 의존해서는 국제적인 게임이 되지 않는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기회에 편승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같은 경제분야에 해당되는 얘기로 착각하면 오산이다. 건축설계도 당연히 포함되는 얘기다. 중국은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고 거대한 스케일로 굴러가는 자신의 근대화를 소화해낼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도와서 중국근대화에 참여하여 한국을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살찌울 여건을 갖고 있다. 그 하나는 문화적 동질성이다. 이것은 다른 어느 나라도 한국만큼 중국과의 문화적 동질성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확실한 고지확보의 여건이다. 또 하나는 이미 지나간 우리 근대화의 경험이다. 중국은 자신의 근대화가 일본이나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인식시키고 그 가능성을 실증해 주는 일이 남아있을 뿐이다. 또 한가지의 여건은 우리가 그 동안의 경험과 축적으로 볼 때에 중국을 도울만한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시장내에서 볼 때에 우리

의 능력이 취약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국의 여건에서는 우리의 역할이 충분히 소용될 상황이다. 21세기의 한국에게 있어서 근대화가 본격화될 중국이 있다는 것은 한국역사 전체에서 두 번 오지 않을 기회이다. 이 기회를 기회로 인식하지 못한 채 붙잡지 못하면 그 결과는 자명하다. 한국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한국이 다시 중국에 예속될 것을 걱정해야 한다. 중국이 자기 근대화를 이룩하고 난 후에는 그 인력과 다양한 가능성으로 한국시장정도는 손쉽게 잡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한국의 대중국관계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생존이 걸려있는 필수사항이다. 이 점을 아직 한국은 모르고 있다.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지는 몰라도 분명히 깨닫고 적절히 대처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이나 설계사무소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계약조건이 너무 않좋다든가 약속을 안 지켜서 장사에 재미를 못보았다던가 하는 종류의 얘기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초전에 겪는 시련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진출이 어렵다가 아니라 앞으로의 진출을 위해서 겪어야만 하는 노하우의 일종과 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중국사람은 기본적으로 한국사람보다 장사를 잘한다. 중국사람 보기에는 한국사람은 떼어먹기 좋은 봉같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성질이 급한 점에서도 그렇고 눈앞의 이익에 급한 점에서도 그러할 수 있다. 그러한 쉽지 않은 거래의 과정을 거쳐 손해안보고 일해내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며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물러나서는 그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다.

우리가 노려야하는 것은 21세기의 거대시장 중국이고 그것을 공략함으로 얻어내야만 하는 한국의 재생력이다. 이것은 건축설계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의 한국 건축설계업은 상당히 우물안의 개구리였다. 우리끼리의 경쟁에서 살아남기의 싸움으로 일관되었다. 그것이 그동안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 요인이라고 봐야한다. 우리나라의 지방도시의 경쟁력이 아무리 도약한들 서울을 따라올 수 없듯이 한국내에서의 경쟁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국제적 경쟁력을 따라잡기 어렵다. 국내경쟁력을 국제무대 위에 올려놓는 것이 국내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5년만 빨리 국제무대에 뛰어들었어도 지금과 같이 국내의 중요프로젝트를 외국회사에게 빼앗기지 않았을지 모른다. 지금 외국회사에게 빼앗기는 모든 프로젝트를 우리를 살찌우는 기회로 이용하여 우리가 중국이나 동남아로 진출하는 근거로 삼지 않으면 외국시장은 물론 국내시장도 계속 외국에게 빼앗기고 만다. 한국의 설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도 여기에 있다. 국내의 설계수준이 외국에 비해 취약하다고만 볼일이 아니고 아직 정당한 평가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고 보아야할 이유도 충분히 있다.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것이 국내무대에서 활동하여 세계적 위치를 획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더욱이 국내경기가 요즈음과 같이 어려울 때에는 그 돌파구 확보를 위해서도 국제시장의 개척이 불가피하다. 앞으로의 승부는 국제적 판도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일정 규모이상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국내경기는 지금의 불황에서 회복되더라도 언젠가 또다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국을 포함한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꼽아야할 것이 있다면 언어능력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영어공부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있었던 것이 지금만큼의 우리의 성장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듯이 앞으로의 세대는 중국어 능력에 의해 많은 것이 좌우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위에 중국어의 필요성이 더 얹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지 모른다. 물론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영어로 어느정도 언어문제 해소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일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와 축적을 게을리했던 영역이다. 외국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회와 문화의 이해를 획득하는 것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국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외국회사가 한국회사와 손잡고 일하는 것이 그 이해부족의 문제를 해소해주는 방편이 되듯이 우리에게도 그 나라의 회사와 손잡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된다. 물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자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다음에는 별개의 문제이다. 문제는 그 나라의 사회에 침투가능하고 그 나라 문화가 요구하는 내용의 충족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을만큼 문화적 자부심이 드센 나라이고 그들의 근대화과정에서 틀림없이 자기들의 정체성확보를 노릴 것이다. 한국의 회사가 중국에 진출한다는 것은 이러한 그들의 깊은 욕구를 한국의 입장과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과 관점에서 충족시킬 수 있을 때에 더 성공적일 수 있다. 중국은 우리가 20-30 년전에 겪었던 전통과 근대의 갈등을 어느 정도 겪고 있으며 20-30년 전에 우리가 한국에서 성취하지 못했던 일을 중국을 통해 실현시킨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중국문화의 이해는 사실상 한국문화의 이해와 동떨어진 일이 아니다. 한국문화의 정체성은 중국문화와의 구별을 통해야만 확실해지는 부분이 있으며 또한 중국문화와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한 공통성의 인정과정을 통해 확실해질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한국의 도움을 필

요로 한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있는 문화적 동질성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지난 2000년간의 역사적 유대관계로 보아서도 그러하며 근대화 과정을 먼저 겪은 선배로서도 그러하다.

21세기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필요한 도시와 건축의 물량은 가히 천문학적 숫자로만 계량될 것이다. 이러한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의 건설기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한국의 근대화는 서방, 그 중에서도 미국의 건축과 도시개발의 방법으로 접근한 사례이다. 한국의 근대화는 미국적 도시설계의 접근과 건축설계의 경향이 적절한 여과장치없이 그대로 수입 및 적용되어 버린 예에 가깝다. 그 여과작용을 적절히 취해주지 못했기에 실패했다라고 규정할 수도 있는 근대화의 사례에 해당한다.

지금의 중국은 우리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다. 바로 이점이 우리와 중국이 머리를 맞대고 추구하고 성취시켜야할 숙제라면 숙제이다.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구식 개발의 복사판이 더 이상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21세기의 중국의 근대적 개발을 동서의 건축관과 도시관 그리고 환경관의 시험적 무대이고 문화적 운명을 건 승부처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동아시아의 문화가 얼마나 자기 고유의 관점과 가치관을 갖고 자기 환경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된다.

우리는 우리의 근대화과정에서 그것을 못했기에 한에 사무쳐 있으며 중국은 이제부터 그것을 해야하기에 절박한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해외진출만이 아닌 동아시아 건축의 미래를 어떻게 규정하고 실현시키기를 원하는가하는 문제가 된다. 21세기는 더 이상 유럽-아메리카 중심의 문화가 되게 할 수 없다는 당위성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가의 문제이다. 한국과 중국은 21세기의 동조자이고 협력파트너로서 같이 성취해야할 공동의 목표가 있는 것이다.

한국의 중국진출은 한국의 활로이고 세계진출의 교두보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서구적 건축문화에 대한 동아시아 건축관의 자주적 성취가능성의 시험무대이고 이것은 21세기의 세계 건축 판도에 몹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중국의 근대화는 전세계적 스케일의 기회이다. 중국은 한국을 필요로 하지만 한국은 21세기의 중국을 필요로 한다. 한국은 그 필요성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중국에게 깨우쳐 주어야 한다. 우리가 중국에서 실현시켜야할 임무는 중국의 바른 근대화뿐만 아니라 바로 한국건축을 다시 살리는 것이기도 하다.

해외진출을 위한 인터넷 활용

Architectural Information Retrieval Using Internet

윤기병 / 원광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Yoon Ki-Byung

1. 서론

설계의 주된 행위활동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설계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매우 광범위한 반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정보의 질과 량이나 유통과정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특히 공익적 기관에서의 정보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른 정보체계의 미비는, 건축사들과 같은 개인들에게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정보수집에 많은 재정적 시간적 부담을 안게 하고 있다.

정보화사회로의 구조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해외의 정보를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 특히 국제적 인터넷망은 세계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저장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설계, 환경, 건설에 관련된 자료들을 포함한 세계각국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또한 정보화사회로의 진행은 각자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자료제공을 통하여 자료제공자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자료제공자의 관점과 견해를 알리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적 개방화 환경으로의 변화는, 외국건축사들의 국내시장 진출과 국내건축사들의 해외진출 모두의 가능성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화사회의 도구의 활용은 우리들의 해외진출을 돕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로의 진출은 자료수집을 통한 외국에 대한 이해와 함께, 우리들에 대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우리의 건축문화를 알리는 양면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형태 중, 이 글은 전자의 경우와 같이 건축관련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구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

인터넷은 전세계적인 컴퓨터 통신망으로 수천

개의 통신망으로 이루어져 수많은 컴퓨터들을 상호 연결시켜 주고 있으며, 모든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1969년 ARPANET이라고 하는 초기 전산망이 탄생한 이래 1990년대 미국의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계획과 일본의 신 사회자본계획, 유럽의 EBONE EuroPaNet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인터넷이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특히 1994년 WWW (World Wide Web) 등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 도구들의 실용화는 일반인들의 이용을 손쉽게 하여, 폭발적 사용자 증가의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류의 주요 형태로는 전자우편, 텔넷(telnet), FTP와 WWW을 들 수 있다. 전자우편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사람들과 편리하게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하이텔이나 천리안과 같은 정보서비스의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사용 계정이 전자우편 주소가 되며, 천리안의 경우 뒤에 @chollian.dacom.co.kr을 붙여주면 된다. 해외의 건축가나 기관의 전자우편 주소로 편지를 손쉽게 보내고 받을 수 있다.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는 개략적인 내용만을 기술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자우편을 통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요청할 수 있다. 전자우편의 장점으로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같은 내용의 편지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으며, 편지가 즉시적으로 전달된다. 텔넷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진 컴퓨터를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개인용 컴퓨터를 단말기로 인터넷을 통하여 원거리에 있는 중대형 컴퓨터를 사용하게 된다. 텔넷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자신의 계정(사용자 ID와 비밀번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정이 없어도 접속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 텔넷은 국내의 하이텔을 사용하는 형태로, NETCOM On-line Communication Service, Exec-PC BBS, Compuserve 등의 해외의 정보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으며, 세계 각국 도서관장서를 검색 할 수 있다. FTP(File Transfer Protocol)는 화일 교환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의 형태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는 anonymous FTP 서비스를 통하여 자료들을 구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축 및 예술사진, 지도, 통계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을 구할 수 있다.

WWW은 텔넷 서비스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FTP 서비스는 컴퓨터 활용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에 반하여, WWW은 컴퓨터에 대한 비전문가라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WWW은 그림, 영상, 음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기능과 자료들을 상호 연계하여 볼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 기능이 있어 누구나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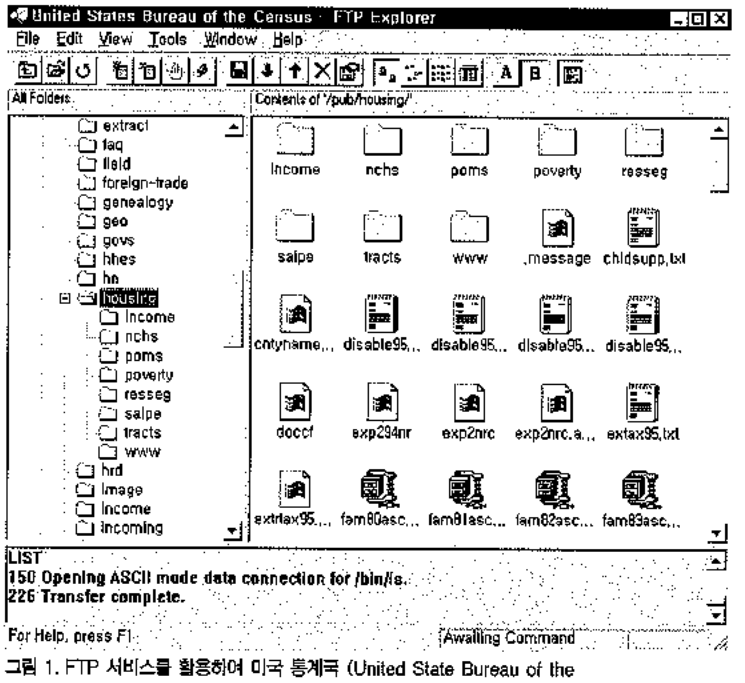


그림 1. FTP 서비스를 활용하여 미국 통계국 (United State Bureau of the Census)의 주택통계에 관한 자료들을 가져올 수 있다.

3. 건축설계 정보수집

3.1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수집

건축 설계에 필요한 정보는 매우 다양하다. 건축가, 건축물을 비롯하여, 건축관련 연구관련 자료, 도시의 현황, 기후, 때로는 시사적인 것 등 필요한 정보의 유형을 단순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인터넷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검색엔진을 이용할 경우 색인어(keyword)를 가지고 관련 자료들을 찾을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FTP 검색과 WWW 검색이 있다. FTP에서는 아카이(archi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색인어와 일치하는 파일들을 찾을 수 있다 (그림 2).

WWW에서도 검색엔진을 제공하는 사이트(표 1)를 이용하여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찾고자 하는 정보와 관련된 주제어들을 입력함으로써, 이들 주제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목록을 찾을 수 있다. 사용자는 각 목록들을 시발점으로 하여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표 1. WWW에서 색인어를 이용하여 자료검색 할 수 있는 곳들의 인터넷 주소

검색엔진	인터넷 주소
야 후	http://www.yahoo.com
알타비스타	http://altavista.digital.com
인포시크	http://www.infoseek.com
라이코스	http://www.lycos.com
익사이트	http://www.excite.com
심마니	http://simmany.hnc.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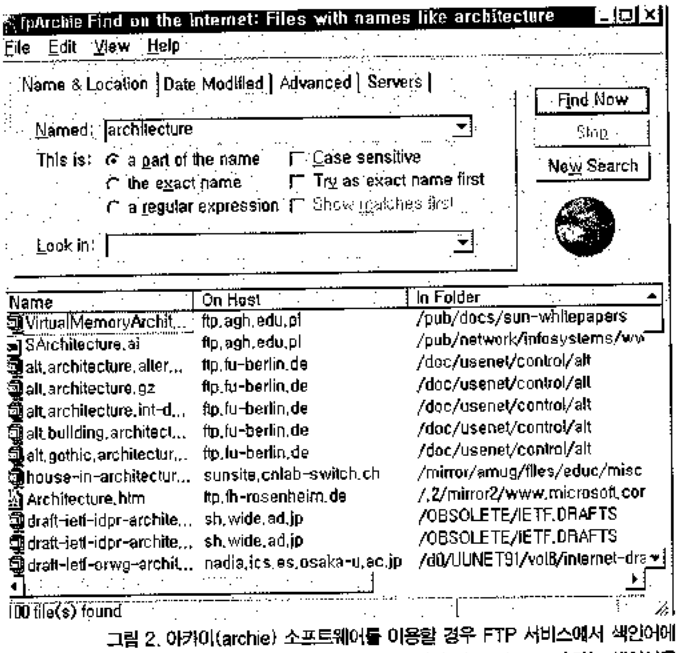


그림 2. 아키이(archie)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경우 FTP 서비스에서 색인어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Architecture' 라는 색인어를 가지고 전세계적으로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00개의 파일들이 파일이나 디렉토리명의 일부분으로 'architecture'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2 기관을 통한 정보수집의 시작

인터넷에서 대학의 건축학과, 협회 및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다양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관들은 자체에 대한 정보와 함께, 관심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기관들과 연결하여 놓고 있다.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설계관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건축과에서 anonymous FTP를 운영하는 곳으로는 시드니대학의 건축과(ftp://archsci.arch.su.edu.au/)가 있으며, WWW을 이용하여 대만, 홍콩, 싱가폴 및 일본 등 아시아 대학의 건축과들과 미국, 유럽 및 호주의 많은 건축과들이 자신들의 학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와 교수진, 연구실, 그리고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관심 주제들에 대한 정보들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디자인 분야에서 미국 텍사스의 유명한 Rice 대학은 WWW에서 라이스 디자인 연합 (Rice Design Alliance (http://riceinfo.rice.edu/projects/RDA/index.html))이라는 휴스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건축연구회 (The Unit for Architectural Studies (http://doric.bart.ucl.ac.uk/web/uas/index.html))도 건축설계분야의 연구에 관련된 정보를 런던대학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그림 3).

대학 자체의 정보 이외에도 건축관련 연구센터와 학회, 건축가와 작품, 그리고 학술발표대회와 전시회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대의 경우 WWW, FTP 등에서 자료들을 찾을 수 있도록 연결하여 놓고 있으며, 영국 카디프대학의 건축과(Cardiff University of Wales (http://www.cf.ac.uk/powia))의 경우 각종 단체들과 연결하여 놓고 있다.

건축설계 관련 정보수집을 시작하기 좋은 곳들로는 협회 등의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미국계획협회(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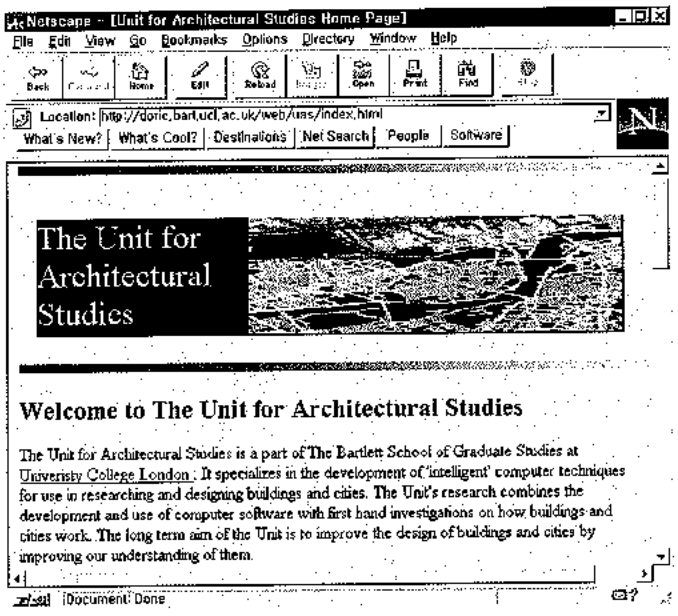


그림 3. 런던대학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The Unit for Architectural Studies의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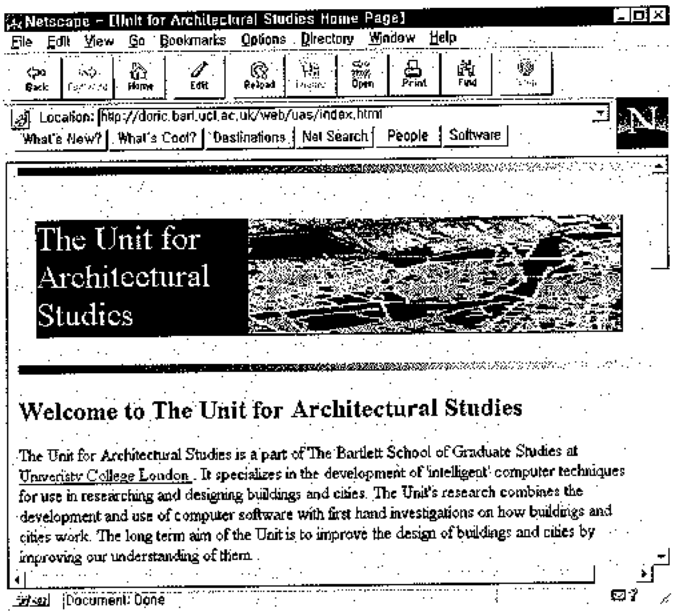


그림 4. 미국계획협회(American Planning Association)의 홈페이지. 시사, 학회, 행사, 도서, 기관, 공지사항 등에 관한 자료들을 검색하여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http://www.bway.net/~urbandev/apaid/apaid.html)은 건축의 시사적인 것으로부터 학술발표회와 행사, 자료, 공지사항 및 건축관련 기관과의 연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림 4). 상업적인 사이트로 건축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모아 놓은 곳으로 archinet(http:// www.archinet.co.uk/)이 있다.

국내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해외정보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매우 잘 정리하여 놓은 곳 중 하나로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http://hri.knhc.co.kr)가 있다.

3.3 건축가와 작품

인터넷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곳이기도 하다. 인터넷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함으로써 건축가와 작품을 보여주고 있으며, 설계사무소의 경우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많은 세계 유명한 건축가들에 대한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접근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인 Louis I. Kahn (http://members.tripod.com/ ~freshness/index.html)과 Mies van der Rohe(http://acc.jc.edu/~cdemeter/art.mies.html)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Michael Graves (http://www.interlog.com/~mgraves)와 같은 개인 건축가는 자신의 작품을 인테넷에 소개시키고 있으며, SOM (http://www.som.com/)과 같은 유명한 설계사무소도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다.

3.4 도서 및 잡지정보

인터넷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 중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는 도서에 관한 정보이다. 대학 도서관들은 인터넷 망에서 가장 개방된 정보로 소장하고 있는 도서들을 검색하여 볼 수 있다{{ . 도서관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영국 Imperial College, London(sunsite.doc.ic.ac.uk)의 전자계산학과에서 운영하는 anonymous FTP의 Mirror\ftp.std.com\obi\networking에 위치하고 있는 압축화일인 libraries.tet.z에 수록되어 있다. }} (그림 5). 인터넷에서 도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Amazon.com (http://www.amazon.com), BookWire (http ://www.bookwire.com), The Production Book Online (http://www.pb.com.au) 등 서점을 이용하여 직접 도서를 검색하고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에는 ENR(Engineering News Record (http://www.enr.com))과 같이 발간되고 있는 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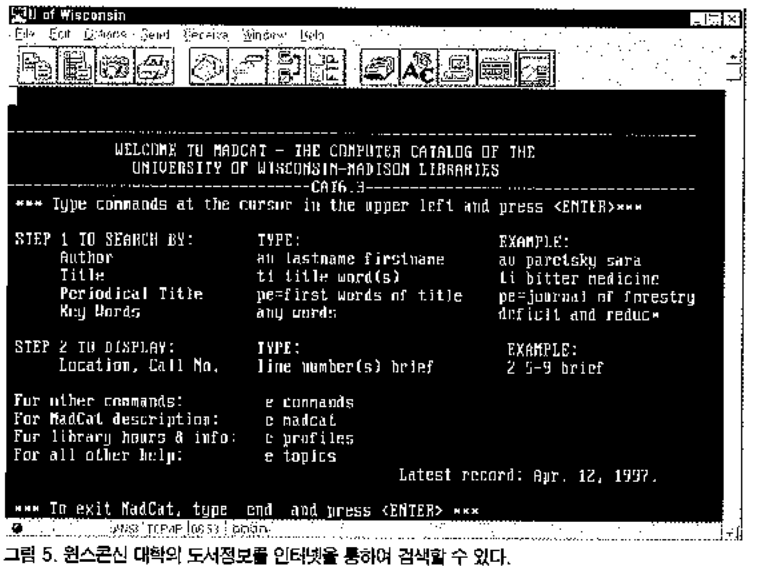


그림 5. 윈스콘신 대학의 도서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다.

들에 관한 소개에 관한 정보와 Plan Net (http//www.plannet.com)과 같이 순수한 인테넷 잡지가 있다. 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사의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자의 경우 매우 다양한 기사들을 접근할 수 있다.

이 밖에 인터넷에는 다양한 건축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세계 유수의 신문들은 인터넷에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주문형 뉴스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뉴스그룹을 이용할 경우 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4. 결론

인터넷은 많고 다양한 정보의 유통망으로 성장하여 나아가고 있다.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건축의 경우 인터넷의 활용은 업무의 효율화를 크게 도와줄 수 있다. 특히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편리한 도구로서의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외 진출을 위하여는 인터넷에서 정보수집의 기능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의 노력도 필요하다. 즉 우리 자신들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우리 자신의 개성을 남에게 알림으로써 세계적인 무대에서 고유의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무엇을 수출할 것인가

What do We Export to?

한만원 / 환경건축
by Han Man-Won

최근 떠들석 했던 국제화라는 명제는 어쨌든 우리 건축계가 실질적으로 국제화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한 것 같다. 실제로 10여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 건축계의 국제화는 더 이상 부르짖을 필요도 없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서울은 이미 세계 건축계의 주목받는 도시중의 하나로 많은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서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이거나 각종 현상설계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고 어떤 도시 못지않게 그들의 강연회나 전시회가 활발하며, 세계적으로 소위 잘나가는 건축가들을 서울에서 만나보는 것도 이미 낯선 일이 아니다. 심지어는 중요한 현상설계시에는 거의 외국사들의 대리전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활발한 협력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높다. 어쨌든 이제 우리 건축계에는 외국건축가들과의 공동작업이 낯설지 않게 되었으나 그것은 아직 매우 일방적인 것이었으며 간혹 들리는 몇몇 건축가들의 외국진출 소식이 그나마 위안을 주고있는 형편이다. 그래도 활발한 우리의 건설시장과 이에 따라 생겨난 활발한 국제적인 협력의 과정은 우리가 그것을 보다 발전적으로, 그리고 고도의 세련된 정책을 가지고 활용한다면 오리혀 우리건축의 국제적인 위상 향상과 실질적인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프로젝트를 거의 사오다시피하는 외국건축가들과의 일방적인 협력관계와 또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적 잠재력을 너무 쉽게 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와같은 시장적 잠재력이라는 배경이 바로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발길이 오게하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과 실리를 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협력작업이 하나의 수주를 추가하기 위한 요식적인 것보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또 우리의 경쟁력을 제고해 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 가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한국건축사들의 해외진출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앞에 해결해야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고질적인 부실과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들, 건축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을 우선 해결하지 않고는, 그리고는 우리 건축의 자리매김부터 성실히 해 놓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해외진출을 논할 수 있을것인가. 우리 내부의 산적한 문제를 안고 과연 눈을 해외로 돌릴 여유라도 있는 것일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내부적으로도 외국업체들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수 없게 되었으며, 또 그것은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부딪히게 될 그리고 극복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은 반드시 내부적 문제들 뿐만이 아닌 선진국의 설계사무소들과의 제 3국에서의 경쟁이며, 선진국 시장에 대한 접근 역시 궁극적으로 생각되지 않으면 소위 일방적인 관계를 벗어나 상호 대등한 경쟁을 펼쳐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해외로 진출하는데 있어서는 외국사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해 오는 과정에 대한 경험이 오히려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저개발국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미 외국의 자본 혹은 원조와 연계된 많은 기술용역의 진출을 보아왔으며, 어느 정도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고 나서야 고난도 프로젝트 혹은 대형 프로젝트 등에서 외국의 설계사무소와의 적극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었다. 사실 일반적인 건축물들에 외국건축가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며, 개인적인 관계를 통한 프로젝트들 외에는 외국건축가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특수한 경우의 프로젝트들, 혹은 그 건축가의 재능이 잘 알려져 건축주가 직접 건축가를 선정하는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설계의 해외진출은 주로 제3세계에서의 국내외의 건설사들과 연계된 턴키방식이나 한국자본의 진출에 따른 프로젝트들에서 우선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식이 앞으로도 대형사무소들의 주도에 의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설계자체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 진출은 극소수의 예만이 있을 뿐이며 한국건축계 전반의 문제로 보기에는 아직도 현실적인 상황이나 여건이 전혀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에서 상징성이 중요한 건축물들의 경우 건축가의 선정을 건축가의 특색을 감안한 직접 발주나 대개의 경우 국제적인 지명 혹은 일반 공개의 현상설계를 통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설계가 또한 재능있는 건축가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관문이 되고 있다. 한국건축의 국제적 위상이 아직 미미하고 뚜렷이 알려진 건축가가 없는 현실에서 국제적인 설계경기에 초청되는 것은 아직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아마도 바늘구멍을 뚫는 일반 공모전에의 시도가 어쩌면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겠으며,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뿐 아니라 선진국들의 건축가들에게도 마찬가지 일것이다.

또한 우리시장을 위한 외국사무소와의 협력 뿐만 아니라 외국사무소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곳 시장에 접근하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건축수주의 특성상 항상 현지에서의 밀접한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우리가 일이 넘쳐나는 외국의 저명한 건축가들이 아닌 성장가능성이 큰 건축가들과 협력할 경우 상호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의 설정이 가능하며 그것은 또한 서로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건축계의 내실을 기하고 또 실질적인 성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건축발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또한 한국건축의 국제적 위상 확보를 위한 조직적인 접근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도 세계에 내놓고 평가받을 수 있는 뛰어난 건축가들을 가지게 되고 또 그것은 역으로 우리건축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축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해외진출 잠재력과 가능성

The Latent Possibilities of Overseas Projects

허승회 / 재미건축가
by Huh Seung-Hwae

국내 건축사의 해외진출 잠재력과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본다. 그 몇가지 이유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지난 3월 대구 지산 장학회에서 주최한 장학생 선발 설계경기 심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높은 수준의 좋은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계획(Concept)에서부터 그 표현방법(Presentation Method), 특히 구두설명(Oral Presentation)까지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다. 심사위원들, 특히 두분의 외국심사위원들도 필자와 똑같은 칭찬을 하였고 한국건축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요사이 한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설계경기에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설계회사들이 공동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기회를 슬기롭게 잘 이용한다면 그들을 알게되고, 이해하게되고 또 그들의 설계방법을 배우게 되면, 훗날 그들과 해외에서 공동설계에 참여한다든지, 그들과 선의의 경쟁을 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한다.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슬기롭게 해외 설계자들을 활용하고 눈앞에 보이는 작고 얇은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그들의 신뢰를 얻고 서로 믿고 도울 수 있는 관계를 꼭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좁아지는 세계에서 이보다 더 값진 장래의 재산은 없지않나 생각된다.

설계도서 작성에 사용되는 한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Software)가 미국과 동일하므로 함께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점 또한 장점으로 들 수 있다. 재료의 표기법에 있어서도 미국에서 사용하는 CONDOC이나 Keynote System(재료를 시방서에 의거한 숫자로 표시하는 시스템. 도서 옆면에 이 숫자가 나타내는 재료명을 한글과 영어로 표기할 경우 매우 편리함)을 적용한다면 더더욱 도서작성 및 도면표기면에서 세계와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건축자재와 공법이 점점 세계화되어 가고 있어 미국의 상세(Detail)가 한국에 적용되고, 역으로 한국의 상세가 세계화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점점 가속화되리라 믿는다.

물밀듯 들어오는 세계의 건축잡지들을 통해 한국건축사들이 세계의 건축과 매일 접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높여 준다. 아쉬운 것은 한국의 건축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외국어 번역판이 없다는 것이다. 좌우간 한국 건축사들이 세계를 알고, 세계가 한국건축사들을 알면 알수록 한국건축사들의 해외진출은 빨라지고 쉬워질 것이다.

한국의 많은 건설업체가 세계도처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세계적 경향(Trend)이 턴키(Turn Key) 또는 디자인 빌드(Design Build)이기에 건설과 설계를 묶어서 세계로 나간다면 이보다 빠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요는 얼마나 빠른 시일내에 한국의 건축사가 한국 건설업체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세계의 건축주들이 한국건축사들을 얼마나 빨리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게 되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에 큰 몫을(특히 초기 단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설계 경기를 통해 일해왔던 세계적 건축사와 공동설계팀을 만들어 그 나라의 프로젝트에 공동제안서(Proposal)를 제출하는 것이라 하겠다.

세계로 발빠르게 진출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 이또한 한국 건축사가 해외로 진출하는 데 발판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건축사의 해외 설계능력의 향상도 중요하겠지만, 또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정

부가 정부차원에서 한국 건축사를 한국기업에 소개하고 권장하는 등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우리 가까이에 있기에 이들을 쉽게 연구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의 잠재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많은 잠재력이 있는 반면 어떠한 문제점과 장애요인이 있을까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건축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계의 건축주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고,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한국의 건설업체들 그리고 한국의 해외진출 회사들로부터 한국건축사들의 질과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필자는 요사이 많이들 이야기하는 한국 건축사들의 조속한 세계화 · 국제화가 필요하다라고 정의하고 싶다. 한국건축사들의 적극적인 해외건축사들과의 교류와, 한국 건축사들의 세계적인 홍보 및 한국건축사의 영웅만들기 등등, 지난 건축사지 1월호 특집을 통해 논의됐던 것들이 세계화로 가는 길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이번호에서는 한국 건축사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설계능력(세계화의 가장 필수적인)을 높이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몇가지 점들(해외에서 건축을 하다보니 저의 눈에 뜨이는)을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다.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이 한국의 건축법규 특히 소방법, 건축조례 및 건축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요구사항 등, 설계시행방법에 있어 세계화와 멀다는 점이라 하겠다.

그 몇가지의 예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요사이 유럽과 미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세계표준(International Standards) 및 세계건축법규(International Building Code)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에 한국에는 아직 '아트리움' 관련법도 없다는 것과 대형공간에서의 방화구획에 대한 소방법 등은 국가적으로 정말 막대한 손실(모든 열린(open)공간을 신뢰하기조차 어려운 방화셔터로 모두 막아야 하는 현행법 때문에)을 가져오고, 공간처리에 있어서도(방화셔터의 최대크기로 인해 야기되는 수직 박스 등등) 정말 많은 설계 및 공간이용에 지장을 주고 있다 하겠다.

이외에도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법규들을 조속히 국제화에 맞추어 고쳐야 하겠다. 물론 한국의 특수사항에 대한 법규야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조항은 세계의 건축가들에게는 놀라움이 아닐 수 없는 법규들이 있다. 또한 어떤 규정은 없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 한국 법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한국의 건물들중에는 내부와 외부가 질적인 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사람들이 늘 만지고 같이 숨쉬는 실내에 대한 설계가 잘 안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법규 때문은 아니겠지만 외국에 비해 정말 많이 뒤져 있지 않나 생각된다. 세계의 건축주들은 외부뿐 아니라 내부를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다.

2. 한국의 설계심의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건축사가 작성한 작품을 여러기관에서 몇단계의 심사와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는 것은, 특히 예술성까지 관여를 한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한국 건축사(史) 초창기에 설계의 질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제도라고 생각되지만, 요사이는 설계의 질보다 면피(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심사자체야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과정(Process)이지만, 심사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고, 심사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는 시간과 그 비용을 건축주가 과외로 할애해 주지 않으면, 그만큼 한국 건축사들은 그들의 건축창조의 시간과 설계비가 줄어든다고 하겠다. 건축설계의 질, 특히 창조란 적당한 시간과 그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든 건축사가 다 아는 바 아닌가? "훌륭한 건축은 훌륭한 건축사, 훌륭한 건축주 그리고 훌륭한 시공업자가 합쳐져야 가능하다"고들 한다. 너무나 많은 심의를 받아야 하기에 질문을 해보는 것이다.

3. 건축사란 원래 오케스트라 연주자와 같이 모든 분야의 정보와 재료(Information)을 분석, 결정,종합하는 종합예술가인데, 한국의 경우 올해부터 전기, 소방 등 매우 중요한 설계용역을 떼어서 건축주가 별도 계약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정말 이해가 안되는 일이라 하겠다. 미국의 경우 책임의 단일성(One Point Responsibility)을 점점 강조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국에서는 전기, 소방 등을 별도로 계약을 하겠다니, 책임문제도 그렇고 그들과의 업무협조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문제가 야기되리라 우려된다. 물론 이들 전기와 소방에 대한 업무협조 책임을 건축사에게 계약상으로 떠맡길 수야 있겠지만 과연 얼마나 그것이 현실적이며 또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이런 비세계화한 행정을 정부가 고치지 않는다면, 한국 건축사의 설계향상에 저해요소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그간 필자의 경험으로는 한국내의 설비, 소방, 전기를 위한 천정위의 설치공간이 미국에 비하여 크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과다공간을 위하여 공사비가 증가되고 이로 인하여 총공사비가 증가되거나 전반적 공사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하겠다. 이런 추세는 상기의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더 증가하리라 믿는다. 천정위의 충분한 공간은 엔지니

어 누구나가 원하는 것이고 그들의 일을 쉽게 해주기 때문에 건축사의 도전(challenge) 없이는 결코 줄 수가 없다 하겠다.

4. 외국 건축사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제일 힘든 것중의 하나가 한국내 건축자재 제조업자나 건축자재 판매 전문업자로부터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얻지 못하는 점이었다. 이들의 소극적인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시스템은 이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건축사가 그들의 설계와 시방서에 설계할 때 함께 연구하고 노력한 제품을 명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들 재료상들의 협조가 대단한 것이다.

몇년전 미국의 경우 정부공사에 일반적으로 3개이상의 동등재료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사가 동등재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개 회사의 재료만 명시한 일로 인하여 이것이 소송이 걸려 대법원까지 갔는데, 재료의 질(Quality)은 전문가인 건축가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건축가의 권한을 인정해 주었다고 한다. 미국 시스템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옮길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이런 권한이 없이는 한국건축 자재의 발전에 지장을 주고, 건축 상세 개발에 있어서도 지장을 주리라 생각된다. 건축사의 창조적 아이디어(Idea)가 제조업자의 참여(test)없이 그려져서는 입찰 때나 시공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로인해 재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초기에 포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부분의 설계에 있어서는 이부분에 가장 전문가인 제조업자와 건축사가 머리를 맞대고 개발된 상세야말로 주어진 공사비 내에서 지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상세이기 때문이다.

5. 설계자가 감리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한국법은 정말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모르겠다. 물신이 주원인이긴 하지만, 건축사는 건축주의 기술자문자이며 동시에 건축주의 대리인인데 자기의 기술대리인을 못믿는다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언젠가 고쳐져야만 할 규정이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책임보험회사들은 감리가 제외된 프로젝트(Project)는 책임보험을 안들어 줄 정도로, 이는 설계자가 감리 책임이 없으면 하자가 있다는 통계에서 내린 결론이라 하겠다.

6. 7월부터 한국에서 설계하자가 있으면 건축사에게 금전적 책임을 묻겠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보았다. 미국과 같은 책임보험을 생각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 진다. 하지만 건축설계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정확한 프로그램을 주거나 설계자에게 필요한 권한과 제도를 보장해 주지 않고서 이러한 금전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정말 일방적인 처사이고 어떤 책임보험회사도 보험가입을 시켜주지 않을 것이 뻔하다. 한국의 건축주들은 사업타당성(Feasibility Study)과 프로그램(Program)의 가치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경우 이 부분에 많은 비용(설계비의 1/3 가까이)을 들여 건축주가 설계시작전에 용역을 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필자의 사무실 경우도 미연방 법원 프로젝트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 또 한가지 미국의 경우를 보면 웬만한 프로젝트(Project)의 경우라도, 10여개의 특수자문회사가 참여(Involve)하는 것은 거의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들 특수자문회사의 용역비는 건축주의 예산에 따로 할당되어 있고, 건축사는 이들을 선정하고 활용하되 당연히 건축주로부터 별도로 지불받는 것이 통례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건축주가 설계비에 포함을 시키려 하기 때문에 이들의 활용이 아주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유능한 특수자문회사가 많을수록 건축사가 설계하는데 수월하고 건축의 질도 향상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끝으로 이 글이 건축사들뿐만 아니라 비전문가, 특히 정책수립을 하는 분들에게까지 읽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기에 전문가들이 보기에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까지도 많이 포함되었음을 양해 바란다.

결론적으로 말해 고쳐갈 일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이 점은 어느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건축사의 해외진출 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70년대에는 중동시장에서, 80년대말에서 90년대초까지는 유럽에서 활동이 대단했고, 요사이는 아시아에서 그들의 활동이 크다.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에는 미국의 경제회복으로 인하여, 역으로 유럽의 건축가와 일본의 건축사들이 대거 미국에서 활동을 하리라 예상되고, 이미 그 활동이 시작된 듯도 하다. 우리나라 건축사들도 2천년대에는 이들과 경쟁을 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건축설계업의 해외시장 진출방안

The Strategies for the Inroad of Korean Architecture Firms into Overseas market

손명기 / 삼우설계
by Son Myung-Ki

1.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방법론

〈해외 매출액이 높은 설계회사〉

순위	회사명	국가명	총매출액 (백만불)	해외업무 비율	해외 총매출액 (백만불)
2	Hellmuth, Obata & Kassabaum, Inc	USA	120-140	32%	42
3	Kohn Pedersen Fox Associates PC	USA	40-60	75%	37
4	Wimberly Allison Tong & Goc	USA	20-40	90%	27
7	RTKL International Ltd	USA	60-80	35%	25
8	Heery International Inc	USA	120-140	17%	22
9	Nikken Sekkei Ltd	Japan	160-180	12%	22
10	Skidmore, Owings & Merrill LLP	USA	40-60	43%	21
11	Pei Cobb Freed & Partners	USA	20-40	70%	21
14	Gensler	USA	100-120	14%	15
16	Murphy / Jahn, Inc	USA	10-20	95%	14
17	NBBJ	USA	60-80	20%	14
20	Kajima Design	Japan	160-180	6%	11
21	Daniel, Mann, Johnson & Mendenhall (DMJM)	USA	140-160	7%	11
23	Callison Architecture, Inc	USA	40-60	20%	10

※ 자료 : World Architecture지 '97. Special Report : 일부발췌

1970년대 중동 건설특수시 일부 설계자들이 건설회사의 현지 설계요원으로 해외에 진출하기 시작한 이래 해외시장 진출은 디자인과 설계기술력의 열세, 영세한 경영규모, 지명도 있는 국제적 디자이너의 부재 등의 현실적 장벽에 막혀 답보상태를 유지해 왔다. 여기에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몇가지 방법론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태평양 지역의 30대 설계회사〉

순위	회 사 명	국가명
1	Kajama Design	Japan
2	Nikken Sekkei Ltd	Japan
3	Kume Sekkei Co, Ltd	Japna
8	Kohn Pedersen Fox Associates PC	USA
12	Wimberly Allison Tong & Goo	USA
13	Skidmore, Owings & Merrill LLP	USA
15	NBBJ	USA
16	Hellmuth, Obata & Kassabaum, Inc	USA
18	Cox Architects & Planners	Australia
19	Sir Norman Foster & Partners Limited	UK
25	RTKL International Ltd	USA

※ 자료 : World Architecture지 '97. Special Report : 일부발췌

1) 해외 건축주로부터의 직접 수주

이 방식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방식중 하나이다. 직접수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자인 및 설계기술력에 대하여 국제적인 지명도를 획득하여야 하며 수주정보 획득을 위한 지사 및 연락사무소 같은 지역거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물론 현지인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거나 현지 설계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하여 수주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디자인이나 설계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일정분야를 특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세계적인 건축잡지 등을 통하여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이 뒷받침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진출방식으로 생각된다.

2) 국제 설계경기 참여

설계사무소가 국제적인 지명도를 획득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특히 중소규모 건축사무소의 경우 관심높은 국제설계경기에서 당선된 후 세계적인 건축사무소로 성장하는 예는 '동경FORUM '설계경기의 Lafael Vinoly Architect(미)외에도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 설계경기에서 당선 된다는 것은 높은 경쟁 등으로 말미암아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고 낙선시 참여비용 등 이 사무소 경영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경기에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사업시행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필요하다.

3) 건설회사, 개발업자와의 공동진출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복합화 프로젝트가 성행하고 Turn-key, Design-build 등의 프로젝트 수행방식이 일반화 함에 따라 국내건설사 등의 해외진출시 설계사가 프로젝트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설계사는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위험부담 등을 건설회사와 분담할 수 있고 손쉽게 해외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사의 우월적 주도권으로 말미암아 프로젝트 수행시 종속적인 역할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다. 그러나 Project Coordinator 로서의 설계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디자인과 설계기술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4) 국내 건축주의 해외사업시 참여

이 방식은 엄밀히 따지자면 해외시장 진출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해외시장에서의 경험 및 실적 획득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유용하다. 국내 건축주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도 적고 프로젝트가 해외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해외의 법규, 건축 환경 등에 대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며 해외진출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써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해외시장 진출시 고려사항

해외시장 진출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사회, 문화적 시스템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실제로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지의 환경과 현지인의 생활양식에 적합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도 현지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설계외적인 면에서도 국내와 해외간의 설계 진행 프로세스나 법규, 계약 관행, 언어 등의 차이 를 얼마나 숙지하고 대처할 수 있느냐에 따라 프로젝트의 성패가 결정되어지기도 한다. 일례로 중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모든 인허가 및 실시설계는 현지의 국영 설계사무소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던지, 미주나 구주의 많은 지역에서는 설계계약 시 보증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제조물 배상책임(Product Liability)등을 고려해야 한다던지 하는 차이는 프로젝트 초기 협상이나 계약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추후에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의 Nikkei Architecture ' 95.5 월호에서는 대규모 설계사무소와 제네콘의 설계부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응답자들이 제기한 해외진출의 장애요인은 아래와 같다.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 설계사가 해외진출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사항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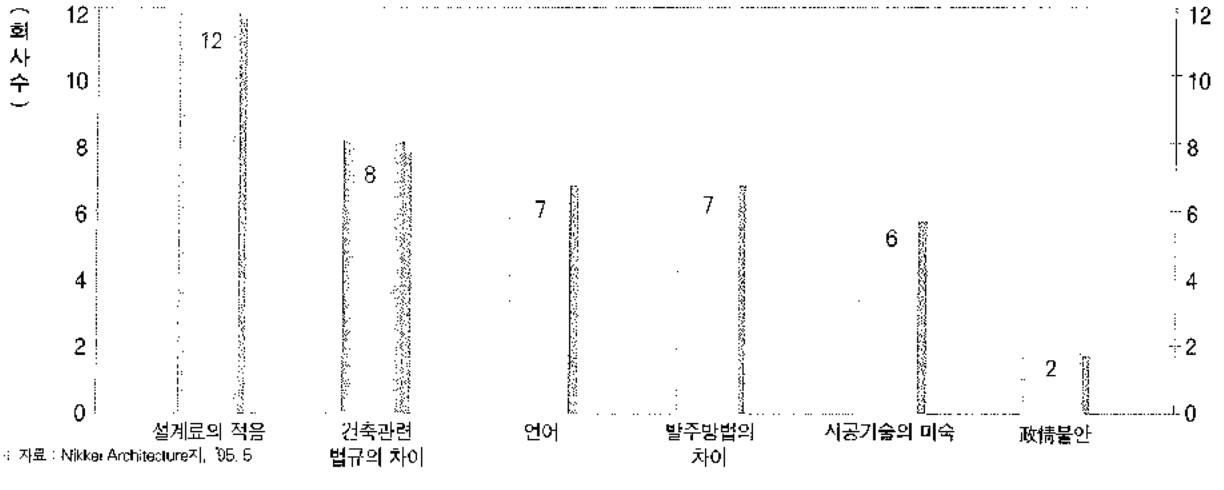
1) 계약관련 사항

일반적으로 신의와 성실에 바탕을 둔 동양사회의 거래 관행과 비교할 때 대부분의 서구지역은 철저히 계약에 근거를 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동남아시아 등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국가들은 이러한 계약중시 경향이 강하고, 설사 계약 관행이 명확하지 않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사회문화와 경제적 배경 이 다른 국가의 기업간 계약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프로젝트의 명확한 정의, 설계비 및 지불방법, 세금, 설계기간, 성과품, 설계변경 관련조항, 계약의 연기 및 종결, 분쟁시 해결방안 등 예측가능한 사항들이 모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대부분 국내 사무소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 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지만 필요한 경우 현지변호사나 법무전문가의 컨설팅 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2) 현지설계사와의 공동작업

실제적으로 현지의 법규와 인허가 과정, 시공수준 및 공사비 등을 완벽하게 숙지하여 인허가와 실시설계까지를 일괄로 수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물론 현지에 별도의 설계법인을 설립하여 현지인을 활용, 설계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현지법인설립에 따르는 절차상의 문제나 위험부담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 현지의 설계사무소(Local Architect)와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가 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데 이 경우 협력사의 선정시 많은 주의를 요한다. 협력작업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업무협약이나 기술협약 등을 통한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각 프로젝트마다 별도의 계약은 필수 적이며 국내사와 현지협력사간의 업무분담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의 경우 - 국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이지만---참여사간 명확한 업무 분담이 프로젝트의 성패

해외진출의 장애요인



자료 : Nikkei Architecture지, '95. 5

를 결정짓는 가장 주요한 요소이며 추후 분쟁이나 마찰을 방지할 수 있기도 하다.

3) 커뮤니케이션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해외에서의 작업시 커뮤니케이션은 프로젝트 진행의 가장 주요 한 부분이다.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회의록 등 문서화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록은 추후 설계변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외국어로 의사전달을 하는 경우 반드시 피해야 할 자세는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다. 애매하거나 모호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거쳐 명확히 하여야만 추후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오해를 줄일 수가 있다. 또한 국내 설계사의 경우 해외의 유명설계사와 비교할 때 보고서 등 문서화 작업에서 상당히 열세에 있음이 사실이다. 건축주에게 설계자의 의도를 명확 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때로 문자로 작성된 문서가 효과적인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프리젠테이션 방법의 개발이 설계업무상 주요한 부분으로 인정되기 시작하고 있다.

4) 명확한 프로젝트 수행전략의 수립

국내설계의 경우에도 프로젝트 수행시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해외설계의 경우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국제 현상설계 에서 당선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설계계약시 배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건축 주가 사업계획을 임의로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인력을 보강하였다거나 다른 프로젝트 수주에 소홀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사무소 경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초기 참여 시 수행전략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Architecture지 96년 9월호 에는 해외 현상설계 참여에 대한 흥미있는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이 글은 전체 매출액 의 20%를 해외에 의존하는 미국의 건축설계사무소인 The Nadel Partnership의 사장인 Herb Nadel이 기고하였고 해외, 특히 중국을 포함한 극동지역에서의 현상설계 참여 를 통한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Nadel의 경우 해외 현상설계를 통하여 회사의 지명도 를 높이고 사세 확장 및 재정적 안정을 얻었으나 간혹 당선된 프로젝트를 계약까지 완결시키지 못하거나, 심한 경우 대지의 소유권이 없는 건축주가 발주한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투자만큼의 용역비도 회수하지 못하는 곤란을 겪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모형 등 프리젠테이션에 과도한 투자를 하여 당선상금의 8배나 되는 비용을 투자한 적도 있으나 당선후 다른 업체에 설계권을 넘겨준 쓰라린 경험도 있다고 했다. 이 글은 해외 프로젝트 수행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명확한 수행전략을 수립하여 야만 해외시장에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

삼우설계는 90년대 초부터 '국제화'를 기치로 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여 왔다. 삼우는 2000년대 세계 10대 건축설계사무소 진입을 목표로 해외 거점 구축, 외국인 디자이너 채용, 국제업무 전담부서 설립, EDB(Engineering Data Base)구축, 해외홍보 등을 꾸준히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각종 국제 현상설계에 참여하고 국내 건축 주의 해외 진출시 동반진출 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외거점 구축

삼우는 1995년 미국 뉴욕에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아직 독자적 영업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락사무소로서 각종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해외설계사와의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추후 미주지역의 거점으로써 영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삼우는 영국 런던에 직원을 파견하여 유럽지역의 정보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 동경에는 당사출신 유학생과 현지 통신원 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정보수집 및 자료조사에 활용하고 있다.

2) 해외사와의 협약체결

삼우는 1994년 미국의 엔지니어링 설계사인 Syska & Hennessy사 및 구조설계사인 Weidlinger사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사는 프로젝트 수행시 서로 협조 하며 필요시 양사 직원의 파견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Architect Map을 작성하여 세계의 유명 설계사무소 및 분야별 전문 설계사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가고 있다.

3) 외국인 디자이너, 엔지니어 채용

당사 직원의 국제화 및 해외진출의 첨병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미국인 디자이너 5명, QC전문가 1명, 구조엔지니어 2명을 채용하여 활용중이며 최근 인도 출신 구조, 설비 엔지니어를 각 1인씩 추가 고용하였다. 이들 외국인 직원들은 당사 직원과 동일하게 설계팀 내에서 근무중이며 주로 해외 선진 디자인 및 설계기법을 국내에 소개하는 외에도 영어회화 등 전 직원의 국제화에 적지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4) 국제업무 전담부서 운영

1995년 국제업무팀을 신설하여 해외용역 계

약, 해외정보 수집 및 지원업무, 해외 수발신 문서관리, 해외용역 프로젝트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고 1년여의 부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영업에 보다 주력하기 위하여 최근 영업업무팀으로 통합되었다.

5) EDB 구축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화 되고 체계적인 기술력 확보가 필수적 이다. 게다가 최근과 같은 정보의 홍수하에서 어느 기업이 더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에 기업의 성쇠가 달려있다고 하고 설계사무소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닐 듯 하다. 삼우는 95년부터 모든 설계도서를 Micro Film화하여 관리중이며 각종 설계자료들을 통합하는 EDB구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ISO 9001인증 취득을 위하여 전담팀을 발족, 준비 중에 있다.

6) 해외홍보 강화

삼우는 지난 96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해외건축가 초청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국제화에 적합한 이미지 구현을 위하여 CI를 개편하였다. 또한 인터넷 상에 홈페이지 구축을 준비중이며 영국의 세계적 건축잡지인 World Architecture지 2월호에는 삼우의 특집기사가 소개되기도 하였고, 회사소개 VTR을 영문판으로 제작하여 해외영업시 활용하게 하는 등 해외홍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7) 해외진출 사례

삼우의 해외진출은 현재로는 초기단계로써 주로 국내 건축주의 해외사업시 참여 하거나 해외 현상설계에 참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당사에서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현지 설계사를 고용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하기도 하며 혹은 설계전체를 해외사에 발주하고 Project Management만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경험들은 추후 해외영업시 당사의 소중한 경험이나 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해외현상설계에 대해서는 93년 중국 신상해 국제상역센타 현상설계에서 입선하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UIA에서 관장하는 아프리카 세네갈의 Goree Memorial 현상설계에 참여중이다.

4.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 제언

시장개방환경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통하여 이를 검증, 강화해야 한다. 경쟁력은 크게 기술력 강화, 디자인력 강화, 마케팅 강화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실천방안들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술력 강화

① 특화분야 육성 : 병원, 교통시설, 산업시설, 운동시설 등 전문분야를 특화, 육성

② 데이테베이스 구축 : 각종 설계정보 및 기술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산화된 데이테베이스 구축

2) 디자인력 강화

① 한국적 디자인 모색 : 해외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한국적 건축철학 및 언어의 모색

② 선진 디자인 기법 습득 : 커튼월 등 전문기술을 근거로 한 선진 디자인 기법 습득

③ 국제 현상설계 적극 참여 : 해외 지명도 획득 및 사업영역 확대를 위하여 국제 현상설계 적극 활용

3. 마케팅 강화

① 마케팅 전문가 육성 : 풍부한 설계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해외영업 전문가 육성

② 해외거점 확보 : 해외 정보 수집 및 영업활동에 활용할 지사, 통신원 등 거점 확보필요

③ 프리젠테이션 강화 : 각종 보고서, 투시도, 모형 등 프리젠테이션 기법 강화

물론 위와 같은 사항들은 일부 건축설계사무소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사협회 등 각종 건축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및 관련업계와의 폭넓은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결국 각 설계사무소들이 그 선봉에 서야 함은 물론이며 보다 많은 준비와 의지를 지닌 사무소 만이 국내,외의 가혹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제 단순히 구호만으로 '국제화'를 이야기할 때는 지났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여야 할 것이다.

원실업 천안공장

Ele-Port Hill

최승원 / 양가주망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Seung-Won

이 산업시설은 동양 엘리베이터(회장 : 원종성) 자회사로 엘리베이터와 에스칼레이터를 만들어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는 곳이다.

한마디 오너의 강조는 하늘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한마디인데 매우 인상적이었고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안성을 지나 천안군의 북쪽지역이었는데 낮은 야산주변으로 포도 밭이 많이 있다. 동구 밖에서 보이는 것은 포도 나무를 얹는 V형의 콘크리트 지지목이었고, 이 원리는 가는 철선에 인장을 주어서 무거운 포도송이를 매달리게 하는 내용이다.

이 원리를 기본 구조에 응용하였다.

현장북측에는 호수가 있고 과수원 언덕길 따라 가면 과수원 너머에 작은 주택과 밤나무 한그루가 인상적으로 있었다.

서남쪽에는 작은 언덕이 시선을 끌었다. 장거리 여행과 휴식후 여러가지의 스케치를 자유롭게 하였다. 대지는 항상 작게 보인다. 절약해서 써야하고 증설을 위해 여백을 남겨야 한다. 노동의 즐거움을 갖게 하는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설계시 3가지 목표는 청결, 문화의 접목, 매력적건축이다. 청결이 품질관리에 중요하고 문화적인 제품을 만들려면 평소 문화적 감성을 익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조업에 관심을 가지게끔 디자인에 매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첫 인상은 배치를 결정하는게 중요한 요소이다. 주변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낮은 능선을 이용하는 것이다. 공원은 사원이라는 개념으로 생산동과 사무동이 한덩어리로 되어있다. 식당은 스카이라운지식으로 3층에 두었다. 지붕의 물매는 축구장의 배수원리를 응용하여 수평적으로 처리하였다. 생산파트에도 실내조경을 도입하였는데 작업 환경을 감시하는 바로메타이다. 조경은 매일 고향을 보는 맛으로 도입되었다. 조형화된 정문은 엘리베이타가 상승하는 맛으로 처리하였다.

기념탑은 "균형"으로 평면을 요철형으로 음양을 상징하고, 서로 만나서 에너지가 생성되게 하는 원리를 나타내는 내용을 담고있다. 첫 인상은 거의 그림으로 끝나지만 이로인해 마음속에 누적되는 에너지는 잠재적인 요소로 디자인의 기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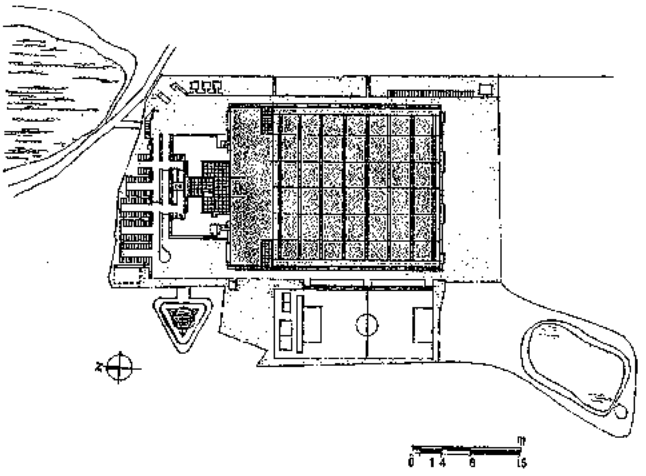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충남 천안군 입장면 신두리 산1번지 외 13필지
대지면적	59,936㎡
건축면적	22,343.58㎡
연 면 적	28,694.74㎡
건 폐 율	37.28%
용 적 률	46.83%
구 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외부마감	샌드위치 패널, 알루미늄 쉬트
조경면적	10,345.78㎡
주차대수	130대
면 적	생산시설 - 12,419.38㎡
	비생산시설 - 16,275.36㎡
시 공	(주)호성중공업
구 조	김희구
전 기	(주)한양건설
조 경	그린토피아
건 축 주	(주)원실업
시 험 탑	계획설계 - 양가주망
	설계시공 - (주)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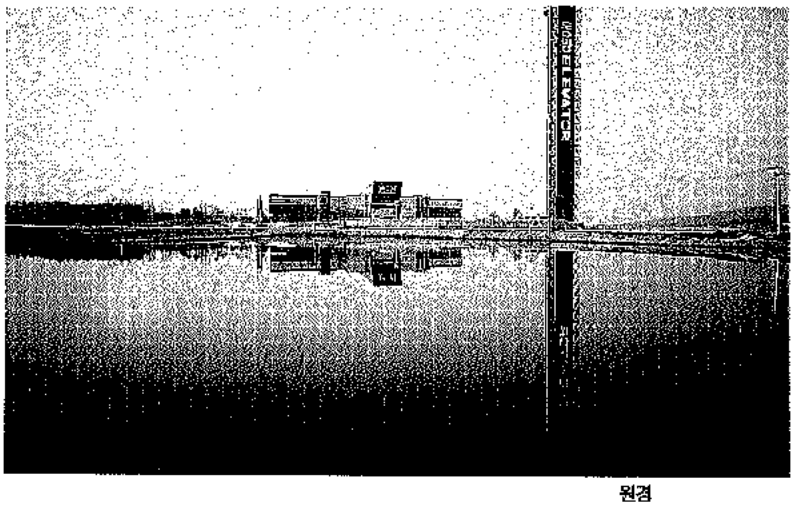
This industrial facility is the headquarter of DongYang Elevator Co., where elevators and escalators are manufactured and suppli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e demand of this project's owner was simple: that its bird's-eye-view would be also important. But this simple yet impressive requisition acquired an important role in the overall design.

The site was located in the north of ChunAhn, just passed AhnSung, where, surrounded by low mountains, it was mostly covered with grape trees. Easily seen were V-shaped concrete supports for the grape trees, with pre-tensioned wires that hold the heavy grapes, and this method was applied to the project's basic structural designs. North to the site was a lake, and the road across the farm lead to an eye-catching house and a walnut tree. There was also a small pond to the southwest of the site. After going on a long-distance trip and having some time off, I tried various sketches for this project. The site always seems to be too small. You have to have an economical, condensed approach and leave room for further additions. I also thought that, since this was a industrial facility, the enjoy-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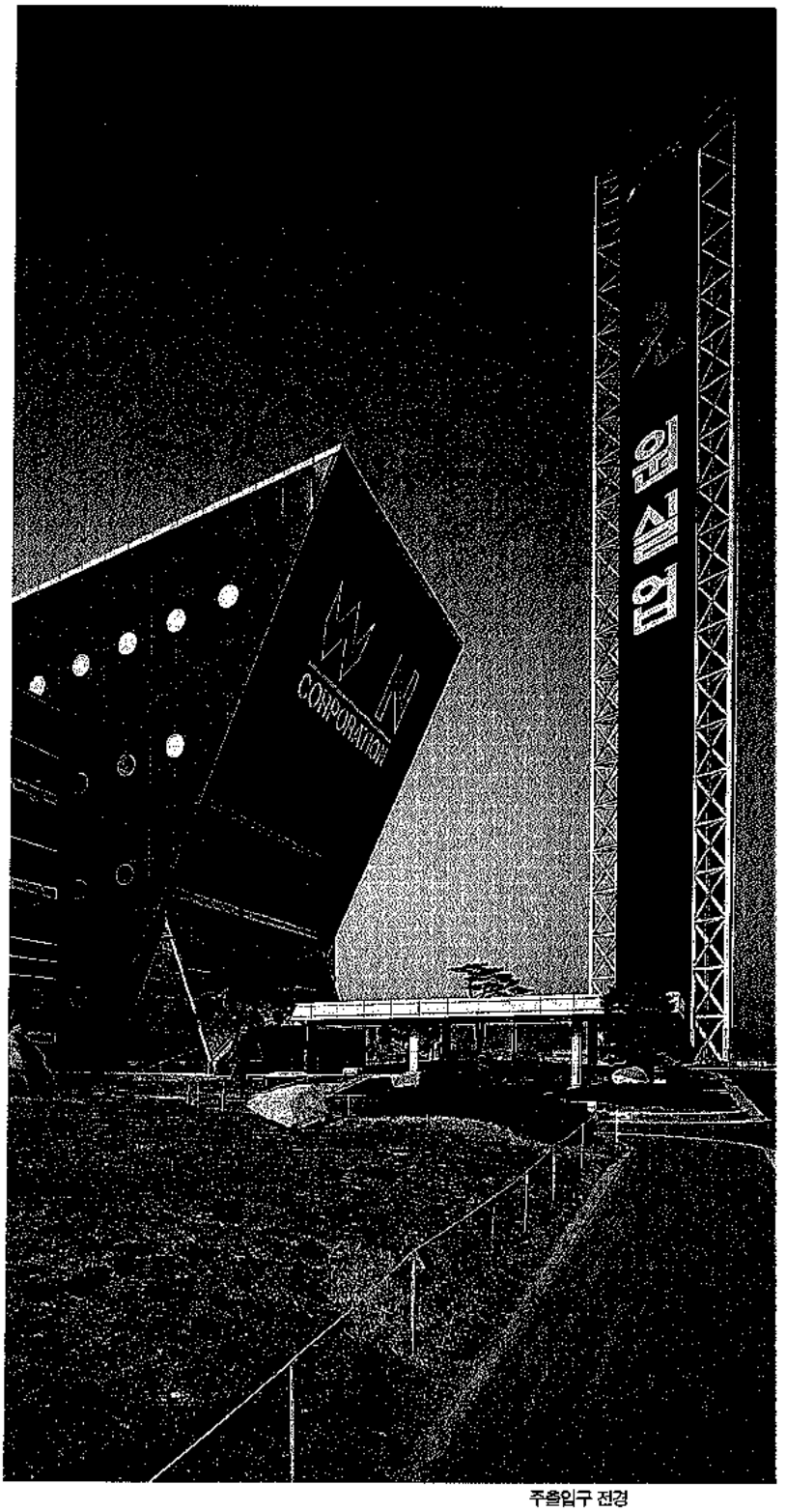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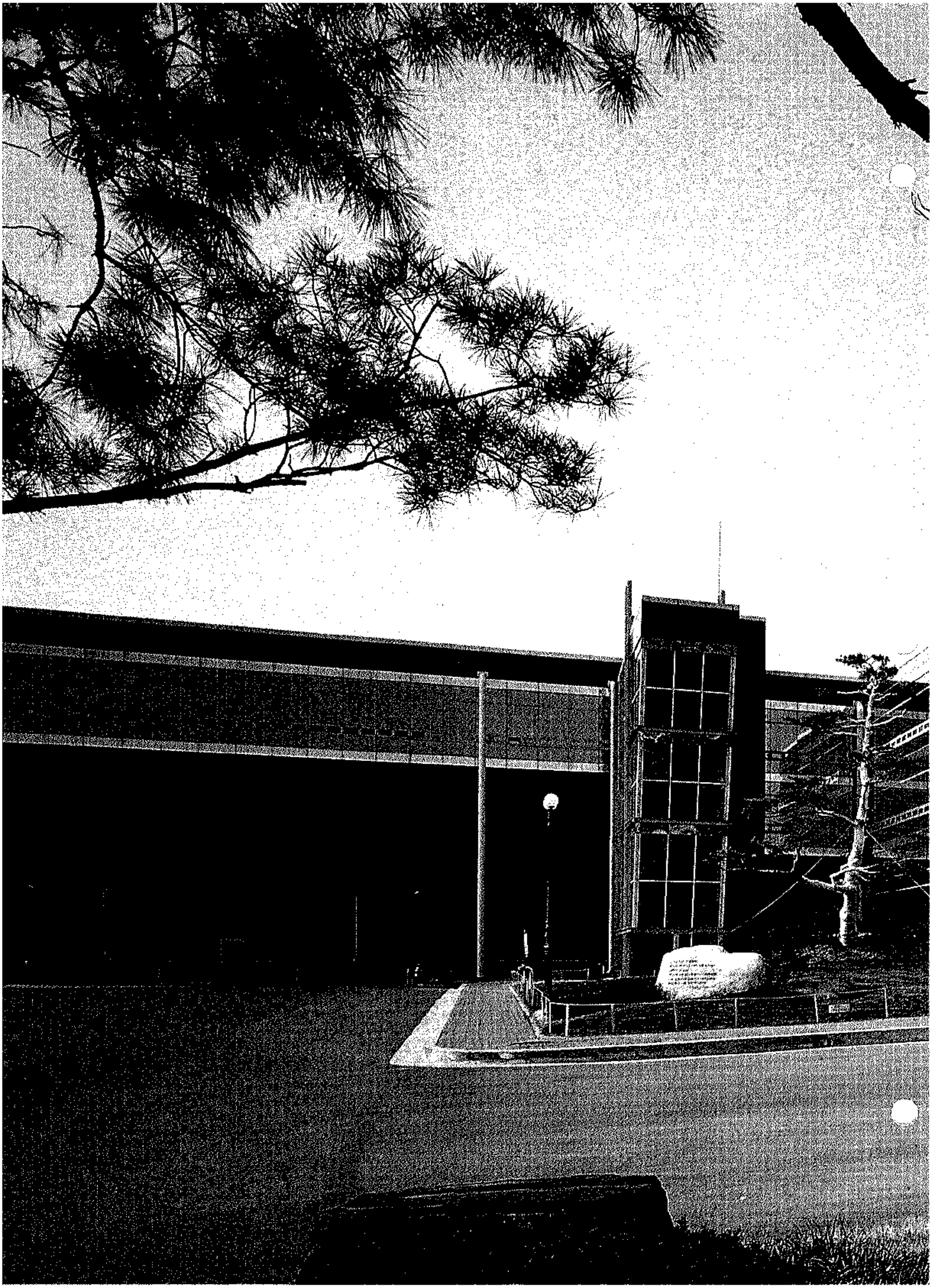
ment of working should equally be felt in its various areas. The three main objectives of design were achieving cleanness, injecting the cultural, and gaining the attention of its users. Cleanness of the facility results in similar achievements in quality control, and to manufacture a product with cultural value, the engineers should always be close to contemporary cultural developments. And the impressive design could stimulate the workers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e manufacturing bus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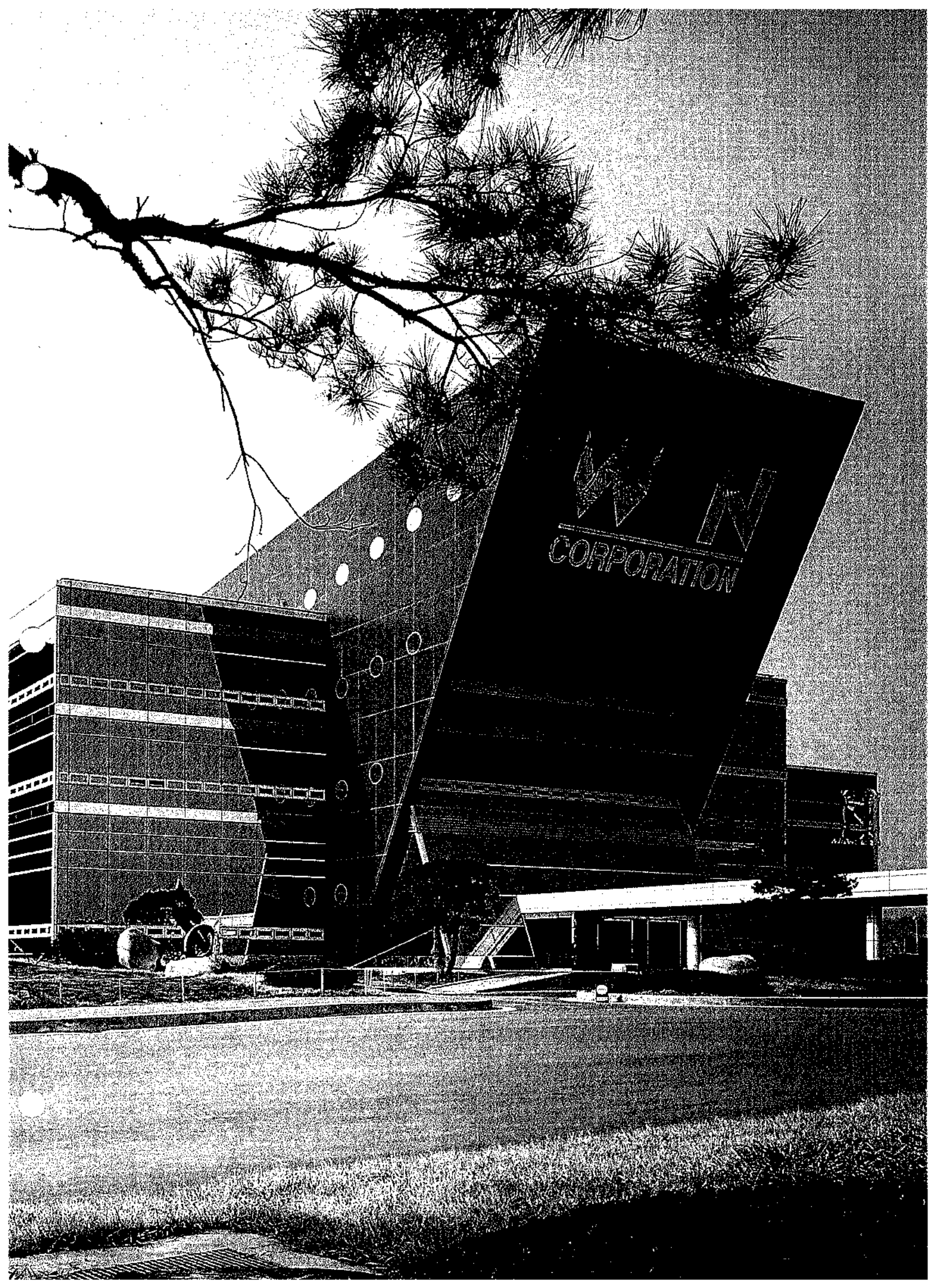
The first impression always plays a big role in its layout design. The intention was to achieve a balance with the surrounding mountains, with the factory and the office forming a single mass. The outdoor spaces were developed to present an image of a temple for meditation, and this purpose is also sought in the production parts, which becomes a barometer for healthy working environment. The aim of the design on the landscape was to make the workers feel perfectly at home, and the cafeteria is located on the third floor, with a panoramic view of the surrounding nature. The horizontal roof uses the draining principle of soccer stadiums. The main gate has the abstracted form of an ascending elevator, and the irregular shapes of the memorial tower symbolizes the plus and the minus, which together gives birth to "energy," the very source of the company's products. The first impression usually ends up on a drawing paper, but the energy extended by it, which is accumulated in your mind, becomes the starting point of the whole design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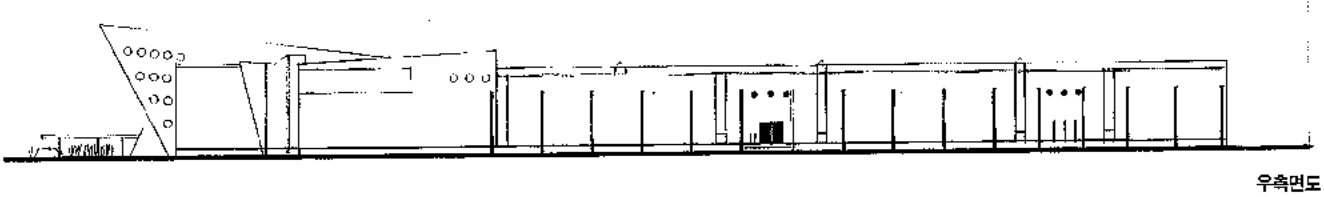
Site ChungNam ChunAhn-Gun YipJang-Myun ShinDu-Ree San1
Site Area 59,936.00㎡
Building Area 22,343.58㎡
Floor Area 28,694.74㎡
Structure steel frame and reinforced concrete
Total floors 3 floors, 1 basement floor
Exterior Finishings Sandwich Panel, Aluminium Sheathing
Total Landscape Area 10,345.78㎡
Parking Spaces 130
Total Area Production Facilities - 12,419.38㎡
Non-Production Facilities - 16,275.36㎡
Construction HyoSung Heavy Industries
Structural Engineering Kim HyeGu
Electrical Engineering HanYang Engineering
Landscape Greentopia
Owner Won Co.
Memorial Tower Design Engagement
Memorial Tower Construction DaeWoo Constru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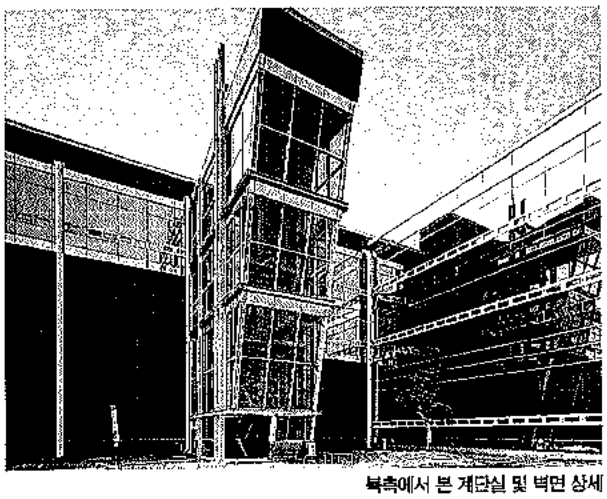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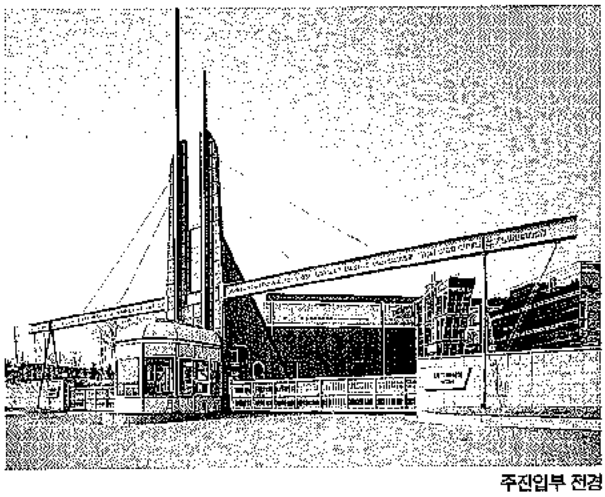

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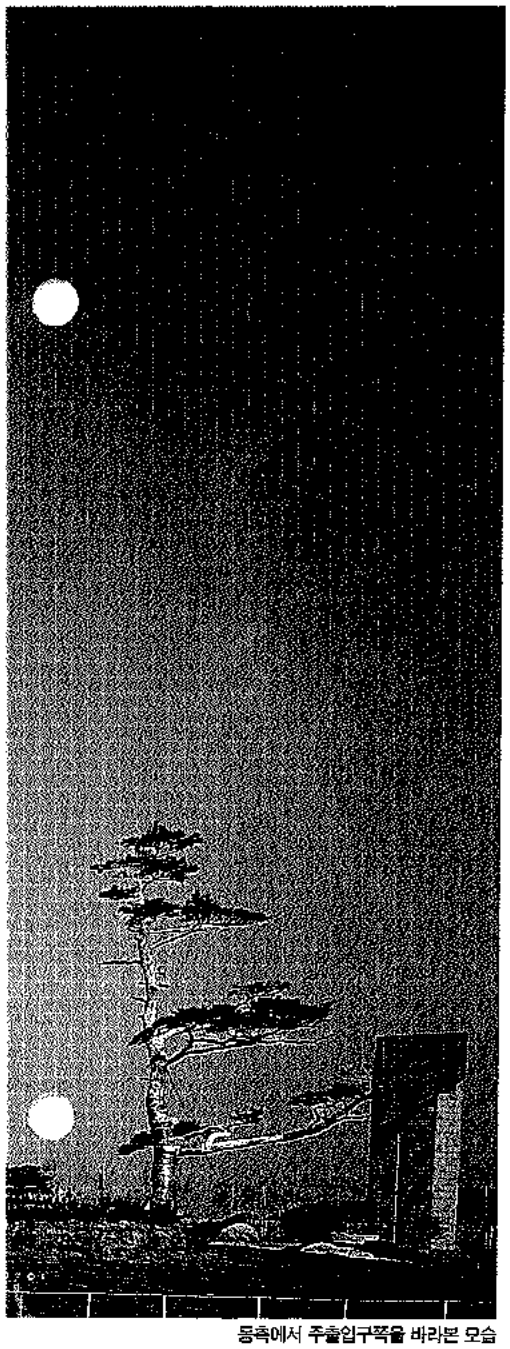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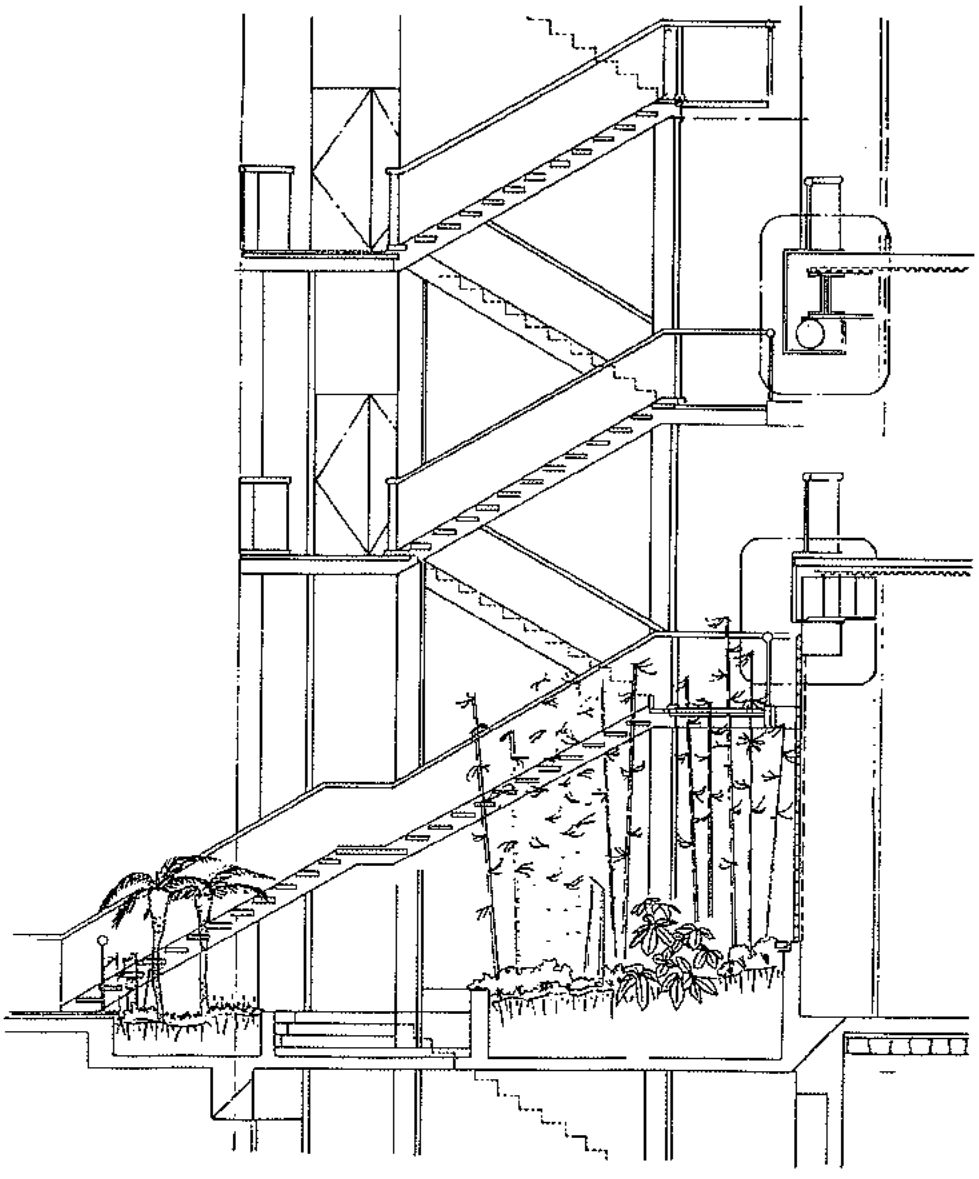
북측에서 본 계단실 및 벽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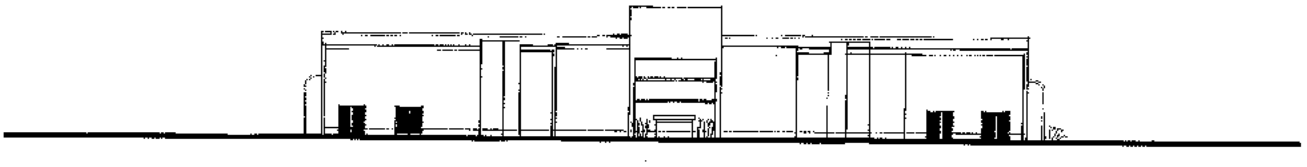
주진입부 전경



동측에서 주출입구쪽을 바라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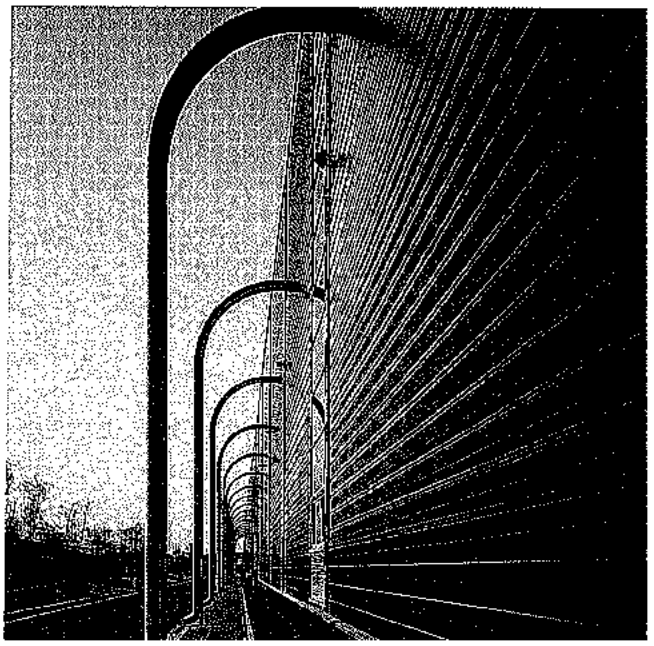
단면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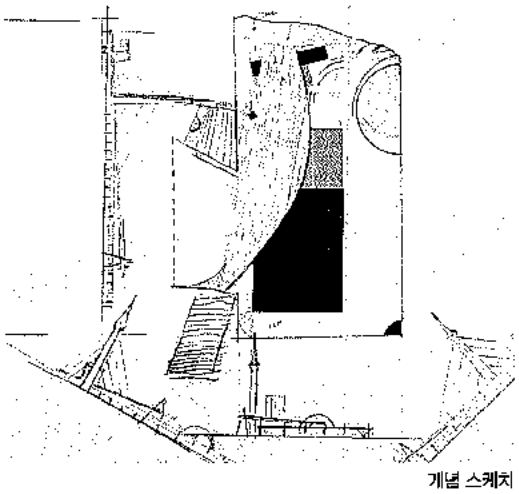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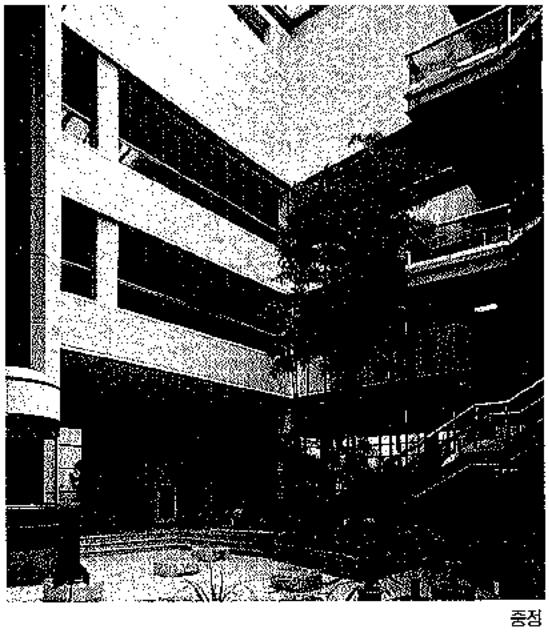
북동측 전경

물흐름이 있는 동측벽면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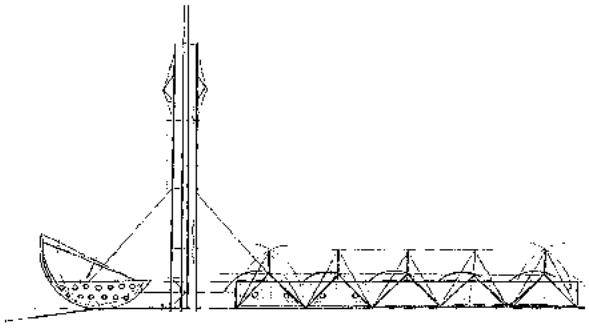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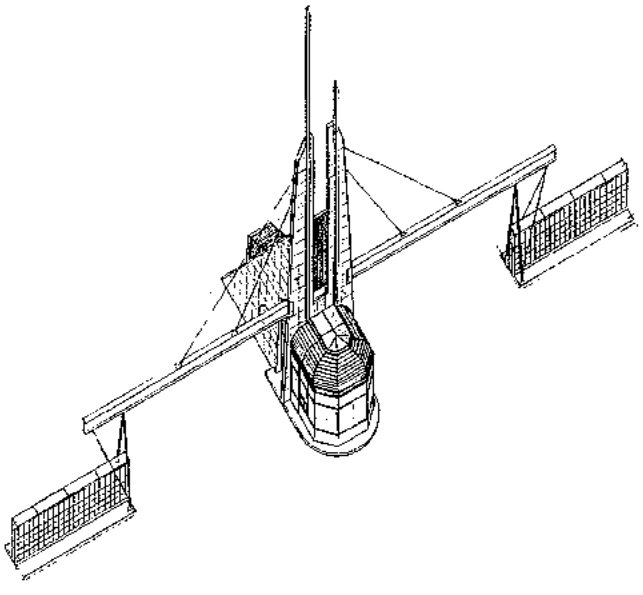
개념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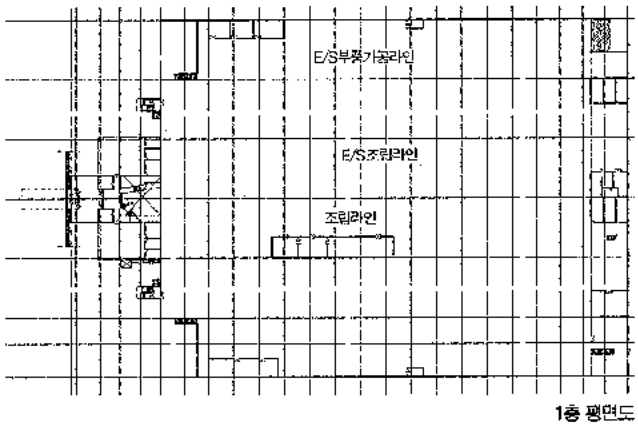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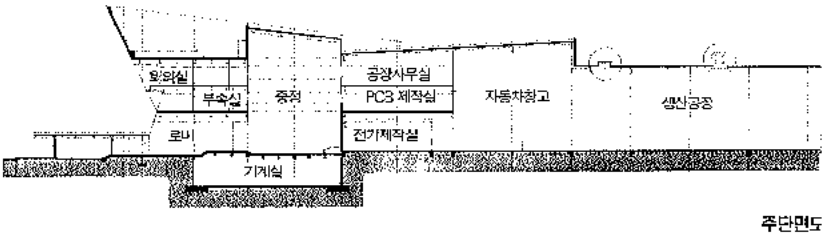


초기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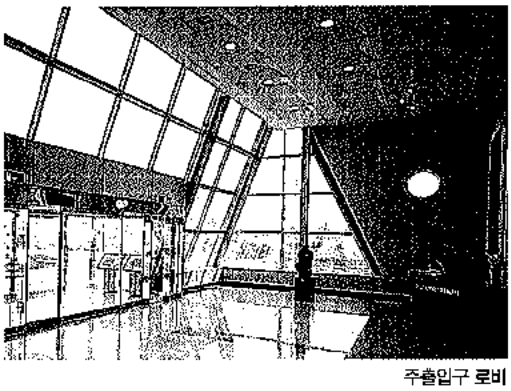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주단면도



주출입구 로비

계단실에서 본 중정

사무실에서 본 중

원실업 천안공장 **대담 interview**

Ele-Port Hill

직관적 감성과 테크놀러지의 모순엇법적 수사

The Dialectical Rhetoric between Intuitive Emotions and Technology

설계자 / 최승원(앙가주망건축사사무소) 대담자 / 우경국(예공건축)
Woo Kyung-Kook & Choi Seung-Won
일 시 / 1997. 4. 9 10시, 장 소 / 앙가주망건축사사무소

대담광경(좌 : 우경국, 우 : 최승원)

우경국_____평소에 여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최승원_____저는 여행을 하면서 특히 그 나라의 문화예술이 건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정치나 경제가 건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살펴봅니다. 다시말해 그 나라의 GNP 규모에 따라 건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문화와 예술이 건축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나 경제, 사회가 미치는 영향 2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봅니다.

우경국_____최선생님의 건축적 가치관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요.

최승원_____제가 처음 건축을 시작했을 때 박태수소장님과 함께 강원도의 전통건축을 복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연이 되어서 지금도 민학회에서 하는 민학답사프로그램에 가끔 참여를 하고 있고 그로인해 우리 전통건축이 갖고 있는 언어, 특히 패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을 푸는데 있어서 전통을 가지고 현대적인 것하고 같이 이야기 할 때 건축주와 대화가 잘 되는 걸 느꼈습니다.

우경국_____전통건축에서의 언어나 패턴이라고 하면 굉장히 원언적이고 국부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예를들어 어떤 패턴속에서 어떠한 가능성을 끄집어 낸다는 이야기이신지요?

최승원_____제가 생각하는 패턴은 예를들어, 저는 주로 주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주택의 경우 황해도식이 있는가 하면, 경기도식도 있고 또 충청도식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자집이라든가, 겹집이라든가 하는 평면의 언어에서 문화의 유전인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경국_____말씀하신 내용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건축가는 시대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있는

능선과 지붕선이 있는 B & F (1985)

폐품을 이용한 아뜨리에 (1988)

현집을 이용한 아뜨리에 실내 (1988)

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생께서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읽고 계신지요.

최승원_____저는 건축가라면 주변환경을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주변환경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주변환경을 직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는 '소비 혼란의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그것은 일본과 우리가 틀리고 또 미국과도 틀릴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이 시대가 소비 혼란의 시기이고, 건축에 있어서의 혼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를들어 아파트가 가설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든가 하는 것도 혼란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경국_____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예를 들어 주변환경에 대한 직시라고 하는 것은 Context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최승원_____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로 환경의 적응이나 환경오염 같은 측면에서의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경국_____예를들어 '소비의 혼란 시기다'란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비소비적인 건축을 해야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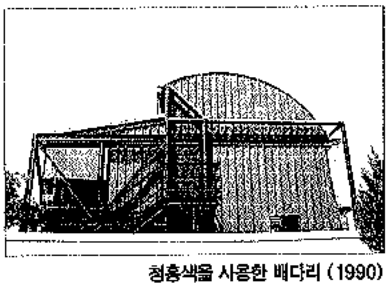
최승원_____저는 건축가가 하는 일이 자신이 사용할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들어 현재 건축되고 있는 것이 수명이 짧은 것들이 많은데 이것은 지나치게 기념비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든가 지나치게 작품관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실패의 요인들이 많다는 관점에서 보는거죠. 그래서 용도나 내용에 따라서 소비적인 것은 소비적인 것에 맞춰줘야 되고 기념비적인 것은 기념비적인 것에 맞춰줘야 하며 또 내용이 있는 문화적인 것은 문화적인 쪽으로 맞춰줘야지 이 모두를 다 지나치게 작품성을 보여주려 한다거나 자기의 기념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디자인을 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피해가 많다고 봅니다. 소비적인 것은 비행기와 같이 수리 보수가 유리하고 재생이나 폐기가 쉬워야 합니다.

우경국_____최선생께서 갖고계신 이론이나 건축구법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평소 즐겨 사용하시는 철골재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승원_____제가 생각하는 건축구법에 대한 하나의 예로 초가집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초가집이란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비록 단기간에 건축되지만 뼈대를 뜯어서 이사다니기도 편리하고 또는 화공법에 의해 불을 질러도 흙으로 됩니다. 과거의 건축개념으로 봤을 때 철골재가 그런 것들과 일치되는 면도 있고 해서 즐겨 사용합니다. 그게 지나치면 텐트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초가집의 기초서부터 구조, 지붕 등에서 상당히 재미를 느껴서 철골도 그 생각에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풀어서 이동시키고 재생할 수 있는, 모빌과의 중간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경국_____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가구식공법이 현대에서 철골의 가구식공법과 일맥상통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승원_____과거에 기초를 두면서도 현대인들이 자유자재로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해체시키기에도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설계한 것이 주변에서 폭


청홍색을 사용한 배다리 (1990)

ㄷ자형의 흙은동 주택 (1989)

샌드패널로 만든 작은 주택 (1990)

파사건 있어서 피해를 받았는데도 인명피해가 없었음은 물론 상당히 수리보수가 간단하더군요. 그래서 건축을 자연재해로부터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새로운 물음거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경국_____지금부터는 원실업 천안공장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죠. 원실업 천안공장의 경우 대지가 구릉지대로 이루어진 과수원지대에 있는데 처음 이 Site를 답사했을 때 제일먼저 생각하신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최승원_____저는 Site를 처음 답사할 때 먼저 주변을 스케치하곤 하는데 원실업 천안공장의 경우 호수와 언덕길이 있어 다분히 서정적인 듯하게 느껴졌고 주변에 복숭아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또 후면에는 연못도 있어 제가 느끼기에 무릉도원다운 맛이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흡사 동양화 속의 풍경과도 같아 보여서 호수와 언덕 그리고 후면의 연못들과 잘 어우러지게 건축을 하면 성공적이지 않을까 생각됐습니다.

우경국_____자연은 어느곳에서나 존재하고 있는데 원실업 천안공장의 경우 건축에 영향을 준 자연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실체를 규명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최승원_____저는 자연속에 인간이 해놓은 간이구조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주변의 포도밭들이 능선에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아, 이런 맛을 건축에 주면 참 좋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호수나 언덕길을 살려 놓으려면 여러 가지의 레벨을 주고 Piece로 나누어서 연결통로로 한다든가 해서 주변 두 군데에 있는 물과 잘 어우러지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시설이란 것이 수평을 요구하기 때문에 처음 생각의 60%정도만 실제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초기도면이나 스케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엔 파워드를 붙여가지고 회랑으로 연결하고자 했었는데 실무진과의 협의과정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거죠. 실무진과의 협의나 작가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회사측에서 먼저 제게 현장이나 작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었다는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우경국_____초기 스케치를 보면 구성주의적인 그림에다가 태극에 대한 글을 함께 실었던데 그러한 내용이 이 Site의 조건과 생산시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 조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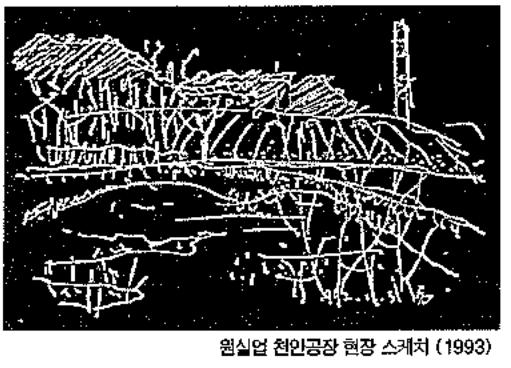
최승원_____Site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하지 못했고 다만 생산시설에 대한 것은 생산시설을 3개동으로, (도면을 펼쳐보이며) 팔괘를 대입해 불려고 생각했던 적은 있습니다.

우경국_____제가 여쭤본 이유는 아까 이 Site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조건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생산시설을 계획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것과 이것이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승원_____제 브로슈어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옆에 그린 야외공연장 개념으로 태극마크가 들어간 것이고 실제는 태극마크와 관계지어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우경국_____다분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최선생님은 이성우월주의를 거부하고 직관이나 감성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북선의 노의 맛을 살릴려고 하였다는데 원실업 천안공장의 경우 기능과 직관 사이에

샌드페널로 인테리어한 작은주택 내부 (1990)



원실업 천안공장 현장 스케치 (1993)

원실업 천안공장 초기 모형 (1993)

발생하는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였으며 해결의 해법으로 등장하는 건축적 방법론은 무엇이었나요?

최승원_____거부란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거부가 아니고 자연히 그렇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성적인 균형을 맞출려고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만 제 체질이 직관적이고 감성적으로 돼나가는 것이지 거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경국_____**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관이나 감성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건축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을 소중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였습니다.**

최승원_____작업을 하다보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인데 주변에서는 제 작업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북선을 이야기 한 것은 이순신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그 시대의 위기를 극복한 한편에는 건축과의 연관, 즉 철의문화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일을 할 때면 가끔 가야 철의문화나 그와 연관되는 철갑선으로서 시대를 구출해 나가는데에 대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원실업 천안공장의 물홈통을 처리하는데 거북선의 노와 같은 생각과 일치된 것이고 또 곤충들 가운데 지네의 다리가 노처럼 같이 움직이는데 그런 곤충에게서 나타나는 일사분란한 맛을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막힐 경우 전통건축의 목구조, 즉 이음과 접합을 트러스 구조에서 보강하는 방법으로 많이 끌어다 쓰는 편입니다.

우경국_____**비슷한 질문인데 평소 기계미학에 대한 관심과 회화적 관심의 이중성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두 요소를 복합시켜 나타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 것인지요?**

최승원_____저는 사용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는데 그렇다고 어디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싶지는 않고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경국_____**철을 사용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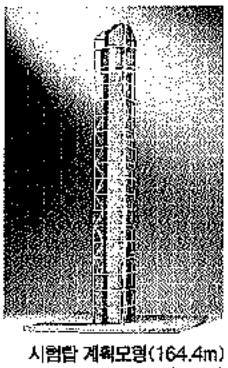
최승원_____철을 다뤄보면 가변성이 우수할뿐더러 경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시설에는 아주 잘 맞는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우경국_____**철을 일반상업시설에서도 쓰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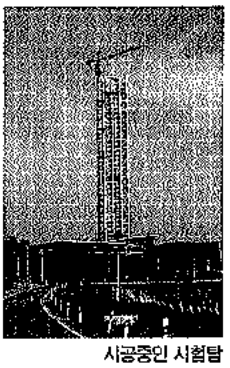
최승원_____네, 상업시설에서도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간판이라든가 색의 퇴색문제, 가변성이 좋다고 너무 지나치게 뜯어고치는 등의 문제들에 부닥쳐서 소규모 상업건축에서는 다소간의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경국_____**일반적으로 철을 사용한다는 것은 구조적 이유뿐만이 아니라 구조체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 아닐까요? 원실업 천안공장의 경우 현관에서부터 로비에 들어가서 전체 생산동 외피를 보면 계단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조에다 옷을 입혔는데 여기에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최승원_____저는 산업시설이 기본적으로 방수나 방청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기본적인 것은 일단 포장을 하고 스텐레스 물홈통 같은 것을 가지고 맛을 조금씩 보여



시험탑 계획모형(164.4m) (1994)



시공중인 시험탑

숲속의 향연을 시도한 어린이집 (1992)

주는 기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적인 것은, 물흠통이나 타워, 정문 디자인 등에서 적극성을 보이고 나머지는 쓰기에 편하게 포장을 해놓은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우경국_____선생님이 쓰신 글중에서 공장과 문화의 접목이란 내용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문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며 건축적으로 해결한 것은 무엇인가요?

최승원_____건축주였던 동양 엘리베이터의 회장님이 평창히 문화에 대해 조예가 깊었던 관계로 그분의 취향도 살려드리고 이 프로젝트를 연결해 주셨던 분도 문화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셔서, 특히 소규모콘서트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러번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문화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적극 반영할 수는 없었고 기본적으로 건축에서 오는 느낌이 문화감각이 느껴져야 하지 않겠나, 디자인을 봤을 때 뭔가 생각할줄 아는 사람이 한게 아니냐는 인상이 들 정도로는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현관 로비주변에서 소규모 콘서트나 전시회가 로비와 같이 이루어지면서 공간을 문화적으로 쓸 수 있게끔, 별도로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가서 감상 · 관람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 출퇴근하면서 쉽게 보고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각도에서 생각했었습니다. 또 건축적으로는 요소요소에 소규모 문화행사의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경국_____실제로 콘서트가 열린적이 있었나요.

최승원_____직접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만 비슷한 행사들이 열렸던 것으로 압니다.

우경국_____전시실은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요?

최승원_____처음에 제가 제안한 것은 초창기의 생산시설을 전시할 수 있는 자료전시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런 자료들이 제대로 모아져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건축주가 개인적으로 미술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관계로 설계상에는 바이어 상담공간이 전시실로 바뀌어 있습니다. 전시실로 바꾼 것은 건축주가 소장한 그림들을 추후에 정리해 전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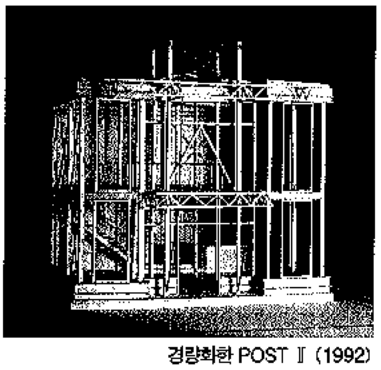
우경국_____그럼 초기의 의도가 바뀐 것이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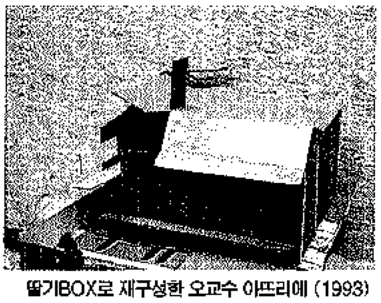
최승원_____예. 처음엔 자료전시실을 제안했었는데 룸자체가 바이어 상담 장소나 미술전시 장소로 바뀐 것은 건축주의 생각이었습니다.

우경국_____제가 문화시설이 인상적이었다는 것은 산업시설의 주체가 어차피 생산근로자들이므로 그들을 위해 문화적인 시설을 제공한다는 것이 일반 산업시설물과는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천안공장에 문화시설이 갖춰진점을 좋게 보았는데 그렇다면 생산직 근로자들도 그 시설을 늘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무직 직원이나 외래객을 위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승원_____생산직근로자나 외래객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처음 설계할 때부터 3C를 생각했습니다. 즉, 깨끗해야 하고(Clean) 매력적이고(Charming), 또 문화적(Culture)인 맛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으며 바이어와의 상담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료전시도 가능하도록 계획했었

십자가가 현탄 밖으로 나간 교회 (1992)


경량화한 POST Ⅱ (1992)


딸기BOX로 재구성한 오교수 아뜨리에 (1993)

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직원들의 안목을 높여야만 그에 걸맞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평소에 보고 느낄 수 있는 전시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경국_____로비공간의 실내정원을 보면 호텔이나 상업시설을 연상시킵니다. 공장건축에서 이런 것을 시도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요.

최승원_____공장을 짓다보니까 환경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있고 또 공기오염을 수시로 감지할 수 있는 에리어(Area)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공장안에도 조경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생각에서였습니다.

우경국_____생산동 외부의 물홈통처리는 매우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외부공간이 없는 생산동에 물홈통을 벽과 분리시켜 공간을 형성시키고 보행자도로로 활용한 것은 매우 적절한 처리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었는지요? 아니면 요구조건이었나요?

최승원_____이 공장은 아시아에서는 몇몇 안되는 넓은 지붕을 가진 건축물중의 하나란 평을 받기도 했는데 실제로 지붕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물을 한곳에 모으면 폭포와 같을 정도여서 실제 폭우가 쏟아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홈통을 구조적으로 조형화시키고 그 사이로 보행자통로를 만들었습니다. 내부는 생산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통로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물홈통 사이에 텐트를 쳐서 비를 안맞고 다닐 수 있도록 했고 물홈통이 워낙 크기 때문에 녹슬지 않도록 스텐레스 처리를 했습니다. 또 물홈통이 독자적인 아름다움을 지니면서 하자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흔히 물홈통에서 하자요인이 많이 발생하듯이 이 회사도 물홈통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해 다른 시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에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급적 완벽을 요했으며 워낙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저역시 새로운 구조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경국_____그 아이디어가 거북선의 노에서 나온건가요?

최승원_____의도적으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진행하다보니 거북선의 노의 맛이라든가, 곤충의 다리모양과 같은 맛이 나더군요. 덩어리는 크지만 머리도 있고 다리나 꼬리도 있어 축소해 놓고 본다면 배의 맛이나 곤충의 맛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은 생각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겠죠.

우경국_____엘리베이터 타워는 국내최대 높이 같은데 타워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진행하셨습니까?

최승원_____제가 직접 답사는 못해봤지만 회사설명에 따르면 이 타워가 세계에서 높은 실험탑이라고 하더군요. 처음 이 주문을 받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용하 선생을 만나뵈니까 삼각형이 바람에 대해서나, 구조적으로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참조해 디자인을 시작했는데 우선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를 두어 동적인 미학을 형성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고 일단 해놓고도 답답해서 김희구박사님께 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받아 회사측에 제출했습니다.

오교수 아뜨리에 실내건축 (1993)

인장력을 이용한 포도밭 (1993)

산과의 조화를 맞춘 신병원 (1994)

우경국_____엘리베이터 타워를 본동과 연결시키지 않은 것은 프로그램상의 이유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최승원_____무엇보다 구조가 다르고 타워는 바람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체와 연결시켜 놓았을 때 접합부분에 하자 발생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예방할 겸 본체와 연결시키지 않았고 또 이 실험탑은 소규모업체가 생산한 엘리베이터를 여기에 와서 실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완관계상 외부인이 본관동으로 드나들지 않고 외부에서 실험만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경국_____저는 공장을 답사하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만약에 견학자가 생산동 견학후 엘리베이터 실험타워를 간다면 본체와 연결시키는 것이 기능적일 것 같고 공간적으로도 풍부한 외부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조형적으로도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수위실, 기념탑, 본동 타워가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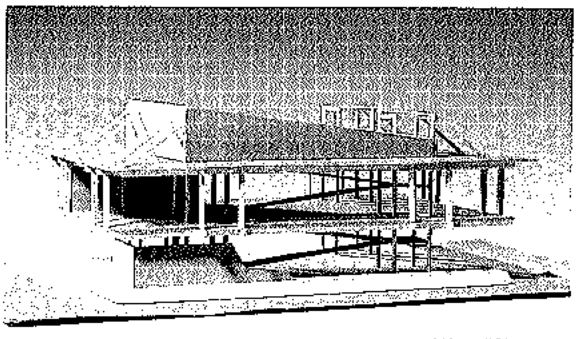
최승원_____워낙 Site가 크다보니까 도시건축처럼 주변과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고, 가급적이면 분산된 상태에서 브릿지로 연결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처음에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의 타워와 본동이 더 잘 디자인됐다면 타워본동을 지하로 연결하고 지상은 자연적으로 두고 또 현재 본동앞에 있는 주차시설도 마당 지하에 들어갔더라면 좀더 공간이 살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경국_____고속도로에서 보면 타워자체가 굉장히 Land Mark로 보입니다. 차라리 투명한 유리로 처리해서 오후에는 석양의 빛을 받았을 때 더욱 아름다움을 반사시키고 야간에는 거대한 불빛 타워가 되었다면 광고효과도 크게 보았을텐데 현재는 패널로 마감된 것 같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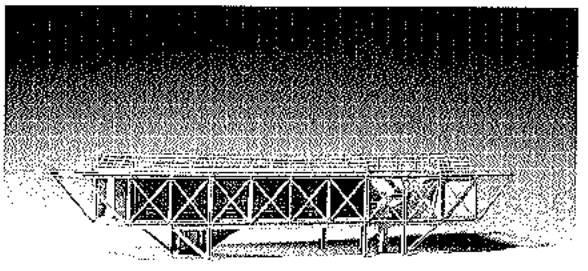
최승원_____예, 이 디자인을 계획해 놓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실험기 설치기술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또 비용적으로도 일본에서 예산에 2배정도 보니 그 정도의 비용이면 본관동 공사비와 비슷해져 그렇게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회사측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스케치는 그렇게 해서 내놓았지만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제대로 하자니 본관동보다 비용이 더 들 것 같아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광고효과를 생각해 투자하는게 좋겠다고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결국 경제성이 문제가 되더군요. 그리고 계획설계와 본설계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본설계팀에서 시공까지 맡아 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본설계팀에서 제가 주장했던 내용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비용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경국_____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면 건축의 아이디어를 추출하는데 있어 거북선의 노나 포도밭의 V자형 받침대 같은 하나의 단편적인 메타이로부터 따와 건축을 풀어나가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승원_____엘리베이터의 동적인 맛을 가지고 이 회사가 엘리베이터회사라는 사실을 표현해 보고 싶었는데 동적인 맛이란 것이 날개의 맛도 있기 때문에 현관 정문이 양쪽으로 날개를 펴고 가운데 수위실을 엘리베이터형으로 놓는 극히 평범한 것에서 디자인을 얻어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기념탑비의 경우 몸체는 요철의 맛을 주고 그 위에다 날개의 맛을 준 케이스입니다. 원실업 천안공장은 중공업공장으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보다 경쾌하고 좀 더 우주적인 기지의 맛을 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런 생각을 다 풀지는 못했지만 건



지선요 계획 (1994)



북한강 휴게 음식점 모형 (1994)

축물이 커도 약간은 무빙하는 듯한 맛 같은 것들을 가미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폐품이나 주변에 널려있는 사물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그런것들에서 뭔가를 추출해서 하는 편인데 처음 디자인을 했을 때는 전통건축쪽에서 뭔가를 빼낼려고 했으나 전통건축에 대한 지식에 한계가 있어 기본적인 것 조금밖에는 사용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평소에 보고 만지고 부딪히면서 아이디어를 추출해 좀더 다른 디자인을 만들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경국_____그 동안 최선생님은 주로 소규모프로젝트를 많이 하셨었고 대규모 산업시설을 하신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산업시설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려고 하셨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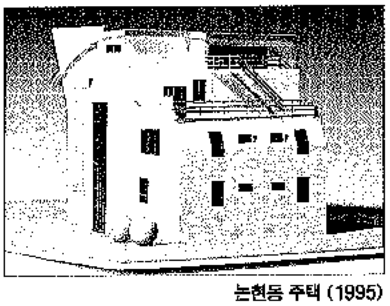
최승원_____현 국내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국제경쟁력 아닙니까? 국제경쟁력이라면 디자인이나 가격경쟁, 품질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해야겠지만 돈만 가지고서 안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산업시설에 몸담고 일하기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대학로에 젊은이들이 모이듯이 산업시설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무릉도원이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만 그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 것이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이 즐겁게 일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할려면 대학로를 문화의 공간으로 이끌어 나가듯이 산업시설도 대학로와 같은 매력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연구시설처럼 아주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들어가서 보니 후면에 자연연못이 있어 이를 인공을 가해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아쉽게도 생산시설에 밀려 지금은 볼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점도 물과 건축을 문화적으로 풀어보려 했던 제 나름의 시도였습니다.

우경국_____끝으로, 현재 외부에서는 우리 건축계가 큰 혼란기다, 격변을 맞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한편에서는 교육에 문제가 있어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말들도 합니다. 후배 건축가나 학생들을 위해 이 기회에 한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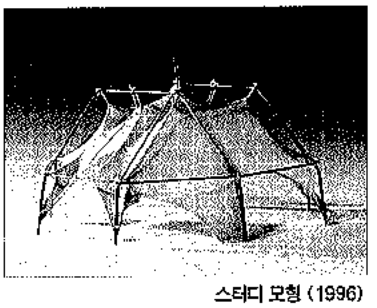
최승원_____진리는 주변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디자인을 위한 아이디어나 생각을 멀리 외국쪽에서나 수입화된 것에서 찾지말고 주변 사물들에서 찾으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외국의 것에서 아이디어나 생각을 얻는 것이 비록 쉽고 빠를 수도 있으나 너무 편중되게 훈련이 되다보면 실제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의 GNP나 문화적인 내용, 삶의 방식과 차이가 있고 현실감각을 익히는데도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자주 훑어보고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지나다니는 곤충들이라도 자세히 보고 내다버린 산업폐기물에서도 디자인쪽으로 재생할 수는 없는가 하고 우리주변을 돌아보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경국_____오랜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논현동 주택 (1995)

원아사 노인시설계획 모형 (1995)


스터디 모형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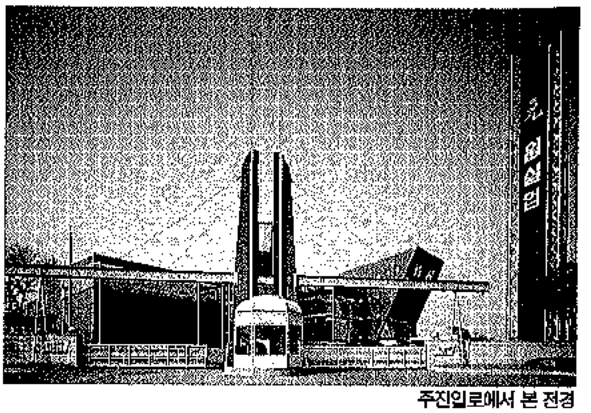
원실업 천안공장
Ele-Port Hill

비평 critique

비상을 꿈꾸는 "이카루스"

Icarus

정진국 /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by Jung Jin-Gook



주진입로에서 본 전경

표현주의적 말하는 건축

1.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서울에서 빠져나오다 보면 천안에 다가오면서 왼쪽으로 유난히 높은 청록색의 철구조물이 눈에 띈다. 탑처럼 생긴 이 수직의 물체는 자신의 높이 때문에 주변의 경관을 압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수평으로 넓게 펼쳐진 덩어리가 자리하고 있는데, 커다란 몸집으로 인하여 이것이 특별한 용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졌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수직과 수평 즉, 구축방식에서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에로 유도하는 위력을 지닌 우리의 관찰 대상은 건축가 최승원이 설계하고 실현시킨 승강기를 제작하기 위한 공장 건물이다. 건축가의 심도있는 고민과 감성적 필촉으로 이루어진 천안 공장은 이른바 표현주의적 '말하는 건축' 으로 자리매김된다.

2. 건물의 유형은 항구적인 건축적 사실은 아니다. 새로운 발견 · 발명 그리고 사회의 제반 여건 변화는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건축 분야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기존의 시설들이 소멸하거나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사회적 요구에 따라 추가된다. 기차 역사, 비행기 격납고 또는 증권거래소 등은 이러한 요구에 따라 발생된 좋은 예이다. 특히 공장은 산업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필연적으로 등장한 대표적 건축적 프로그램이다.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생산을 위한 전문적 시설으로서의 공장 건물에는 손쉽게 생산력의 상징적 가치가 부여될 수 있어서 유럽 국가들의 힘을 효과적으로 홍보 및 선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이 선명하게 부각되는 곳은 후발공업기술국의 독일로서, 베렌스(P. Behrens)의 아에게(A.E.G) 터빈공장을 비롯하여 그로피우스(W. Gropius)의 파구스(Fagus) 신발공장 등은 근대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 건축물이다. 생산의 의미가 건축의 형식과의 접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오늘날 기업의 생산력의 "이미지" (image)가 건축적 형태로 표현되는 일은 흔하다. 이러한 공장 건물의 특별한 문제점들이 천안 공장에는 어떻게 해결된 것일까?

3.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공장으로 찾아 들어간다. 한창 개발 중에 있어 한국 내의 도처에서 발견되는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 천안의 외곽을 벗어나 비교적 한적한 곳에 공장은 자리잡고 있다. 고속도로상에서 보았던 수직의 탑은 승강기 시험대였으며, 수평의 상자는 승강기 제작을 위한 건물로 할애되었다. 좌우대칭적인 제작소의 정면 형식은 독특하다. 돌출하고 사선으로 빗겨진 현관은 건물의 입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빛으로 가득한 공간이 시야에 바로 들어온다. 중정의 형식을 빌어서 한정된 공간은 천창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빛으로 인하여 내적 폭발을 일으킨다. 문득 모든 것이 정지된 듯 고요하다. 공장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고속도로에서의 기억 - 속력과 소음 - 과는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빛의 공간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수준을 넘어서 주위를 결집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 그리고 이 빛은 축복의 손길처럼 신성한 것이다.

4. 사실 건축에서의 빛은 근대 사회에 오면서 모든 권위적, 신화적, 신비적 요소를 스스로 떨쳐 버린다. 상징성이나 정신성과 강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던 빛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식 축척의 과정 속에서 세속화의 길을 걷는다. 말하자면 빛은 다른 모든 요소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재료로 되어버린다. 그러나 빛이 물질화되면 될수록 점점 그것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왜냐하면 빛은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통제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빛에서 이탈한 건축은 쉽사리 형식적 유희로 전락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만일 근대운동의 거장 르코르뷔제(Le Corbusier)가 금세기초 빛에 대하여 주목하였다면, 이는 건축을 만드는 불변요소로서의 빛을 정신의 영역에로 포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중정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천안 공장의 건축 공간을 있게 만드는 위력적인 빛에서 이러한 정신성을 재발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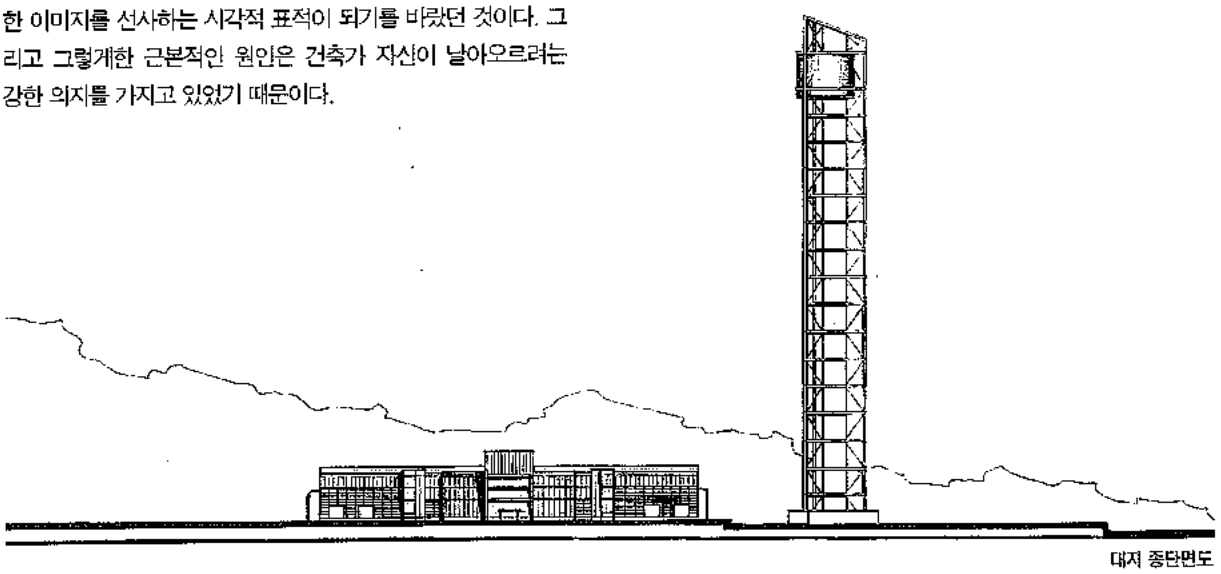
5. 빛이 가져다주는 또다른 혜택은 색이다. 빛이 없는 곳에는 색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천안 공장에서의 빛은 색을 어떠한 모습으로 가시화시키고 있는가? 공장의 내부는 베지색, 유백색, 연갈색 등 거의 중립적인 색으로 채워져있다. 인간의 생리학적 특성에 있어서 쉽게 피로하게 만들지 않는 이러한 색들의 조처는 그러므로 작업 공간과 사무 공간에 비교적 잘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중립의 색 위에 푸른 빛이 감도는데, 이는 수목의 녹색이 벽면에 반사되므로써 나타난 것으로써 중정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무 공간에 활기를 더해준다. 녹색은 내부에만 있지 않다. 외부의 재료로 사용된 유리와 철재 페

널들은 온통 한가지의 청록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요철이 있는 전체의 건물 덩어리를 시각적으로 하나로 묶는다. 지배적인 청록색의 바탕 위에 부분적으로 백색이 사용되었는데, 백색은 '면' 적 요소를 정의하는 청록색과는 구별되어 홈통과 건물 가장자리의 '선' 적 요소를 부각시킨다. 그러나 청록색은 건축가가 당초에 의도한 바의 색은 아니었다. 그는 "백조의 호수의 발레리나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의도로 은백색으로 처리해 비행물체처럼 보이고, 순결한 느낌이 들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다. (청록색은 기업이 관습적으로 써오던 색으로서 건축가는 자신이 의도하던 색을 양보한 것이다.)

6. 건물이 공중을 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중력이 실재하는 지구상의 건축물들은 중력과의 화합과 투쟁으로 질서지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순수한 시각적 장치인 색을 사용해서 비행물체처럼 보이게 하고 싶은 건축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답하기에 앞서 몇가지 건축에서의 색에 대한 생각들을 살펴보자. 르 코르뷔제(Le Corbusier)에게 있어서는 색이 몇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첫째 대상물을 수정하고, 둘째 대상물을 분류하며, 셋째 생리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시지각 요소였다. 그의 "건축적 산책"은 이러한 색의 기본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더욱 감흥을 자아내게 된다. 반 더스부르그(Theo van Doesburg)에게는 색이 시간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색은 관찰자의 시각적 표적이 되고 이는 주어진 공간을 재편성하게 된다. 그리고 독일 표현주의자로 분류되는 타우트(Bruno Taut)는 색을 내적 의지의 표현하기 위한 건축적 재료로 사용하였고 이는 기술적 합리성에 기인하는 불가피한 형태적 단조로움을 피하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였다. 언급된 근대 운동의 초기에 색에 관한 관심은 넓게 조망해 볼 때 아돌프 로스(Adolf Loos)가 이중의 낭비 - 노동과 자본 - 라고 본 '장식'을 비판하고 순수 조형적 요소로서의 대체물로 파악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건축에 있어서의 색은 그들에게는 새로운 공간, 시간, 시점의 구축을 위한 것이지 결코 미적 효과를 겨냥한 부차적인 장식의 의미와는 무관하다. 천안 공장 설계에 있어서 건물을 비행물체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은백색을 고려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창조에 있다기보다, 공장 건물이 강렬한 이미지를 선사하는 시각적 표적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한 근본적인 원인은 건축가 자신이 날아오르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7. "나는 날개를 갖고 싶다. 날개는 잉태를 낳고 보호한다. 날개가 있으면 날 수 있다. 자꾸 위로 올라가면 우주와 만나고 별을 가까이 할 수 있다. 별 빛은 매력적이며 희망이다." 이와같은 건축가의 언급에서 우리는 그리스 신화의 이카루스(Icarus)처럼 '비상'을 꿈꾸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별", "성좌", "태극"과 같은 지상에서 멀리 떨어진 사물들에 대한 동경은 한정된 시점에서 벗어나 좀더 자유롭기를 원한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건축가는 삶에의 현실적 고착보다 몽상적인 초월을 시도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늘을 날고픈 건축가의 욕망은 건축주의 의지와 일치한다. "하늘에서 보는 건물 형태"에 대한 관심은 바로 건축주가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는 아마도 공장의 생산품인 승강기 자체의 특성에 관계되어 있음이 확실하다. 말하자면 승강기의 출현이 수직동선의 해결에 있고 수직적 이동은 인간이 손쉽게 상부에서 조망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승강기의 상하운동을 통한 시점의 변화는 건물의 형식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건축에서의 제5의 파사드인 지붕면을 주목한다. 실현된 상황과는 다르지만 초기의 모형을 관찰하면 지붕면 형태에 고심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지붕면을 수놓는 돌출과 균열의 형식은, 내부 공간의 질에서 발생됐다기 보다, 비상을 통하여 건물을 내려보는 외부적 시선에 의하여 질서지어진 것이다.

8. 평면조직의 측면에서 볼 때, 경영자 집무실, 사무실, 작업장의 순서는 극히 단순하게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장에서 유리한 배열이다. 그러나 최승원이 천안 공장에 선사한 진짜 중요한 공헌은 각각의 노동환경에 대한 세심한 배려이다. 작업장 내에 수목을 두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의 관조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배려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아쉽게도 거대한 작업장 내에서의 수목의 힘은 미약하여 당초에 목표하던 바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과거 붉은 벽돌에 수목을 심고 늘어뜨려서 관찰자의 마음을 애써 움직여보려던 감상주의적 방식은 여기서 자연주의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노동의 즐거움"을 주고있다. 그리고 사무실 내에 문화적 체험 - 회화, 조각 등 - 과 공장의 역사를 읽게



대지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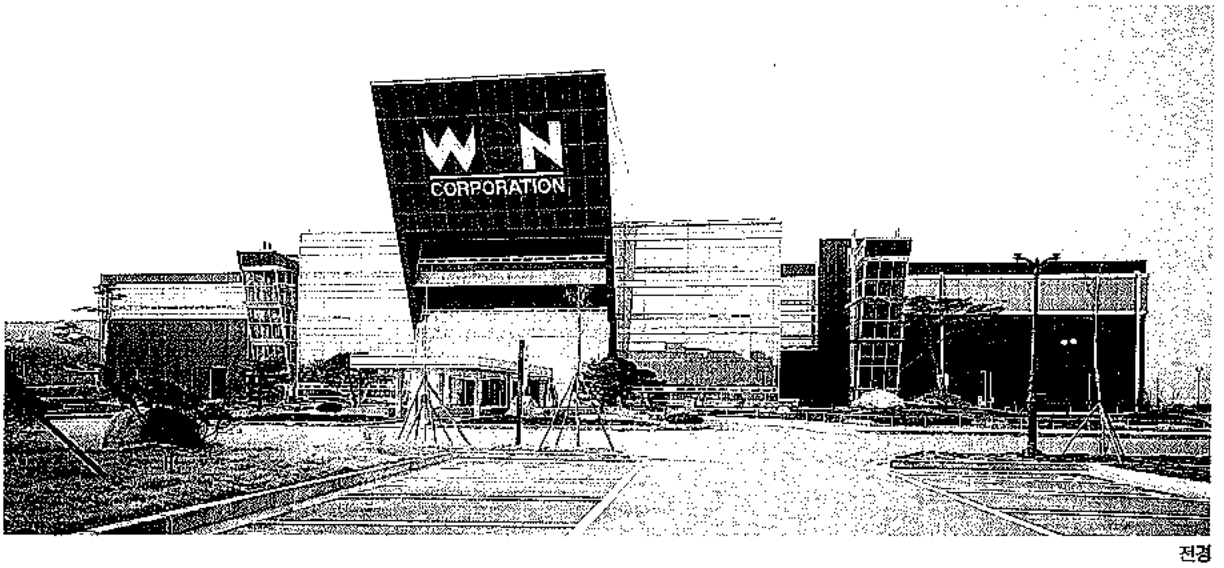
만드는 생산부품의 전시는 그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 할 수 없는 기쁨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라이트(F. L. Wright)의 걸작 존슨 왁스(Johnson Wax) 공장에서와 같이 산업적 건축물을 대표하는 이윤추구, 획일화, 비인간적인 분위기의 비판이 천안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만일 최승원이 그의 사무소 이름대로 "앙가주망"(engagement) 즉 참여의 사회적 궤적을 발견한다면 바로 여기에서 일 것이다.

9. 일반적으로 공장 건물을 설계할 경우 건축가 개인을 표현하기는 용의하지 않다 그만큼 합리성과 규범성이 요구되는 영역에 내면적이며 개인적이며 창의적인 영역이 끼어들만한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근대운동 초기, 즉물성을 강조한 무테지우스(H. Muthesius)와 예술의지를 옹호한 반데 벨데(Van de Velde) 사이의 논쟁을 상기시킨다. 그런데 최승원에 있어서는 단순화해서 말한다면 벨데 쪽으로 경도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공장이라는 건축 유형에 맞서서 지녔던 그의 관심은 기술적인 세계에 있지 않고 심미적인 세계에 있었다. 어떤 사물의 형태는 사물 내부로부터가 아니라 사물을 만드는 인간의 내부로부터 흘러나옴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창조적 숭고성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는 다분히 '표현주의'적이다. (표현주의적 형식은 여러군데서 발견되고 있으나 특히 원형으로 구부러진 홈통의 처리는 대표적이다. 그리고 원이 가지는 건축적 어휘의 가능성이 건축가의 다른 작품 "환희의 병원"의 상부에 구름처럼 뭉실뭉실 피어나는 형태에서 실험되고 있다. 재미난 사항은 홈통들이 거북선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비행물체를 만들고자 했던 당초의 의지와는 별도로 이렇게 거북선 옆면에 있는 노를 상기시킴으로써 전체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실제 평면이나 입면을 보면 거북선의 형태와 흡사하다.)

10. 천안 공장을 둘러보면서 근대 운동 이전의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즉 계몽기의 프랑스 건축가였던 르두(L. N. Ledoux)가 설계한 아르크-에-세낭(Arc-et-Senan)의 소금 공장이다. 지금은 지역문화시설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실현 당시에는 이상향을 그렸던 사회주의자들의 이론을 건축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나온 결과이다. 바로크 시대 이후 감성을 넘어 감각 위주로 흘러간 예술 및 건축의 경향을 거부하는 계몽기 건축가들의 노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는 소금 가공을 위한 장소와 함께 감독관저,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 그리고 자급자족할 만큼의 경작지가 포함되어 있다. 르두가 원했던 바는, 기술력 증강이나 생산력 향상을 위한 공장의 효율성에 있다기 보다는, 공장 노동자들의 공동체적 중요성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모호함이나 애매함이 제거된 의미의 투명성 확립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어떠한 용도의 특성을 표시하는 형태를 건축적 어휘로 채택하였다. 내용이 형식으로 외화된 다시 말해서 형식이 내용에 내포된 이러한 건축을 "말하는 건축"(Architecture parlante)이라 부른다. 최승원의 천안 공장에서 승강기의 '비상'과 건축적 '비상'을 위와 같은 내용과 형식의 관계 - 공장의 형태는 승강기를 의미적으로 표상화하는 - 에 비추어 본다면, 일종의 "말하는 건축"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건축의 표상화가 표현주의적 경향에 근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는 관찰 대상을 "표현주의적 말하는 건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EXPRESSIONISTIC ARCHITECTURE PARLANTE

1. Running along Kyungboo highway, away from Seoul, you come across a vertical green steel frame, which overwhelms its surrounding by its enormous height. It forms a striking contrast to the massive volume lying horizontally next to it. What features this opposition between the vertical and the horizontal, the two elementary elements of construction, is the recent work realized by Choi SungWon, a factory for manufacturing elevators. Its signs of profound consideration and emo-



전경

tional charge of the architect positions this architecture among the expressionistic 'architecture parlante'.

2. A programme of a building can never be permanently settled, for various changes in social, economical, and industrial conditions results in the transformation of, along other fields, architecture: train stations, airplane garages, and stock exchange buildings were never thought of in the old days. A factory can be no exception, when Peter Behrens' A.E.G. Turbine Hall and Walter Gropius' Fagus Shoe Factory, both from Germany which was then an emerging industrialist country, opened the gate towards the 20th century. The meaning of 'production' began to get engaged in architectural forms, on which nowadays it is not surprising to see the reification of the corporation's productive 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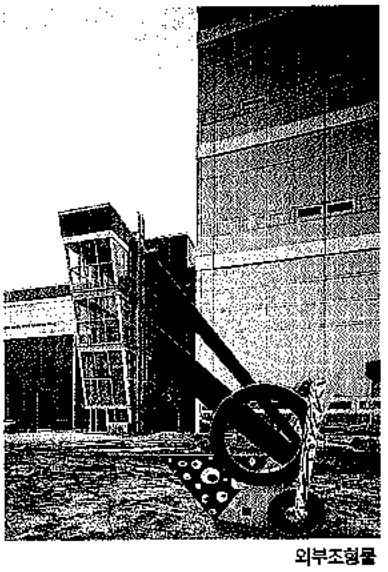
3. With all the chaotic developments on the suburbs of ChunAhn, the factory sits on a relatively untouched site. The vertical tower, visible from the highway, was for testing the elevators, and the horizontal volume for its manufacture. Its symmetrical facade is peculiar, with its obliquely projected entrance claiming its role as the main gate. Enter, and you are struck with a shower of light, which explodes within the confined space of the atrium. The speed and sounds of the highway, a memory just a few minutes behind, fades away with this holy endowment of 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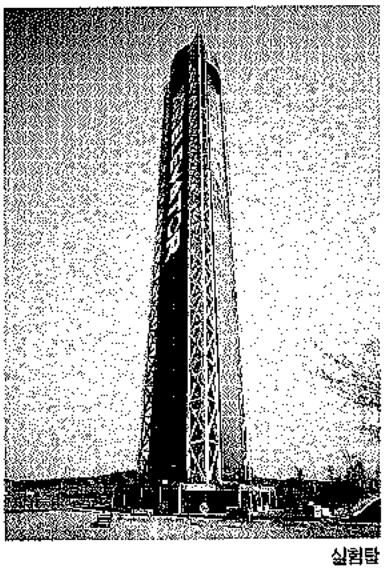
4. The light in modern architecture, following the path of secularization, has thrown away its authoritative, mythological and mystical role and has given itself an unprivileged position among other ordinary materials. But the materialization of light ends up far away from itself, since light is thought to be controllable by human technology. Architecture that has cut itself off from light easily falls victim to the formal playfulness. If Le Corbusier has focused on light at the beginning of this century, it was certainly to embrace light into the realm of spiritual ideals. That same light is what can be experienced in the entrance of the ChunAhn factory.

5. What light also gives birth to is color; without light, color simply cannot exist. What color does the light visualize in this factory? The interior of the factory uses the color of beige, milk-white, and ivory, mainly neutral colors, suitable to work spaces in that they're the most efficient colors to lessen the visual fatigue. A color of green overlaps these neutral colors; they're the reflections of the trees from the atrium. Green is the chosen color for exterior materials such as windows and steel panels, which constructs a visual consistency from the irregular form. The dominating green is often covered by white, where it contrasts with the green planes with its linearity. Green was not the architect's preferred choice; he wished to use silver white, to "make it pure and light, like the impression from the swan's lake." But the architect yielded his choice in favor of the company, which often used green on their buildings.

6. Can a work of architecture float? Literally, no. As long as there exists the law of gravity, buildings will forever fight for and against it. Then wouldn't it be perverse for an architect to choose a light color so as to enable the architecture fly away? Before answering, let's look at some thoughts on color from the past. For Le Corbusier, color played a few roles. First it corrected the shape of an object, then it classified them, and third, it was a visual element evoking certain physiological actions. These basic roles of colors, along with that of his "Architectural promenade", enhances the viewers appreciation of architecture. Theo van Doesburg related color with time. German expressionist Bruno Taut used color as a weapon to overcome the monotonous forms derived from technological reason. These thoughts on color of modern times can be linked to the criticism of Adolf Loos, who despised ornament for its labor and capital wastefulness and substituted it with color. Their use of color was marked for the construction of new space, time and point of view, never a secondary tool for aesthetic means. The original wish of the architect to use the color of silver white was

주출입구


외부조형물


실험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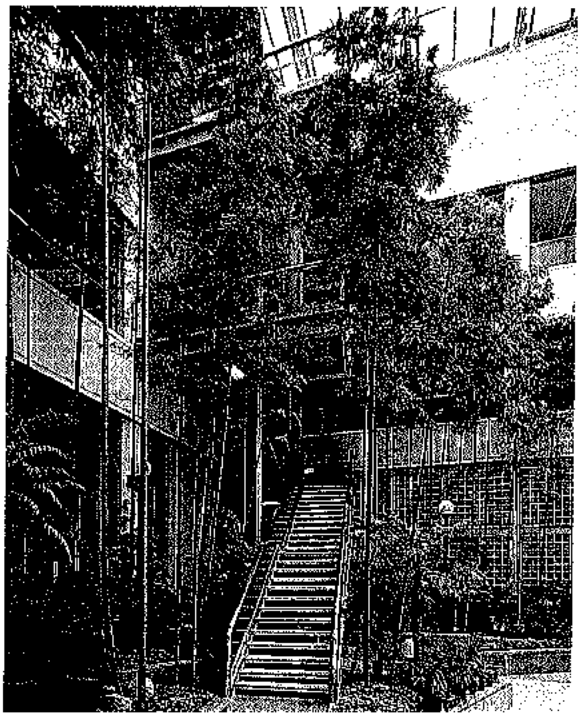
to, rather than create a new form, present the factory with a visual quality of lightness, which reflects his own dream, to float a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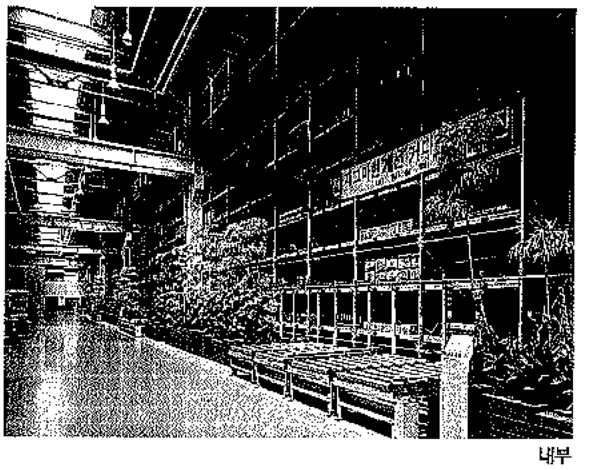
7. "I wish to have wings," says the architect, "wings that give birth and secure. Wings enable you to fly, fly over the space, become closer to the stars. Stars are attractive in every sense of the word, and I can see hope in them." Surely he reminds us of Icarus from the Greek Myth. He dreams of transcendence rather than clinging to reality. It is quite interesting that this wish to float coincides with that of the owner. The demand of the owner to consider the factory's birds-eye-view is certainly a sign of transcendence. It also is symbolic of the product of the factory, the elevator, the modern creation that finally endowed people with a overview of their surroundings. The various points of view along the elevator would be a crucial element of the factory's design, and its roof becomes the fifth facade. Although not realized in the final construction, there are signs of endless care for the design of the roof: its forms of projection and friction were more a result of the concern for its overview than for the quality of its indoor spaces.

8. The layouts of functional programmes, ordered in the manner of management offices, production offices and production lines, are simple but efficient for the factory's productive ends. The real contribution the architect placed is not in this efficiency but in the subtle attention on laboring conditions. The fragments of nature provided in these working areas are not only for the worker's visual comfort but also a reflection on ecological concerns. The rather "romantic" solution of planting trees on red brick walls are developed here in a "naturalistic" way, providing the pleasures of labor for the workers. This self-esteem for one's work is further encouraged by exhibiting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company, such as paintings and sculptures. As Frank Lloyd Wright had achieved it with his tour-de-force, the Johnson Wax Factory, Choi succeeds with this ChunAhn factory in a sharp criticism on blind points of view of today's industry - the sole concern for profits resulting in simplification of and neglection on human values. The name of Choi's architecture firm, Engagement, cannot be more appropriate.

9. Usually, in the design of industrial factories, there is little room for the artist's expression. It is filled with regulations of rational choices opposing the individual, inner-minded creations. This dichotomy calls to mind the modern debate between Hermann Muthesius and Henri van de Velde, where Choi can be placed closer to the latter. His prime concern in this industrial construction was oriented towards the inner world, not the superficial world of technology. The development of forms stems from the mind of the creator who creates it. This insistence on the holiness of individual creativity can be rightly called 'expressionistic.'

10. A tour through the ChunAhn factory reminded me of a project from the pre-modern ages. It is the salt factory at Arc-et-S nan, design by the visionary French architect L.N. Ledoux. It was the product of the trial to introduce an architectural solution to the ideal of the socialists of its era. The gradual degradation of emotion to physical feelings after the Baroque ages was met by rising objection of Enlightenment architects. This project includes housings for the factory's workers and their self-sufficient properties. It seems that what Ledoux had in mind was not the efficiency of the factory to heighten its productivity, but the enrichment of collaborative lives of the workers. Thus it was necessary to erase any obscure and slippery symbols and present a transparent icon, which resulted in the forms representing their functions. This kind of externalization of content to form, in other words the internalization of form into content are named 'Architecture parlante.'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floating of the elevator and the floating of architecture itself can be viewed from this form-content relation, and ChunAhn factory can be called 'Architecture parlante.' This has its roots in expressionistic will, so the object of speculation could finally be defined as 'Expressionistic architecture parlante.'





내부

신사동 주택

Shinsa-dong Residence

함인선 / (주)인우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Ham In-Sun

이 집은 도산공원을 바로 마주하고 있다. 북쪽 공원의 풍광을 집안 가득히 끌어들여 남쪽 마당으로 토해내기 위해 집 끝은 양쪽이 유리벽으로 된 실린더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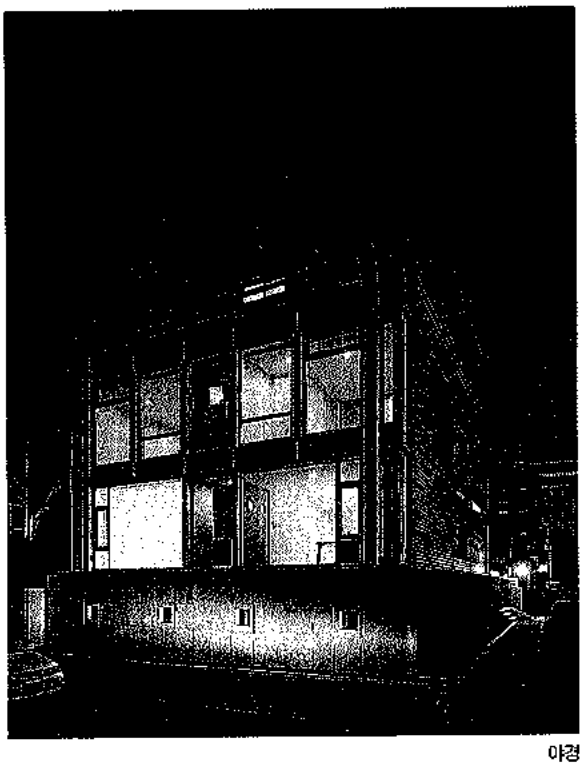
2층 자체가 Vierendeel Truss가 되어 바닥을 달아 맴으로써 아래층의 투명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간의 철골주택이 목재 틀만 경량철골로 치환한 전형적인 2×4 공법이었음에 반해 여기에서는 철골이 구조재이면서 외장재로 쓰여진다. 철골조가 제공할 수 있는 또하나의 특징인 내부공간의 개방성과 유연성은 프로그램상 현단계에서 완전하게 구현되지는 못하였으나 증축될 3층부분에서 실현하여 볼 계획이다.

이 집은 이 시대 주택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현장 생산되는 콘크리트 구조 대신 공장제작의 철골이 새로운 주택구조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수작업적 건축생산시대의 재료인 벽돌 대신 철판이라는 기계시대의 재료가 시대적 미학을 획득할 수 있는지.

높은 담과 창없는 벽으로 닫혀있는 대신 길과 이웃에 대해 심할 정도로 열려있는 태도가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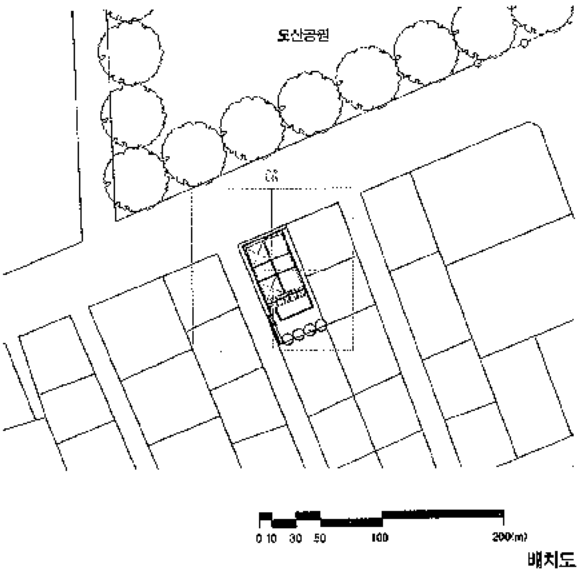
세계 곳곳의 주택양식을 이해못할 방식으로 꼴라주하는 대신 필요한 구조재만 남기고 다 생략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땅에서 집짓는 미땅한 태도가 아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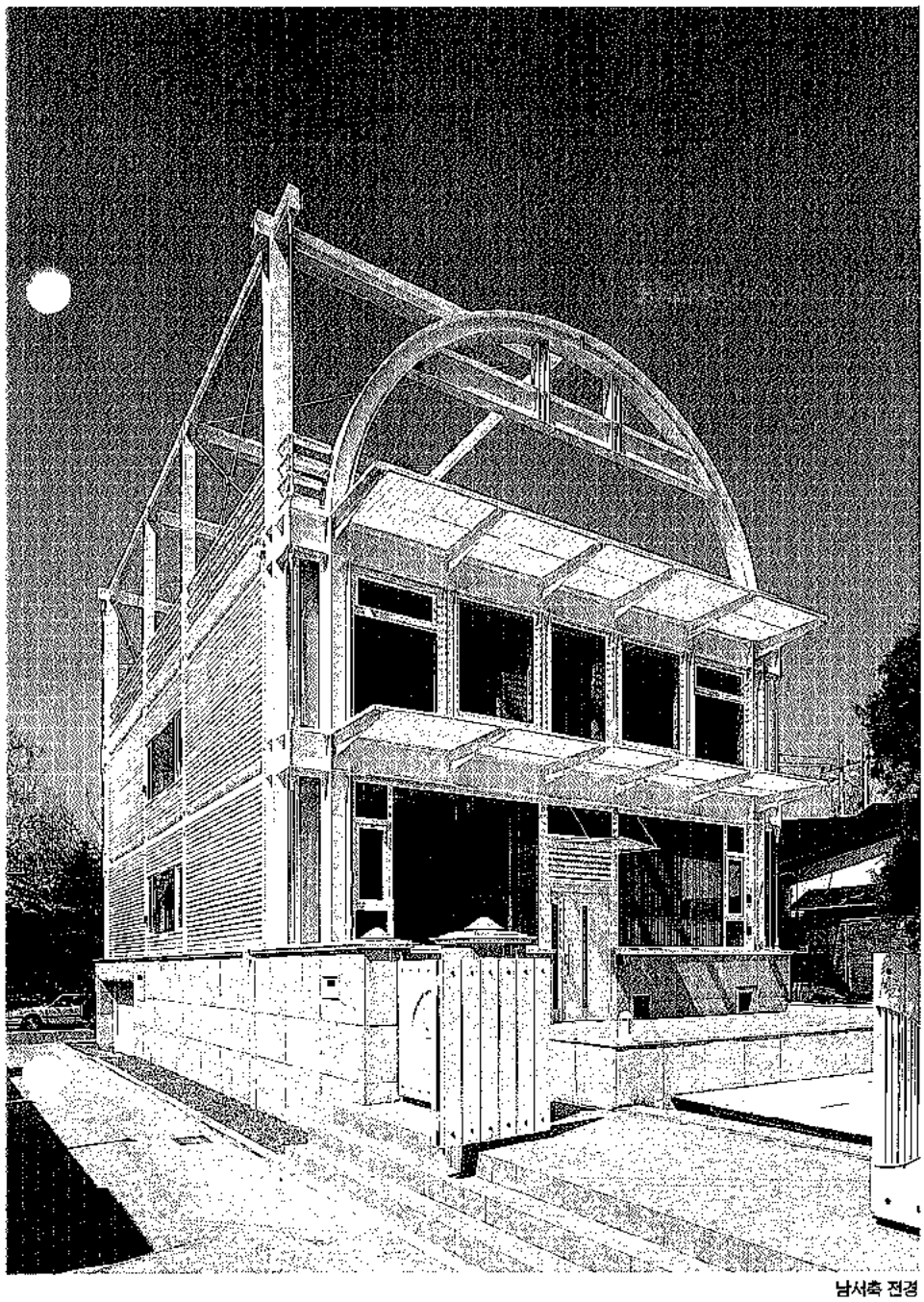
야경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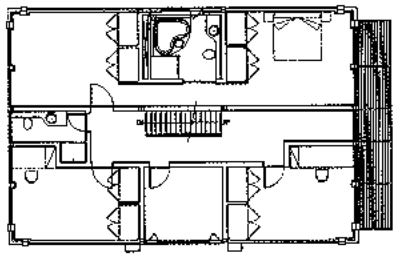
위 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1-23
지역지구	전용주거지역
주 용 도	단독주택
구 조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외장방식	Matal Panel + UPVC-슈퍼샤시
대지면적	290.40㎡
연 면 적	503.43㎡
건축면적	141.30㎡
건 폐 율	48.66%
용 적 률	96.87%
조경면적	1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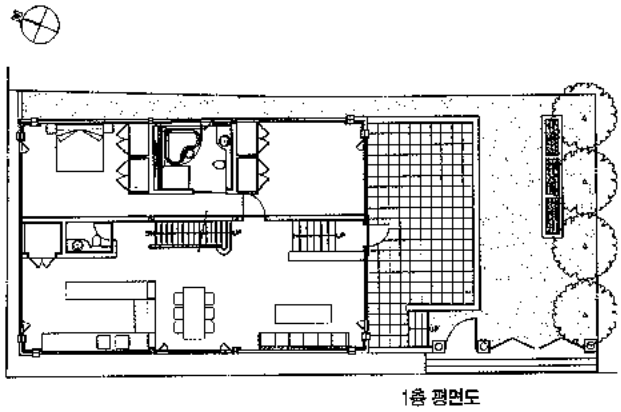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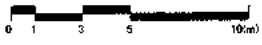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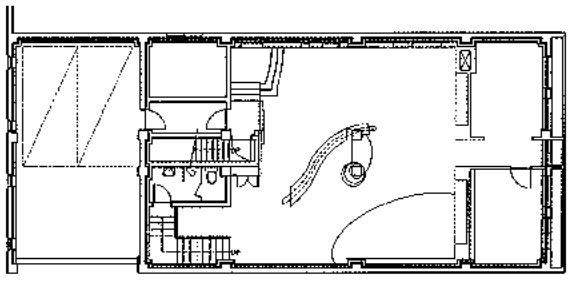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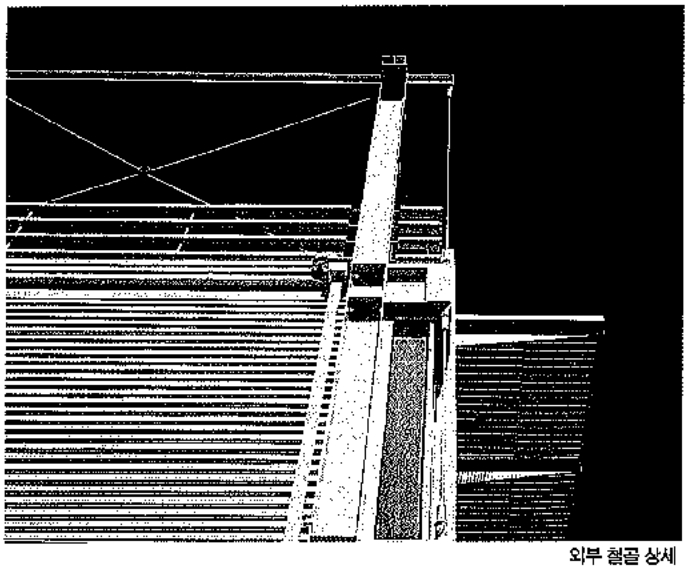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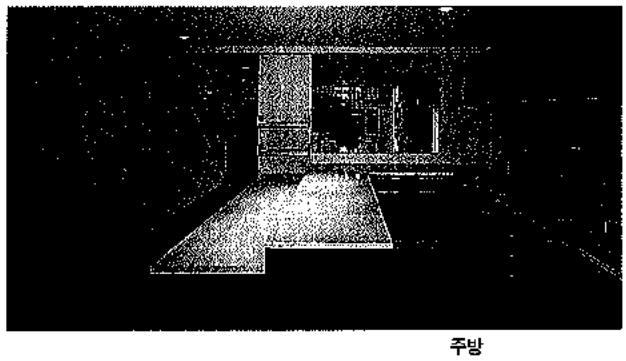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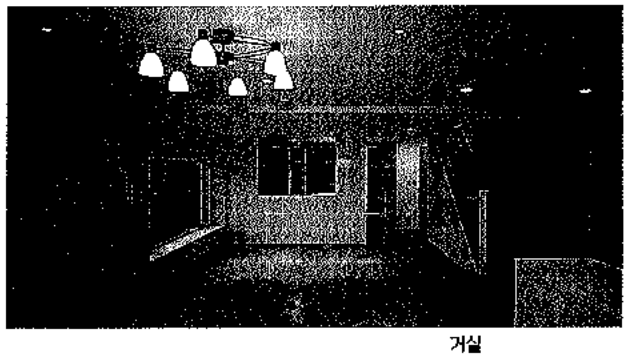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외부 철골 상세



주방



거실

평촌종합상가

Pyeongchon Complex Bldg.

김영택+최수익 / 종합건축사사무소 다원건축
Designed by Kim Young-Taik & Choi Soo-Ik

이 대지는 평촌아파트 단지의 중심상업지역내에 위치한 장방형의 대지로서 2면은 20m 및 6m의 보행자 전용도로로 접해있고 1면은 10m 간선도로에 접해있다.

최초 Project를 접하고 나서 느낀점이 있다면 건축주가 57인의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서 설계요구사항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과, 도시설계로 규정지워진 내용(인접건물과 합벽개발, 1층 전면부에 3m 폭의 회랑설치, 건물높이 20m 이하)으로 인하여 건물주변의 분위기가 특징없이 획일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조합원들은 토지대금만 납부하고 건축비는 1층 및 지하층 일부를 분양한 금액으로 충당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계획의 기본방향은 1층 점포의 면적을 가능한 한 크게 하되 상부 조합원들이 나누어가질 공간의 면적을 최대로 확보하는 것이었다.

20m의 건물높이 규제한도를 지키며 층수를 최대로 하기위하여 flat slab를 사용하면서 층고를 최소화하고 6층으로 계획하였다. 특히 건물의 안지성을 높이고 상층부로 보행자동선을 원활히 유입하기 위하여 보행자도로가 교차하는 대지 귀퉁이에 옥외계단을 설치하고 계단내부에는 지하로는 선큰, 1층에는 보행통로의 연결, 상층부는 bridge 설치 등으로 옥외계단 주변을 건물의 major space로 구성하였다. 즉 옥외계단을 진입하기 위한 길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조명 및 색채계획에 특징을 부여하므로서 건물의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건물의 외벽이 상점의 용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외벽을 module화 하였으며, 건물이 간판으로 뒤덮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판 부착장소를 고려한 입면계획을 하였다. 대지에 근접해서 전철역 입구가 있고 고객들이 밤에도 퇴근하면서 상점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어 건물의 야간 조명계획에 주의를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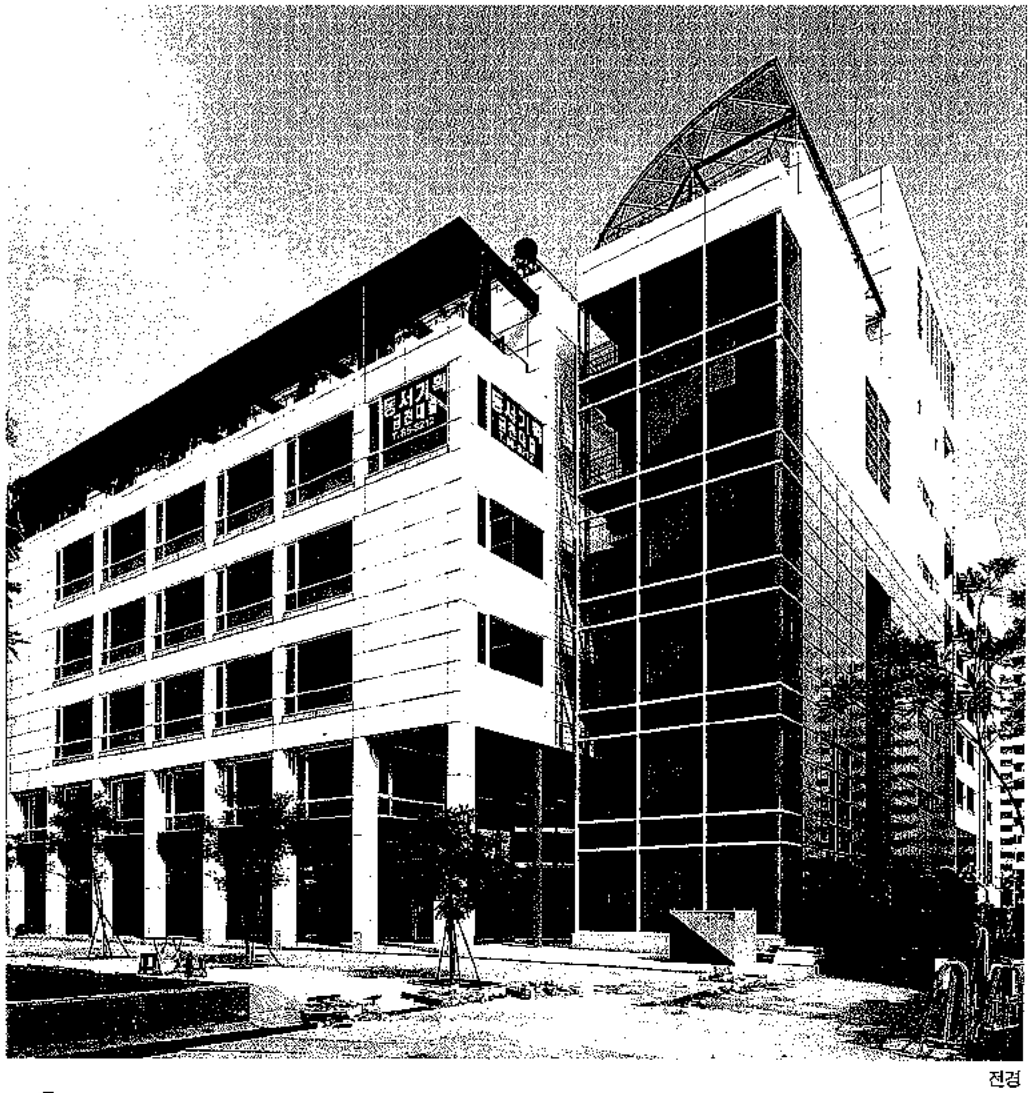
옥상에는 옥상정원을 조성하여 아파트에서 건물의 옥상을 내려다볼때의 하향시각 요소를 고려하였으며, 건물 최상층의 전면에는 1m의 파고라를 설치하고 밑면에 강한 색채를 칠하고 상향조명으로 강조하므로서 야간에 주변건물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였다.

공사비 부족으로 인하여 옥외계단의 유리벽을 Bar가 아닌 Hanging System에 의해 상징적으로 처리하려던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간판의 지정장소 부착, 다양한 입면구성 등이 최초계획대로 되지 않았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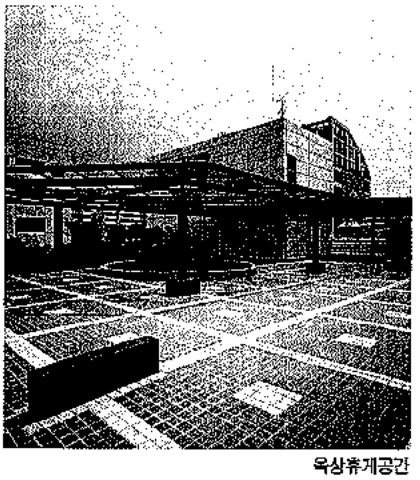
건물신축에 유달리 관심(?)을 갖고 공사도중 자기점포의 창면적이 좁다느니, 건물의 공용면적비가 너무 높다느니, 왜 아까운 공간을 옥외계단으로 처리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목청을 돋구던 사람들은 이미 점포를 팔아버린지 오래이지만 현장에서 상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1층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옥외계단을 이용하여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다소 위안을 느껴본다.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6-6,7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지역지구	중심상업지역, 도시설계지구	외부마감	알미늄 세라믹 패널
대지면적	1,016.8㎡	외부마감	천정- 석고보드위 퍼라이트뿜칠
건축면적	779.1㎡		벽 - 대리석, 뿜칠형타일
연 면 적	6,166.92㎡		바닥 - 대리석, 비닐계타일
건 폐 율	76.62%	주요설비	F.C.U 냉난방
용 적 률	376.18%	설계담당	김용집, 김영진, 김상기, 송창훈
규 모	지하4층, 지상6층	감리담당	김승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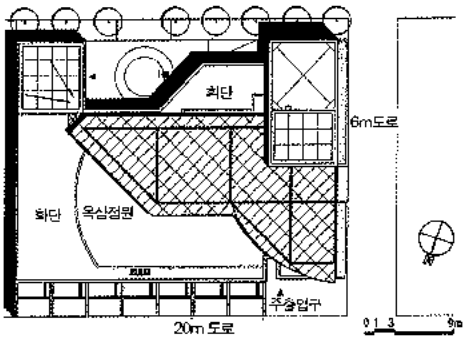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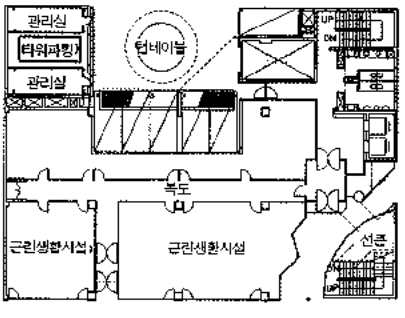


옥상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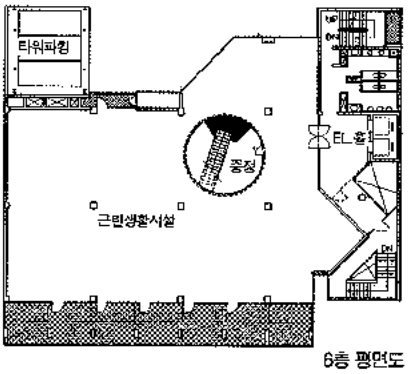
6층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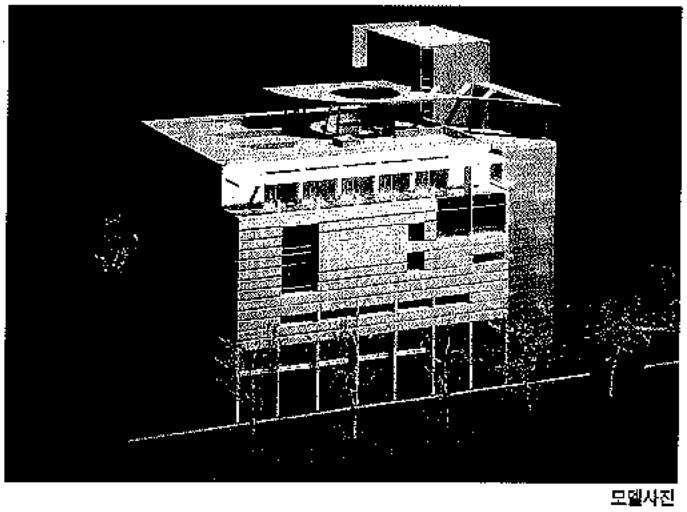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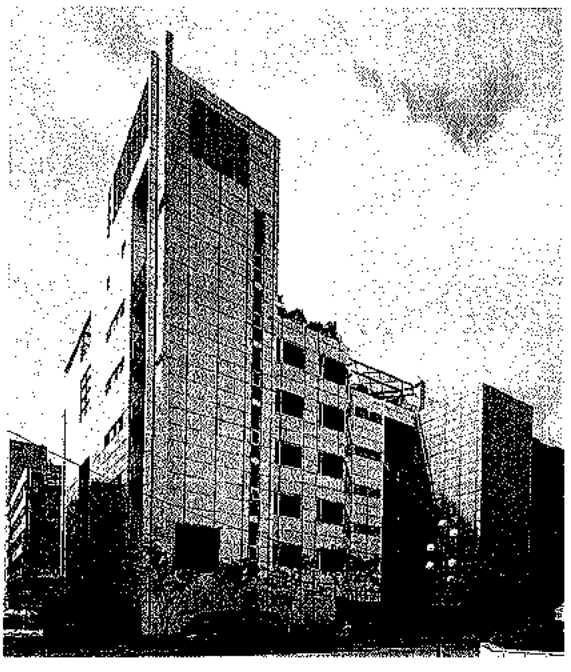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6층 평면도



모델사진



영동전문대 학생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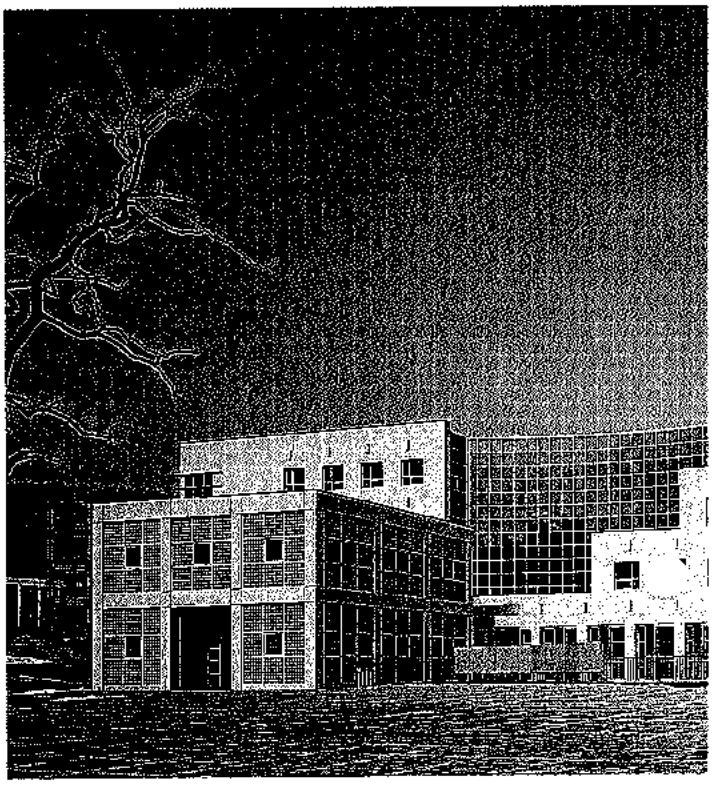
Yeongdong College Students Hall

이성걸 / (주)경진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Sung-Geol

강릉의 하늘은 서울의 하늘과 다르다. 완공 직전 방문한 나에게 다가온 강릉의 하늘은 머리 속에서나 생각되던 건축물의 배경이었다. 대상(OBJECT)의 모습을 최대한 드러내어 주어 최상의 모습을 과시할 수 있도록 배려된 무대 배경인 듯이.
서울이라는 무대 배경에는 어떤 대상들이 계획되고 있을까. 기존 건축물과 대지의 주된 축이 없는 조건에서 산만한 가운데 질서를 부여 하고자 했던 계획자의 의도가 차분히 녹아들어 구현된 모습이 좋았다. 교사동들의 무표정한 모습과 다른 형태의 면에서, 재료의 면에서, 색의 면에서 대조적인 수법이 주위의 임목을 배경으로 앉아 있는 건물의 위상을 높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항용 그러하듯 공사중 몇몇 부분이 삭제되거나 변형되기도 하고 사소한 오류가 내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꾸지람하기는 커녕, 있는 그대로보다 훨씬 나아 보이도록 애써 주는 그런 강릉의 하늘이, 건축가가 항상 그려오던 무대배경으로 자리한 그런 강릉의 하늘이 고맙다. 이제는 당신들의 것이므로 당신들에게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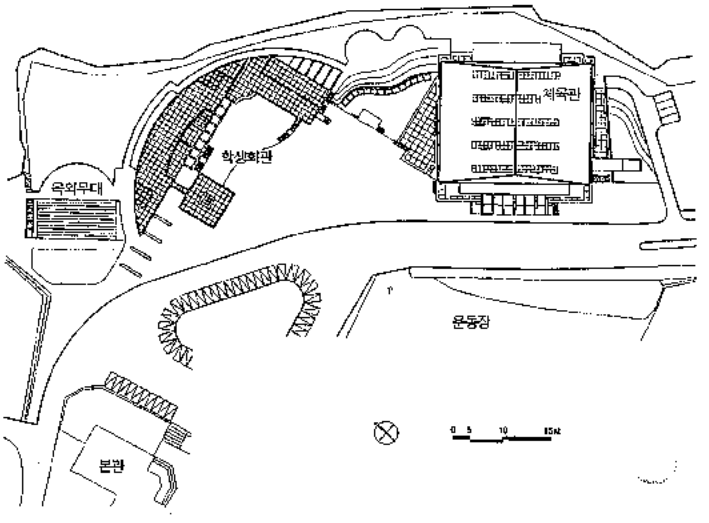
학생회관

식당과 선큰가든, 건물로 위요된 옥외 광장, 학생회관 후면의 옥외 무대, 1층 라운지 입구에서 보이는 주변의 임목, 기존 강의동과의 보이지 않는 연결축 등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유기적으로 사용토록 하여 젊은 학생들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획하였듯이 사용되는 것을 지켜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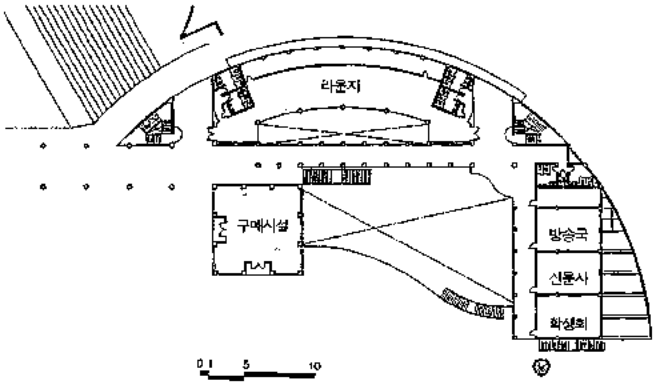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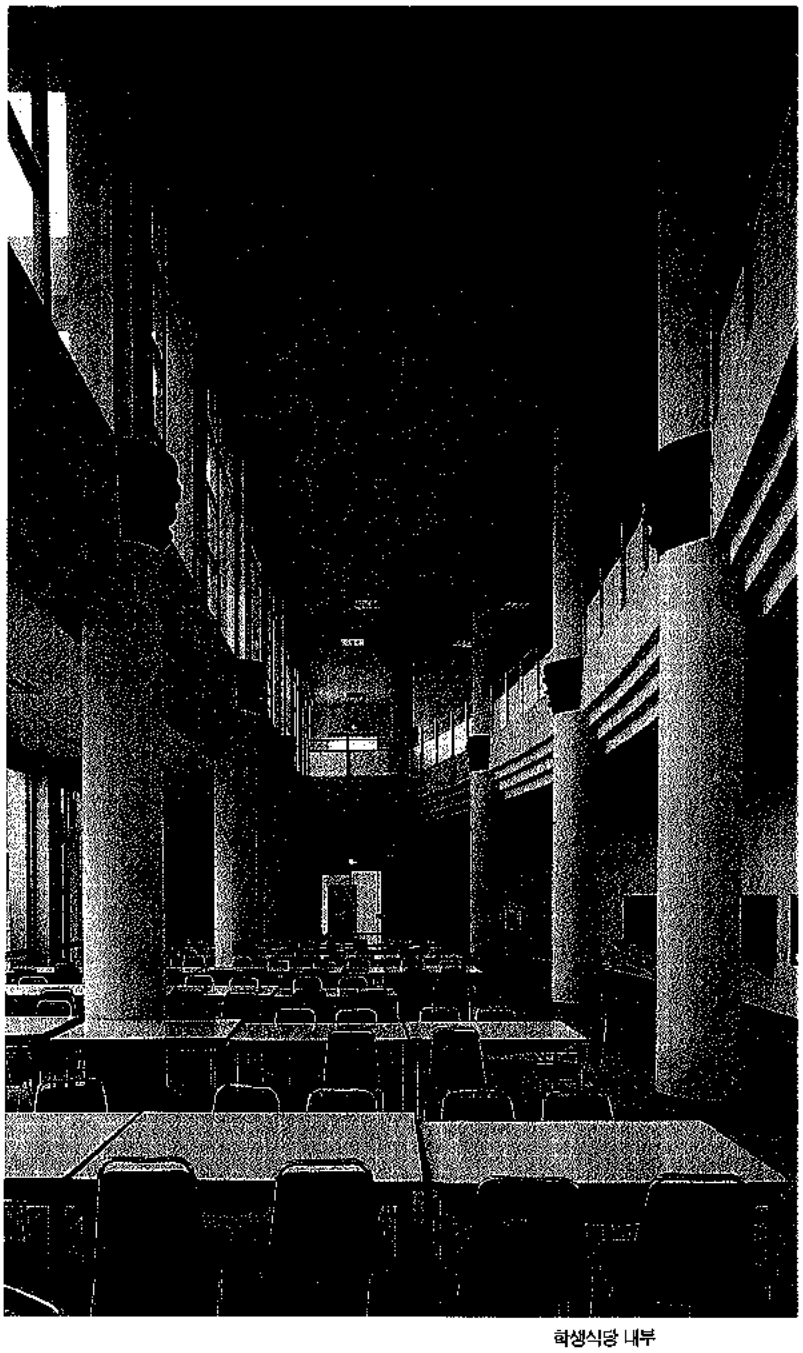
위 치	강원도 강릉시 영동전문대학교 내
대지면적	112,612㎡
용 도	교육 연구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총 수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면적	1,270.31㎡
연 면 적	3,683.31㎡
용 적 률	3.2%
건 폐 율	1.1%
외장재료	외벽 - 외벽단열 SYSTEM+무기질마감재 미장
	지붕 - 일반 스라브
	창호 - 16mm복층유리+유리블럭, 알미늄 후레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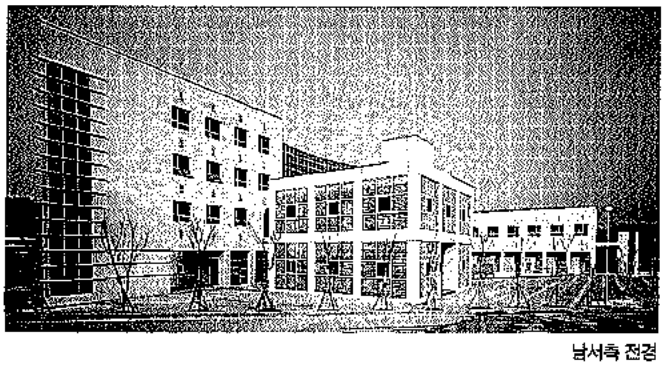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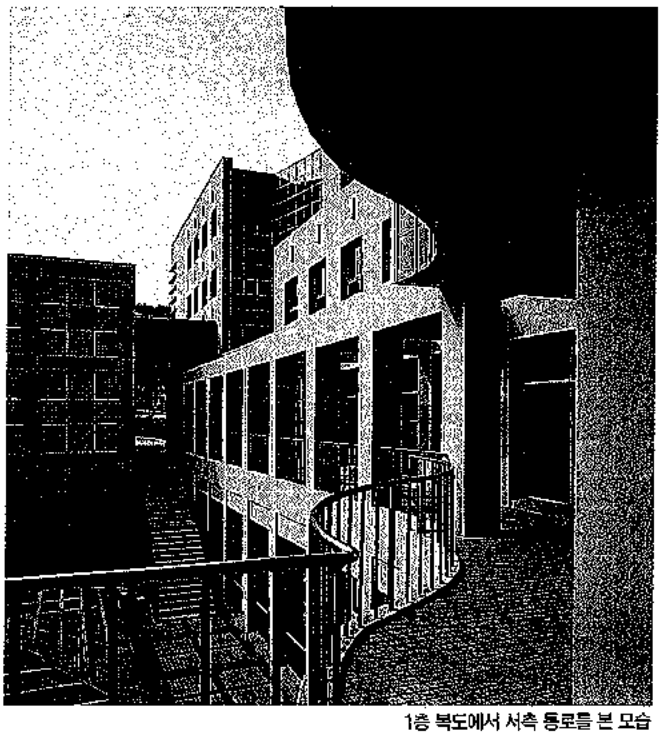


학생식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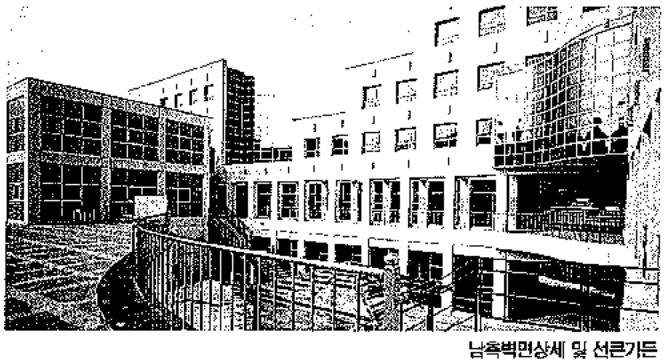
남측전경



남서측 전경



1층 복도에서 서측 통로를 본 모습



남측벽면상세 및 선큰가든

삼성의료원 어린이집

Kindergarten of Samsung Hospital

한상묵+이해원 / 삼우설계
Designed by Han Sang-Mook & Lee Hae-Won

간혹, 건축설계는 건축외에 다른 아이디어에서 도움을 얻는다. 일련의 자유롭게 연결지어지는 생각들이 주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뚜렷한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디자이너를 돕는다.

삼성의료원 어린이집은 사과의 이미지에서 시작된다. 사과는(우리 사회에 있어서) 건전하고 풍요로운 문화적 연계성을 갖고 있다. 한국 문화에 있어서, 사과는 제사 음식으로서, 어린이 생일 잔치 음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과의 생산지로 유명한 대구에서는 사과가 젊음과 여성의 미에 관련되어 있다. 서양에서 사과는 인간의 지성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과일이다.

뉴턴의 만유인력이 사과에 의해서 발견되어졌고, 유태인들과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된 시초가 사과(선악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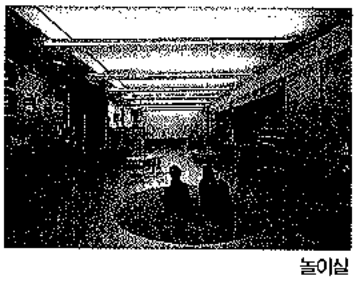
삼성의료원 어린이집의 디자인은 가상의 빨간 사과 스케치에서부터 시작된다. 디자인에 있어서 사과는 은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사과의 형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과의 독특한 성질이 중요한 것이다. 사과 형태(원)의 순수성에 관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색깔의 풍요로움과 구성 상태, 즉 사과내부의 부드러운 세포 조직들이 단단한 껍질로 감싸져 있다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러한 추상적 요인들로부터 공간적 디자인, 재료의 사용성, 구조의 구성 등 건축적 현실성을 찾고자 한다.

삼성의료원 어린이집의 대지는 서울 남동쪽에 삼성의료원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대지는 광범위하게 대조적인 도시여건 사이에 박혀 있다. 북쪽으로는 조선 왕족의 고분들을 포함한 푸르게 조경이 이루어진 공원이 있는 경사진 언덕이 있다. 남쪽으로는 최근에 형성되어진 고층 건물들이 있다.

디자인은 건물의 앞마당을 포함하고 있는데, 건물의 주요 통로와 외부 길 사이에 거리를 줌으로써 완충적 공간을 제공한다. 이 앞마당은 건물의 진입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Ground level에 큰 실외 놀이터를 갖추기 위해서 건물 서쪽에 있는 Dayroom을 3미터 높이다. 이것은 놀이터 위에 유리로 된 Dayroom들이 가볍게 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마당은 또한 어린이들과 자녀를 데리러 오는 부모들 사이에 시각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마련한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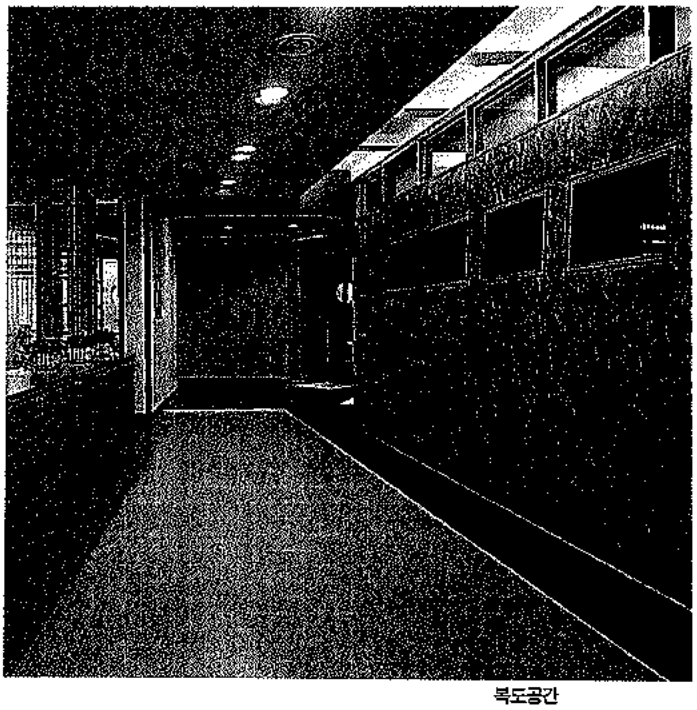
위 치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4-2	건 폐 율	59.8%
대지면적	795.8㎡	용 적 률	202.23%
건축면적	475.1㎡	최고높이	21.4m
연 면 적	2,747.6㎡	주차대수	12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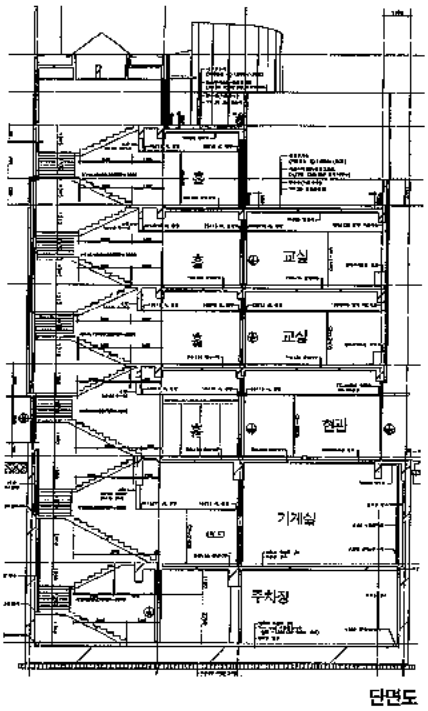
놀이실

색채계획을 통한 공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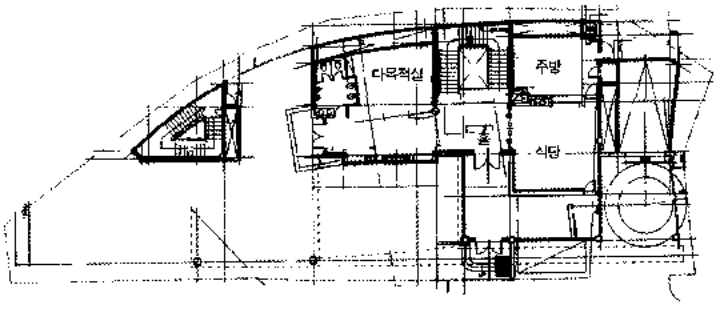
복도에서 본 놀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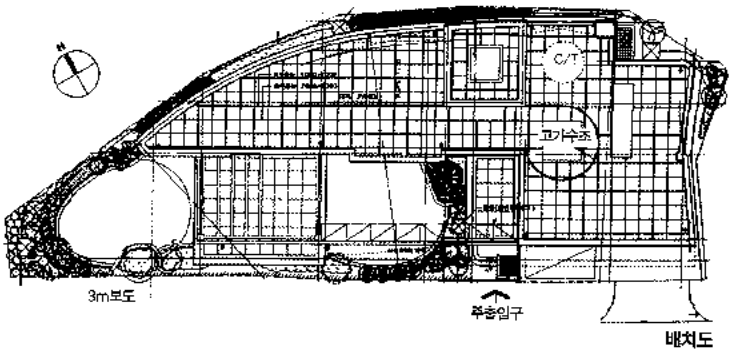
복도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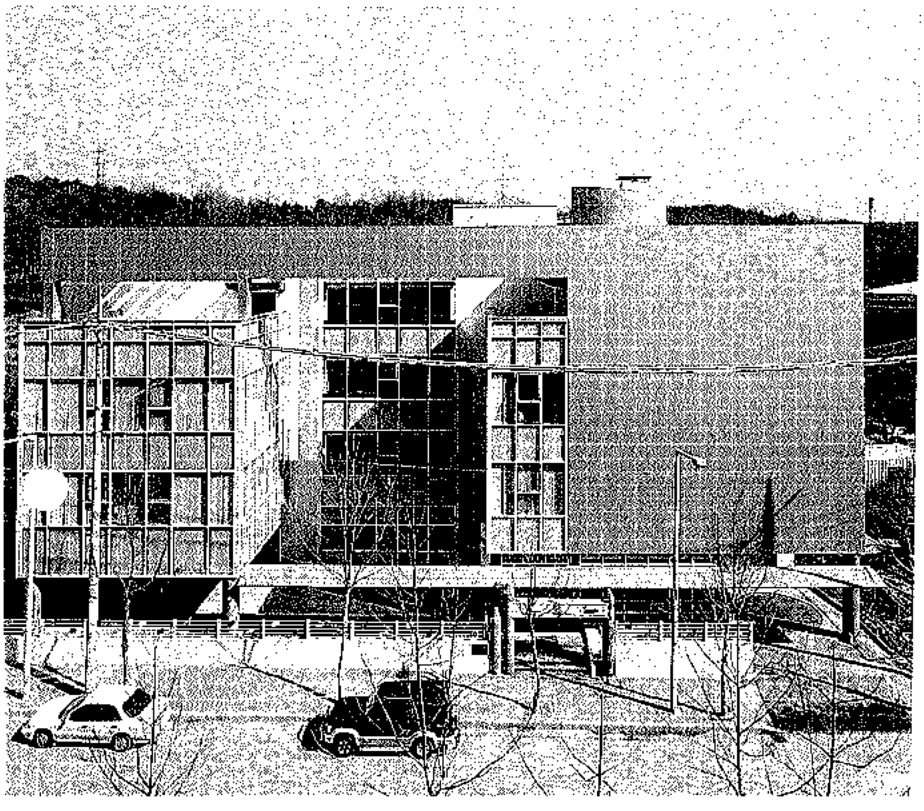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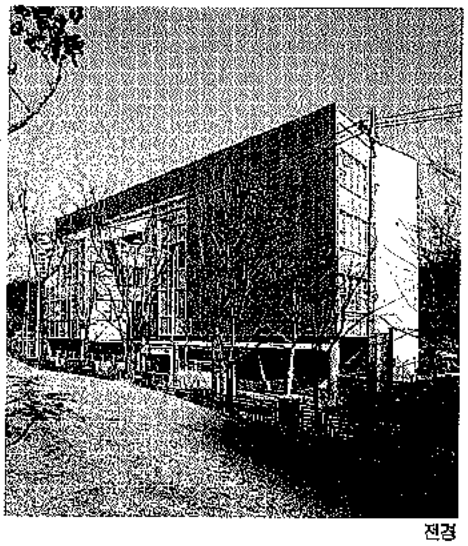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배치도





전경

잠실시그마타워 빌딩

Jamsil Sigma Tower Building

강기세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Designed by Kang Ki-Se

서울의 '잠실' 하면 종합운동장과 롯데월드, 석촌호수가 머리에 떠오를 것이며 누구나 한 번쯤 가 보았음직한 곳으로 시그마타워가 위치하고 있는 신천동 일대는 남쪽으로는 석촌호수가 인접하여 있고 북쪽으로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훌륭한 전망과 교통회관, 향군회관 등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녹지공간이 있는 지역으로 도심에서는 보기드문 좋은 곳이다.

강남의 3대 상업지역으로 전망되고 있는 이 지역의 시그마타워는 폭 50m의 올림픽로에 접하고 지하철 2호선과 8호선 역사가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로터리를 중심으로 올림픽로를 전면으로하는 가로축과 한강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자연축, 이 두 개의 축을 두 개의 직육면체인 Mass로 구성하였으며 물리적인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변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였고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단순화하고 같은 주제를 연속 리듬으로 배치하였으며 크기, 강도, 관심을 집중시켜 경계부분이나 모서리를 강화하고 방향성을 갖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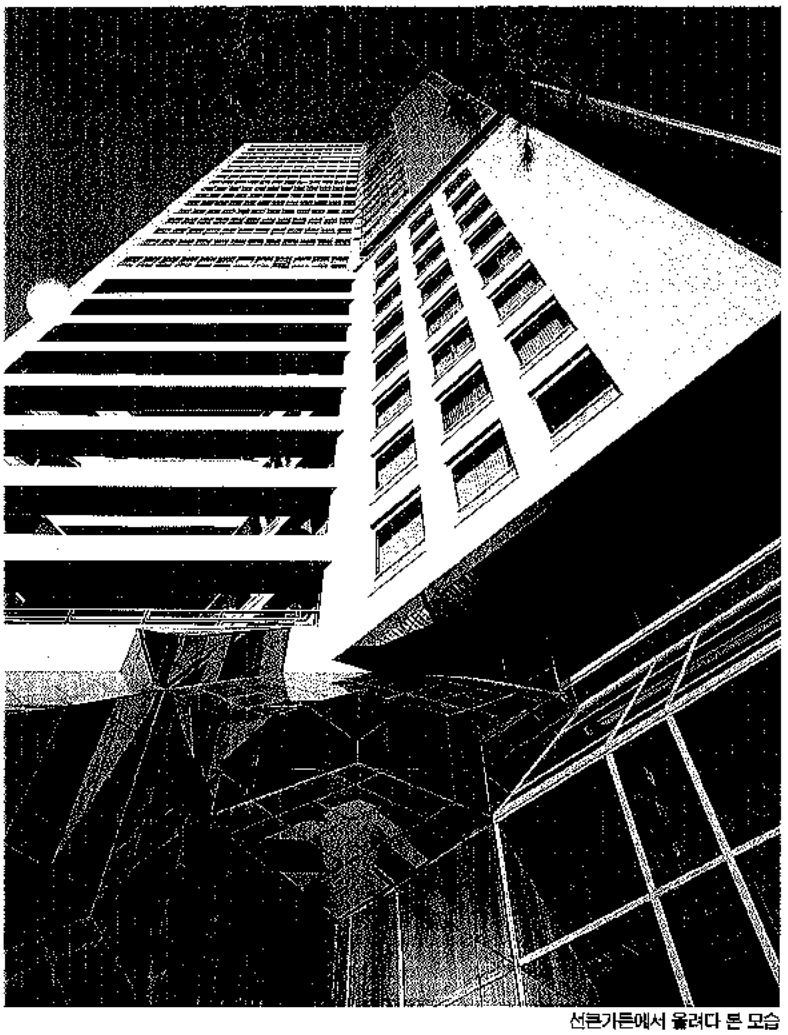
시각적으로는 투명성, 중첩, 파노라마, 분절 등을 느낄 수 있도록하여 방향감을 잃지 않도록하고 도시, 건축, 외부공간, 조형물, 조경 등이 어우러져 통합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주거와 상업, 업무시설은 근본적으로 대비되는 시설이므로 건축가는 이 기능들을 하나의 건물에 통합 수용하여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의 특징을 담아야한다는 문제에 고심하게 된다. 즉 주거부분과 상업, 업무부분의 코어, 사용자의 동선, 방화구획 등과 같은 차별적요소와 더불어 각 요소간의 기본적인 공통수 모색과 같은 통합적 요소가 그것이다.

"차별화와 통합" 이 두개의 대립되는 요소가 긴장감을 지닌채 건물에 공존하는 건축적 해결로서 본건물에서 구체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업무와 주거" 이 두 개의 기능을 담기위하여 분리와 연속이라는 서로 상반된 개념을 평면과 Mass, 입면을 통하여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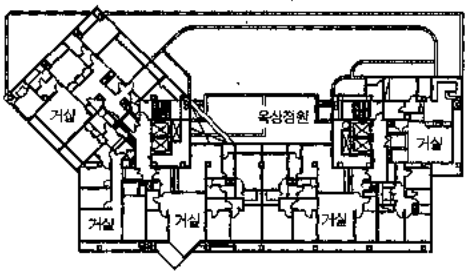
평면은 단일기능 위주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상업, 업무, 스포츠시설 등의 기능과 함께 고품격의 고층 주거시설을 경제적 및 기능적인면에 역점을 두었으며, Main Lobby는 업무와 주거를 분리하여 각각의 방문객 전용 Lobby를 두었고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의한 첨단 System… Unit별 중앙공급방식, 무인경비, 원격검침, 홈오토메이션, 위성방송, 중앙진공청소 등… 설비에 의한 Inteligent화를 대비한 O.A. System 등 기술의 향상과 생활의 품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도의 생활환경이 고려되었다. 또한 다양한 편의시설 …충분한 주차공간, 레스토랑, 소연회장, 크리닉, 금융 등… 아파트 거주자 공동집회장 및 독서실, 옥상놀이터 및 정원, 실내수영장, 헬스클럽, 에어로빅, 사우나, 실내골프장 등을 이상적으로 갖춘 진정한 시그마(Σ) 타워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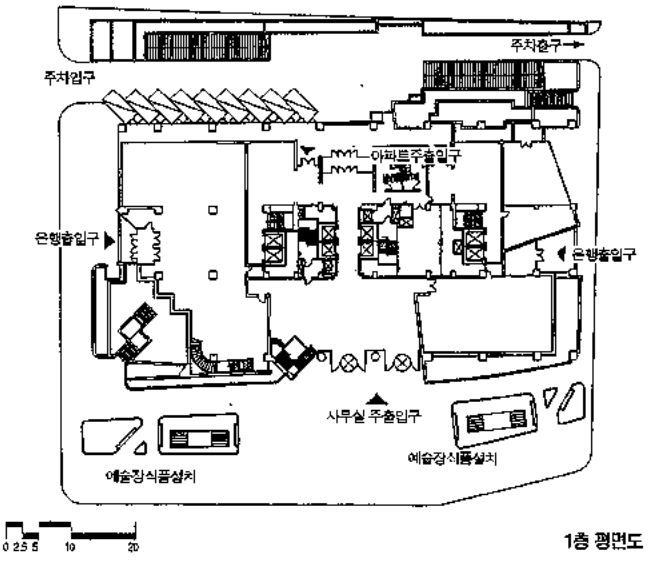
위 치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9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4,959㎡
건축면적	2,331.41㎡
연 면 적	68,636.405㎡
건 폐 율	47.01%
용 적 률	921.48%
규 모	지하 7층, 지상 30층
구 조	철골 · 철근 콘크리트구조
주요설비	냉 · 난방, 위생, 공조, 방재, 자동제어설비
주요용도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외부마감	벽 - 화강석 버너구이, 불소수지코팅 알루미늄, THK24 컬러복층유리, G.R.C패널 지붕 - 일반 슬래브 및 헬리포트
내부마감	바닥 - O.A Floor위 카펫타일 벽 - THK 9/2Ply 석고보드 위 테라코트 천장 - 경량 천정틀 위 THK 15 암면흡음텍스
건 축 주	신라교역(주) 박준형
시 공 자	한라건설주식회사
설계기간	91. 12~1992. 12.
준 공	1996. 12. 27



선큰가든에서 올려다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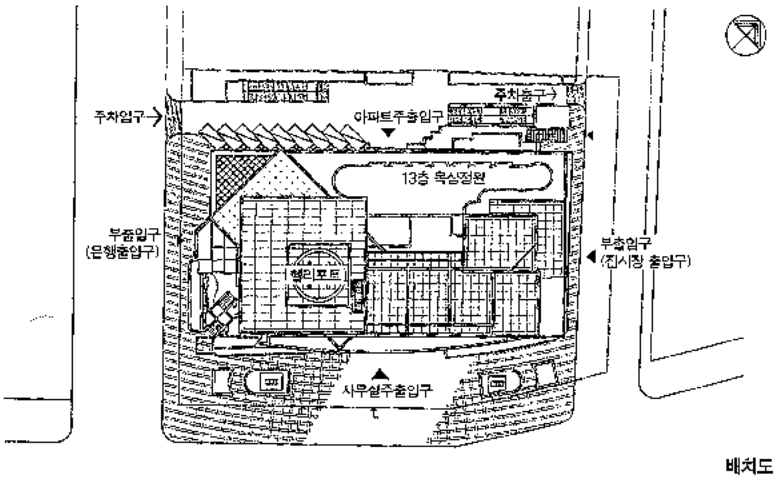


1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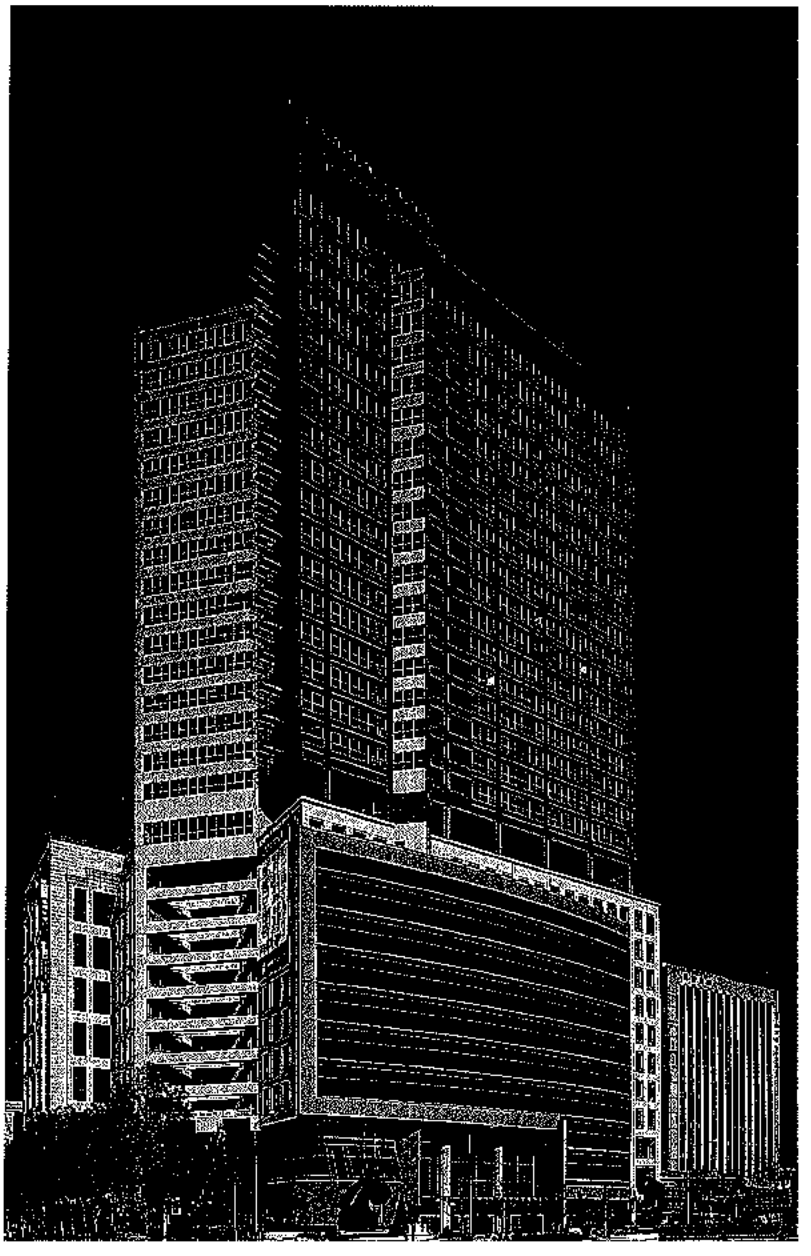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로비



배치도



한국의 건축가 9 - 김중업(3)

Korean Architect, Kim Chung-Up

대담내용 - 김중업과 르꼬르뷔제

조인철 / (주)정림건축 Q.C부 팀장, 건축사
by Zho In-Choul

◇연 재 목 차◇
(게재월)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중업 (9703~9707)

1. 김중업 건축의 바탕
   —김중업의 일생
2. 대담내용
   —김중업 건축과 샤머니즘
3. 대담내용
   —김중업과 르꼬르뷔제
4. 김중업 건축의 해석
   —꿈과 시와 낭만의 건축
5. 김중업 건축의 해석
   —김중업 건축의 어휘

대담일시 : 1987년 11월 10일 오후 12시 30분~14시
대담장소 : 김중업 설계연구소 응접실

건축과 도시

조인철 : 선생님께서 평소 갖고 계신 도시관(都市觀)에 대해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선생님께서 르꼬르뷔제의 사무실에 계실 때 참여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디갈의 계획(그림1)도 도시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중업 : 난 도시는 이렇게 봐. 난 뭐 서울의 도시라는 것을 하여튼 원초적으로 굉장히 사랑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내가 서울사민이니까 서울에 살고 있다는 것으로서 서울이라는 것을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불만이 많아지는데 일단 내가 자유당 시절에는 그러니까 벌써 30, 40년 전에는 내가 주장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대문 안에는 높이 제한을 강력히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한 사람의 하나라고, 그것이 완전히 무시돼서 저렇게 된 시기는 박정희가 들어와서 였지만 말이야.

그 때는 왜 그러한 것을 강력히 주장했느냐 하면 서울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조건, 무학선사가 일단 서울을 도읍지(그림2)로 추천해 가지고 조선 500년 동안 서울이라는 것을 수도로 삼아 가지고 그래서 서울이 육성돼 간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때 서울이 가지고 있던 한 개의 조건이라는 것은 분지야. 말하자면 특색있는 산들이 죽 서울을 에워쌌어요. 북한산이라든가 백운대라든가 뭐 또 남산이라든가 또 이쪽에 와서 관악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들이 일단은 이 도시의 성격을 미리 던져 준거라구. 일단은 여길 잡았다는 것은 한 개의 분지, 분지인 서울 거기에 이제 소위 한강이 남쪽에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그 한강 북쪽에다가 도읍이 형성돼 갔는데 그 도읍이라는 것이 어떠한 이유로서 의의가 있었느냐 하면 그 분지를 한 개의 말하자면 아늑한 분위기의 전원도시라는 성격에서부터 육성되어 온 거야. 그

렇기 때문에 소위 뭐 경복궁이라든가 창경궁이라든가 창덕궁이라든가 그러한 궁들 자체도 거기의 맥을 따라서 하나하나 잡아나간거란 말이야. 그렇게해서 서울이라는 것이 형성 돼 왔는데 그때 내가 생각하기에 일단 사대문안에는 높이제한을 꼭 해야된다 하는 얘길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외국의 성곽과 달라서 말하자면 거의 단층(單層)으로 나지막하니 잡힌 거란 말이야. 그런 얘기는 상당히 평화스럽고 온화한 한 개의 전원도시로서 개발이 돼 온거야.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그 넘어 그 궁들의 위에 지나치게 고층화한 스카이라인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사대문밖에는 얼만큼이라도 높이 지어도 괜찮다. 그건 뭐 몇 십층을 지어도 괜찮은데 소위 사대문안에는 6층이상 올리지 말자 이제 이런 것을 제안하고 자유당 때는 어느 정도 먹혀들어 갔어요. 그 이제 군정이 되면서 일단 마구 경쟁적으로 올라가서 지금 서울이라는 것은 소위 옛날의 질서가 다 깨져 버리고 말았지.

그때 행정관이라던가 여럿이 뭐 좀 더 슬기롭게 형성시켜 나갔어야 했는데, 서울 주변에 강남만 하더라도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이렇게 형성할 게 아니라 여기엔 극도로 고층화하는 지대로 만들어 놓고 그쪽은 저층화 해 놨어야 서울이 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지금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드메서 온건가 하면은, 나는 맨 처음부터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했느냐며는 그 '땅이 지니고 싶은 의지가 있다' 하는 얘기를 내가 자주 하곤 했는데 그러니까 '땅이 지니고 싶은 의지'를 제(除)하고서 일어나는 도시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거지.

조 : 어떤 자연적인 콘텍스트(Context)를 고려하여 건축되어야 하고 도시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김 : 그럼 그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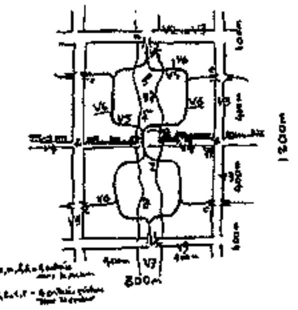
건축가의 우주관

조 : 선생님께서 어떤 건축주한테 설계 의뢰를 받았을 때 건축주가 설계 요구조건으로써 선생님께 요청하는 사항이 있을 텐데 그럴 경우 어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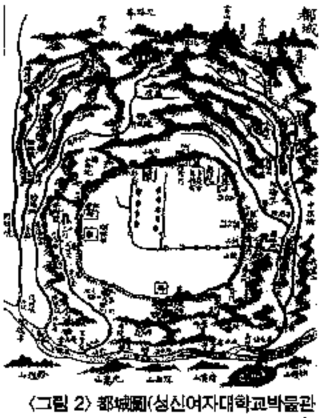
김 : 나는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람이니까, 건축가라는 것은 일단 설득하는 직업인이야. 그러니까 클라이언트(Client)가 있으면 그 클라이언트가 관(官)이 됐건 민(民)이 됐건 개인이 됐건 단체가 됐던 간에 말이야. 일단은 소위 설득을 해야 비로소 작품이 이루어지는 거야. 설득이라는 것은 내가 할려는 건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한 개의 의지란 말이야. 어쨌됐건 그렇지만 그 클라이언트는 따져놓고 보면 내 경지에 와 있질 않아.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클라이언트는 단순한 존재거든, 내게 비해서, 그 사람을 일정한 레벨(Level)로 업(Up)시켜 주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거야!

일단 그러니까 건축가는 설득을 많이 하는 인간의 하나겠지. 설득을 하다 하다 안되면 집어치우는 수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설득을 하려고 애써요. 설득을 하려고 애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소위 그 사람이라든가 그 건축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고집이 세다든지 무슨 소위 클라이언트의 말대로 안한다든가 이제 이런 역효과도 나타나는 거지. 그런 얘기들도 나타나는 거구 일부는 사실이야. 그건 왜 그런가하면 일단 나는 내가 만든 작품을 아끼고 또 그 작품의 이런 점을 소중히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런 설득이라는 것은 건축가한테는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미덕의 하나겠지. 그 미덕을 버린다는 건 아티스트(Artist)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티스트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창조하는 인간이지. 창조한다는 것은 일회성의 작품을 만든다는 얘기고 말하자면 거기에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걸 소중히 여기니까. 오히려 나야 클라이언트를 소중히 하는 사람의 하나지.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건축을 하는 거니까.

그림1 : Le Corbusier, 「LE CORBUSIER MY WORK」, The Architectural Press London, 1960, p.175.
그림2 : 許英桓, 「定都 600年 서울지도」, 서울 : 범우사, 1994. p.15.
그림3 : 「PRO ARCHITECT : 세계건축가」, 서울 : 월간 건축세계, 1997, 창간호, p.124



〈그림 1〉 르꼬르뷔제의 상디갈의 도시계획개념도


〈그림 2〉 都城圖(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 3〉 볼란서대사관 북측입면도

조 : 어떤 고집이 센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그것이 선생님의 의지와 팽팽히 맞선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십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김 : 아니지. 나야 클라이언트를 설득 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날 위해서라기보다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니까. 그렇게까지 손을 써서 클라이언트한테 접근하고 클라이언트한테 설명하고 클라이언트한테 스케치도 해보고 해 가지고 전혀 안될 경우 난 포기하는 거야. 그건 내가 할 작업이 아니니까….

조 : 선생님 글이나 대담 중에서 건축가는 우주관이나 세계관이 정립돼야 한다는….

김 : 물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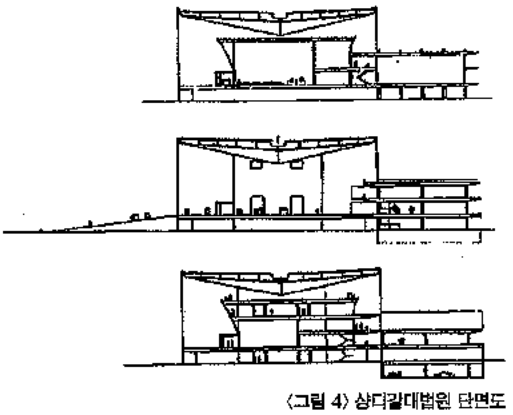
조 :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상 우주관이나 건축관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김 : 다르지. 그게 개성이고.

조 : 선생님의 세계관이나 우주관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한데, 세계관이나 우주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세계를, 우주를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신지….

김 : 그것은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야. 소위 건축을 놓고서 얘기니까, 말하자면 우주관이라든가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어떠한 언어로써 정확히 끄집어내기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내가 걸어온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내가 왜 그런 우주관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만 우주관이라는 것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 말았다, 뭐 이런 말로 표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진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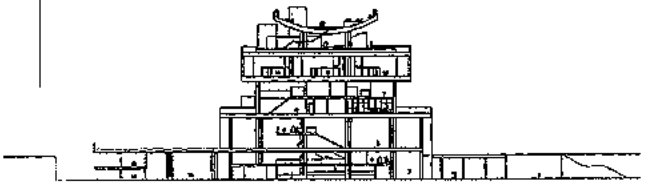
나로서는 내가 잡고 있는 우주관이라든가 내가 잡고 있는 역사관이라는 것은 일단은 일회성인 거야. 나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지 공통적으로 다한테 말하자면 공통분모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우주관, 세계관 내지 그러한 것은 일단은 각자에게 다 다르다고 봐요. 그건 뭐 천(千) 사람이면 천 사람이 다 다르다고 보는 거지. 그 중에서 내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꿈에도 없어. 나는 내 나름대로 우주관이라든가, 내 나름대로 말하자면 역사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의 그 동안의 과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노자, 장자를 좋아하는 것이 일부 관련된 거고, 내가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소설작품을 가장 귀중한 걸로 여기고 도스토이예프스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는 것과 연관되는거지. 말하자면 독서라는 것은 한 개의 대화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그 사람의 작품을 해석한 거고 그것이 꼭 도스토이예프스키가 생각한 것과 같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난 봐. 또 그 사람하고 만난 일도 물론 없는 거고 그런 걸로 볼 적에는 일단 어디까지나 김중업이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 김중업이 받아들이는 또 김중업이라는 한 개의 공명 속에서 존재하는 거지. 그게 꼭 같다고 보질 않아요. 내가 보는 도스토이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라는 작품하고 B라는 사람이 읽어서 가지고 있는 세계하고는 다를는지도 몰라. 또 달라야 될는지도 모르겠지. 어디까지나 그런 점에서 볼 때 우주관이라든가 건축 철학이라는 것이 ,또 건축의 단계에 있어서 투철한 자기 이데아라는 것이,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 해! 그러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보고 열심히 읽고 그래서 내가 초이스(Choice)한 거지, 어디까지나 나라고, 내가 선택했고 선택한 기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한테 있는 거지 공통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어떤 젊은 학생들한테도 꼭 요런 것을 해라하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자기가 절실해서 요구를 해야 받아들여지는 거지' 남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자기가 절실해져야 돼. 그러니까 절실하니까 내가 보들레르를 좋아했고 절실하니까 도스토이예프스키를 좋아한 거지. 말하자면 내가 절실치 않았으면 그건 흘러갔을 거야. 내가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독서는 몇 천권 했으니까 주로 고전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 중에 내가 선택을 한 거지 그 중에서 뽑아서 내가 선택한 거야. 하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본인에게 있는 거지 타인에게 있는 건 아니야.



〈그림 4〉 상디칼대법원 단면도

김중업,김수근,르꼬르뷔제

조 : 어떻게 보면 선생님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건축가로서는 김수근 선생님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후배이시기도 하고요. 김수근씨가 먼저 타계 하셨지만,



〈그림 5〉 총독관저 단면도

나름대로 건축철학도 발표를 하고 그런 바탕에서 작품도 남기셨는데, 선생님께서는 김수근 선생님의 작품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 : 난 그래. 물론 김수근씨는 내가 아끼고 싶은 후배고 그런데 이제부터 뭘 할 수 있는 시기에 김수근씨는 밖으로 나간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단 소위 습작만 하다가 간 거지 나는 김수근씨가 제대로 작품을 만들어 봤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러니까 소위 건축가라는 것이 일생을 걸고 자기를 전적으로 몰입해서 일단 어떠한 작품을 빚어 나가는데 소위 스타일이 전혀 달랐다고 볼 수 있겠지. 나는 어디까지나 일 작품으로 지나치게 작품에 집착해 온 사람의 하나고 그런 점을 볼 적에는 그 친구는, 그 후배는 내가 볼 적에는 그러한 시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가 버리고 말지 않았느냐, 나는 그게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건축가라는 것은, 건축이란 그래요. 내가 보는 건축은 달라, 많은 대가들도 만났지만 일단은 소위 말년에 훨씬 작품이 좋아져. 그러니까 이제 그 분들이 살아오면서 축적되어 오면서 그러한 것이 말년에 가서 제대로 찬란한 빛을 발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걸 보면 딴 분야와 달라서 건축이라는 것은 더 젊어서 걸작을 남긴 예가 없어요. 문제작을 남긴 예는 있지만 그러니까 걸작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연륜이 쌓아져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이 건축이라는 것은 단순 작업이 아니고 지나치게 복잡한 메디아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또 코드도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복잡한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들이나 조각가들과 건축가하고 또 다른 것이야. 작곡가나 소설가들하고 다르고 그러니까 복잡한 코드를 제대로….

70대가 중요하다고들 그런다고, 르꼬르뷔제 선생만 하더라도 '50까지는 너흰 아무것도 몰라', 이런 말씀을 하셨더랬지만. 그렇지만 그러니까, 일단 그것이 꾸준히 내 체험이 되어 온다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제대로 그것이 내체험이 되는 과정들을 밟고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체험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것이 되어나가야 하니까. 또 자기의 결점을 자기가 발견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그것을 수용해 나가면서 어떻게 좀더 다양한 말하자면 인간에게 한 개의 싸인을 던지돼 그 거대한 싸인을 제대로 던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여기서 거대하다는 얘기는 크기와는 관계가 없어. 조그만한 것을 만들어 놓더라도 거대한 싸인을 던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생명력이 있는, 그걸 바이탈리티한 거라고 볼 수 있는, 말하자면 비비드한(Vivid), 그러한 싸인을 어떻게 제대로 던지고 가느냐 하는 싸움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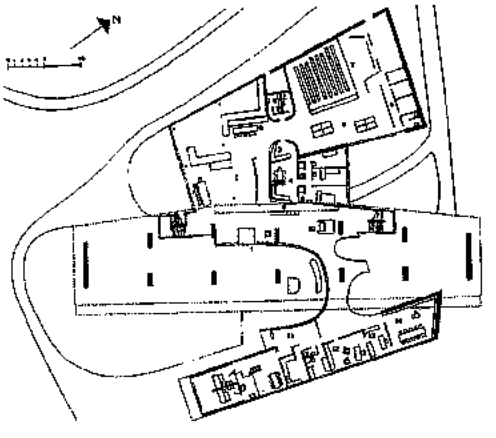
그러니까 나는 싸움이라고 해! 말하자면 내가 일생을 걸고 건축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조준하고 그 조준했다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내 힘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뭐라고 왈가왈부된다는 것에 난 거의 흥미가 없어. 지금시대 사람들이 뭐 내게 대해서 이러고 저러구하고 말하자면 뭐 한다 하는 거는 소위 관심을 안 두는 사람에 하나야. 또 남들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크게 관심을 안 둬요. 내작업이 너무 급하고 또 뭐 말하자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고나서 일단은 건축이라는 것은 그 작가가 가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야 완전히 객관성을 띄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관적으로 이러구저러구 하고 있다는 것은 내 관심 밖의 일이야. 알겠지? 무슨 얘긴지?

일단은 지표면상에 정착이 돼버렸으니까 그게 존재하는 이상 일단 꾸준히 비판을 받겠지. 그 비판이란 것이 시간이 감으로써 좀 더 신랄해 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인간이란 게, 신랄한 비판을 거치고 나서 그래가지고 더욱 애착을 가져 주면 하는 거지. 그게 작가의 한 개의 꿈이겠지. 그때 가야 말하자면 좀더 가치가, 가치성으로 봐서 그것이 옳은 작업이었다 옳지 않은 작업이었다 하는 것이 판가름 난다고 봐. 그러니까 내작품을 비판할 수 있는 시기는 21세기에서도 하반기 정도는 가야 완전한 비판이 정착이 된다고 봐야겠지.

조 :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건축작품에 대한 제대로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그림4 : 「Le Corbusier 1946~1952」 서울 : 집문사, 1978. p.119~156
그림5 : 위의 책
그림6 : 위의 책
그림7 : 「Le Corbusier 1957~1965」 서울 : 집문사, 1978. p.192

〈그림 6〉 스르탐 하시싱(Surottam Hutheesing) 저택 남서측입면도



〈그림 7〉 파리대학도시의 브라질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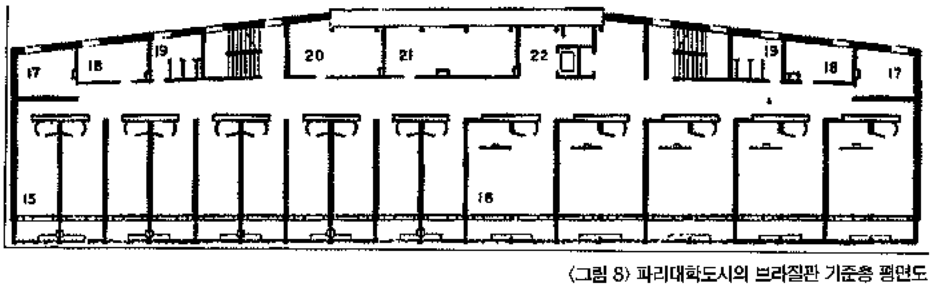
래서 다른 분들의 작품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우선 선생님 작품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 응 그래, 내 작품은 좀 이해하기 힘들다고들 그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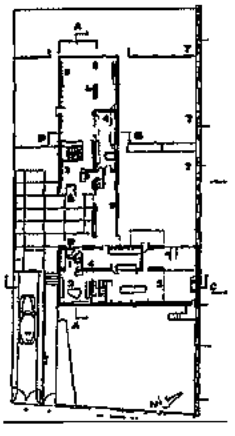
조 : 잡지에 나와 있는 선생님 작품에 대한 내용을 보면 거의가 '이 작가는 어떤 한줄기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작가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말아 버리죠. 여러 개의 작품을 놓고 전반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의 작품에 대하여 단편적인 얘기를 하고 마니까 전반적인 줄기는 찾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선생님의 작품이 후배들한테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란서 대사관의 지붕(그림3)에 대한 해석도 르꼬르뷔제의 건축 어휘(그림4-6)를 그대로 직설적으로 따왔다는 평가가 있기도 하고요.

김 : 그건 르꼬르뷔제와 상관없어. 난 그거야. 내가 르꼬르뷔제연구소에서 선생하고 작품을 했는데 그건 뭐 일본에선 신화같은 얘기가 돼 있지만 르꼬르뷔제선생하고 제일 많이 충돌한 사람이 나야.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양인이라고 그러지만 일본 놈들은 와서 뭐 저항없이 '나하고 같이 호흡이 잘 맞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끈질기게 저항만 하느냐' 하는 얘길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르꼬르뷔제가 날 인정해 주신 거지 그래서 '넌 문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제는 그거야. 내가 르꼬르뷔제한테 갈 당시에는 그때 서울 대학교 조교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르꼬르뷔제에 관한 얘기를 내가 제자들한테 많이 했어요. 그때 지금 뭐 윤장섭이라든가 이광로라든가하는 애네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때 사실은 나로서는 자신이 없는 얘기를 했다고. 그때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르꼬르뷔제를 이해해 가지고 르꼬르뷔제의 뭐 말하자면 건축철학이라고 말할까 작품세계라고나 할까, 그걸 내가 확신을 갖고 개진한 게 아니야. 피상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지. 왜 그렇느냐하면 책이나 보고 사진이나 봤지 실물 하나 보진 못했고 그야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야뭐 우리 한국에도 그 분의 작품이 하나라도 있는 거 아니니까. 추상적인, 말하자면 한국에 그분의 저서라든가 그분의 사진들을 보고 피상적으로 해석해서 얘기를 하다 말은 거야.

그리고 나로서는 르꼬르뷔제하고 만났을 때도 또 보통 만남이 아니야. 내가 르꼬르뷔제한테 가고 싶다고 간 것도 아니고 예술가대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한국대표로서 베니스에 가서 그때 베니스에서 르꼬르뷔제를 만났으니까. 르꼬르뷔제는 소위 의장단의 한 분으로서 그 회의에 참석하셨고 나는 한국대표로서 갔었는데, 그때는 또 그게 유네스코에서 발행하는 그때 말하자면 보고들이 좀 오류가 있어 가지고 나는 포이트(Poet)로 소개가 됐다구. 그러니까 공식은 시인대표처럼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뭐 시도 좀 쓰긴했지만 소위 아키텍트(Architect)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큐먼트(Document)에는 포이트(Poet)라고 찍혀져 있었다고. 그러니까 르꼬르뷔제가 볼 적에는 시나 쓴다는 젊은 친구가 자꾸 귀찮게 매달리니까 사실 그때 베네치아에서 만났을 때는 르꼬르뷔제는 도망가는 자세고 나는 붙잡고 있는 자세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일단 하도 귀찮게 구니까. '야! 그러면 파리에 와서 내 스튜디오에 찾아 오너라' 뭐 그런 거야 그 사람이. 뭐, 진심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야. 귀찮게 구니까 '야 그러면 파리에 와서 일단 만나자' 이런거지. 또 만났을 당시만 하더라도 꼭 내가 남으리라는 자신도 없고 또 남기겠다는 생각도 르꼬르뷔제가 별로 있었던 건 아니야. 그래서 그건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그래가지고 르꼬르뷔제를 붙잡고 늘어져서 그 연구실에 남게 된 거지, 남게 되니까 나는 뭐인가 하면, 일단 힘든 처지에 놓여진 거야. 힘든 처지에 놓여졌다는 것은 2개월 패스포트(Passport)에다가, 내 패스포트는 2개월이라고 단기고 아마 최단기 패스포트이겠지, 국제회의에 갔다 오는 거니까 뭐 2개월로 주었던 것 같애. 그런데다가 한국은 그 때 동란, 한참 동란때 아니야? 52년이라는 건, 한참 소위 남북전쟁 우리 한국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고 휴전이 된 건 53년 7월 1일이니까. 휴전되기 1년전 얘기니까. 한참 싸움이 격렬할 때고 그때는 또 내 자신이 무엇인가 하면 가족이 뭐 10



〈그림 8〉 파리대학도시의 브라질관 기준층 평면도


〈그림 9〉 자율의 집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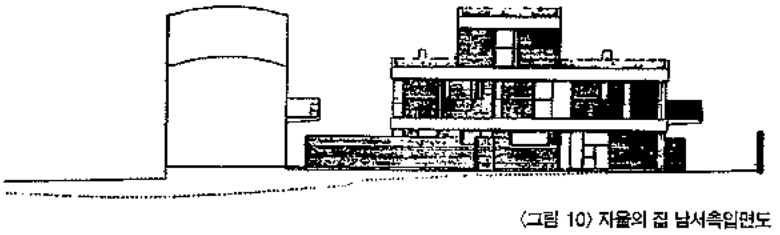
여명으로 불어 가지고 내 부모님 전부 이북에서 월남해 오셔가지고 동생들도 그래 가지고서 가족이 불어났을 때야.

그 때 나로서는 뭐인가 하면 서울 대학에 조교수고 서울대학 조교수의 봉급이 나오고 있었고 또 한양대학에 교수도 했으니까. 야간 주임교수를 내가 맡아 가지고 보고 있었으니까. 밤에는 한양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낮시간은 또 쪼개서 이화대학하고 숙명대학에서 미술사를 가르치고 있었고 또 부산공업학교에서 일단 전임교수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산 시내를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하루종일 강의만 하는 강의(講義) 버러지가 된 거지. 살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인데 그렇게 해야 가족을 먹여 살리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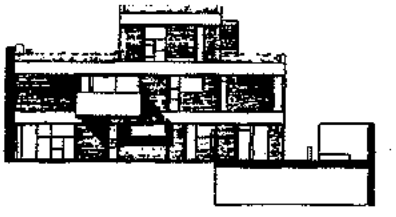
그러다가 졸지에 또 유네스코주최 세계 예술가 회의에 한국대표로 또 나가라는 통에 밀려났단 말이야. 그건 밀려난 거야. 밀려나서 떠나가 보니까 일단은 뭐 소위 불란서에 가서 떨어졌지만 불안한 거지. 보통 불안한 게 아니지,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 해결도 안되어 있지, 뿐만 아니라, 또 르꼬르뷔제 연구소에 근무한다는 것도 여기에선 부담이 크고 그래서 나는 어떠한 계획을 세웠냐 하면 이왕 르꼬르뷔제와 부닥친 이상 르꼬르뷔제를 몽땅 내가 소화해야 되겠다, 소화하는 것이 그만두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바삐 소화해야 되니까 단기간 내에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르꼬르뷔제 선생하고 계약하기를 1년 계약이 돼 있었어요. 1년이면 내가 르꼬르뷔제 정도는 내가 완전히 마스터하지 않을까. 뭐 그러고 들어붙은거야. 들어붙으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맨 처음 불어가 큰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브로큰 잉글리쉬(Broken English)나 했지. 브로큰 프랜치(Broken French)는 못 했단 말이야. 불란서 말을 못하니까, 하여튼 단어들이 정착되질 않아요. 왜 병신 육갑한다는 얘기가 있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위 의사를 정확히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내 의사를 정확히 전달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 좀더 강렬하니 밀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 강렬하니 밀고 나간다는 것은 스케치(Sketch)라고, 자꾸 남보다도 더 열심히 스케치해서 자꾸 아이디어를 내서, 그래가지고 당신 이것으로도 불만족이냐,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Approach)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이 못되고 말은 거지.

나대로 강력한 의지로 밀어 붙이니까. 르꼬르뷔제에게 맨 처음에는 상당히 반발도 하고 욕도 많이 먹었어. 그러다가 내가 하는 짓이 밉지 않고 또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일단 '넌 천재다. 넌 전생에서부터 건축가였을 거다.' 뭐 이 딴 말씀도 하시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난 각오가 달라서 들어가서 두달만에 '앙리'라고 심부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보다 나이가 위지만 그 친구하고 협상을 할 도리밖에 없었던 거지. 그놈보고 야! 너 집에 들어갈 적에 키(Key)를 나한테 넘기고 가라 내가 일단 밤에 작업을 좀 하고 그렇게 하고서 프론트에다 키를 숨겨 둘 테니까 내일 아침 새벽에 와서 그 키(Key)를 가지고 네일 해라하면서 너한테 얼마 정도 내가 사례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바타(Barter)제가 된 거야. 주로 나는 그때 하루에 두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 지금 생각해 봐도 그러니까 소위 르꼬르뷔제 연구소라는 것이 출근시간은 정확하게 있지만 퇴근시간은 정확하지 않다고. 어떠한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다 간다는 게 11시쯤, 밤11시 정도에 가니까. 그러면 슬금슬금 그 열쇠 가지고서 지하실 문열고 옛날 르꼬르뷔제 제자들이나 르꼬르뷔제 스케치를 전부 끄집어내서 나는 이제 일일이 이제 그걸 가지고 연구한 거지. 하루바삐 르꼬르뷔제를 따려 잡아야 되니까. 그 양반을 졸업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서 노력을 한 거야. 무시무시한 노력을 한 거야. 지금 생각해 봐도 그러니까 그럭허구서 거기서 거의 무보수로 연구소에서 일했다고. 하니까 가지고 간 돈은 달랑달랑 다 떨어져 가지,

그림8 : 「Le Corbusier 1957~1965」 서울 : 집문사, 1978. p.192
그림9 : 「Le Corbusier 1946~1952」 서울 : 집문사, 1978. p.165~169
그림10 : 위의 책
그림11 : 위의 책



〈그림 10〉 자율의 집 남서측입면도



〈그림 11〉 자율의 집 남동측입면도

르꼬르뷔제가 어떻게 봤는지 나한테는 얼마를 주었어. 일단 '리쿠르' 라는 사람이 후견인인데 불란서 중소기업 은행 회장이야. 그 양반이 거기서 자꾸 적자를 내니까 적자를 내면 일단 메꿔주고 또 돈 들어오면 일단 가지고 가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가지고 가는 돈보다 들어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적자가 나서 르꼬르뷔제선생이 돌아가실 적에 69만불 가까이 적자가 난 거지. 그래서 사실은 르꼬르뷔제선생은 파산을 하고 돌아가셨지만 그 양반이 가지고 있던 작품들, 말하자면 르꼬르뷔제선생의 작품들이 있지만 피카소 작품도 여러점 있었고 말하자면 더 군다나 그 사람이 많았던 것은 추상 계열의 작품들이 많았어요. 그 이제 친하니까 들어온 거지 뭐 받아 놨던 것들을 그걸 처분해 가지고 르꼬르뷔제 파운데이션(Foundation)이 생긴 거 아냐. 그 재단….

조 : 선생님께서 르꼬르뷔제 사무실에 계시면서 인도의 샹디갈에 있는 작품에 참여하셨다는 얘길 들었어요.

김 : 물론!

조 : 구체적으로 어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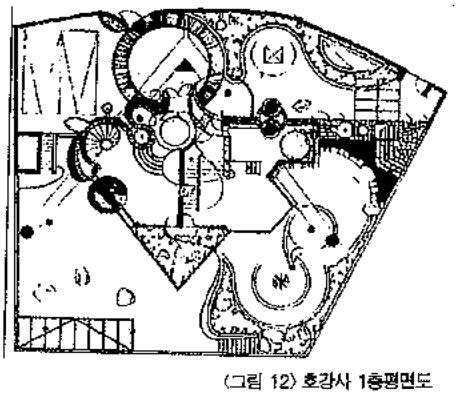
김 : 그건 아마 여기 부로슈어(Brochure)를 보면 나와 있어. 이건 불란서 정부에서 준 공로훈장, 김중업 내셔널 코리안 아키텍트(National Korean Architect)그래 가지고 슈바리에 샤를르 드골의 사인이 돼 있지. 요것은 국가 공로 위장 작품의 슈바리에 칭호가 붙었다. 내게 준 서티피케이트(Certificate:「건축사」 97년 3월호 참조)인데 르꼬르뷔제는 누구한테도 특명을 써준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만 둘 적에 못 그만 두게 하다 정 안되니까, 그만 두지 못하게 하는걸 내가 귀국했으니까. 아마 내가 불쌍하니까 써 줬을 꺼야.

이건 누구한테도 발행한 사실이 없는 서티피케이트라고, 여기 보면 르꼬르뷔제는 말하자면 김중업이가 52년 10월 23일부터 꾸준히 나를 도왔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해주었다 라는 말이고, 인도의 샹디갈에 있는, 말하자면 소위 국회의사당을 설계했다고 나와 있어. 그럭하고 요건 고등법원의 골든 파티스리는 김중업의 작품이다 이런 얘기지, 말하자면 대통령 관저를 했다. 그럭하고 요건 국회의사당이고 요건 정부청사이고, 레제베 낭뜨에 세워진 말하자면 유니테 다비다시용, 그러니까 그게 고층 아파트가 있지, 마르세유아파트하고 비슷한 건데 그걸 했다. 그럭허고 파리 학생 도시 안에 있는 브라질관(그림7,8)을 했다. 그랬다 말이야. 요거이 이제 그밖에도 자울의 집(그림9-11)이라든가 이것저것 했지만 천재적으로 날 도와줬다.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정확히 말하자면 해결해 주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밑에 가서 이 사람은 건축에 관한 한 틀림없이 성공하리라고 확언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건축가로서 완전히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지. 르꼬르뷔제 싸인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자 아니라 누구한테도 발행한 사실이 없데요. 르꼬르뷔제 파운데이션(Foundation)자체 얘기가 르꼬르뷔제가 나한테만 준, 말하자면 증명서라는 거야. 확인증아니까. 그만큼 르꼬르뷔제선생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증좌(證左)지. 르꼬르뷔제는 누구한테도 주지 않았다니까. 아마 내가 유일한 제자였던 모양이야. 돌아가실 때까지도 내 얘길 많이 하시고 돌아가셨다구 그러니까, 그거는 전세계 하나밖에 없는 증명서야. 선생이 나한테만 준거고 그만큼 내가 소위 르꼬르뷔제한테서 모든 것을 소화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망치느라고 애쓴 것이 내 한 계의 살아오는 문제에 있어서 역력히 나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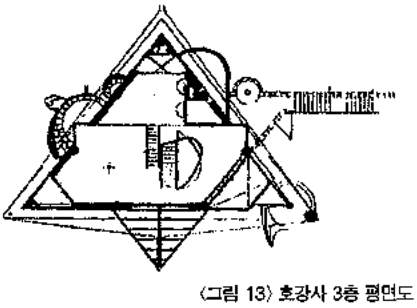
내 작품을 보면, 그러니까 서강대학 본관까지만 하더라도 르꼬르뷔제 영향이 짙게 나타나 있지만 프랑스대사관을 계기로 해 가지고 르꼬르뷔제적(的)이라는게 거의 없어져 가고 내 것이 자꾸 불어나지.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르꼬르뷔제를 충분히 소화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소화했다는 것은 그 시기에 나는 하여튼 불철주야로 그때 뭐 죽을 고생 많이 했어.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있는 거지.

조 : 학교 선생님들께서 선생님과 같은 선배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건축가들의 지위랄까, 대우랄까 그런 것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거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김 : 그럼! 나야 뭐 싸워 온 사람이니까. 건축이란 건 그래. 일단 설계를 한다는 것은 한 개의 전쟁이야. 그러니까 내가 명중시키지 않으면 내가 얻어맞아 죽는 거라고,



(그림 12) 호강사 1층평면도



(그림 13) 호강사 3층 평면도

그게 전쟁터야. 작품을 만든다는 건 전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쪽에서 명중시키지 않으면 이쪽이 죽어요. 그러니까 작가라는 건 작품에 모든 걸 다 담는 거니까. 그런 각오 없이는 안돼.

조 : 선생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김 : 좋지 않아. 사실은 작년에 나는 완전히 가는 거야. 작년에 내 심장을 다치고 나서 지금 원고를 쓸려면 굉장히 말세라고. 그래가지고 기억력도 완전히 되살아나구 있지를 않고 난 뭐 기억력 같은 건 굉장하던 사람이니까. 기억력도 되살아나지도 않고 시력도 되살아나지 않고 다리 절구 있는 것도 그때 그런 게 지금 괜찮지 않고 투병 생활하고 있는 거야.

조 : 앞으로 작품은….

김 :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죽는날까지 만들다 가는 거지. 한국 같은 나라에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재정적으로 키워주질 않아. 적당히 해야되는 사회에서 말하자면 적당히 할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늘 자금난에 봉착하지. 자기의 맘에 드는 집을 한 번 가져 보지도 못하고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런 건 다 죽어 버리는 거니까 그건 하등 문제가 안돼. 그야 뭐 어떤데서 살았건 말았건 일단 나를 증명해 주는 건 내 작품밖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 설계비가 세계에서 제일 낮은데다가 이게 더군다나 또 일이라는 것이 소위 나를 그렇게 인정을 안해 주니까. 일단 꼼빼(Compe) 해 가지고 지금 일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거든, 꼼빼두 돈 벌어 열심히 해야지만 또 떨어지기도 하고 한 군데 당선되고 그래서 죽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저 여유가 없어. 그렇지만 따져 놓고 본다면 난 자신 있어. 르꼬르뷔제 선생이 돌아가실 적에 빚이 71만불, 그때 71만불이면 큰 거니까. 빚을 남겨 놀 것 같지도 않고 빚두 줄지도 않고 남겨 놀래야 빚을 져야 빚이라는 게 지는 거지. 은행이란 게 한 입 봐주는 게 없으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꼭 담보물을 제시해야 하니까. 담보물 제시할게 없기 때문에 은행 문턱은 높지. 사채라는 걸 돌려 쓸 수도 있지만 그것도 요새 사채가 거의 동결돼 가지고 빌리기가 힘들어. 보다 사피 열심히들 하고 있으니까. 뭐 되겠지 뭐.

조 : 선생님 호강사(그림12-15)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계획안으로 끝난 것인데 그 사자(字)가 집 사(舍)자를 씁니까. 절 사(寺)자를 씁니까?

김 : 아니야. 그것은 집 사(舍)자야. 호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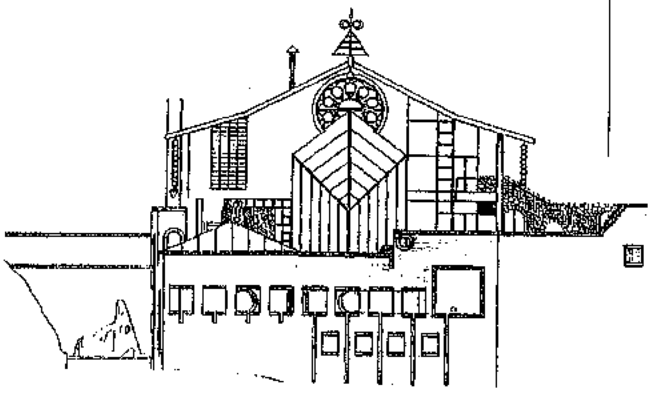
조 : 설계 사무소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인가요?

김 : 그렇지. 거기다가 한때 무리해서 땅을 잡았었어요. 그것도 싼 땅이지 낭떠러지니까 3층정도 낭떠러지가 됐으니까 그걸 잡았댔다구. 그래서 신이 나서 계획을 세웠던 거야. 그러니까 빚에 떠밀려서 그것도 다 날라갔고 그러니까 그거이 일단 움직인다는 건 현실 아니야? 현실이라는 것은 일단 한 달이 잠깐 오는데 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은 그 월급 가지고는 생활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소위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정 힘들어졌을 땐 부사장을 한사람 영입해 놨지. 일단 수금 관계는 완전히 맡으시오, 나는 이제 구상밖에 안한다. 그래 맡겨 놓으니까 심적으로는 좀 편한데 아직 그거이 풀리지 않았어. 그래서 그 양반도 고전을 하고 있지. 산사람 입에 거미줄 치는 일은 없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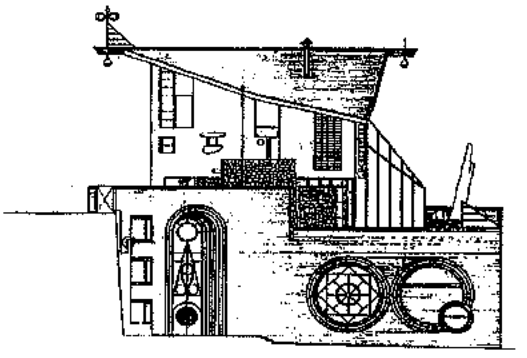
조 : 낙천주의자 이시군요.

김 : 난 낙천주의자야. 낙천주의 아니면 지금 살아 남지도 못했을 거야. 뭐 박정희때 숱하게 박해를 받았으니까. 그땐 박해를 받는 거는 이제 오피니언 메이커(Opinion Maker)라구, 그래가지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발언을 하는 사람이니까, 건축가라는 것은 목격자라고, 목격잔데 목격을 하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제출해야 된다, 그게 건축가의 생명이니까 정책이 잘못 됐다느니, 뭐이 잘못 됐다느니 밤낮 그러니까 그래서 소위 71년도에 이제 영구 추방이 됐던 거지.(정리:남기옥,김정민)

그림12 : 「건축과 환경」 서울 : 건축과 환경사, 1986. 10월호 p.50~53
그림13 : 위의 책
그림14 : 위의 책
그림15 : 위의 책



(그림 14) 호강사 남측입면도



(그림 15) 호강사 서측입면도

중국 고건축 기행(완)

Travels of chi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산서성(山西省)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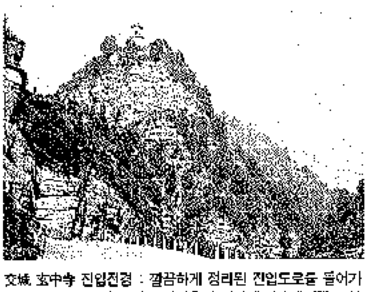
김도경 /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by Kim Do-Kyoung

淨土宗의 聖地 玄中寺

交城은 太原의 서남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을이다. 太原에서 交城까지는 버스를, 다시 玄中寺까지는 오토바이 택시를 이용하였다. 玄中寺는 지세가 험한 산속에 계곡을 끼고 위치해 있다. 힘겨운 듯 오토바이의 시동이 자꾸 꺼진다. 길 옆으로 울창한 숲이 펼쳐진다. 山西고원에서는 보기드문 모습이다. 아스팔트길이 반듯하게 펼쳐진다. 중국의 산간오지에 이렇게 도로 사정이 좋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계곡을 따라 꾸불꾸불하게 난 도로를 오르다 보니 앞쪽에 우뚝 솟은 봉우리가 있다. 그 정상에는 탑 하나가 세워져 있다. 탑이 있는 산봉우리를 돌아서니 玄中寺 입구이다. 계곡이 두 갈래로 산을 돌고 있고, 그 계곡 사이의 산에 玄中寺가 위치하고 있다.

北魏 延興2년(472년)에 창건된 玄中寺는 '石壁寺' 라고도 부른다. 사방으로 절벽이 둘러쳐져 있어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창건 당시 縣鸞大師가 이곳에서 淨土宗을 연구하여 이름을 날렸으며, 제자 道綽이 그를 계승하였다고 한다. 두 분 모두 정토교에 매우 통달한 승려로 추앙받는 분이다. 唐 貞觀년간에 절을 중수하고 '石壁永寧禪寺' 로 개명하였고, 定款15년(641년)에 유명한 승려 善導가 이곳에서 정토종에 귀의하였다. 후에 일본의 승려 親鸞이 縣鸞의 법맥을 접수하여 일본에 정토종을 전파하고 淨土眞宗을 설립하였다. 그래서 현재 일본 불교계에서는 이 玄中寺를 祖宗으로 삼고 있고 많은 일본인들이 찾아온다고 한다. 진입도로가 깨끗하게 포장된 이유를 알 듯하다.

玄中寺의 배치는 일반적인 중국사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남북 중심축에 天王殿 - 大雄寶殿 - 西方聖境 - 千佛閣이 순서대로 산의 경사에 따라 단차를 이루며 배열되어 있다. 각 전각의 양옆으로는 그에 따른 配殿들이 있어서 院落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절의 입구를 알리는 牌樓만은 앞쪽의 계곡으로 인해 터가 좁은 까닭으로 중심축선상에 위치하지 못하고 寺域앞 동쪽으로 빗겨 위치하고 있다. 天王殿 앞에는 照壁이 있다. 千佛閣을 제외한 주요 건물들은 모두 淸 同治 와 光緖년간에 화재를 입어



交城 玄中寺 진입전경 : 깔끔하게 정리된 진입도로를 들어가다 보면 계곡을 끼고 있는 산봉우리 정상에 救苦塔이라고 불리우는 2층탑이 보인다.

交城 玄中寺는 山西省에서는 보기 드물게 울창한 숲속 계곡을 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石壁寺라 부르기도 하였다.

太谷 光化寺 大雄寶殿 : 마침 공사중이어서 안에 들어가 볼 수 없었다. 추녀마루가 예수 필이 굴곡진이면서도 맞배집과 같은 비례를 지니고 있는 모습이 이색하기만 한다.

훼손된 후 1955년에 중건한 것이라고 한다. 절 동쪽 산정상에 2층의 8각형 전탑 한 基가 있다. '秋容塔' 이라고 부르는 탑으로 표면을 흰색으로 칠해 놓았다. 1층과 2층에 감실이 있는 中空形 으로 원래는 내부에 불상이 안치되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며 절을 내려온다.

다시 交城을 거쳐 清徐縣으로 나와 太谷으로 이동한다. 清徐에서 太谷으로 가려면 도중에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데, 막상 버스에서 내리고 보니 다닌다던 노선버스가 도대체 올 줄을 모른다. 한참을 기다리다 하는 수 없이 지나가던 트럭을 얻어타고, 다시 트랙터로 옮겨타면서 해질 무렵에야 太谷에 도착하였다. 트럭과 트랙터는 모두 석탄을 나르는 차량이다. 석탄더미위에 올라탔다가 내렸으니 그 몰골이 상상하고 남을 정도이다. 太谷시내까지는 걸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걸으면서 보이는 시가지는 옛 모습을 상당히 간직하고 있는 듯하여 흥미롭기만 하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고풍스런 거리 풍경을 볼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오늘도 역시 허름한 초대소에서 하룻밤을 지새워야 한다. 초대소 앞 식당에 들러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메뉴판에서 '南韓燒烤類' 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다. 이 외딴 곳에서 우리의 음식을 접하게 될 줄은, 뜻밖의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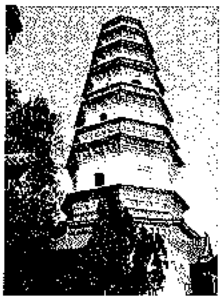
宋 〈營造法式〉의 기법을 간직한 太谷의 光化寺 大雄寶殿

光化寺는 太谷縣 중심에서 서남쪽으로 약 7km 떨어진 白城鎭이라는 마을에 자리잡고 있다. 唐 貞觀13년(639년)에 창건하면서 '隆興寺' 라고 하였다가 宋 咸平2년(999년)에 중수하면서 '光化聖寺' 라 개명하였다. 元 泰定3년(1326년)에 다시 중수한 이후 明 · 清代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大雄寶殿과 그 앞 좌우의 配殿이 있는데, 配殿은 근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대웅보전만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철창으로 된 대문을 잠가놓은 채 대웅보전을 수리하고 있었다. 안에 들어가 보고 싶어 한참을 교섭하였으나 허사였다. 결국 담장 밖 주변에서 외관만을 둘러볼 수밖에 없었다.

대웅보전은 정면5간, 측면4간으로 앞쪽의 한 간은 덧달아낸 퇴간으로 하고 앞에서 두 번째 기둥열에 창호를 달아놓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祠堂이나 大成殿 등 유교 제례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면구성이다. 지붕은 겹처마의 팔작지붕인데, 추녀마루에 비해 내림마루가 훨씬 커서 맞배집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너무 짧은 처마로 인해 입면비례가 어색하기만 하다. 기둥 상부는 둥글게 모를 접는 편수깎기를 하였다. 창방위에 설치한 평방은 운두가 매우 낮다. 평방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는 기둥상부에만 설치하였다. 공포의 외관은 5鋪作(외2출목)으로 單栱單下昂重栱造이다. 주두는 굽을 곡면으로 깎았다. 끝부분 윗면을 오목한 곡선으로 깎은 琴面昂 형식의 下昂은 挿昂으로 보인다. 下昂의 외단은 琴面昂 형식을 취하고 있다. 첨차의 단부 하면은 네 단으로 모를 죽여놓은 4瓣券殺의 수법을 보이고 있다. 귀포에는 鴛鴦交手栱을 사용하였으며, 도리는 단면이 방형인 檐檐方을 사용하고 있다. 기둥과 평방, 그리고 공포의 모습은 北宋代의 〈營造法式〉에 설명된 수법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 외에 합각부의 현어와 박공널 또한 〈營造法式〉의 기법과 상당히 유사한 면을 보인다.

太谷 普慈寺 白塔

普慈寺는 太谷시내 서남쪽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다. 普 泰始8년(272년)에 창건되었는데, 당시의 이름은 '無邊寺' 였다. 北宋 治平年間(1064-1067년)에 중수하면서 '普慈寺' 로 개명하였다. 이후 北宋 元祐6년(1090년)에 수리하면서 탑을 지었는데, 벽면에 흰 색을 칠해놓았기 때문에 '白塔' 이라고 부른다. 寺域은 그리 넓지 않으며, 폭이 좁고 길이가 깊은 길쭉한 구성이다. 중심축선상에 앞에서부터 「山門-樂樓-



太谷 普慈寺 白塔 : 普慈寺의 중앙에 서있는 백탑은 각 층 처마의 공포를 표현한 방법이나 내부 구조가 宋代의 塔婆의 특성을 보인다.

太谷 鼓樓 : 중국에서는 각 縣城에 이와 같은 鼓樓를 세웠다. 縣城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시설이다. 지붕에는 여러가지 색을 입힌 유리기와를 사용하여 극도로 화려하게 치장하였다.

太谷 市街 : 鼓樓를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뻗어있는 街路변에는 아직도 清代의 건축물이 남아있다. 우리의 문화재 보존지역과 같은 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平遥 鎮國寺 天王殿

白塔-配殿-大殿」을 배치하였다. 大殿 앞 좌우에 配殿이 있고, 白塔 좌우에도 2층의 건물이 있어서 각각의 院落을 구성하고 있다. 宋代에 건축된 白塔을 제외한 건물들은 모두 淸代에 건축된 것이다.

白塔은 절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절안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건물임을 알 수 있다. 8각형 평면에 외관은 7층의 樓閣式으로, 높이는 50m에 이른다. 각 층마다 처마 아래에 공포를 구성하였고, 平坐를 두었다. 각 층에는 홍예문을 두었으며, 그 밖의 벽에는 살창을 조각하여 놓았다. 내부는 空洞形으로 1층 상부는 볼트(vault)를 구성하여 천장을 구조하였다. 2층 이상은 각 층마다 마루를 깔아 바닥을 만들었고 나무계단을 두어 최상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唐塔의 中空式에서 宋塔의 實心式으로 변해가는 과도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淸代의 거리풍경을 간직한 太谷市街

太谷시내는 淸代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발길을 鼓樓로 돌린다. 아니나 다를까 鼓樓옆 한 모퉁이에는 이곳이 보존지역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었다. 鼓樓는 明·淸代 縣城마다 있던 시설물이다. 太谷시의 鼓樓는 淸代건축의 화려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淸代건축의 화려함은 특히 지붕에서 돋보인다. 가지각색의 유약을 발라 구워낸 유리기와로 지붕을 화려하게 꾸며 놓았다. 鼓樓 하부는 사방으로 통하는 볼트구조의 통로가 '十' 자형으로 뚫려있다. 그 주변으로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街路가 펼쳐진다. 가로에 면한 건물은 대부분 2층으로 목조와 塼造를 혼합한 구조이다. 지붕은 맞배지붕과 유사하지만 측면으로 처마가 돌출하지 않았다. 중국인들이 '硬山'이라고 부르는 형식이다. 1층은 상점, 2층은 주거용이다. 1층에 난 대문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서면 주거용 건물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발로 뛰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예정에 없던 수확이었다.

五代의 목조건축, 平遙 鎭國寺 萬佛殿

鎭國寺는 平遙縣城에서 북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郝洞村이라는 마을에 있다. 외지에서 이곳으로 올 때는 同蒲鐵路상에 위치한 洪善역에서 하차하면 된다. 洪善역에서 북쪽으로 약 1km정도 떨어진 황토고원에 鎭國寺가 자리잡고 있다. 드넓은 평원에 자리하고 있어서인지 작지 않은 절이 왜소해 보이기만 하다. 五代시기 北漢 天會7년(963년)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남북중심축선상에 天王殿-萬佛殿-三佛樓를 배치하고 그 좌우에 廊廡와 配殿을 두어 앞뒤로 두 개의 院落을 구성하고 있다. 山門인 天王殿 좌우에는 鍾樓와 鼓樓가 있다.

중심건물인 萬佛殿은 淸 嘉慶20년(1815년)에 창건시의 모습대로 중건하였다고 한다. 五代의 건축수법을 잘 간직하고 있어서 중국목조건축사상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정면 3간, 측면 3간의 조그마한 규모인데 반하여 공포의 크기가 매우 커서 가분수 같은 기형적인 비례를 지니고 있다. 공포는 7포작(4출목) 雙杪雙昂의 偸心과 計心이 혼합된 구조이다. 下昂의 끝부분은 윗면을 직선으로 비스듬히 깎아낸 批竹昂 형식이다. 창방 위에 평방을 설치하지 않았으면서도 柱間에 공포를 두었다. 주심포 형식에서 다포 형식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인 수법이라 할 수 있다. 柱間包는 5포작(외2출목) 雙杪의 구성으로 주심포보다 간단한 형식이나 외목도리가 두 개인 점이 특이하다. 내부에는 많은 소상들이 봉안되어 있다. 萬佛殿 좌우에는 廊廡를 형성하고 있고 그 안에 각종 神의 雕像을 봉안하였다. 또한 이 안에는 절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20여개의 비석이 있다. 萬佛殿의 양측면 벽 뒷쪽 부분에 연해서 담장을 쌓고 그 담장에 원형으로 개구부를 뚫어 문을 만들었다. 이 문을 통해 들어간 萬佛殿 뒤편은 三佛樓 영역이다. 중앙에 목조와 塼造를 혼합한 2층 건물인 三佛樓가 있는데, 2층 부분이 실제적인 佛殿이다. 내부에 法身佛(毘盧遮那佛), 報身佛(盧舍那佛), 應身佛(釋迦牟尼佛)이 봉안되어 있고, 좌우의 벽면에는

平遙 鎭國寺 萬佛殿: 세간의 조그마한 규모에 비해 7포작의 공포구성은 지나치게 커 보인다.

平遙 慈相寺 주변 마을: 황토고원, 황토를 이용한 굽지 않고 햇빛에 말린 벽돌을 사용하여 두꺼운 담장을 쌓고 이에 의지하여 집을 짓고 산다. 비가 적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平遙 鎭國寺 萬佛殿 내부 : 보를 길게 이어올린 복잡한 구성을 하고 있다. 보 아랫면에는 종 문양을 새겨놓았다.

明代의 벽화가 보존되어 있다. 三佛樓 앞 동쪽에는 地藏殿이 있고 서쪽에는 觀音殿이 있다.

平遙 慈相寺

鎭國寺에서 동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역시 황토고원의 약간 구릉이 있는 평원위 翼郭村이라는 마을 한쪽에는 慈相寺가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에는 성벽처럼 높다랗게 쌓아올린 담장과 이 담장에 의지하여 窯洞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집들이 밀집되어 있다. 절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우리를 태워다준 오토바이택시 운전사가 열쇠를 관리하고 있는 할머니를 불러준다. 그 할머니는 우리 일행을 친절하게 맞아 주었다. 할머니 말에 의하면 방금 전에 일본인들이 다녀갔다고 한다. 짚차를 타고 여섯 명이 왔었는데, 大殿과 塔을 자세히 살펴보고 갔다는 것이다. 이 외딴 곳까지 조직적으로 조사하고 다니는 일본인들의 열성과 조직력이 부럽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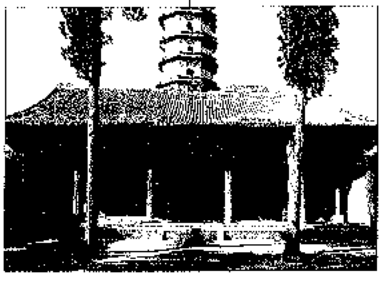
慈相寺의 옛 이름은 '聖俱寺'였다고 한다. 宋 慶歷年間에 無名祖師의 유골을 봉안하기 위해 寶塔 하나를 건축하였고, 皇祐3년(1051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宋代末에 병화로 파괴되고 大殿과 山門만이 남게 되어 金 天會년간에 중건하였다고 한다. 慈相寺에는 현재 남쪽으로부터 山門-中門-大殿-塔이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있다. 山門의 형식이 특이하다. 앞에서 보면 일반적인 山門의 형식과 비슷하지만 건물 하부에 볼트구조로 된 긴 통로가 있다. 후면의 구조는 벽체가 상당히 파손되어 있어서 원래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특이한 용도로 사용된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劇을 공연하는 戲臺로 사용되었던 듯 한 느낌이 든다. 山門을 들어선 마당 좌우에는 窯洞이 있다. 숙소로 사용되었던 듯 하나 현재는 마구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안쪽에 中門이 있다. 원래는 이 문이 실질적인 山門이었을 것이다. 내부에는 四天王像이 봉안되어 있었을 것이지만 현재는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다.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을 뿐이다. 문위에 새겨진 붉은 벌이 시선을 끈다. 山門 좌우로는 鍾樓와 鼓樓가 있다.

중심 건물인 大殿은 정면 5간, 측면 4간으로 전면의 한 간을 개방하여 놓고, 두 번째 기둥열에 창호를 달았다. 光化寺 大雄寶殿과 비슷한 평면구성이다. 가구는 전면의 한 간을 제외한 세 간이 앞뒤로 대칭을 이루고 있고, 맨 앞의 한 간을 퇴간으로 내달았다. 맞배집으로 구성된 大殿은 상부를 둥글게 편수깎기 한 기둥상부에 창방을 올리고 다시 나지막한 평방을 올린 위에 공포를 설치하였다. 공포는 5포작(외2출목) 單杪單昂 重栱計心造의 구성으로 첨차의 단부를 材軸에 직각이 아닌 斜角으로 잘라놓았다. 전체적으로 金代에서 元代로 넘어가는 시기의 수법을 지닌 건물이라고 생각된다. 앞쪽의 창호를 달아맨 기둥들은 方柱 두 개를 붙여서 만든 것이 특이하다. 절 맨 뒤에는 팔각형의 9층 전탑 한 기가 있다. 높이가 약 45m로 하부에는 조적식 기단이 있다. 1층 탑신 주변으로 博造의 圍廊을 둘러놓은 점이 특색이다. 탑 정면에서 凸형으로 돌출한 抱廈가 있다. 각 층의 처마는 전돌을 내쌓는 방식으로 되어 있을 뿐 공포를 표현하지 않고 있어서 형식이 간략화된 宋代 이후의 탑임을 알 수 있다. 내부는 中空式으로 1층과 최상층 천장만 전돌로 궁륭(돔)을 구성하였을 뿐, 2층 이상은 각 층에 목조로 마루를 깔고 나무계단을 두어 최상층까지 오를 수 있는 구조이다. 현재는 파손이 심하여 마루와 계단이 대부분 파괴되고 2층까지만 오를 수 있다. 각 층의 내부 벽면에는 벽화의 흔적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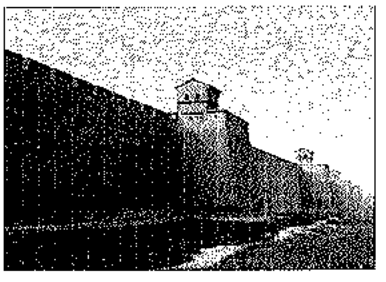
洪善마을의 개량형 窯洞

저녁무렵 洪善마을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일행인 중국인 학생 黃偉와 오토바이 운전사 사이에 무슨 말인지 오고간다. 운전사가 오늘 밤 자기 집에서 묶게 해줄터이니 내일 平遙시내에 갈 때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라는 것이다. 四川省에서의 인육만두 사건이 생각나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러나 중국인의 실생활을 좀 더 자세

平遙 慈相寺:스님들은 간데 없고 폐허로 방치해 둔 모습이 세월의 무상함을 얘기하는 듯 하다.



平遙 慈相寺 大殿



平遙城:明代의 城制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는 平遙城은 우리의 읍성과는 달리 실제 전투에 사용되는 성이다.

히 볼 수 있는 기회인 듯 하여 용기를 내어 제안을 받아들였다. 가족은 40대 후반 정도의 부부와 딸 둘로 네명의 가족이 사는 집 치고는 꽤 넓은 편이다. 남편은 오토바이 택시를 몰고 아내는 농사일을 한다. 돼지와 닭 몇 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돼지는 화장실 아래에서 키운다.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똥돼지이다. 집의 구조와 형태는 窯洞을 현대식으로 개량한 것이다. 중앙에 현관 겸 거실이 있고 그 좌우로 방이 있다. 방에는 창문쪽으로 중국식 온돌인 캉(炕)이 있다. 10월 중순의 제법 차가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불을 떼지 않는다. 이곳에서 잠을 자고 난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잠자리가 축축하다. 습기가 별로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많은 습기가 올라왔나 보다. 식사는 대문 바로 앞에 붙어있는 건물에서 한다. 난방 뿐 아니라 취사용 연료로도 석탄을 사용한다. 석탄이 흔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리라. 저녁에 이곳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석탄 타는 메퀘한 냄새로 머리가 어지러웠다. 호떡처럼 생겼지만 속에 아무 것도 들어있는 않은 빵과 쌀죽, 그리고 단무지 비슷한 반찬이 저녁상에 오른 것이 전부였다. 쪼그리고 앉아야만 하는 나지막하고 빈약한 의자, 무릎높이보다도 낮은 나지막한 탁자, 음식을 먹는 자세가 불편하기 그지없다.

明代의 縣城, 平遙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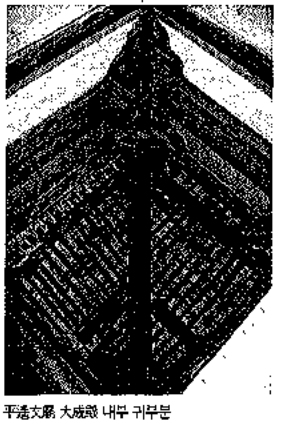
平遙城에 도착한 때는 아침안개가 걷히기 전 이른 아침이었다. 안개속에서 뿌옇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平遙城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平遙城은 明 洪武3년(1370년)에 건축된 山西城에서는 비교적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도 큰 縣城이다. 明·淸 양대에 걸쳐 보수되었으나 기본적인 구조와 형태는 明代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성의 평면은 방형으로 전체 성벽의 길이는 6.4km, 성벽의 높이는 12m 내외이다. 흙을 다져 쌓아올린 성벽의 외면은 전돌을 쌓아 마감하였다. 성벽위에는 여장(성가퀴)이 있고 방형의 총안을 뚫어 놓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원성에서와 같은 근총안과 원총안의 구분이 없이 원총안만을 두었다. 성벽 밖으로는 해자를 둘렀는데, 깊이와 너비 모두 4m 정도이다. 동서남북 네 면에 성문이 있다. 원래 성문위에는 門樓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소실되고 없다. 성문밖으로는 모를 접은 방형의 옹성을 쌓아 방어에 유리하도록 하였다. 성벽에는 雉와 砲樓 94개가 있다. 성벽 네 모서리에는 闕樓가 있었으나 중일전쟁 때 일본군의 포격으로 소실되었다고 한다. 성벽 안 市街는 남북 방향의 도로 하나와 동서 방향의 도로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縣城은 우리의 邑城과 비슷한 개념의 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邑城이 실제 전투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의 개념을 지니지 않은 반면에 중국의 縣城은 실제 전투에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수원성은 이러한 중국의 城制를 참조하여 지은 성이라고 한다. 平遙城 안 市街와 市樓 및 상점 등은 明代 이래의 원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太谷의 옛 가로와 더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平遙文廟 大成殿

平遙文廟는 平遙縣城 안 興路街 북측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로 사용되고 있는데 마침 학생들이 구령에 맞추어 우리의 국민보건체조와 같은 체조를 하고 있었다. 배치는 중심축을 설정한 위에 앞에서부터 「櫺星門-大成門-大成殿-明倫堂-亭-尊經閣」을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그리고 좌측에 東學, 서측에 西學을 두었다. 중심축과 좌우 동서축의 맨 앞에는 牌坊을 두었다. 이들 건물은 대부분 明·淸代에 중건된 것이나 大成殿만은 金 大定3년(1163년)에 중건된 것으로 平遙文廟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중국에는 많은 文廟가 있으나 대부분은 후대에 중건된 것으로 오래된 건물이 거의 없다. 河北省 正定의 文廟 大成殿이 五代의 건축이고, 山東省 曲阜의 孔廟에 있는 金代의 碑亭을 제외하면 金代의 大成殿은 이 건물이 지금까지 알려진 오래된 실례이다. 大成殿은 전돌로 쌓은 나즈막한 기단위에 세워져 있는데, 앞쪽으로는 넓직한 방형의

平遙文廟 大成殿 : 중국에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文廟 건축에 속한다.


平遙文廟 大成殿 내부 귀부분

霍州縣 : 중국에서 현존하는 옛날 지방의 관아건축 중 배치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月臺를 두고, 주변으로 난간을 둘렀다. 정면과 측면이 모두 5간으로 평면은 거의 정방형에 가깝다. 지붕은 겹처마의 팔작지붕이다. 기둥상부에 창방과 평방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는 기둥 상부에만 설치하였다. 공포의 구성은 7鋪作(4출목)으로 雙杪雙昂의 형식이며, 計心造와 偸心造를 혼합한 구성이다. 일부 출모첨차는 단부를 교두형이 아닌 권비形으로 초각하였다. 이는 佛光寺 文殊殿과 유사한 수법으로 金代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大成殿은 柱間에 大斜梁이라고 하는 특수한 구조부재를 사용하고 있다. 遼代와 金代는 가구방법에 있어서 많은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는 시기인데, 그러한 특성이 이 大成殿에도 반영된 것이다. 내부에는 양측면과 후면에 내진부와 외진부를 구획하는 두꺼운 벽체를 두었다. 이는 중국의 文廟 大成殿 건축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이다.

霍州署

平遙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부터는 지형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넓은 평원은 점차 사라지고 산과 계곡이 눈에 띄는 횟수가 늘어나다가 결국은 그 속으로 들어간다. 계곡을 낀 도로를 따라 달리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는 窯洞이 눈에 많이 띈다.

霍縣은 山西省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도시와는 달리 구릉에 위치하고 있었다. 시내에는 어김없이 鼓樓가 있다. 목적지인 霍州署는 鼓樓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霍州署의 건물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시청에 해당하는 霍州시민정부의 청사로 사용되고 있다. 중심축을 설정하고 엄격한 좌우대칭으로 건물들을 배치하였다. 현존하는 건물로 大門, 의문, 용도, 패방, 계석정, 대당, 이당, 내택, 정대헌, 서과방 등이 있다. 중국에 현존하고 있는 관아건축 중 비교적 규모가 크고 오래된 완전한 형식을 지니고 있는 건축군이라고 한다. 중심건물은 大堂으로 元代의 건축이라고 한다. 정면 5간의 맞배집으로 앞쪽에 건물을 덧달아낸 형식이 특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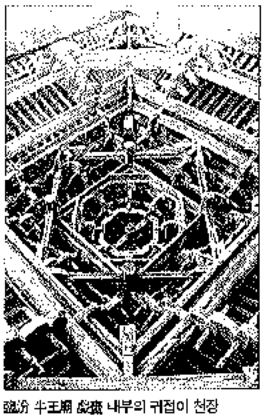
臨汾縣 魏村 牛王廟

臨汾市는 汾河를 끼고 있는 도시로 汾河의 물을 사용하여 만든 汾酒로 유명하다. 몇 번 마셔본 적이 있는데 마시고 난 뒤 입안에 도는 향기가 별로 좋지않아 즐기지는 않는 편이다. 臨汾市에서 서북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魏村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고, 그곳에 牛王廟가 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는 마침 場이 섰다. 우리의 시골장 풍경을 연상시키며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牛王廟는 牛王, 馬王, 藥王 세 분의 소상을 모셔놓고 제사지내는 곳이다. 방형으로 담장을 두르고 동쪽 한 모퉁이에 조그마한 문을 달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으로 중심축을 형성하고 남쪽끝에 戲臺는 극을 공연하는 무대로 방형평면으로 된 한 간 규모의 조그마한 팔작집이다. 원래는 元 至元20년(1283년)에 창건되었으나 大德7년(1303년)에 지진으로 파괴되어 至治元年(1321년)에 중건되었다고 한다. 전축기단위에 세워져 있는데, 후면과 양측면의 뒷쪽 일부에 벽체를 둘러 무대를 꾸몄다. 앞쪽 두 개의 기둥은 모를 죽인 방형 돌기둥으로, 기둥 정면에 모란과 花生童子를 조각하고, 측면에는 창건과 중수년대를 새겨놓았다. 少林寺 初祖庵 大殿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형식의 돌기둥이다. 천장을 구성한 방법이 이채롭다. 공포를 중첩시켜서 사각형의 모서리를 죽여나가는 방법을 사용한 '藻井' 형식이다. 귀접이 천장과 같은 수법의 구성이다. 이보다 후대의 건물인 獻殿에도 같은 형식의 귀접이 천장이 채용되어 있다.

霍州署 大堂 : 내부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 전면의 기둥을 생략한 구조가 특이하다.

臨汾 牛王廟 戲臺 : 극을 공연하기 위한 무대시설이다.


臨汾 牛王廟 獻殿 내부의 귀접이 천장

합성수지 가요 전선관(Hi-Flex) 사용의 구조안전성 검토

The Research on the Structural Stability of Hi-Flex Installations

이창남 / (주)센구조연구소
by Lee Chang-Nam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결손단면을 중요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면 결손부위에 응력집중 현상으로 인한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요 구조부재인 슬래브, 보, 기둥 및 벽체를 설계하면서 그 속에 배관되는 전선관이나 분기 박스로 인하여 손상되는 단면까지를 고려해서 계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전기배관은 구조물의 기하학적인 부재배치와는 달리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전선관을 배관함에 있어서 그 속에 배선할 전선이 저항없이 잘 뽑히도록 하기 위하여 완만한 곡선형태로 현장 맞춤 배관하기 때문에 구조설계에서 일일이 그 궤적을 추적하여 응력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설계는 설사 전선배관을 한다 해도 그 배관재료의 구조적 성능이 배관 때문에 밀려난 콘크리트의 제반 성능을 초과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 왔었다. 즉 전선배관용 강관은 그 단면형태가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재 축방향 및 재 축에 직각방향으로 작용하는 압축력에 콘크리트 이상으로 안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여겼으며, 혹시 이를 전선배관이 인장측에 설치되면 오히려 철근을 대신하여 제법 큰 저항을 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전선 배관으로 강관이 PVC파이프로 대체되고부터는 그 구조내력상 신빙성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게 되었으며, 더구나 구조물이 불의의 화재사고를 당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도 의문이었다. 아파트 분전반 근처에서는 구조내력벽중 무시못할 만큼의 단면을 전선배관이 차지하여 어쩌면 주객이 전도된 것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그러던 중 최근 들어서 일반 PVC파이프도 아닌 주름진 파이프 즉 "합성수지 가요 전선관(Hi-Flex)"이 여러 공사장에 도입되고부터는 구조안전에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더 들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 주름파이프는 이름 그대로 가용성이 있어서 맨 손으로 누르거나 구부리고 잡아당기기만 해도 쉽게 변형을 일으키는 재료이다. 다시 말하면 주름파이프가 배관된 부분은 콘크리트가 없다고 여겨야 할만큼 구조적으로 약한 재료라는 뜻이다.

구조안전을 위하여 구조설계하는 구조기술자는 콘크리트 구조재가 흠없이 꽉 찬 단면으로 취급하여 안전 확인을 했는데, 전기기술자가 구조기술자와 상의해 보지도 않고 주요 구조부재의 여기 저기를 임의로 손상시키는 격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러 공사현장에서는 이들 전기배관된 선을 따라 균열이 발생하고 구조부재에 과대한 처짐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이 주름파이프를 공사현장에서 전기배관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KS표시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인건비가 대폭 절약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값이 아무리 싸다고 해도 구조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사용을 삼가해야 할 것이며, 더구나 그것이 전선관으로는 적당하다는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주요 구조부재를 마음대로 배관해도 구조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를 사용함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주요 구조부재에 불과 0.3mm두께의 균열만 생겨도 무슨 큰 일이나 생긴 것처럼 야단들인데 호칭 직경 16mm(외경21mm), 호칭 직경 22mm(외경 29mm)나 되는 연속된 구멍을 구조부재에다 뚫어 놓는데도 누구하나 이상하게 여기거나 항의하는 사람이 없다. 두께 15cm~18cm에 불과한 아파트 내력벽에 이런 주름 파이프를 10여 가닥이나 나란히 이웃하게 배관하는 것을 보면 안전불감증 환자로 진단할 수밖에 없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주요 구조부재의 철근피복은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조건이다. 즉 구조계산 규준이나 시방서에서 명령하는 피복 두께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무방한 악세서리가 아니라 필수조건이라는 뜻이다. 이는 철근이 콘크리트와 일체로 작용하는 데 필수적인 부착응력 확보와도 관계가 있으며, 화재 발생시 내화효과나 내구성 확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분 아닌 여분의 두께이다. 그런데 정해진 구조부재의 단면에서 피복두께가 필요이상 두꺼워지려면 주근의 위치는 중립축을 향하여 이동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다. 즉 피복을 줄이면 앞에 설명한 바 대로 내구성, 내화성 및 철근의 부착응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피복 두께를 늘리면 주근의 위치가 이동하여 구조부재의 핵심에 해당하는 구조내력이 저하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구조설계하는 사람들은 슬래브, 보, 기둥, 벽체 등 주요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단면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철근 한 가닥의 굵기와 피복 두께 1cm에도 신경을 쓰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물질인 전기파이프가 구조부재에 끼어 들어서 힘들게 배근해 놓은 철근을 마구 밀쳐내어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구조역학상으로는 이도 저도 아닌 혼란을 야기시키는 격이 되는 것이다.

혹자는 전기배관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애당초 슬래브의 두께나 보, 기둥 단면을 늘려주면 될 것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느냐고 남의 일처럼 얘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같은 방법은 심하게 말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것과도 같은 과분한 해결방법이다. 구조부재에 사전검토도 없이 주름파이프를 배관하는 것은 생생한 나무에 톱으로 이리 저리 흠집을 내놓는 것과도 같은 행위라고 이해해주기 바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긴급 제안하는 바이다.

1. 주요구조부에는 주름파이프를 전선배관용으로 배관하지 말 것(비 내력벽이나 비 내력 콘크리트 부재에 사용하는 것은 무방함). 2. 주요 구조부재에 주름파이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구조설계 이전에 구조기술자의 검토를 받을 것. 3. 전기배관 파이프는 가급적 노출 배관하여 구조재의 손상을 막도록 유도할 것.

협회소식 / 111
건축계소식 / 113
현상설계경기 / 118
계획작품 / 124
해외잡지동향 / 128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34
신입회원 / 136
게시판 / 138

협회소식 KIRA news

임원 · 시도건축사회장 합동회의 개최

설계도서 신고문제 등 현안 협의

우리 협회 97년도 제2회 임원 · 시도건축사회장 합동회의가 지난 4월 15일 김영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전국 시 · 도건축사회장이 연석한 가운데 부산 국제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합동회의에서는「설계도서 신고문제」를 비롯해「소규모건축물 감리문제」 등 협회 당면 현안들이 중점 논의되었다. 특히 이들 현안중 설계도서 신고와 관련해 무자격자의 무등록 영업행위, 등록건축사의 회원 미가입, 설계도서 미신고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시 · 도건축사회가 4월말까지 자체 실태조사를 벌인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협회에 제출토록 해 이를 토대로 협회가 건교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또한,「소규모 건축물 감리문제」는 우선 각 시 · 도건축사회가 자체적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을 검토 보완해 이에 대한 의견을 보내오면 협회가 최종 이를 종합해「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개선방안(가칭)」을 마련, 차후 건교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밖에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건설기술관리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는대로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하였다.

회의 광경

이사회 개최

용인시 · 오산지역건축사회 설치 승인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정기이사회가 지난 4월 15일 부산 국제호텔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회
- 제1호 의안 : 지역건축사회 설치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경기도건축사회 소속 지역건축사회(용인시, 오산지역) 신설)
- 제2호 의안 : 경기도건축사회 직원정원 조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7명 증원 : 3급갑 1, 6급갑 6)
- 제3호 의안 : 사무기구 개편(안) 승인의 건
- 유보(차기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함)
- 제4호 의안 :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유보(차기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함)
- 제5호 의안 : 회계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유보(차기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함)

부산건축사회 「제3기 시민건축대학」 개강

건축관련 상식 및 교양강좌 실시

부산광역시건축사회(회장 박충명)가 대민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시민건축대학」제3기 개강식이 지난 4월 15일 부산건축사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개

강식은 우리 협회 김영수 회장과 임원, 전국 시·도건축사회 회장, 김성일 부산시 주택국장, 한병우 건축가협회 부산지회장 등 관계인사와 수강생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매년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건축관련 상식 및 교양과정을 교과과정으로 편성 운영하는 「시민건축대학」은 부산시민은 물론 건축관련 기관·단체 등으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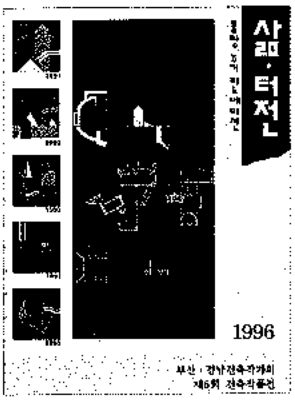
개강식 광경

부산·경남건축작가회 제6회 건축전 작품집 발간

회원작품과 활동소식 등 수록

부산·경남지역에서 활동중인 건축가들로 구성된 부산·경남건축작가회(회장 이광태/경남대 교수)가 여섯 번째 건축작품집을 발간하였다.

이 작품집은 지난해 12월 부산건축사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던 「제6회 부산·경남건축작가회 건축작품전」출품작들을 사진과 함께 수록한 것으로 작년 전시회와 같이 '삶·터전-불량주거 리노베이션' 이란 주제를 표지에 달았다. 이 작품집은 또한 일반 작품집들과는 달리 지난해 개최했던 각종 워크샵 및 세미나, 건축답사 및 기행 소식 등을 기사로 담아 부산·경남지역건축작가회의 활동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현재 부산·경남건축작가회에는 이광태 교수를 비롯해 김기환(부경대 건축과 교수), 성인수(울산대 교수), 손 욱(토탈건축사사무소 대표), 윤수근(구상건축 대표)씨 등 4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ARCASIA 제9차 포럼」 9월22일 개막

'아시아의 미래건축' 주제로 일본 동경에서

「아카시아(ARCASIA) 제9차 포럼」이 올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일본동경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아시아건축사협의회가 주최하고 일본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올해 포럼의 주제는 '아시아의 미래건축(Architecture of the Future in Asia)'으로 아시아 각국의 건축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 건축의 내일에 대해 발전적 논의를 펼친다. 포럼 개최장소인 동경국제회의장은 나리타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로 90분, JR 나리타 특급기차로 53분, 하네라 공항에서 하마마스쵸역까지 동경모노레일로 23분가량이 소요되는 동경 지오다구 마루노우지 3-5번지에 위치해 있다.

한편 이번 포럼은 그동안 서구문명의 팽창에 도전받아 온 아시아가 다양한 창작활동과 창의를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 건축가의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열리게 되어 21세기를 준비하는 아시아권 각국 건축사들이 지혜를 함께 나누고 최신 건축정보를 교환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참가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실 (581-5711~4)

부산건축사회,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개최

'96~'97 신입회원 대상

부산광역시건축사회(회장 박충명)는 지난 3월 20일 부산건축사회관 12층 「예당」에서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다.

'96~'97 신입회원과 부산건축사회 임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부산여대 이승명 교수의 '세계화 시대의 가치관'을 주제로한 특강과 협회 연혁 및 회무운영 현황에 대한 소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97년도 건축사예비시험 5월11일 시행

서울대와 건국대 2곳에서

오는 5월 11일에 실시되는 97년도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장소가 발표되었다. 올해 시험은 건국대와 서울대 2곳에서 동시에 치뤄지며 응시자중 수험번호 00001~06730번까지가 서울대, 06732~12999번까지가 건국대에서 각각 시험을 치루게 된다.

시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20분까지 140분간 실시되며 시험과목은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건축계획 등 3개과목으로 객관식 선택형으로 치뤄진다.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09:30)까지 응시표 및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해야 하며, 시험개시후에는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다.

건기법시행령개정안 공청회

「건축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문제」쟁점

규제완화 정책에 꿰맞추기 위한 부분적 개정안 실효에 의문

공청회 광경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입법예고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 29일 오후 3시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업계와 학계 등 관련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예상대로 감리제도에 대한 각 업계의 높은 관심을 말해주듯 방청객들이 150석 규모의 공청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건축전문감리회사 대표자 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각돼 시종 열띤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우리협회 이관영 이사는 「이번 시행령중 개정안이 감리전반에 걸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순위와 경중이 전도되어 있다」며 「분쟁조정기구 및 연구기구 등의 설치를 통해 현행 감리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리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방치한 채, 규제완화라는 정책에 꿰맞추기 위한 부분적 개정안은 실효가 없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전제되지 않은 이번 개정안은 필연성이 없으며 본 협회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며 강한 어조로 협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관영 이사를 비롯해 황위성 건설감리협회 부회장, 오진웅 건설협회 기술이사, 최찬환 서울시립대 교수, 이정만 건설기술인협회 부회장, 권오석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명예회장, 송광훈 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정책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기법시행령개정안 중 제54조에는 현행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축사를 대표로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삭제돼 있어 건축감리회사의 대표자를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고 있어, 이에대해 우리 협회는 '건축감리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라는 국가적 당면과제에 역행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다음은 지난달 입법예고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조 문	현 행	개 정 내 용	비 고
제7조의 2	〈신설〉	②감리전문회사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계약서를 한국건설감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 2 (설계등의 표준화)	〈신설〉		
제39조의 3(건설표준화추진위원회)	〈신설〉		
제50조(책임감리대상 공사의 범위)	50억원이상 1만㎡ 이상 건축물	50억원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종의 건설공사 및 건축공사	
제54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①본문생략 ②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축사(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자를 포함한다)를 대표자로 하여야 한다	①본문현행과 같음 -(별표5) 개정 ②"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축사"를 삭제함	①(별표5)의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완화 ② -건설분야에 20년이상 종사한자 또는 특급감리원이면 대표자가 가능토록 됨
제54조의 3 (감리원의 겸직금지 허용범위)	〈신설〉	비상주 감리원이 당해 공사 감리대상이 아닌 공사의 설계업무를 하는 경우	
제61조(업무의 위탁)	①건설기술인협회에 위탁한다	①-③	〈본 협회에 경력관리를 위탁한다는 내용 없음〉

교통영향평가제도 학술토론회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시행착오에 대한 검증 이루어져야

대한교통학회는 지난 5월1일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에서 사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금년도 제2차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중앙대 이용재 교수의 이 제도의 공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협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가한 박서홍 회원(희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은 현행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 10년간 시행착오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아울러 새로운 체제로의 재구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대안으로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 심의만은 반드시 폐지시켜야 하며, 현행제도를 개선할 경우는 건축심의 제도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축3단체 원로 모임

원로 30여인사 건축계 현안 논의

건축 3단체의 역대 회장을 비롯한 건축계 원로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계 발전을 위한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우리 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등 건축3단체의 원로 인사 30여명은 지난 4월 11일 서울 성북동 대원각에서 회합을 갖고 최근의 건축계 현안 등

건축발전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는 송기덕, 윤승중, 김규태, 오운동, 이영희, 함성권씨 등을 비롯해 우리 협회 김영수 회장, 강석원 건축가협회 회장, 이정덕 건축학회 회장 등 건축3단체의 전·현직회장 30여 인사가 참석하였다.

규제개혁위, 건축설계 등 「전문자격서비스분야 진입완화」 논란

건축계 반대여론 확산
- 창작성과 전문성 무시된 제안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축사 등 전문서비스분야의 진입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앞으로 건축계뿐만이 아니라 의료업계와 변호사업계 등 전문자격서비스분야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분야 규제개혁을 심의할 공정위 산하 경제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각분야 규제완화대책 내용중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검토중인 건축사 등 전문서비스분야 진입제한 완화를 비롯해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도시설계조정심의 등 각종 건축관련심의제도 간소화 과제가 포함돼 있다. 특히 정부는 이들 건축관련분야 과제들을 오는 5~6월중에 우선 추진할 계획이어서 건축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건축설계분야 진입제한 규제완화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건축사 등을 포함한 전문서비스분야의 경우 「자격증이 없어도 해당부문의 사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나간다」는 방침하에 검토중인 내용으로 그동안 건축계는 건축설계의 창작성과 전문성·독창성 등의 특성이 무시된 제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현재 정부가 진입제한완화를 검토중인 전문자격서비스분야에는 건축사외에도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등 17개 직종이 해당된다.

서울시, 건축사 행정처분 강화 방침

위반건축사 업무정지 등 기준 세분화

서울시는 고질적인 건축분야의 민원 해소와 함께 불합리한 건축신고제도를 개선하고 비리에 연루된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건축관련 비리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침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의 담당공무원과 일부 건축사들의 불법행위 사례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건축신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사 행정처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 중 송파와 종로구를 시범구로 정해 건축분야 「생활부조리 척결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시행토록 했다. 시는 이후 효과가 좋을 경우 이를 서울시 산하 각 자치구로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는 ▶건축허가·신고제도와 위법건축물관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사 ▶행정처분제도 개선 등 3개부분으로 나눠 계획을 세웠다. 시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구청 주전산기에 인·허가 관련부서의 전산망이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축허가 건물 중 30%이상을 표본추출해 분기별로 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검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도 건축허가·신고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과 건축위원회를 거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키로 했다. 또한 위반건축사의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는 해당구청에서 처리토록

법개정을 건의키로 했으며 건축사업무정지 등 기준을 세분화하고 위반사항이 겹칠 경우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제5회 건설기능경기대회

10개부문 221명 참가 기량겨뤄

건설기능인의 기술향상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5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지난 4월18일 서울 공덕동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거푸집, 미장, 건축목공, 조적 등 10개부문에 걸쳐 2백 21명의 기능인이 참가해 그동안 각자 갈고 닦아온 기량을 겨뤘다. 한편 이번 대회를 주최한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원석)는 이달 2일에 열린 협회 창립기념식에서 이번 대회의 각부문 1~3위 수상자들에게 상금과 상패 그리고 해당부문 기능사2급 자격증을 수여했다.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지침' 발표

건교부, 소형주택건설 의무지역 축소

건설교통부는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건교부는 서울과 경기도의 14개 시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소형주택 건설의무제를 폐지했으며(아래표 참조)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광주·대구·부산 등 대도시 지역에서 중대형 아파트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희림건축, ISO-9001 인증 취득

국내 건축사사무소로는 처음

(주)희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이영희)가 국내 건축설계업체로는 처음으로 품질인증규격인 ISO-9001을 취득했다. 희림건축은 지난해 한국능률협회와 ISO-9001 인증에 대한 지도계약을 체결한 뒤 7개월동안의 인증절차를 거쳐 지난 3월 28일에 인증취득을 마쳤다. 건축사사무소에서의 ISO-9001은 설계도서 작성업무에 품질시스템을 적용, 각 설계진행단계(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등)마다 작성-검토-승인과정을 명확하게 해 최종설계도의 완성도와 정밀도를 한층 높일 수가 있다. 최근 국제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ISO인증에 대한 요구가 점차 확대되는 등 시장개방에 맞춰 많은 설계사무소와 건설업체가 생존경쟁을 위해 품질우선주의를 명제로 일대 변신을 꾀하고 있어 이번 희림건축의 경우처럼 품질보증시스템 도입으로 품질경영(QM)의 수단으로 활용코자 하려는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주택규모 건설비율

지 역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	전용면적 60㎡ 이하 건설비율
서울특별시	75%	30%
경기도중 다음의 시지역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60%	20%
기타지역	제한없음	제한없음

건축역사학회 월례발표회

5월 주제 'Design Relationship'

건축역사학회 월례발표회가 오는 5월 17일 오후 2시 서울 원서동 공간 신사옥에서 열린다. 5월 월례회는 'Design Relationship'을 주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건축물들 가운데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작품들을 선정해 설계자와 지정토론자가 집중 분석하므로써 시간과 공간 그리고 도시의 문맥 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자리이다. 특강과 주제발표 및 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될 이번 발표회에는 최기수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가 '서울의 景과 曲'을 주제로 특강을 하며 주제발표자로는 서해천(공간사 설계본부장), 배병길(배병길 건축연구소 대표)씨가, 토론자로 조성룡(도시건축 대표), 조건영(기산건축 대표)씨가 참가한다.

문의 :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윤인석 교수 (0331-290-5778)

「미래의 도시」, 건축디자인 전시회

한·영만남 200주년기념행사 일환

미래도시의 새로운 건설과 다양한 디자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래의 도시" 건축디자인 전시회가 지난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중앙일보사 로비에서 열려 한·영만남 200주년의 의미를 새롭게 하였다. 영국왕립건축가협회와 영국통산성이 공동주최한 이 전시행사에는 영국 디자이너들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생활양식, 작업환경 및 교통환경 등의 주제별 설계도면과 건축작

품 등 전시물 40여점이 선보였으며 서울 신공항과 부산 철도역사 및 터미날 설계 등 국내시설의 설계디자인도 함께 전시돼 많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 개막일인 18일에 열린 세미나에는 리처드 로저스를 비롯해 테리 파렐 등 영국의 대표적 건축거장들과 건축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리처드 로저스 강연광경

광주대 건축강연회

'건축가의 이상과 현실' 주제

광주대 건축공학과에서는 '건축가의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97년도 1학기 초청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오는 6월 15일까지 5회에 걸쳐 열리는 이번 강연회의 강사 및 강연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강사/일시/장소 순)

- 전인호(Atelier d'espase 대표) / 4. 16(수) 15:00 ~ 17:30 / 공대 합동강의실
- 김준성(Studio1대표) / 5. 1(목) 15:00 ~ 17:30 / 공대합동강의실
- 최 욱(건축사사무소 K&C 대표) / 5. 12(월) 15:00 ~ 17:30 / 공대합동강의실
- 민선주(위가건축 대표) / 5. 27(화) 15:00 ~ 17:30 / 행정관 5층 대회의실
- 김종규(M.A.R.U건축사사무소 대표) / 6. 13(금) 15:00 ~ 17:30 / 공대합동회의실

제8회 세계건축트리엔날레

올해 6월말 불가리아에서 개최

제8회 세계건축트리엔날레가 오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된다. 8회 행사는「새로운 건축가상의 정립을 위한 21세기 건축교육」을 주제로 건축가들의 현대건축물 소개와 함께 각 건축학교에서 선정한 작품들이 전시되며 각종 건축출판물들도 판매된다. 전시주제는「이베로 아메리카 지역의 건축구조와 디자인」,「세계 현대건축을 이끄는 주인공들」,「생태학과 도시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거주지」,「벨기에 개인 목조주택」이다. 3년마다 열리는 트리엔날레에는 또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현상설계도 함께 실시되는데 이번 현상설계 주제는 ▶미래의 건축구조 ▶전통건축의 개혁 ▶건축의 동질성 ▶건축과 생태학 ▶지속가능한 도시 등이다.

국내 CAD관련社, 해외시장 개척 활발

(주)건캐드, '97 A/E/C Show참가해 자사개발 프로그램 홍보

국내 CAD관련업체들이 국내 건축분야뿐만이 아니라 세계 공통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주도해 온 (주)건캐드의 경우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6월 16일부터 3일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열리는 CAD/CAM/CAE분야의 세계적인 행사인 '97 A/E/C Show에 참가해 자사개발 프로그램인 CAD-POWER와 C.G용 ArcPant 및 Multi-Media Authorizing Tool을 선보일 계획이어서 국내 CAD관련업계의 해외시장 개척을 선도하고 있다. 이미 국내 건축·건설업계에도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해 온 CAD는 단순히 도면을 그리는 기능에서 벗어나 관련분야인 지리정보시스템(GIS), 시설물관리(FM), 기술관련 문서관리(TDM) 기능 등을 종합한 통합 문서관리시스템화 되어가고 있어 이를두고 세계각국의 기업들이 신제품개발과 자사제품 홍보에 전력중이다. 이런 추세 속에서 이번 (주)건캐드의 경우는 국내 CAD업체의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건축가협회 공개강좌

「북한의 문화유산 보존과 려말선초 목조건축」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석원) 건축역사분과위원회에서는 오는 5월 23일 오후 3시 서울 대한출판협회회관에서「북한의 문화유산 보존과 려말선초 목조건축」을 주제로 공개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에서는 목원대 건축과 이왕기 교수가 '북한의 민족 문화유산 보호사업 진행과정', '역사적인 종교건축물', '현존하는 문화유산중 고려말 조선초의 목조건축물' 등에 대해 강연을 한다. 공개강좌 장소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경복궁(구 국립중앙박물관) 동문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 (02-744-8050, 3275).

제11·12회 건축가 포럼

주제는「도시건축의 풍경」,「환경에서의 조형」

한국건축가협회「건축가 포럼」이 오는 5

월21일(11회)과 6월25일(12회)에 각각 개최된다. 제11회 포럼의 주제는 '도시건축의 풍경'으로 오는 5월 21일 오후 3시부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관 4층에서 열리며 조성룡(도시건축 대표)씨와 김봉렬(국립종합예술학교) 교수가 참석한다. 또 제12회 포럼은 '환경에서의 조형'을 주제로 동일장소에서 오는 6월 25일 오후 3시에 열리며 홍익대 건축학과 강건희 교수와 이범재 단국대 교수가 참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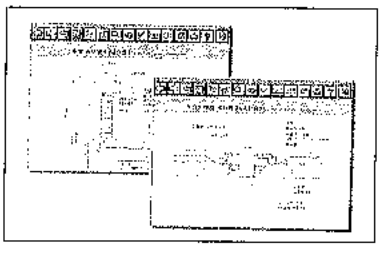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 (02-744-8050, 3275)

「건축 방수시스템의 설계와 시공」 CD롬 출시

(주)청우미디오, CD롬 타이틀 개발

CAD 전문업체인 (주)청우미디어는 건축방수와 관련된 자료를 집대성한 「건축 방수시스템의 설계와 시공」이라는 CD롬 타이틀을 개발해 출시하였다.

CD에 담긴 주요내용은 방수와 관련된 지식, 방수시스템의 설계, 각종 방수재료, 방수재료별 시공방법, 방수재료의 성능평가 및 시험방법, 관련업체 및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이다. 또 방수에 관한 텍스트 자료와 더불어 700여장의 표, 그림,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방수공법의 시공장면 등이 40여분 가량의 동영상으로 지원된다. 이밖에 80여장의 방수 디테일 도면이 Auto CAD Drawing화일로 제공되어 실제 설계에 응용할 수 있다. 「건축 방수시스템의 설계와 시공」은 건설



분양 전문기술 CD롬 타이틀로서 건설회사, 감리업체, 건축설계사무소, 공공기관, 교육기관에서 실무, 교육, 연구 등에 활용이 기대된다.

문의 : (주)청우미디어 (02)3473-8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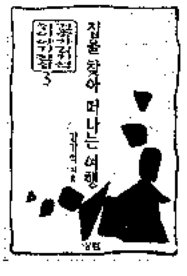
건축신간 안내

「건축가 김기석의…」 전집 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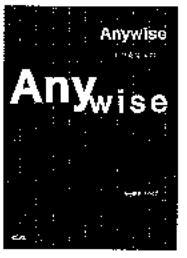
◇ 건축가 김기석의 집이야기 3, 4권

이 집이야기 전집은 현재 왕성하게 활동중인 중견 건축가 김기석씨(아람광장 대표)의 전문적 시각과 주장을 하나로 모아 정리한 교양실용서로서, 꿈에서 시작해 그 꿈이 현실로 살아나기까지 양극간의 피드백 과정을 충실하게 담은 27년간의 작업노트가 체계적인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 지난 1월에 처음 발간된 집이야기 전집 1권에서는 단순한 기계적 구조물이 아닌,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집을 지향하는 건축가로서의 소신을 편안하게 풀어 놓았고, 그후 발간된 2권에서는 본격적으로 집을 짓기 위한 준비작업, 곧 설계 입문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진전해 이번에 새로 발간된 3, 4권에서는 실제로 자신이 설계, 시공한 개별주택(따로집)과 집합주택(모둠집)들을 꼼꼼히 답사하면서 작가 자신의 건축관이 실제화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살림출판사 펴냄 / 신국판 /3권 268쪽, 4권 304쪽 / 각권 8천원 / 문의 :396-4293



◇ 애니와이즈 건축의 도전



이 책은 지난 95년 서울에서 열린 애니와이즈 컨퍼런스(Anywise Conference)의 내용을 뉴욕의 애니원(Anyone)社와 건축도서출판공사가 공동으로 편집해서 발행한 것이다. 애니원 컨퍼런스는 세계의 유명건축가들과 각 분야의 선두에 서있는 사상가들이 모여,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재의 건축과 도시상황에 관해 토론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결성된 국제적 모임이다. 이 책에는 「현대도시에 있어서 건축의 도전」이란 주제로 열렸던 95년 서울 애니와이즈 컨퍼런스의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도시와 건축의 계획 및 미학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현대도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건축도서출판공사 펴냄 / 데이비스 하비 · 김석철, 렘 쿨하아스 외 7인 著 / 2만2천원 / 문의 : 02-547-6156~7

◇ 세계의 건축과 도시환경

이 책은 선진 제국들의 도시모습이 경제성 위주에서 벗어나 도시속에 예술문화를 부여하고 도시의 질을 높이려한 현장들을 실감나게 보여줘 현재 우리의 도시가 국적불명으로 건설되고 있는 양태를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책은 북유럽, 베네룩스 3국, 동서부 유럽, 남부유럽, 중남미, 아시아 등으로 권역을 나눠 각국의 도시모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쉽게 풀어써 놓아 외국답사여행을 통한 직접 체험을 원하는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답사대상지에 대한 사전지식을 얻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월간빌딩문화 펴냄 / 현영조 著 / 국배판 / 4만원 / 문의 : 02-789-6411~7

순천대학교 향림학술회관

공릉2지구 9단지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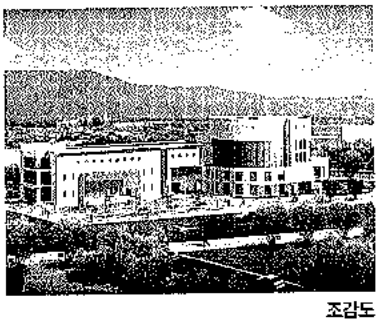
태능 배드민턴 · 핸드볼 경기장

순천대학교 향림학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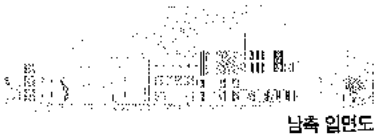
Hyanglim Academic Center,
Soonchun National University

순천대학교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화, 인간화, 첨단화를 표방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종합적인 시설을 마련하여 대학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교육, 복지, 문화 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향림학술회관 건립 설계경기를 실시, 지난 2월 11일 (주)유창건축(안병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총 9개 작품이 응모한 이번 설계경기의 우수작은 프로세스 건축(이종진)안과 우토건축(박홍근)안이 선정되어 당선작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우수작에게는 각각 3백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승효상(위원장, 이로재건축), 고성룡(경상대 교수), 김대익(안성산업대 교수), 김재기(순천대 기획연구실장), 박일민 · 이석배 · 신형준 · 김영석(순천대 교수), 이영호(순천대 시설과장) 수상작외에 참가작 중 남건축(남상금)안을 함께 게재한다.

▶ 당선작 / 유창건축(안병모, 김종권) + 대경건축(서계원)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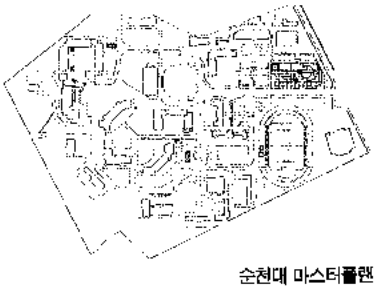


남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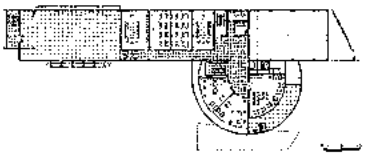
위 치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 315번지 순천대학교 캠퍼스내 소운동장 일부
대지면적	7,300㎡
건축면적	1,945.97㎡
연 면 적	3,884.27㎡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외부마감	화강석, THK18 파스텔 복층유리
계 획	김준철, 이창환
설 계	김오진, 임태원, 이현정, 임종명
건 축 주	순천대학교 향림학술 장학재단
구조설계	단구조
설 비	산호설비
전 기	우신전기

비교적 넓은 대지에 오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어온 순천대학교 캠퍼스는 지방의 고즈넉한 정서가 물씬 풍기는 경관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낮은 건물군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건물들 사이사이에 오래된 나무들이 이 대학교의 고풍스러운 멋을 더해주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가 가져야 되는 기능상의 복합성과 외형상의 상징성은 이러한 분위기에 순응하여 낮고 길게 달리던 날렵한 수평의 매스가 원통형의 수직매스와 만나면서 긴장감과 상징성을 강조하고 내부적으로 통일되고 연계성이 강한 동선계획으로 이루어 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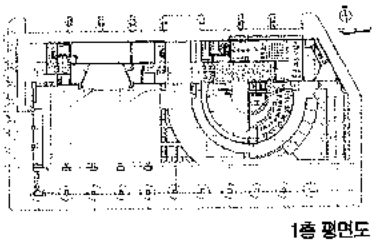
배치계획은 기존의 캠퍼스 마스터플랜이 갖고 있는 축에 충실하게 대응하는 한편, 캠퍼스 내외부적으로 중심적이고 상징적인 장소임을 주목함과 동시에 외부도로와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예각의 축에 순응하는 매스를 택하면서 개념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대학을 이용하는 대학구성원이나 외부에서 이 건물을 조망하며 지나가는 그 모두에게 조형적 부담감을 주지 않으면서 캠퍼스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시선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고려하였다. 수평과 수직, 그리고 직육면체와 원통형 매스의 적절한 비례를 통한 조화와, 건물 중앙부위의 전후면을 관통하는 피로티, 건물 외면의 펀칭을 통한 양광의 적절한 배분, 복합기능의 효율적인 동선의 구분과 연계를 위한 매스의 분절과 연결, 외부에서 지하층으로의 진입부위에 계획한 선큰 등, 이 모든 디자인은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능상 편리성과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적 즐거움, 더하여 학교측이 갖고자 하는 대학과 지역적 상징 역할까지 복합적으로 풀어 낼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글 : 안병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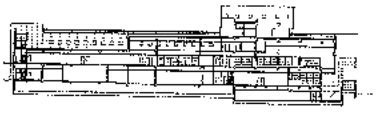
순천대 마스터플랜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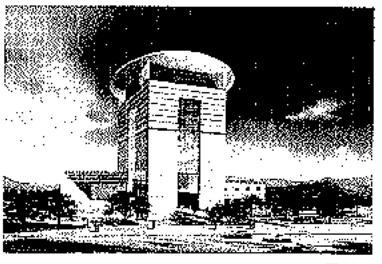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단면도

▶ **우수작 / 프로세스 건축(이종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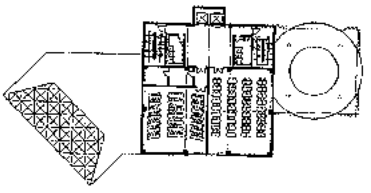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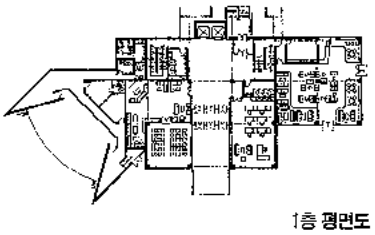
부지면적	7,707㎡
건축면적	989.97㎡
연 면 적	3,909.68㎡
용 도	교육연구시설, 후생복지시설
규 모	지하1층, 지상7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철골 트러스 구조
외부마감	포천석, Ⓣ12 컬러 복층유리
조경시설	열주(상징), 수경공간(독립, 위요) 완충식재(기논병행)
주차대수	계획 58대(출입구 2개)

매스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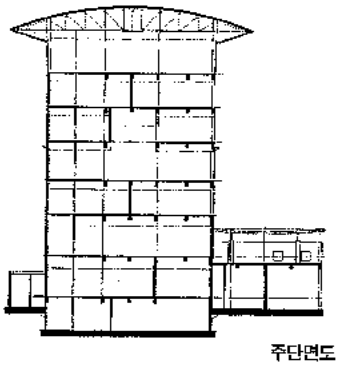
- 교내 평이한 건물의 외관과 저층구조의 Master Plan이 주는 여러가지 문제점
  • 저밀도, 가용부지의 감소 등을 해소하고 학술회관이라는 성격이 주는 건물의 위계성과 기능별필요에 의해 One-Tower형의 건물과 학생 휴게가 갖는 성격의 차별화에 따른 저층에 계획한 카페테리아, 그리고 옥외 객석을 갖는 공연장을 기단으로한 Mass의 구성
- 객석부 : 기존 Level차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방사선의 형태
- 21세기를 향한 위요감을 표현한 고층부와 원반 Mass는 상징적 이미지 표출의 극대화
- 중앙 Tower는 다시 적정한 고유특성의 공간으로 분절되고 수직축에 의해 상승하여 원형 Mass결합, 상승하는 대학의 이미지 표출
- 저층부는 독립된 Mass와 동선을 가지고 있으며 교내 주 진입축에 수평선상에 있어 교내 건물축에 일치하여 각각의 기능을 충분히 소화
- 교내 중심가로에 직접 연결되는 브릿지(Bridge)는 원만한 진출입을 가능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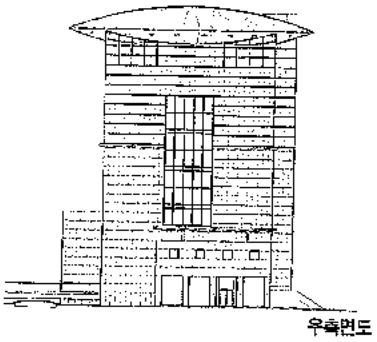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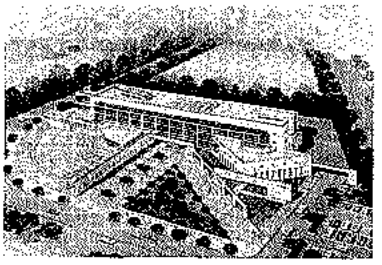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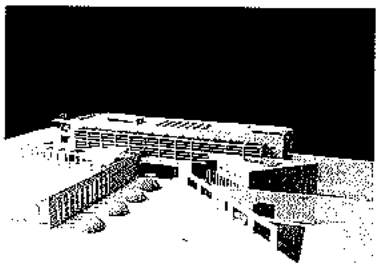


우측면도

▶ **우수작 / 우토건축(박홍근)+최 일 (목포대)**



조감도



모형도

대지면적	7,300.00㎡
건축면적	1,950.53㎡
연 면 적	3,962.31㎡
건 폐 율	26.72%
용 적 률	52.18%
규 모	지상3층
주차대수	법정 25대 → 계획 34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 재 료	외벽 → 화강석 버너구이, 물갈기+석재뿜칠 창호 → 알루미늄불소수지도장+컬러복층유리

배치계획

- 주 차로에 따른 정면성 확보
- 각 실의 기능 파악 및 이용행태에 따른 적정규모의 배치
- 외부공간의 위계성 부여
- 부지 위치에 따른 지역민의 접근성 배려 및 학내의 중심적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야외 공연장 설치
-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전이적 공간으로서의 수공간 계획

평면계획

- 저층부에 교직원 복지시설 및 전시시설을 배치시킴으로써 교직원 및 학생 지역민들의 원만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용상 편익을 최대한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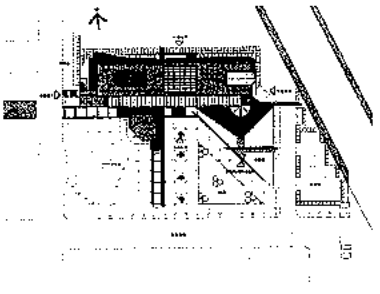
- 각종 용도별 시설은 상호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관리 및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인 공간구성
- 로비 상부를 Open시켜 쾌적한 환경 제공
- 주 Core를 중앙에 배치시켜 설비시스템의 단일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와 동선의 단축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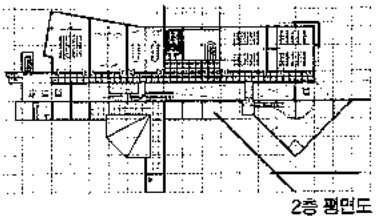
- 미래지향적인 이미지의 표출을 위한 입면 구성
- 순천대의 Landmark적 역할에 기여할 수 있는 차로에서의 입면의 변화성
- 수평적 요소와 수직적 요소를 활용, 발전하는 대학상 표현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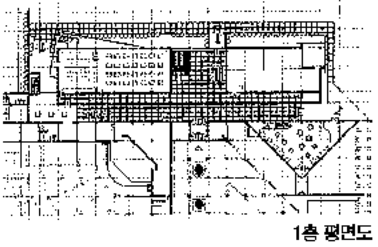
- 공간 이용 및 기능에 맞는 적정 층고의 확보
- 중앙 Mall의 Open을 통한 개방감 확보
- 공조의 개별화를 위한 층고의 여유
- 천창과 수평, 수직 루버의 활용으로 빛의 극적효과 연출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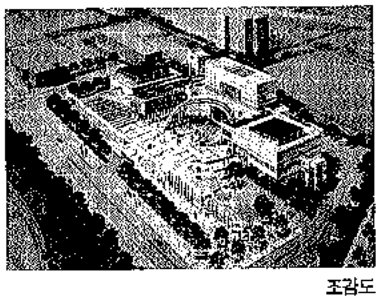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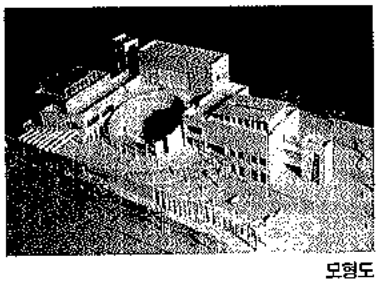
1층 평면도

횡단면도

▶ 참가작 / 남건축(남상금)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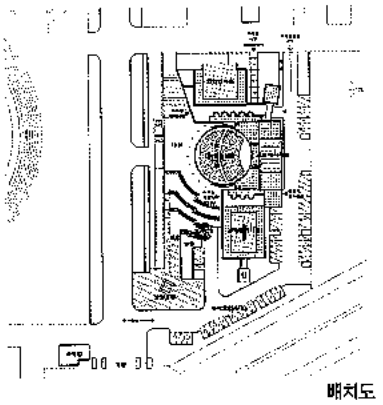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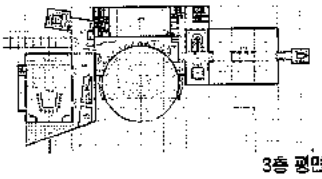
용 도	교육문화시설(교원복지, 컨벤션, 교육문화시설)
부지면적	약 7,300㎡
건축면적	1,774.63㎡
연 면 적	3,770.69㎡
규 모	지상 5층(전시동 3층, 회의동 3층, 식당동 3층)
주차대수	82대(옥외 55대, 1층 피로티 27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외부마감	다색적벽돌타일 P.C패널, AL 복합패널, 화강석 버너마감
장애자시설	엘리베이터2대, 경사로, 전용주차장, 전용화장실 2개소
조경시설	진입광장, 연못, 벤취, 옥상정원, 식재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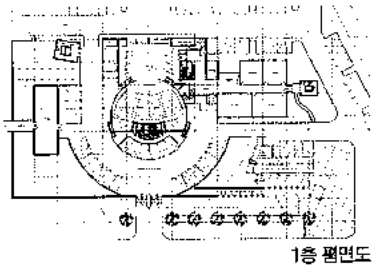
- 계획대지 주변의 경사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배치는 정문을 들어서는 이용자들의 흐름을 편하게 하고, 기존의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도모한다.
- 정문을 통해 들어서는 자동차는 혼잡을 피해 계획대지를 우회하여 Ramp를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들어선다.
- 계획건물 전면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판벽으로 자연스럽고 명쾌한 공간분할의 역할과 기존축의 강조 및 공연장 데크공간의 내부강화를 시도한다.
- 계획대지 옆으로 추후공사대지와의 연계성을 갖기위한 통로를 확보한다
- 계획대지내의 외부공간 레벨의 다양화로 변화를 추구한다
- 야외 공연장 계획으로 옥외공간의 가변성을 도모한다
- 모임의 장소를 구심점으로 각 시설별 명쾌한 분리와 융통적 연결의 묘를 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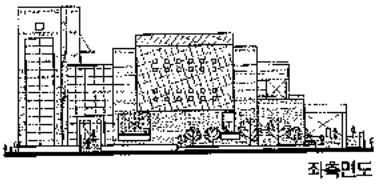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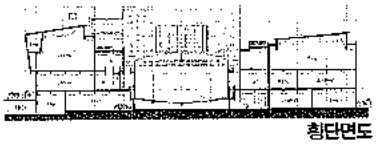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좌측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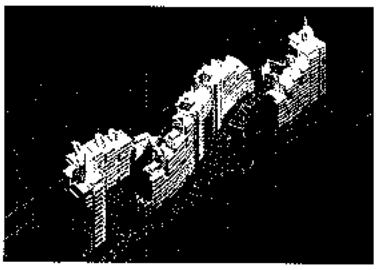
공릉2지구 9단지 아파트

Gongreung Apartment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공릉2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기본 설계 경기를 실시하여 인터플랜건축(조대희)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 지난 4월 1일 발표했다. 일반공개경기로 치뤄진 이번 설계경기는 총 19개 작품이 접수되어 우수작에 담건축(맹준호)안이, 가작에는 토문건축(최두호), 기성건축(송기성), 가람이상연건축(이상연)안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작품으로 건물배치 및 외부공간 처리가 유용성이 있고 다양하며 단지의 개방감 확보가 잘 되어 있고, 건물의 Sky-Line을 매우 조화롭게 설정하였으며 입면상에 유연한 곡면 디자인 수법을 사용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김진균(서울대 교수), 박용환(한양대 교수), 홍대형(서울시립대 교수), 전명현(홍익대 교수), 이명호(중앙대 교수), 양동양(고려대 교수), 김덕재(건축학회), 김한근(건축가협회, 한건축), 김우성(건축사협회, 아키플랜건축), 양 갑(도시개발공사), 홍선광(서울시)

▶ **최우수작** / 인터플랜 건축(조대희, 이광인)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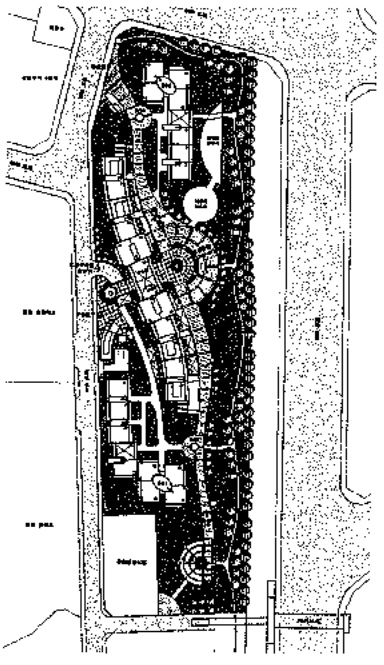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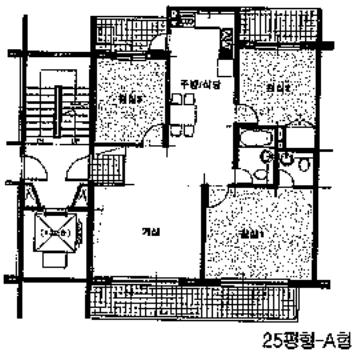
대지면적	14,047.00㎡
연 면 적	46,137.50㎡
건축면적	3,773.77㎡
건 폐 율	26.87%
용 적 률	227.06%
도 로 율	22.95%
녹 지 율	27.74%
호 수	310세대(전용25평)
구 조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주 차	370대

계획의 주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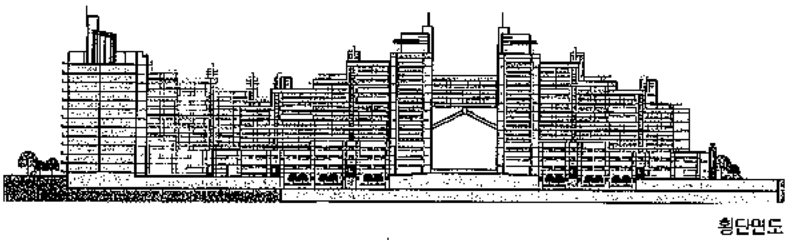
- 시각축을 고려한 열린공간 구성
  - 도시의 경직성을 자연스런 시각축으로 유도
  - 시각적 개방감 확보
- 도시경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 층변화에 따른 역동적 스카이라인
  - 옥탑형태를 다양화하여 주동의 인지성 부여
- 다양한 형태의 주동도입
  - 대지형상 및 축에 따른 주동형태 도입
- 외부공간의 연속성
  - 단지 진입부와 중심부의 자연스런 연계
  - 보행몰과 연계된 적극적 커뮤니티공간 유도
- 중앙광장의 활성화
  - 수공간,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화합 공간
  - 부대복리시설(노인정, 관리사무소, 상가)과 연계
- 지하주차장의 쾌적성
  - 선큰가든 도입으로 자연채광, 환기
  - 코아를 통한 주거와 유기적 연결
- 입체적인 동선체계
  - 차량진입을 데크하부로 유도, 명료한 보차분리
- 철도로부터 소음에 대응
  - 주동을 소음원에서 최대한 이격배치
  - 시설녹지 및 건축선 이격부분에 차폐식재
-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주거개념
  - 가치관 및 생활패턴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거유형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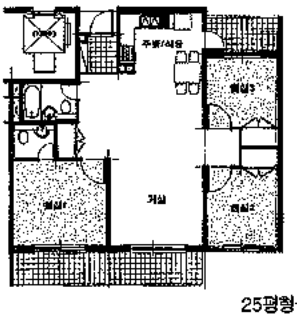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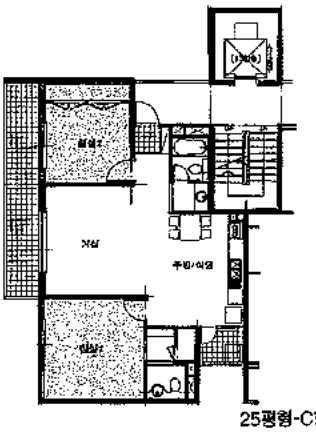
25평형-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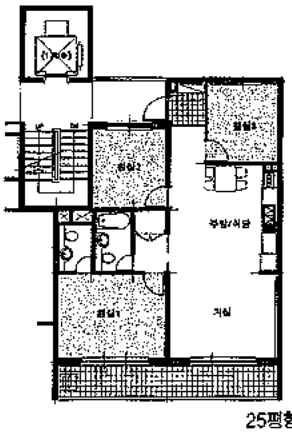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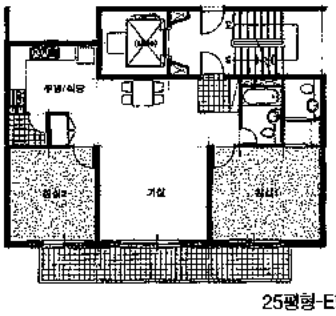
25평형-B형



25평형-C형



25평형-D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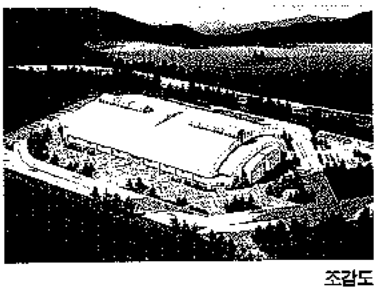
25평형-E형

태능 배드민턴·핸드볼 경기장

Taenung Badminton and Handball Stadium

대한체육회(태능선수촌)에서는 '92 바르셀로나 및 '96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배드민턴 및 핸드볼 종목의 집중 육성을 목적으로 태능실내육상경기장을 배드민턴·핸드볼경기장으로 대수선하여 독창성과 기능성, 편리성을 갖춘 최초의 전용경기장을 건립키 위해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한 결과 정일엔지니어링(송기덕)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 지난 4월 2일 발표했다. 3개 작품이 최종 접수된 이번 설계경기의 우수작은 건정건축(노형래)안이, 가작으로는 동남아·태건축(전재우)안이 각각 선정됐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김상대(고려대 교수), 신범식(서울시립대 교수), 김성우(연세대 교수), 김광문(한양대 교수), 강건회(홍익대 교수)

▶ **최우수작** / 정일엔지니어링(송기덕)



조감도

대지위치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산 233-19외 4필지
지역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구 조	철골트러스 및 철근콘크리트조(기존시설)
대지면적	310,696㎡
건축면적	9,962.58㎡
연 면 적	11,614.89㎡
건 폐 율	3.21%
용 적 률	3.74%
건축규모	지상 2층
주외장재	지붕 - K-Span패널 벽 - 샌드위치 패널 T.24 복층유리
주차대수	124대(계획대지내)
조경면적	5,239.29㎡(계획대지내)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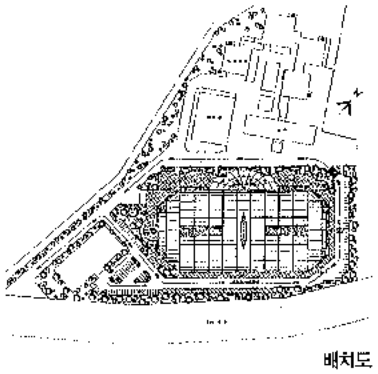
- 기존의 지형 및 주변상황을 변형시키지 않는 계획
- 통과도로에 의한 소음을 차음식재로 해결
- 보행자 공간과 차량공간의 분리

동선처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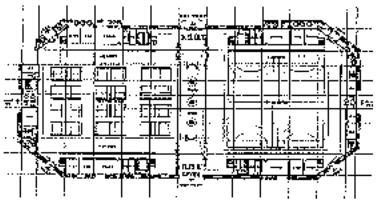
- 차량의 한방향 통행으로 동선의 원활한 흐름
- VIP차량 동선 분리
- 주출입구 외부공간의 휴게공간 형성 → 열주를 설치함으로써 동선의 흐름 유도
- 기존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동선유도
- 관람객 동선은 중앙의 휴게공간을 중심으로 분산 → 관람후 퇴장하는 관람객을 위한 별도의 출구 확보

건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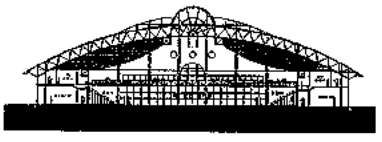
- 수납식 관람석 설치 → 혼련 및 국제경기에 유동적인 공간활용
- 각각의 경기장에 따른 독립된 부속시설
- 2층에 VIP실 및 기자실의 확보
- 지붕에 개폐식 Vavlt 설치
- 환기 및 채광
- 중앙 휴식공간에서 각 경기장 관람 가능 및 상부천창의 자연채광 유입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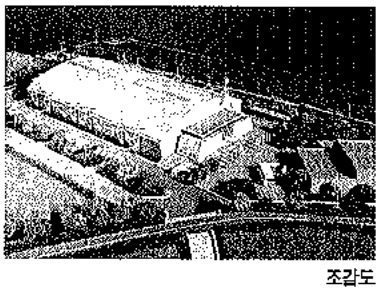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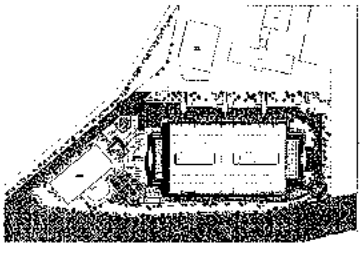
▶ 우수작 / 건정건축(노형래)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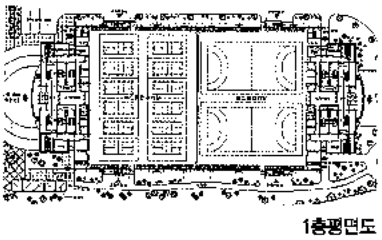
대지면적	310,696㎡
지역지구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건축면적	9,178.14㎡
연 면 적	11,153.81㎡

이 계획은 태능선수촌 내에 배드민턴, 핸드볼 경기장의 집중 육성을 위한 전용 경기장의 건립을 목표로 태능 실내 육상경기장을 대수선하여 배드민턴 · 핸드볼 경기장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기존의 실외 육상트랙 부분을 휴게공간 및 주차공간으로 계획하고 진입광장, 휴게정원, 파고라, 분수연못 등을 설치하여 관람객 및 평상시 선수들의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동선계획에 있어서는 배드민턴 및 핸드볼 경기장의 동선 및 관람객, 선수, 경기운영의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보차동선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내부의 Arena는 배드민턴 경기장 12면과 부대시설, 핸드볼 경기장 2면과 부대시설로 하여 각각의 Arena를 평상시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하였다. Mass는 배드민턴, 핸드볼 경기장을 형상화한 2개의 Solid한 사다리꼴 형상에 단합과 도약을 상징하는 투명한 수직 커튼월을 사용하여 주출입구 부분의 정적인 기본형상에 역동성을 조화시켜 계획하였다. Arena 부분에 있어서 자연채광의 조절 및 T.V 중계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반투과성 유리, 수평루버, 롤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태양광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하였고, 또한 경기운영 관계실 및 홀 부분에는 자연채광이 적극 유입되도록 천장 및 커튼월 등을 사용하였다. 체육시설의 역동성을 표출하는 태능선수촌의 새로운 상징건축물이 되길 바란다. 〈글 : 건정건축〉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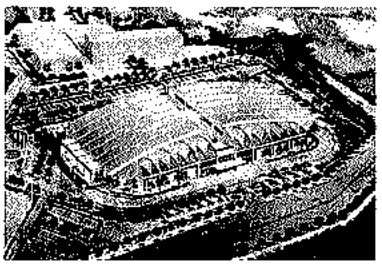
2층평면도



1층평면도

횡단면도

▶ 가작 / 동남아 · 태건축(전재우)



조감도

건축면적	9,994.82㎡
연 면 적	10,102.42㎡
구 조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스페이스 프레임
지역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학교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규 모	지상2층(관람석 2,180석)
주차대수	164대(장애인용 4대, 대형주차 3대)
외벽마감	드라이비트, T18파스텔 복층유리
지 붕	아연도 컬러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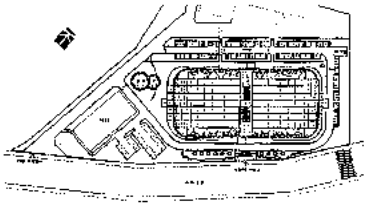
평면계획

- 핸드볼과 배드민턴 경기장을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분할하여 상호 훈련 및 경기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하였다.
- 중앙에 공용의 부속시설을 배치하여 공간 이용의 효율을 높였다.
- 관람석을 출입구와 근접 배치하여 동선의 길이를 줄임으로써 이용객의 피난 및 이동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 각 기능에 충실하도록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구조체계를 수립, 적용하였다.
- 전기, 통신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 미래의 하이테크적인 측면 및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업무 및 관리의 능률화와 효율화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지체부자유자 및 노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및 수평적 동선 구성
- 공용시설의 위에는 Roof Terrace를 설치하여 휴식 등,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하는 한편, 장래 증축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 1층에서는 객석을 활용하여 선수의 훈련시 공간의 이용성을 제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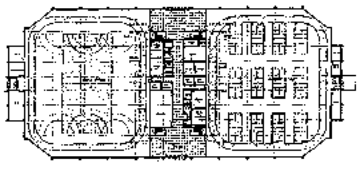
- 국제경기가 없는 평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장 주위에 트랙을 설치하여 조깅코스를 마련하였다.
- Security Door를 사용하여 관리의 효율을 더한다

단면계획

- 핸드볼과 배드민턴 경기에 필요한 높이와 규모를 감안하여 경제적이고도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높이를 설정하였다.
- 소요실 증가로 늘어난 연면적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연 채광의 유입 등 풍부한 표정을 가진 공간을 연출하였다.
- 중앙에 공용시설 배치로 자연스럽게 각 경기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 동선이 중복되지 않도록 처리하여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 하였다.
- 홀 부분을 오픈시켜 기능 및 공간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층을 경기자가 이용하고, 2층을 관람객이 사용함으로써 동선분리 및 자연채광의 유입으로 쾌적성을 추구하였다.
- 관람석의 수직적 배치로 동선을 짧게 줄였다.



배치도



1층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계획작품 process works

동양생명 울산금융센터

잠실175빌딩

D&S 문화센터

성동구립 행운어린이집

동양생명 울산금융 센터

Dongyang Life Insurance Bldg.

김병현 · 오택길 / 장건축

모형도

위 치	경남 울산시 남구 달동 1248-5번지 외 2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설계지구, 일부 2종 미관지구
대지면적	1,219.4㎡
건축면적	702.58㎡
연 면 적	9,819.29㎡
건 폐 율	57.62%
용 적 률	558.96%
규 모	지하3층, 지상10층, 옥탑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설비	F.C.U+A.H.U
주요용도	일반 업무시설(사무실)
외부마감	THK24㎜ 저반사 복층유리+화강석
주차대수	91대
설계담당	박근우, 고성천, 김성우, 정기훈, 김상나, 이정임
건 축 주	동양생명보험(주)
설계기간	1996. 8~1996. 12

동양생명 울산금융센터는 울산 신시가지의 중심도로격인 50m폭의 삼산로를 북측에 두고 동측에는 8m도로, 남측에는 12m도로에 접해있는 입지조건을 갖고 있으며, 주변상황은 새로운 도시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신개발계획지역이다.

따라서 현란한 외관을 이용한 개별성의 강조보다는 단순한 형태구성을 통해 새롭게 형성될 도시가로 아래서 중성적 성격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설계진행중 건축주가 주요마감재료를 돌로 요구해와 돌로 마감된 솔리드한 피막을 서측과 동측에 두고 그 두 피막사이에 보이드한 유리매스를 삽입해 정면과 배면에서 개방성이 확보된 매스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대지가 접해있는 위계차이에 대한 대응은 도시적 스케일의 분절되지 않은 면과 휴먼스케일의 분절된 면이라는 건축적 표현으로 접근하였다.

여러면에서 개성의 강조와 확려한 자기표현을 통한 차별성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는 듯하다. 그것의 극단은 결국 모두가 동질화 되는 것으로 이르고 말지만… .

중성화 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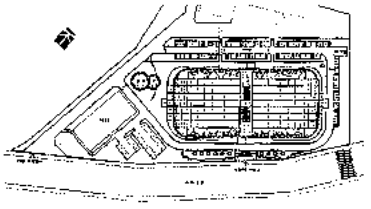
주변의 배경이 되어주고 도시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

그것 또한 건축이 가져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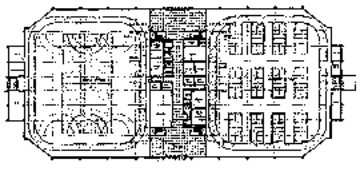
- 국제경기가 없는 평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장 주위에 트랙을 설치하여 조깅코스를 마련하였다.
- Security Door를 사용하여 관리의 효율을 더한다

단면계획

- 핸드볼과 배드민턴 경기에 필요한 높이와 규모를 감안하여 경제적이고도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높이를 설정하였다.
- 소요실 증가로 늘어난 연면적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연 채광의 유입 등 풍부한 표정을 가진 공간을 연출하였다.
- 중앙에 공용시설 배치로 자연스럽게 각 경기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 동선이 중복되지 않도록 처리하여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 하였다.
- 홀 부분을 오픈시켜 기능 및 공간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층을 경기자가 이용하고, 2층을 관람객이 사용함으로써 동선분리 및 자연채광의 유입으로 쾌적성을 추구하였다.
- 관람석의 수직적 배치로 동선을 짧게 줄였다.



배치도



1층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계획작품 process works

동양생명 울산금융센터

잠실175빌딩

D&S 문화센터

성동구립 행운어린이집

동양생명 울산금융 센터

Dongyang Life Insurance Bldg.

김병현 · 오택길 / 장건축

모형도

위 치	경남 울산시 남구 달동 1248-5번지 외 2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설계지구, 일부 2종 미관지구
대지면적	1,219.4㎡
건축면적	702.58㎡
연 면 적	9,819.29㎡
건 폐 율	57.62%
용 적 률	558.96%
규 모	지하3층, 지상10층, 옥탑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설비	F.C.U+A.H.U
주요용도	일반 업무시설(사무실)
외부마감	THK24㎜ 저반사 복층유리+화강석
주차대수	91대
설계담당	박근우, 고성천, 김성우, 정기훈, 김상나, 이정임
건 축 주	동양생명보험(주)
설계기간	1996. 8~1996. 12

동양생명 울산금융센터는 울산 신시가지의 중심도로격인 50m폭의 삼산로를 북측에 두고 동측에는 8m도로, 남측에는 12m도로에 접해있는 입지조건을 갖고 있으며, 주변상황은 새로운 도시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신개발계획지역이다.

따라서 현란한 외관을 이용한 개별성의 강조보다는 단순한 형태구성을 통해 새롭게 형성될 도시가로 아래서 중성적 성격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설계진행중 건축주가 주요마감재료를 돌로 요구해와 돌로 마감된 솔리드한 피막을 서측과 동측에 두고 그 두 피막사이에 보이드한 유리매스를 삽입해 정면과 배면에서 개방성이 확보된 매스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대지가 접해있는 위계차이에 대한 대응은 도시적 스케일의 분절되지 않은 면과 휴먼스케일의 분절된 면이라는 건축적 표현으로 접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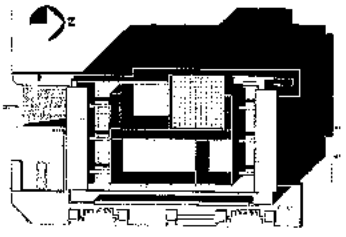
여러면에서 개성의 강조와 확려한 자기표현을 통한 차별성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는 듯하다. 그것의 극단은 결국 모두가 동질화 되는 것으로 이르고 말지만… .

중성화 된다는 것.

주변의 배경이 되어주고 도시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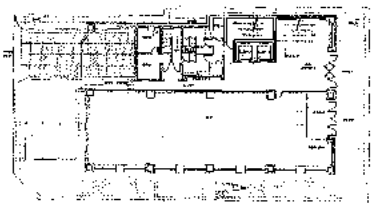
그것 또한 건축이 가져야 할

의미가 아닌가 한다.〈글 : 장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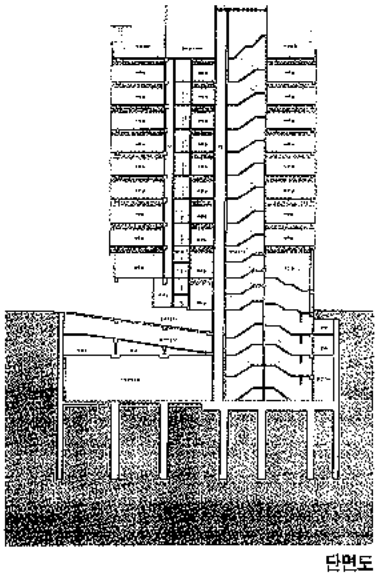


배치도

기준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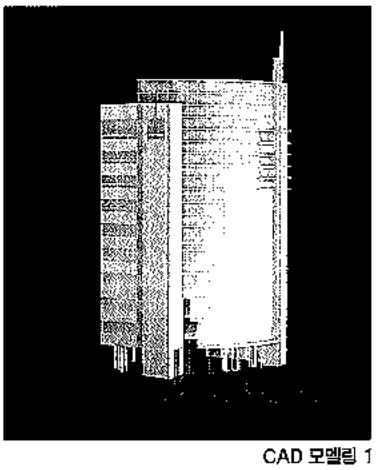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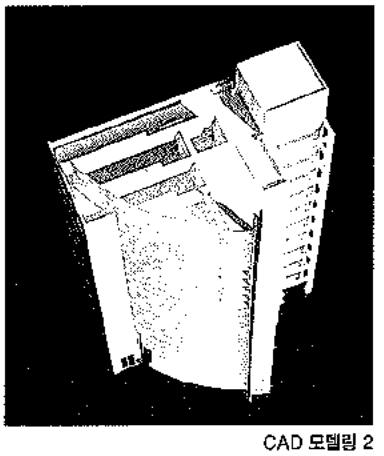
잠실175빌딩

Jamsil 175 Building

주영정 / 예조건축



CAD 모델링 1



CAD 모델링 2

위 치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75-9, 21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도시설계지구
대지면적	717.60㎡
건축면적	425.51㎡
연 면 적	4,667.96㎡
건 폐 율	59.30%
용 적 률	509.92%
규 모	지하2층, 지상10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43.90m
층 고	3.6m
주요설비	중앙 냉·난방식
주요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외부마감	지정 THK30 화강석, 지정 THK18 컬러복층유리
내부마감	천정/암면흡음텍스, 벽/지정색 인코트스프레이, 바닥/디럭스 타일
주차대수	48대
조경면적	114.10㎡
설계담당	김귀현, 송문호, 소병권
설계기간	96. 09~97. 01

계획을 하다보면 문뜩 떠오르는 내면의 질문(상업주의의 일상적이고도 보편적인 대중으로부터 건축물이 어떻게 보이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일인가 하는…)에 나름대로의 가식적인 대답으로 얼버무리려고 하나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 더욱 더 많은 지성과 건축적인 깨우침의 새벽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곤 한다. 대지는 재개발 논의가 한창인 잠실 주공아파트 1단지를 끼고 있는 올림픽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획일적이고도 단순한 회색의 APT단지와 신천역 주변의 소비문화의 끝자락의 모퉁이에 펼쳐지게 될 잠실 175빌딩은 거리를 오고 가는 이들의 무심한 시선에 뚜렷한 이미지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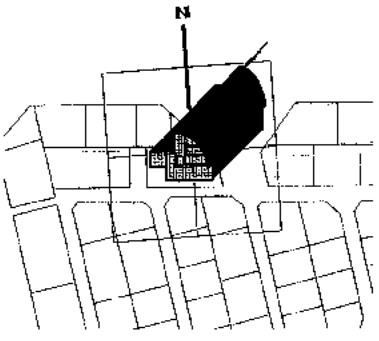
배치계획에 있어서는 후면 도로를 적극 활용하여 주차장을 대지의 후면 서측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보차동선을 유도하였다. 서측에 Core를 집중시켜 부정형의 대지에 정형의 업무공간과 충분한 Space를 확보하였다.

건물의 표현양식은 건물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외관을 단순하고 분명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인 Mass는 대지의 형태에 따른 정형적인 입방체에 원형의 피막을 결합하여 모퉁이 대지로서의 시각적인 약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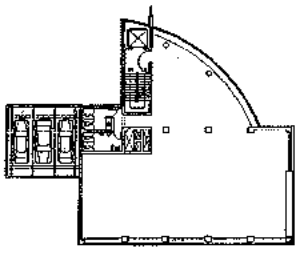
전체적인 입면은 밝은 회색의 자연석으로 치장된 정방형의 수직적인 볼륨, 도로를 따라 도는 Glass Skin 등 크게 두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정방형의 수직적 볼륨은 재료, Mass의 단절과 결합을 야기시키고 호를 그리는 Glass Skin은 태양광선의 이동에 따른 빛의 반사와 흡수, 굴곡은 Skin위에서 다양한 건물의 표정을 연출할 것이다. 피막을 가르고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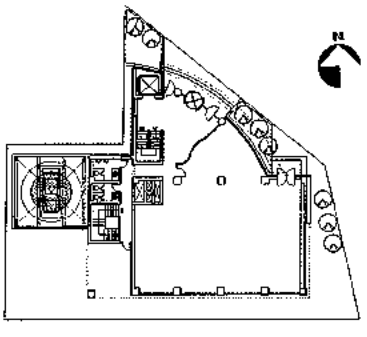
솟는 Tower와 상층부의 Set Back된 입면의 금속Frame은 분절과 변화를 시도하여 시각적 효과를 증가시키는 요소가 된다.

안정된 정방형 형태의 사용은 다이나믹한 반원의 호와 대조를 이루나 일반적인 재료(돌, 유리, 금속 등)들의 범위내에서 추구되는 형태로 새로운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건축적인 표현수단으로 작용한다. 회색의 Apt군으로 둘러싸인 복잡한 도시의 한켠에 가로의 지루함을 깨는 신선한 매개체(보다 건축적인 건축물로 대중에게 인식되는)로 생성되길 바란다. 〈글 : 주영정〉



배치도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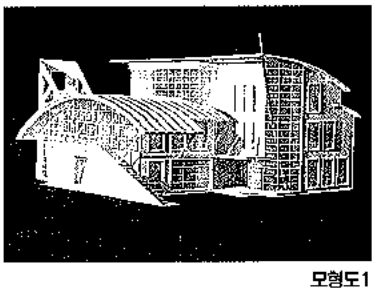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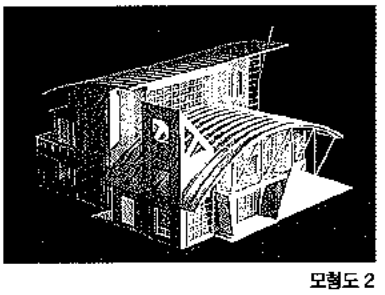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D & S 문화센터

David & Solomon Culture Center

주영정 / 예조건축


모형도1


모형도 2

위 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990
지역지구	전용주거지역, 도시설계지구
대지면적	937.80㎡
건축면적	403.32㎡
연 면 적	1,063.27㎡
건 폐 율	43.00%
용 적 률	87.57%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11.90m
주요설비	중앙 난방식+개별 패키지 방식
주요용도	근린생활시설
외부마감	THK30 인도사암, 하디사이딩 패널
내부마감	천정/Stn'stl Mesh 벽/본타일, 바닥/화강석물갈기
주차대수	10대
조경면적	46.89㎡
설계담당	김광진, 정미숙
건 축 주	김재홍
설계기간	96. 10~97. 01

이 계획안의 대지는 일산구청과 국립 암센터를 사이에 두고 주택군(群)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한 블럭에 위치하고 있다. 20m 전면 도로와 8m 소방도로가 교차하는 곳에 자리한 대지는 근린생활용지로 규제된 블럭으로 아직도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는 비교적 잘 정비된 곳이다.

대지는 도시설계에 의해 규제된 3m건축지정선으로 인해 건물이 후퇴되었으며 주차동선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출입구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건물과 주차공간이 분할되었고 주차공간과 인동선의 상호 심리적 인지를 위해 단차를 두어 공간을 구획하였다. 또한 동측면의 주 출입공간과 주차장 부지 사이의 잉여공간을 이용, 녹지를 조성하였고, 상징적 시계탑에 의해 이 대지의 영역성을 확보하였으며, 바닥 패턴은 원의 파장을 형상화하여 2층으로 직접 인입성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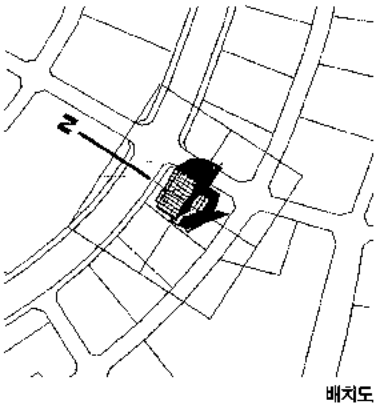
두개의 곡선이 서로 교차하여 높낮이를 달리한 지붕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시각적 무게중심의 보정을 더해주고, 커튼월로 이어지는 수직의 투명성으로의 연계를 잘 수용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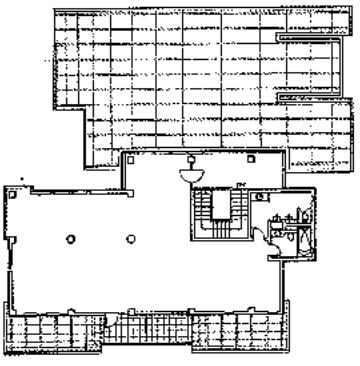
건물의 안정감을 더하기 위해 삼각형의 외부계단을 두었고, 그 사이를 구조체의 노출로 입면의 다양성을 부여 또 하나의 작은 공간을 형성케 하였다. 건물의 사각성을 위해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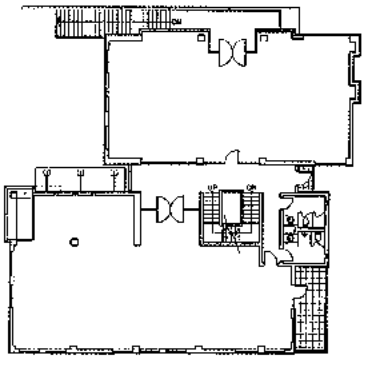
측면의 겹 지붕과 측벽의 창들도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패턴으로 전체적인 입면의 균형을 이루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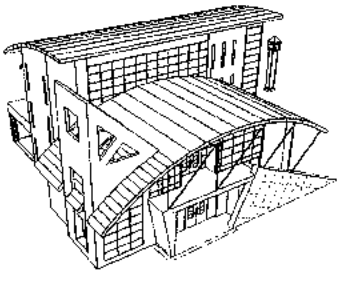
평면은 4.0m×4.0m 기본 모듈로 건물의 중앙에 Core를 두어 기능상의 간결성에 중점을 두었고, 외부에서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각 공간으로의 서비스 출입구를 계획, 이용자들의 동선을 최소화하였다. 지하층은 소극장으로 계획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세미나, 토론회, 바자회 등을 겸할 수 있는 Community Space로 활용, 1층의 카페와 레스토랑은 쉼터로서의 공간을, 2, 3층의 서점, 의원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편

익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의 장으로 계획되었다. 〈글 : 주영정〉


배치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성동구립 행응어린이의 집

Haengeung House for Children in Seongdong-gu

김인철 / 아르키움

모형

벽하나를 사이에 두고 도로와 마주하는 첫번째 마당

대지위치	서울시 성동구 행응동 341-45외 2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1,573㎡
연 면 적	414.45㎡
건축면적	317.25㎡
건 폐 율	26.40%
용 적 률	30.78%
규 모	지하 1층, 지상 1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4.05m
층 고	2.7m
주요설비	패널히팅
주요용도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내부마감	드라이비트(50㎜ 단열재)
주차대수	3대
조경면적	264.59㎡
설계담당	박병욱, 양만직
모 형	이종걸

왕십리에서 성수대교로 이어지는 고산자로와 독서당길이 만나는 언덕길에서 오른쪽 산비탈을 따라 오르면 아직도 옛 모습이 남아 있는 달동네가 있다. 이단기어로도 숨이차는 산자락길은 정점에 오르자마자 북동쪽으로 시야가 트이며 다시 가파른 비탈이 되어 시가지로 쏟아져 내린다. 잡목들에 지나지 않지만 다행스럽게도 숲이 남아있는 언덕받이 언저리에 어린이의 집을 위한 대지가 마련되어 있다. 전부터 행응동 어린이의 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낡은 건물을 치워내고 새집을 짓도록 성동구에서 계획을 마련하였다. 구에 등록된 설계자가 돌아가며 맡는 소규모 시설이지만 우연히도 재미있는 프로젝트에 차례가 왔다. 헐어내야할 옛집은 기능에만 충실한 채 한덩어리로 뭉쳐진 공간을 움켜쥐고 있는 완고한 모습이었다. 탁아소부터 유치원까지를 겸하는 자질한 기능들이 뒤범벅되어 옹색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짧고 단순한 동선, 낭비없는 공간활용의 정신에 충실한 나머지 아이들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마치 소도구처럼 취급되고 있었다. 최근에 손질된 이층 건물만 남기고 모두 비워지면 그래도 상당한 대지의 여유가 있을 공간이었다. 놀이기구를 운동장으로 옮기고 경사진 도로의 아래쪽에 주차장을 놓아 가능한 넓게 건축이 자리잡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단층으로도 충분한 규모를 만들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뒤 요구되는 기능들을 하나식 떼어놓는 것으로 생각을 시작하였다.

길게 그리고 넓게 퍼져 있는 공간은 사이사이가 비워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의 반복으로 하나이기도 하고 너댓개이기도 한 건축을 만들었다. 있음과 없음의 되풀이는 안과 밖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결국 안도 아니며 밖도 아닌 공간으로 만들어 질 것이다. 안과 밖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굳이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어딘가를 막기만 하면 된다. 규정된 형식이 있는것이 아니므로 그것들은 늘어날 수도 있으며 줄어들 수도 있다. 형식이 없으므로 형태도 없다.

입면이라 그려진 것은 구획에 지나지 않으며 평면이라 정해진 것 역시 영역의 설정일 뿐 고정된 것이 아니다. 가변성이라 말해지는 것보다 투명성의 의미를 생각한 것이다. 〈글 : 김인철〉

The Architectural Review

Domus

건축문화

A+U

신건축

The Architectural Review

97년 2월호

2월호에서는 건축에 있어서 역사의 문제를 재고하면서 과거 건축물들에 대한 보완과 증축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과거와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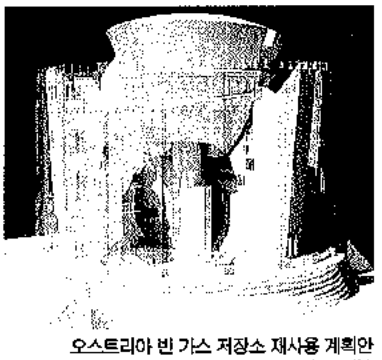
전통건축의 어휘에 대한 무분별한 도용이 난립하고 있는 시대에 옛 건축물들은 그 진위성을 통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옛 건축물은 시대적으로 실제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물리적으로 노화됨으로써 건축적인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그 용도와 구조를 변경, 보강하는 증축, 보수 개축이 이루어지는데 있어, 이러한 현대성이 과거와 절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각자의 뚜렷한 영역을 형성하는 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과거 건축에 대한 완전한 파괴와 더불어 섣부르고 어색한 증축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에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어진다.

▶ Reichen & Robert의 프랑스 누와실 네슬레 본부 증개축안

프랑스 누와실 네슬레본부 증개축안
(Reichen & Robert 作)

프랑스 마르네 라 발레의 누와실에 위치한, 벽돌과 철재로 지어진 옛 쵸코렛 공장은 산업혁명을 대표할 수 있는 건물로, Reichen & Robert에 의해 새로운 본부건물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네슬레 사로서는 아주 의미있는 일이다. 철재의 유기적인 사용에서 보이는 옛 건물의 흔적은 유리와 철재에 의한 기하학적인 증축 부분과 대조를 이루면서 품위와 속도감, 경제성을 두루 갖춘 건축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Eric Owen Moss의 오스트리아 빈 가스 저장소 재사용 계획안



오스트리아 빈 가스 저장소 재사용 계획안
(Eric Owen Moss 作)

Eric Owen Moss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옛 가스 저장소 내부에 다시 하나의 켜를 삽입함으로써 그것을 실용화시키는 다소 실험적인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기하학적인 원통의 옛 외관에 원추형의 뒤틀어진 볼륨을 삽입함으로써 둘 사이의 충돌과 상호 침투를 통해 그 재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 Bernard Quirot과 Olivier Vichard에 의해 수족관으로 다시 태어난 프랑스 베상콩에 있는 옛 요새, Claus and Kaan이 설계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주거 증축안, Louis Kloster의 노르웨이 예르 솔라 교회 증축안, 런던 OXO 타워에 대한 Lifschutz Davidson의 다용도 증축 등은 시대적으로 한정되는 옛 건축물들의 사용을 재생시키면서 옛 가치를 보존하는 좋은 예를 보여준다. 그 외에 독일 베를린 19세기 역 건물을 개조하여 현대 박물관을 설계한 Josef Paul Kleihues의 작품, Hubert-Jan Henket의 네덜란드 하렘 미술관 증축안이 소개되었다.

▶ 또한 파키스탄의 힌두 쿠쉬에 있는 요새 건물과 인근 지역의 위생 시설에 대한 자생적인 개축은, 고대 유적의 보존과 함께 21세기에도 실제적 삶이 이루어질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 미국 내쉬빌 오프리랜드에는 최근 델타라고 하는 실내 유원지가 생겨났는데, 거대한 유리 구조물 속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미시시피 강가의 전통적 건축물들은 그 실현 자체가 우스꽝스러우며 더욱이 자의적으로 해석된 고건축물들에 상업시설을 들여놓음으로써 그 유치함이 극에 다다르고 있다. 이와같은 개발이 향후 하나의 모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의 과거에 대한 이러한 유희적, 소극적 방안은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인테리어 디자인

▶ 스페인 마드리드의 국립 도서관 내부는 Jeronimo Junquera, Estanislao Pérez-Pita에 의해 옛 건물의 언어를 모사하지 않으려는 강한 기하학적 형태의 개축이 이루어짐으로써 활성화되었으며,

▶ 18세기 아담 형제에 의해 지어진 런던 Royal Society of Arts 대회의실은

수차례의 보수를 거쳤고 최근에는 John McAslan & Partners에 의해 현대적인 천장 구성이 부가되었다.

신재료 소개

다양한 조명기구들의 특징과 구입처가 소개되어 있다.

신간 건축도서 비평

〈루이스 멈포드와 미국 모더니즘〉, 〈리처드 마이어의 주택 작품들〉, 〈존 소운의 묘지와 기념물 작품들〉 등 신간 서적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비평이 수록되어 있다.

The Architectural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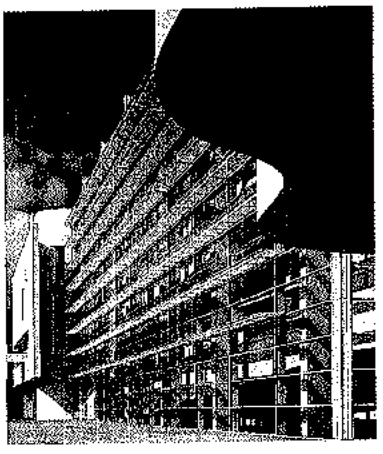
97년 3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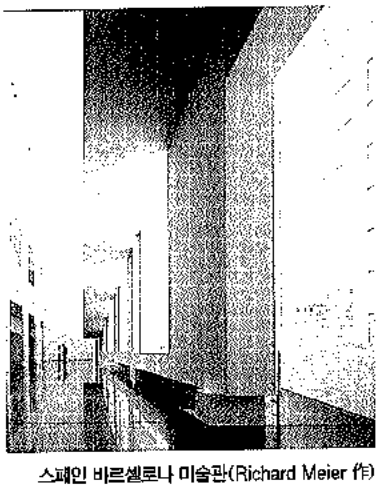
3월호의 테마는 「거대한 건축」으로, 근대 도시의 발달과 함께 활성화된 이들 건축물들을 통해 건축에 있어서 크기가 갖는 의미와 그 예들을 살펴보았다.

거대한 건축

고대 바벨탑의 건립 시도에서도 보이듯이 거대한 건물은 정치적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와 동시에 그것은 인간의 기술적 한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근대의 기술과 함께 출연한 마천루 건축 등이 그 좋은 예이며,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에 의해 주도되었던 대규모 사업의 일환인 라 데팡스나 국립도서관 등은 근래의 예라고 볼 수 있다.

도시의 크기와 인구수가 팽창하면서 거대한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건축물은 초인간적인 스케일로 인해 삭막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예가 많지만, 다음과 같은 적합한 디자인은 상업적이고 기능적이면서도 인간적 따뜻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스페인 비르셀로나 미술관(Richard Meier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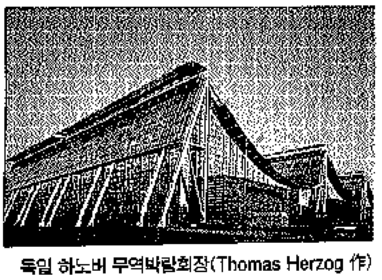
▶ Richard Meier의 스페인 바르셀로나 미술관

비르셀로나의 고밀도 지역에 완공된 바르셀로나 미술관은 이전의 Meier작품들이 가졌던 공간과 빛, 명확한 기하학적 구성이 또다시 성공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그 내부를 구성하는 다양한 언어들은 근대성의 현대적 적용의 좋은 예를 보여주면서 건물 전체의 크기와 분리된 다양한 스케일과 느낌의 공간들을 연출하고 있다.

▶ Thomas Herzog의 독일 하노버 무역 박람회장

엑스포 2000이 열릴 이 거대한 건물은 구조 기술에 바탕을 두면서도 그것에 종속되지 않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 Tadasu Ohe/Plantec의 일본 시가



독일 하노버 무역박람회장(Thomas Herzog 作)

환경과학연구소

전체 프로그램을 몇 개의 단위 건물로 나눈 후 그것들의 비정형적인 배치를 통해서 인간적인 느낌을 살려주는 연구 단지이다.

▶ Denton Corker Marshall이 오스트레일리아 멜보른에 세운 전시회관과 고층빌딩은 각각 기능과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수평, 수직성이 강조된 작품들이며, 스웨덴의 고덴베르크에 있는 Niels Torp Arkitekter의 버스 터미널은 보통 차갑고 그리 유쾌하지 못한 느낌을 주는 거대한 터미널의 문제를 구조 자체의 미적 효과를 통해 현대적으로 해결된 예이다. Matthew Priestman Architects + Boje Lundgaard & Lene Tranberg의 덴마크 코펜하겐 자료 보관소는 전체의 매스를 구축하는 면과 기능적인 볼륨을 분리시켜 주고 있으며, Norindar-Hamzah-Yeang Architectural Engineering Design의 중국 상해 타워는 거대 건축물에 자연환경을 도입하는 실험적인 작품이다.

▶ 여기에 반해 말레이지아 쿠알라 룸퍼에서 완공단계에 있는 Caesar Pelli의 쌍둥이 오피스 타워는 지역적 맥락에 전혀 맞지 않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의문이다) 건물로 기록될 것이기는 하지만, 평면에서 보이는 원과 사각형의 조합들은 이슬람교의 아라베스크 무늬에서 온 것이며, 입면에 차양을 첨가하여 지역 기후에 적합하다는 식의 피상적인 설계 자세는 매우 안이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인테리어 디자인

▶ 런던의 한 오래된 창고를 예술가의 작업 전시실 및 생활공간으로 개조한 John Pawson의 설계는 백색면과 나무

재료를 활용하여 작품의 전시에 알맞는 밝은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 런던의 창고를 개조한 또하나의 예인 Brookes Stacey Randall Fursdon의 설계는 반대로 철재, 유리 등 가벼운 재료를 통해 자연광이 가득찬 역동적인 다락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신재료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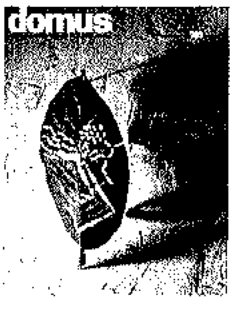
근래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들의 외장 재료들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신간 건축도서 비평

〈건축과 조경〉, 〈19세기의 건축〉, 〈할리우드로부터 배우기〉, 〈근대의 역 건축〉 등 신간에 대한 비평이 개재되어 있다.

Domus

97년 1월호



올해의 첫 호에서 DOMUS 는 지구 환경 보존의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재생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재생이 갖는 전반적인 의미 및 의의와 더불어, 건축에 있어서의 재생과 모범적인 예들, 기타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재생적 활동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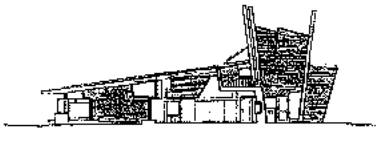
재생

재생이라는 개념은 지구의 생태 보존이라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며 인류학적 고찰과 함께 인간과 그 주변환경의 상호 관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재생이 가능한 디자인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진보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균형이 요구되어지며, 그것은 후기 산업사회에서 미학이라는 분야를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생은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포기나 단절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갖는 정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프로젝트

근대건축은 도시적 형태를 통해서 건축의 문제들을 해결하였으나, 전통과 관습과의 단절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옛 가치를 재생시켜 사용할 수 있는 건축이 요구되어지며, 그것은 극단적인 상징적 의미를 갖는 다음의 개별적인 건축물에 의해 촉진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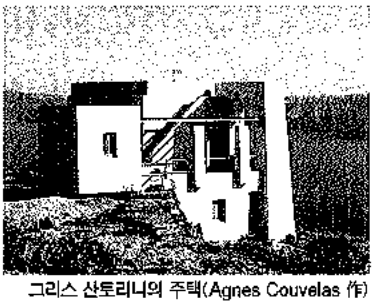
▶ 브리티쉬 콜롬비아에 있는 Patkau Architects의 스트로베리 베일 학교는 철재, 유리와 더불어 목재를 사용하여 다소 무질서해 보이는 배치 형태를 만들어냄으로서, 도시와는 전혀 다른 주위의 불규칙적인 자연 경관과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콜롬비아 스트로베리 베일 학교 (Patkau Architects 作)

▶ 농장이라는 건물은 이전 시대의 형태를 그냥 답습하거나 산업화된 농업을 위장시키도록 자연적인 느낌이 나도록 설계되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루스테나우에 있는 Roland Gnaiger의 농장은 대지 환경에 부응하는 재료와 형태를 사용하면서 노동, 동물들과의 관계, 공동작업 등의 사항들도 디자인에 반영시키고 있다.

▶ 그리스 산토리니에 있는 Agnes Couvelas의 주택 설계는 고대 유적과 그것을 관광 산업에 이용하는 국가 정책에 의해 이중의 제한을 받는 그리스의 상황에서, 자연 조건에 부응하는 형태 디자인이라는 중심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입방체들의 상호 교차라는 독특한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스 산토리니의 주택(Agnes Couvelas 作)

▶ 독일 메트만에 있는 Günter Zamp Kelp의 네안데르탈 박물관은 재생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의 튜브가 둘러져 쌓여있는 단일한 형태로, 인류역사 발전과 그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벤트

▶ 1996년 여름 뉴욕 휘트니 미술관에서는 1900-1960년대의 뉴욕에 대한 사진 작가들의 사진, 판화, 회화와 영화들이 전시되었다. '뉴욕, 뉴욕, 욕망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열렸던 이 전시회는 그 자체가 하나의 팝아트였던 뉴욕의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시간과 패션"이라는 부제가 붙은 '96 비엔날레에서는 고건축의 이미지가 강한 피렌체의 곳곳에 있는 미술관들에 현대적인 설치 미술들이 전시되어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었다.

기타

그 외에 ▶ Ezio Manzini, Jacqueline Aloisi de Larderel, Kapyla Vatsyayan 등의 재생 개념에 대한 다양한 에세이 ▶ 자동차 산업에서 나타나는 재생 개념 ▶ 반대로 자동차 없는 삶을 지향하는 브레멘의 모델 ▶ 재생 용품으로부터 제작된 일상 용품들 ▶ 밀라노의 예술 단체 Branco에서 제작한 폐품 활용

오브제들 ▶ 장갑으로 기이한 작품세계를 창출하여 국제적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 한국의 미술가 정경연 ▶ 건축과 주위 환경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두 개의 상이한 프로그램을 수용한 포루투갈의 Maria João Lima 데뷔작품 ▶ 재생에 적합한 건축재료들의 목록 ▶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등 남미지역에 분포된 성지의 위치와 간략한 소개 ▶ 〈자연친화적 건축〉, 〈Ludwig Wittgenstein의 건축〉, 〈유치원 설계〉 등 저서에 대한 비평이 수록되어 있다.

건축문화

97년 4월호

이번호에서는 작품 특집으로는 長岡文化創造포럼(오까베 노리아끼), 유유후루사또 회관(아라이 치아끼), 토토로 유치원(고베야시 쿠츠히로), 大阪돔(日建設計), 東京오페라 시티 빌딩(東京오페라 시티 설계공동기업체) 등이 소개되었으며, 특집으로는 아라카와 슈사꾸와 Madeline Gins의 '건축혁명'이 다루어져 그들의 도시계획 프로젝트와 작품 2점이 소개되었다.

특집

아라카와 슈사꾸와 Madline Gins의 건축혁명 - 이들의 모티프는 '身體'와 '知覺'이다. 이들은 기존의 건축이란 무엇인가에대한 물음(건축론)에서 인간존재라는 것에 그 사고의 뿌리가 있음을 지적, 그들은 건축에 있어서 순수한 입장을 취하면서 기존의 존재론적 입장의 건축에 대한 해석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들은 논리적 접근을 시도하며 그들만의 '존재론'과 그들만의 '건축'을 사용하여 그들만의 것을 실현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사람은 이미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며 건축은 사람과 별개의 것으로 존재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사람과 건축은 주체-객체의 관계가 아닌 주체-객체 미분의 상황인 것이다.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나가듯이 환경도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 Critical Resemblances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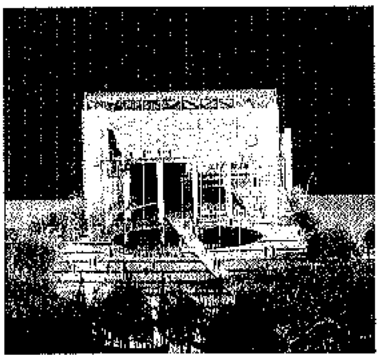
이 집은 먼저 여러개의 입구를 갖는다. 벽면은 평면(일반적인 주택의 프로그램을 지칭)에 선행하고 있다. 벽면들은 미궁과 같은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2층은 각이진 형태로, 1층과 지하층은 곡선의 벽들이 미궁을 형성하여 서로 어긋나고 있다. 거실에서 식당까지 가는 데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집 전체를 다 돌아보는데-길을 잃는다면-하루가 걸릴 지도 모른다. 집안에 놓여진 가구들은 벽들이 관통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쓸모를 상실하게 하고 있다. 부엌과 화장실의 구분과는 상관없이 벽이 지나가고 있으며 따라서 부엌과 화장실은 서로 부분적으로 같은 공간에 놓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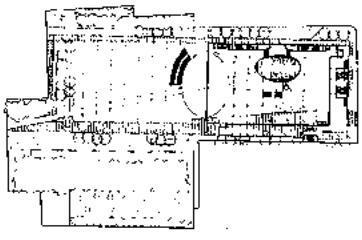
집은 집 자체로 주인이 되고 있다. 이 집은 작가가 말하고 있는 '신체'를 획득하게 된 것이며 원래의 주인이었던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작품특집

▶ 長岡(나가오까)文化創造포럼 (오까베 노리아끼 설계)

이 도시 재개발 계획은 옛날 나가오까城이 있던 사이트에 계획되어졌다. 21세기의 나가오까의 문화의 중심지로서 계획되어진 이 시설은 다양한 문화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작가는 '창'과 같은 건물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외부와 내부가 침투하는 공간을 통해 건물이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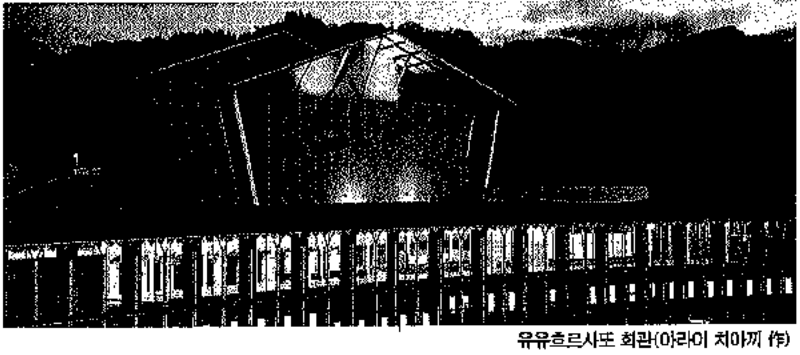
長岡 文化創造 포럼(오까베 노리아끼 作)

가 쉽고 사용하기 쉬우며 들어서기 편안한 것이 되길 원했다고 하고 있다.

작품의 구성은 컨벤션룸, 교류 로비, 정보프라자 등을 포함하는 최하단부인 기단부와 그 위로, 영상 써어터, 미팅그룹, 커뮤니케이션룸등이 구성된 CONE, 멀티 FOYER, 시민 홀인 떠있는 볼륨이 차례로 포개어지며 이것들을 외피가 감싸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 유유후루사또 회관 (아라이 치아끼 설계)

작가는 자신의 건물을 mediation으로 이름지었다. 이 프로젝트는 주변 7개 마을이 공동으로 건축에 참여하는 일본에서는 보기드문 경우이다. 작가는 이 건물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뿐 아니라 여러 마을 공동의 것으로서 mediation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유유후루사또 회관(아라이 치아끼 作)

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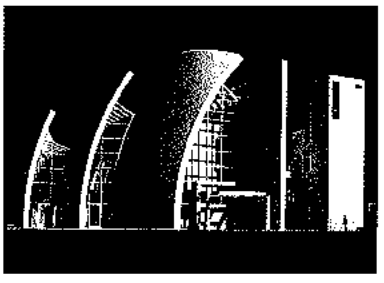
97년 4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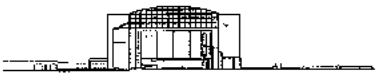
이번호에서는 주로 채플 및 교회, 주거 건축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소개된 작가들과 그 작품들은 Christian Kerez, Rudolf Fontana의 Chaple과 mortuary, Matti Sanaksenaho의 The Chaple과 Turku, Richard Meier의 The Church of the Year 2000, Marc Barani의 Saint Pancrace Cemetery Extentiond이며, 주거를 다룬 작가들로 Annette Gigon & Mike Guyer의 3명의 작가와 그들의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에세이로는 Peter Lizon의 "mies Imperative: A Total Design Villa Tugendhat in Bruno is Open to Public"이 소개되었다.

▶ Richard Meier의 Church of the Year 2000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뉴욕의 아키텍처럴 리그에서 '2000년의 교회' 컴페티션展이 열려졌다. 로마 교회구의 제공으로 열려진 '2000년의 교회' 지명 설계경기에 출품작이 전시된 이 전시회에는 6명의 건축가, 안도타다오, Günter Behnisch, Santiago Calatrava, Peter Eisenman, Frank O. Gehry, 그리고 Richard Meier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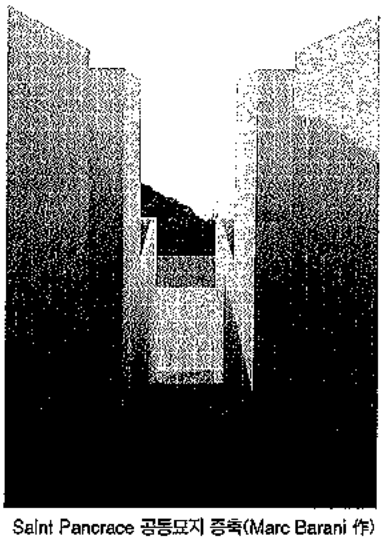
이 설계경기에서 1등을 한 Meier의 안은 기하학적 형태를 조합하여 2개의 주요한 프로그램인 교회와 커뮤니티센터를 병치하고 각각에 특징적인 공간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전체로는 균형잡힌 비례를 보여주고 있다. 교회부분에는 구의 파편을 세 겹으로 조합하므로써 삼위일체를 나타내고 있다. 커뮤니티 시설이나 배면에 배치된 연못을 포함하는 이 계획안은 기독교의 메타포로 구성되어 있다. 거대한 셀로 구성된 네이브는 빛으로 충만하여 수직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신성한 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2000년의 교회(리처드 마이어 作)

▶ Marc Barani의 Saint Pancrace Cemetery Extension



Saint Pancrace 공동묘지 증축(Marc Barani 作)

Saint Pancrace 공동묘지의 증축인 이 작품은 4개의 테마를 갖는다. 작가들의 바램은 우리의 운명에 대한 질문이 더져지는 죽음을 위한 현대적 장소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의 테마는 자연과 죽음에 대한 상징적 관계, 내세를 상기시키기 위해 정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 죽음의 존재를 강조하기 위해 현대의 기계적인 표현을 변형시킬 수 있는 개성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 생과 사의 공간을 대비시키는 데 있어서 주변의 자연경관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 Annette Gigon & Mike Guyer의 Bro Iberg 집합주택 (스위스 취리히 근교, 1990-1996)

포디움을 갖는 이 계획은 포디움에 半私的인 공간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하부분이 공동의 주차장인 이 포디움은 3개의 독립된 동들을 연결시키고 있으며 마련된 半私的인 공간은 합판으로 만들어져 개개의 주호에 할당되고 있다.

▶ Marc Mimram의 20 Residence - 72Boulevard Barbes in Paris (프랑스 파리, 1995)

작가는 '파사드의 해부학'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파사드의 창들은 레일이 설치되어 수직으로 움직이는 석재로 된 덮개에 의해 개폐된다. 각 주호에 있어 각기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될 이 석재덮개는 전체적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건물의 표정을 만들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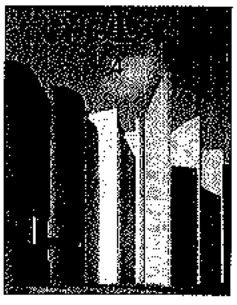
▶ Matti Sanaksenaho의 The Chaple (핀란드 Turku, 1995-)

그의 의도는 커다란 조각품을 만들어내고 작은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작가의 청록색의 작품 모형을 보고있노라면 미니멀리스트의 작품이 연상된다.

채플의 형태는 예술로서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목사의 설교는 예배당의 알레고리인 것이다. 즉 모든 것이 말해지지 않고 상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신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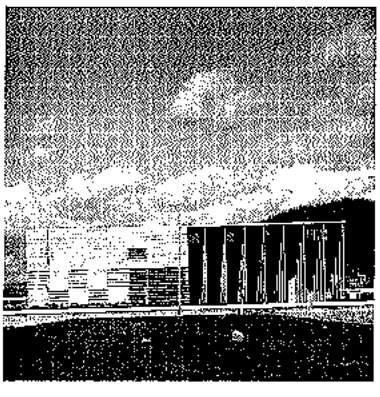
97년 4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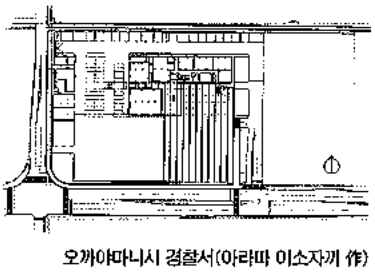


이번호에서는 작품으로는 岡山西(오까야마니시)경찰서(아라따 이소자끼 설계), 카즈사 아카데미홀(사카구라 건축연구소 설계), 건축문화에도 소개된 아라카와 슈사꾸의 작품 및 유유 후루사또회관, 東京오페라시티 빌딩 등 5개의 작품을 포함한 17개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건축논단에서는 '和風을 생각한다'가, 특별기사로는 '기억의 좌표' - 神戶異人館수복계획이 게재되었다.

작품

▶ 오까야마니시 경찰서 (아라따 이소자끼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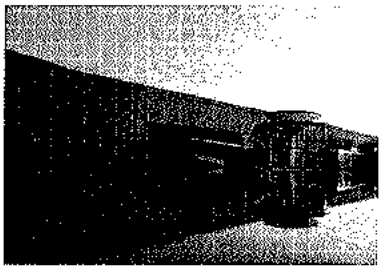
오까야마니시 경찰서(아라따 이소자끼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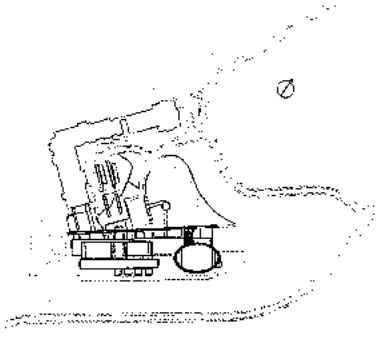
허와 실의 2분법적 공간구성을 보이고 있는 이 작품은 열주로된 필로티와 그 배면의 아연합금판으로 마감된 박스형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된 작품의 구성법은 '흐름'과 '절단'의 수법으로, 2분법적 구상이다.

▶ 카즈사 아카데미홀 (사카구라 건축연구소 설계)

작가는 초월론적 기능을 언급하면서 이 기능이 각 빌딩타입을 나누게 하는 根底가 된다고 하고 있다. 이 기능이 되는 것들을 가시화시키기 위해 각 기능공간을 조형적으로 분절화시키고 그 연관관계를 가시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19세기 말 이래로 이루어진 기능주의의 도식을 역전하는 구도인 '기능은 형태를 따른다'를 실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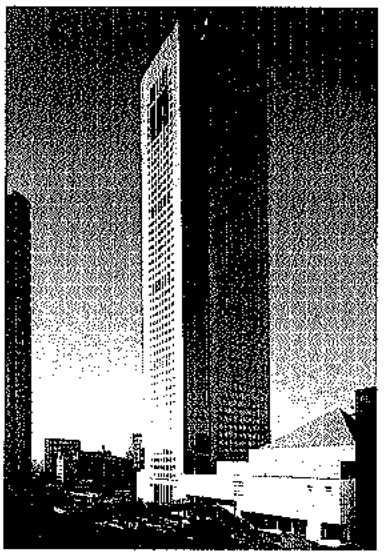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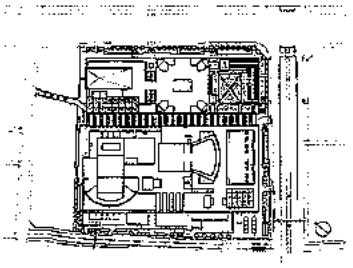


사카구라 아카데미홀(사카구라 건축연구소 설계)

▶ 東京오페라시티 빌딩 (東京오페라시티 설계공동기업체 설계)

지상 54층의 고층동을 중앙에 배치하고 그 북측에 콘서트 홀, 남측으로는 썬큰가든과 아트 뮤지엄이 위치한다. 고층동은 18, 28, 38, 48층에 2개층 분의 층고를 갖는 스카이 로비를 두어 외관에는 리듬을 주고 있다. 콘서트 홀의 천정은 변형된 피라밋형으로 톱 라이트가 설치되어 있다. 벽면과 천정 모두 오크로 마감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동경 오페라시티 빌딩

특별기사

▶ '기억의 좌표' - 神戶異人館수복계획 (이루까 설계집단 설계)

일본의 北野 · 山本지구는 도시경관형성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본에 전국적으로 알려진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역이다. 이곳에 형성되어있는 異人館街는 1858년 구미 5개국과의 수호조약 이후로 형성된 외국인 주거지역이다. 본 기사는 1995년의 대지진후 파괴된 異人館들의 수복작업들을 다루고 있다.

TOKIO 계획 1997

▶ Project-04 ONE ROOM SKYSCRAPER

사람과 도시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건축으로서 구상된 One Room Skyscraper는 20세기의 스카이스크레이퍼가 만들어낸 균질한 도시풍경을 변화시킨다. 내부는 미궁도시와 같은 구조로 복잡한 사람들의 네트워크의 집단을 가능하게 한다. 정보도시에 대응하는 개인을 위한 새로운 빌딩타입인 것이다.

〈번역 : 최원준, 강상훈〉

설계도서신고현황

97년도 3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3월분 1천1백9만9천7백2㎡ 보다 8.5%(9십4만7천8백22㎡) 증가한 1천2백4만7천5백24㎡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3월누계 2천6백9십6만6천2백71㎡ 보다 1.0%(2십8만1천6백14㎡) 증가한 2천7백2십4만7천8백85㎡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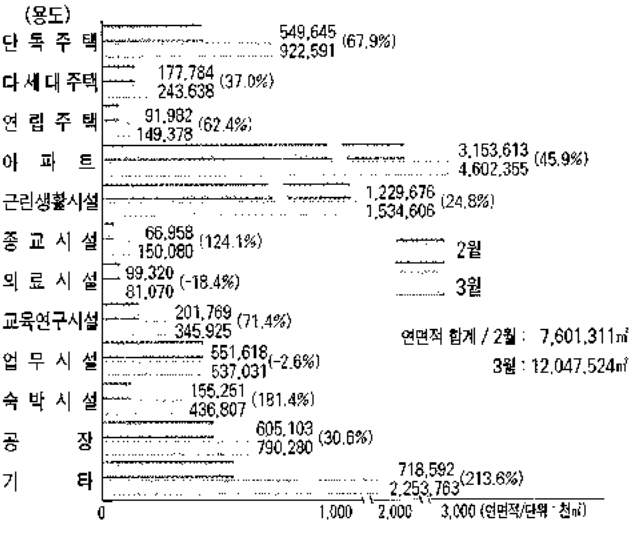
전월 2월분 7백6십만 1천3백11㎡보다 58.5% (4백4십4만6천2백13㎡) 증가한 1천2백4만7천5백24㎡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6년도	1997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부 산	1,008,249	1,654,405	646,156	64.1
	대 구	683,427	694,023	10,596	1.6
	인 천	336,006	510,964	174,958	52.1
	대 전	131,344	139,756	8,412	6.4
	경 기	1,067,838	1,454,575	386,737	36.2
	강 원	166,059	198,785	32,726	19.7
	충 북	325,565	430,304	104,739	32.2
	충 남	195,964	208,251	12,287	6.3
	경 남	589,789	1,155,111	565,322	95.9
	제 주	47,536	56,889	9,353	19.7
감소지역	서 울	5,491,139	4,981,282	(509,857)	-9.3
	광 주	351,522	93,618	(257,904)	-73.4
	전 북	184,142	164,894	(19,248)	-10.5
	전 남	191,939	111,781	(80,158)	-41.8
	경 북	329,183	192,886	(136,297)	-41.4
합 계		11,099,702	12,047,524	947,822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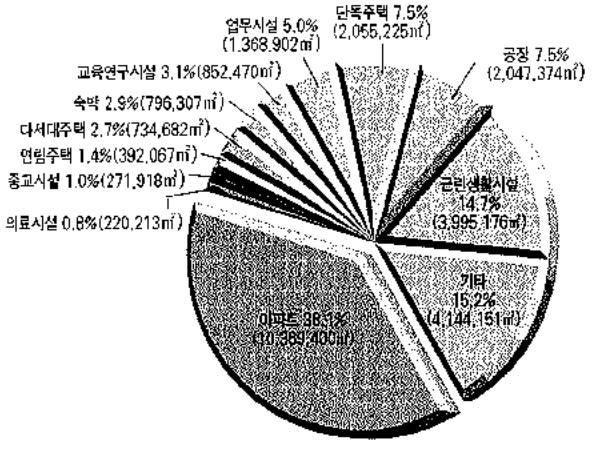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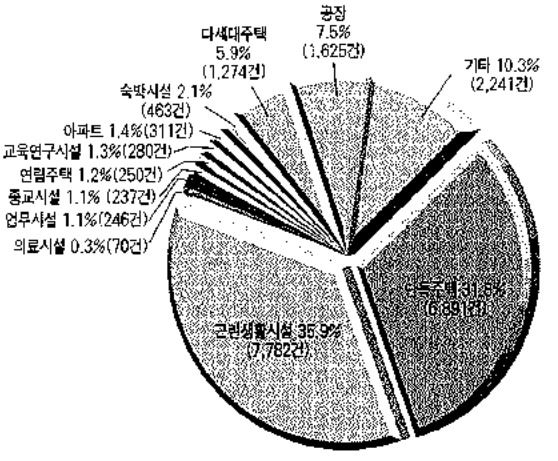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3월분)

구분 / 용도	1996년 건 수	1996년 동 수	1996년 연면적	1997년 건 수	1997년 동 수	1997년 연면적	대비 건 수	대비 동 수	대비 연면적	연면적 비율(%)	비 고
단 독 주 택	3,868	3,964	1,024,356	3,144	3,232	922,591	(724)	(732)	(101,765)	-9.9	
다세대주택	633	677	371,651	424	439	243,638	(209)	(238)	(128,013)	-34.4	
연 립 주 택	86	87	134,030	107	123	149,378	21	36	15,348	11.5	
아 파 트	135	303	4,218,230	125	293	4,602,355	(10)	(10)	384,125	9.1	
근린생활시설	3,699	3,910	1,754,667	3,295	3,390	1,534,606	(404)	(520)	(220,061)	-12.5	
종 교 시 설	108	118	97,449	97	115	150,080	(11)	(3)	52,631	54.0	
의 료 시 설	30	32	61,139	33	36	81,070	3	4	19,931	32.6	
교육연구시설	101	114	269,542	94	100	345,925	(7)	(14)	76,383	28.3	
업 무 시 설	94	96	335,990	103	104	537,031	9	8	201,041	59.8	
숙 박 시 설	149	163	127,259	183	182	436,807	34	19	309,548	243.2	
공 장	684	911	967,786	619	817	790,280	(65)	(94)	(177,506)	-18.3	
가 타	945	1,120	1,737,603	871	990	2,253,763	(74)	(130)	516,160	29.7	
합 계	10,532	11,495	11,099,702	9,095	9,821	12,047,524	(1,437)	(1,674)	947,822	8.5	( )=마이너스

용도별 구성비(1997년 3월누계)



연면적 (총 27,247,885㎡)



건수 (총 21,670건)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3월분)

구분 / 건축사회	1996년			1997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2,136	2,143	5,491,139	1,401	1,407	4,981,282	(735)	(736)	(509,857)	-9.3	
부 산	888	1,184	1,008,249	402	646	1,654,405	(486)	(538)	646,156	64.1	
대 구	1,011	1,012	683,427	579	579	694,023	(432)	(433)	10,596	1.6	
인 천	282	288	336,006	260	260	510,964	(22)	(28)	174,958	52.1	
광 주	599	659	351,522	162	199	93,618	(437)	(460)	(257,904)	-73.4	
대 전	248	248	131,344	304	305	139,756	56	57	8,412	6.4	
경 기	1,755	1,898	1,067,838	2,008	2,251	1,454,575	253	353	386,737	36.2	
강 원	496	540	166,059	566	588	198,785	70	48	32,726	19.7	
충 북	431	473	325,565	568	648	430,304	137	175	104,739	32.2	
충 남	357	431	195,964	401	297	208,251	44	(134)	12,287	6.3	
전 북	232	232	184,142	241	241	164,894	9	9	(19,248)	-10.5	
전 남	373	404	191,939	327	343	111,781	(46)	(61)	(80,158)	-41.8	
경 북	504	619	329,183	479	510	192,886	(25)	(109)	(136,297)	-41.4	
경 남	1,089	1,218	589,789	1,238	1,378	1,155,111	149	160	565,322	95.9	
제 주	131	146	47,536	159	169	56,889	28	23	9,353	19.7	
합 계	10,532	11,495	11,099,702	9,095	9,821	12,047,524	(1,437)	(1,674)	947,822	8.5	(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3월분)

구분 / 건축사회	1996년			1997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5,263	5,277	12,967,153	4,144	4,182	11,847,384	(1,119)	(1,095)	(1,119,769)	-8.6	
부 산	2,014	2,707	2,431,094	1,507	2,201	3,176,021	(507)	(506)	744,927	30.6	
대 구	2,839	2,881	2,089,483	1,256	1,257	1,659,621	(1,583)	(1,624)	(429,862)	-20.6	
인 천	761	775	809,821	827	846	1,460,855	66	71	651,034	80.4	
광 주	1,005	1,174	714,221	911	1,016	575,779	(94)	(158)	(138,442)	-19.4	
대 전	517	517	296,735	629	641	316,042	112	124	19,307	6.5	
경 기	4,173	4,551	2,888,427	4,134	4,662	2,853,869	(39)	111	(34,558)	-1.2	
강 원	1,018	1,092	318,397	1,078	1,152	383,771	60	60	65,374	20.5	
충 북	936	1,067	625,711	1,137	1,383	921,155	201	316	295,444	47.2	
충 남	698	718	523,772	923	700	603,836	225	(18)	80,064	15.3	
전 북	500	502	478,267	450	450	399,224	(50)	(52)	(79,043)	-16.5	
전 남	923	1,018	451,279	764	828	326,915	(159)	(190)	(124,364)	-27.6	
경 북	1,070	1,401	649,273	1,054	1,175	479,594	(16)	(226)	(169,679)	-26.1	
경 남	2,545	2,897	1,588,216	2,503	2,834	2,091,778	(42)	(63)	503,562	31.7	
제 주	303	328	134,422	353	382	152,041	50	54	17,619	13.1	
합 계	24,565	26,905	26,966,271	21,670	23,709	27,247,885	(2,895)	(3,196)	281,614	1.0	( )=마이너스

신입회원 entrant

〈'97. 3. 1~3. 31 기준〉

강성영:1959년생/광주대/(주)동은건축사사무소/423-1043/대구시 중구 동인3가 289-1

강희병:1950년생/(주)성일종합건축사사무소/553-9305/강남구 역삼동 654-3 프라자빌딩 8층

곽선신:1957년생/국민대/(주)이래종합건축사사무소/3453-036/강남구 역삼동 831-42 오성빌딩 607호

권중곤:1966년생/전북대/건축사사무소 그린/226-0004/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659

길기주:1957년생/대림공전/대흥건축사사무소/82-1354/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36

김 곤:1956년생/광주대/선택건축사사무소/512-6900/광주시 북구 중흥동 657-9

김기대:1961년생/계명대/미성건축사사무소/753-9727/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80-5

김남제:수원공전/건축사사무소 거산건축/375-8001/경기도 오산시 원동 754-41

김동수:1962년생/동의대/항도종합건축사사무소/467-2888/부산시 중구 대창동1가 23 동남빌딩 4층

김병엽:1958년생/연세대 대학원/이방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564-6847/강남구 역삼동 784-13

김석호:1960년생/조선대/(주)서진 종합건축사사무소/374-1013/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380

김양기:1954년생/코스모 건축사사무소/251-9873/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363-5 운성빌딩 3층

김영수:1960년생/영남대/강남 건축사사무소/561-5005/대구시 서구 내당1동 219-12

김영조:1959년생/고려대/건축사사무소 제트/675-5901/영등포구 당산동 1가 107번지 2층

김오곤:1961년생/가람 건축사사무소/566-4320/강남구 역삼동 643-12

김용두:1961년생/전문대/건축사사무소 용건축/585-6828/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723-5

김인배:1960년생/대구대/윤인건축사사무소/422-5914/대구시 중구 대봉동 24-44 4층

김재우:1963년생/조선대/태경건축사사무소/524-2135/광주시 북구 중흥동 693-13

김재한:1961년생/동의대/고도건축사사무소/81-6351/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13-4

김재호:1964년생/고려대 대학원/민경식 건축사사무소/739-6615/종로구 팔판동 88

김종태:1963년생/전북대/H건축사사무소/225-5067/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628-5 태안빌딩

김진회:1964년생/한양대/건축사사무소 영상/325-3001/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3 우신빌딩 602

김현호:1961년생/서울대 대학원/(주)하우드 도시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3452-694/강남구 역삼동 773-6 백신빌딩 6층

나성규:1961년생/홍익대/(주)위건축사사무소/435-5451/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11-2

나철호:1954년생/경희대/나임건축사사무소/453-7272/광진구 광장동 517-5

남동우:1964년생/청주대/(주)태종합기단 건축사사무소/424-1115/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11-10

도대현:1964년생/부경대/건축사사무소 세계/864-5785/부산시 부산진구 양정2동 271-7 19/1

민영진:1953년생/한양대/(주)예 종합건축사사무소/569-8800/강남구 역삼동 834-26 예빌딩

박강례:1966년생/동국대/(주)다운건축사사무소/567-8241/강남구 역삼동 798-18

박선안:1955년생/선안건축사사무소/864-8929/금천구 독산동 287-7 홍원빌딩 504

박석찬:1962년생/새한 건축사사무소/42-3868/경남 마산시 합포구 장군동4가 26-26

박용호:1963년생/전남대/(주)건축사사무소 우성건축/525-0544/광주시 북구 신안동 14-2

박장현:1961년생/충북대/태원건축사사무소/66-2277/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1052

박재숙:1967년생/전남대 대학원/가가건축사사무소/61-6333/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탄리 35-30

박재진:1963년생/영남대/건축사사무소 감솔/744-2124/대구시 동구 신천4동 296-11

박정균:1963년생/전북대/(주)청전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488-0001/대전시 서구 탄방동 690

박종률:1960년생/경기대/정일건축사사무소/224-7900/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58

박환수:1960년생/영남대/유영건축사사무소/253-6080/대구시 수성구 중동 575-1

서금홍:1969년생/동아대/건축사사무소 홍/415-1590/부산시 영도구 청학1동 354-11

신경훈:1968년생/영남대/선재건축사사무소/742-9171/대구시 동구 신천3동 137-4 삼화빌딩 3층

심태영:1959년생/홍익공전/건축사사무소 모임/952-9566/노원구 상계동 707-1

안영도:1962년생/순천공전/(주)에이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694-2542/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39-13, 14

엄순호:1962년생/동아대/건축사사무소 움터/25-0361/경남 김해시 부원동 609-9

여두홍:1959년생/경남대/삼우 건축사사무소/99-8994/경남 창원시 팔용동 149-11

오병순:1957년생/서울산업대/(주)화인건축사사무소/82-7766/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47-3

오상욱:1965년생/건국대/(주)대영사그룹건축사사무소/278-3011/중구 충무로3가 60-1 극동빌딩 2104호

오진록:1941년생/전북대/(주)이주건축사사무소/753-0335/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78

오진식:1963년생/충남대/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523-7300/대전시 서구 갈마동 338-5

용길중:1960년생/강원대/(주)인선건축사사무소/508-5455/강남구 삼성동 160-22 영풍빌딩 3층

우종환:1959년생/목원대/(주)이렌테크 건축

사사무소/579-9652/서초구 양재동 249-4 성림빌딩

유승덕:1953년생/중앙대/유건축사사무소/764-3700/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290-19

윤계환:1962년생/울산대/아람건축사사무소/667-6123/충남 서산시 읍내동 92-6

윤석기:1956년생/인덕공전/가람건축사사무소/81-6000/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1리 487-1

윤종환:1965년생/전북대/건축사사무소 미건사/254-6344/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320-13

이강우:1960년생/서울대 대학원/전인건축사사무소/548-1334/강남구 논현동 231-4

이강욱:1959년생/경남공전/(주)대경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57-4204/경남 진주시 가좌동 697-5

이무상:1964년생/인하대 대학원/우영건축사사무소/968-4477/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3-3

이아영:1964년생/서울대 대학원/건축사사무소 하나/501-9071/강남구 역삼동 682-17 하나빌딩 3층

이영민:1959년생/건국대/이영민건축사사무소/53-4455/경북 안동시 화성동 122-5

이영종:1963년생/홍익대/예원종합건축사사무소/594-9935/서초구 방배동 820-1 호영빌딩 6층

이은경:1963년생/국민대/(주)참우 건축사사무소/606-9662/양천구 신정5동 891-12

이지연:1962년생/대림공전/대우 종합건축사사무소/758-6533/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04-28

이한섭:1963년생/광주대/건축사사무소 지석/3272-125/용산구 청파동3가 132-126 지영시티텔 201

임동석:1962년생/안양공전/삼우건축사사무소/46-0020/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3771

임순호:1959년생/건국대 대학원/금호건축사사무소/224-1992/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640-4

임정구:1959년생/조선대/신세기건축사사무소/222-5860/광주시 동구 동명동 78-1

임주곤:1961년생/경남공전/일오건축사사무소/66-4483/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2동 650-4

임형묵:1955년생/건국대 대학원/임형건축사사무소/549-3841/강남구 논현동 212-2 진빌딩 303

장영덕:1957년생/연세대 대학원/(주)세대월드건축사사무소/552-9590/강남구 역삼동 799-10 세광빌딩 4층

장용석:1959년생/건국대/건축사사무소 하나/582-6360/서초구 방배2동 467-11

전재일:1962년생/인덕공전/건축사사무소 공간문화/980-8664/강북구 미아4동 54-88

전재헌:1966년생/목원대/해살짓기 건축사사무소/584-8283/대전시 중구 문화2동 668-66

정경호:1964년생/영남대/판 건축사사무소/763-8552/대구시 수성구 상동 6-5

정순구:1964년생/목원대/다일건축사사무소/489-4253/강동구 성내동 559번지 202

정이환:1960년생/경일대/대가야건축사사무소/954-2211/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211-15

정종민:1959년생/순천공전/명인건축사사무소/723-8600/전남 순천시 조례동 1597-1

천태영:충남대/(주)청전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488-0001/대전시 서구 탄방동 690

최도승:1959년생/경희대/신한ENG건축사사무소/3141-266/마포구 성산동 53-9

최영수:1963년생/강원대/대지건축사사무소/511-2777/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442-7

최인선:1957년생/건축사사무소 그룹이환/473-1813/강동구 성내동 552-4

한만중:1960년생/경희대/한솔건축사사무소/65-9200/충남 서산시 동문동 707-1

한병호:1966년생/영남공전/건축사사무소 미가/756-0111/대구시 동구 신천동 139-6

한형민:1963년생/순천공전/예향건축사사무소/723-8236/전남 순천시 조례동 1597-1

함상규:1959년생/국민대/(주)청전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488-0001/대전시 서구 탄방동 690

홍종형:1960년생/경원공전/(주)성우종합건축사사무소/755-1010/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5-7

황경섭:1960년생/서울시립대/(주)일건미건축사사무소/593-9162/서초구 방배본동 792-10 일건빌딩 1층

황진흥:1961년생/동의대/건축사사무소 라인/52-0703/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21-17 성민데파트 104

※ 고칩니다.

- 지난호(97년 4월호) 「신입회원」 명단중 일부 회원의 사무소 전화번호가 틀리게 게재되어 다음과 같이 고칩니다.

〈p. 126〉
김천규 : 3472-092 → 3472-0924
박종술 : 3472-535 → 3472-5353

- 97년 1월호(통권 제333호) 「기획특집 1 : 외국사와의 공동설계,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중 70쪽 하단 〈표2〉의 「1983~87 국제그룹사옥」과 「1988 하얏트 리젠트제주」를 각각 「1981~84 국제그룹 사옥」, 「1988 하얏트 리젠트 부산」으로 바로 잡습니다.
참고로 하얏트 리젠트 제주는 동해건축(現 삼정건축 / 대표 이원혁)에서 1985년에 설계한 프로젝트임을 알려드립니다.

충북건축사회 전화번호 변경 안내

97년 4월 15일부터

충북건축사회 전화번호가 지난 4월 15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	56-2752 53-7341 53-7342	223-3084 223-3085 223-3086 223-3088
팩스	55-9151	223-3089

직원모집

함께 일할 새가족을 찾습니다

(주)한목건축사사무소
- 계획 및 설계
  아파트설계 유경험자
- 수시모집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7 하남빌딩 904호
  Tel : 761-6691-5
  Fax : 761-6695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핵
- 계획설계분야 O명
  실시설계분야 OO명
- '97. 5. 20까지(경력사원)
- 서울 서초구 양재동 75-2 성우빌딩 5층
  Fax : 571-1329

97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시험장소 공고

건축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시험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5월 1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구 분	건 축 사 예 비 시 험			
시험일자	97. 5. 11(일)			
시험기간	10 : 00~12 : 20(140분간 연속 실시)			
시험과목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계획 - 객관식 선택형			
시험장소	응 시 번 호	시 험 장 소	소 재 지	교 통 안 내
	00001~06730	서울대학교	관악구 신림동 72-1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하차, 버스 10분
	06732~12999	건국대학교	광진구 모진동 93-1	지하철 2 · 5호선 건대입구역 하차, 도보 5분
주의사항	①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②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해당학교 이외에는 수험이 불가하니 시험시작 30분전까지 반드시 지정학교,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③ 시험장내에는 차량 진입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고려건축사사무소
- 계획 및 설계(경력 2년이상) O명
  CAD경험자 우대
- '97. 4. 30까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44 정숙빌딩 3층
  Tel : 0652) 86-3131
  Fax : 0652) 82-0548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 기획연구실(실장 및 경력사원) O명
  설계실(실장 및 경력사원) OO명
  감리실(건축,기계,전기,토목분야 경력사원) O명
- 수시모집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18 역삼빌딩
  Tel : 538-9966, Fax : 538-9266

(주)삼도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축설계(실무경력 4년이상) O명
  건축계획(실무경력 6년이상) O명
- '97. 5. 30일까지
-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1-8 동성빌딩 3층
  Tel : 585-0125~8
  Fax : 585-8126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축설계 및 감리 O명
  전문대졸 이상, 기사1급 소지자 우대
- '97. 5. 7 ~10일까지
- 서울 양천구 신정동 978-14(우:158-074)
  Tel : 699-3999

(주)아키플랜 종합건축사사무소
- 계획설계(경력 3년이상) O명
  PM(경력 10년이상) O명
  실시설계(경력 5년이상) O명
  공사감리(감리경력 2년이상) O명
  - 설계업무수행가능자(건축, 토목)
  건축행정관리(경력 3년이상) O명
  전산부문(실무경력 6년이상) O명
- 입사지원서 배부중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37 일송빌딩 12층 연구관리본부 자료행정팀
- Tel : 528-3700, 3726

(주)에이텍 종합건축사사무소
- 설계(건축분야 경력사원) ○명
  감리(건축, 토목, 설비, 전기분야 경력사원) ○○명
- 1차 - '97. 5. 20한
  2차 - 수시모집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6-18 반도빌딩 4층
  Tel : 3462-6366
  Fax : 3463-6139